
2017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연구

2017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연구

발행인

양현미

발행일

2018.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시민교육본부장	노준석
시민교육팀장	최지윤
시민교육팀	이 화
아동청소년교육팀	이승규

등록

KACES-1721-R005

ISBN

978-89-6748-259-6(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7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책임연구원

조재현 (주)메이븐스퀘어 이사

공동연구원

박성만 (주)메이븐스퀘어 이사

차민경 (주)메이븐스퀘어 연구위원(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원

이지성 (주)메이븐스퀘어 과장

연구보조원

김명희 (주)메이븐스퀘어 주임연구원

강민구 (주)메이븐스퀘어 주임연구원

김복희 (주)메이븐스퀘어 주임연구원

자문위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백선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주)메이븐스퀘어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II.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환경 분석	19
1.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과 유형	21
2.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법·정책의 흐름	27
III. 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사례분석	33
1. 국내 사례 분석	35
2. 해외 사례 분석	59
3. 소결	75
IV.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현황 및 수요조사	81
1. 조사개요	83
2.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운영 현황	84
3.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 현황	119
4.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관련 욕구	131
5. 소결	171
6. 시사점	178
V.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189
1.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기본 방향	191
2.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과제	200
3.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체계	209
참고문헌	211
부록	215

표 목차

〈표 I-2-1〉	문화예술 동아리 조사 기관 조사체계	6
〈표 I-2-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7
〈표 I-2-3〉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광역문화재단 현황	9
〈표 I-2-4〉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기초문화재단 현황	9
〈표 I-2-5〉	주민자치센터 수와 명칭이용실태	10
〈표 I-2-6〉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개관 현황(2017.12.15 기준)	12
〈표 I-2-7〉	행복학습센터 설치 현황	13
〈표 I-2-8〉	공공도서관 설치 현황	14
〈표 I-2-9〉	지방문화원 설치 현황	15
〈표 I-2-10〉	문화의 집 설치 현황	15
〈표 III-1-1〉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연도별 추진 실적	40
〈표 III-1-2〉	권역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실적	41
〈표 III-1-3〉	전국생활문화축제 연도별 추진 실적	41
〈표 III-1-4〉	2018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규모	44
〈표 III-1-5〉	서울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48
〈표 III-1-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단계별 발전 계획	50
〈표 III-3-1〉	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사례 지원 종류 정리	75
〈표 IV-1-1〉	응답자 특성	83
〈표 IV-2-1〉	회원 모집 시기	85
〈표 IV-2-2〉	(정기 기간 모집 시) 모집 기간	87
〈표 IV-2-3〉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89
〈표 IV-2-4〉	(자격 요건 요구 시)구체적 자격요건	91
〈표 IV-2-5〉	회원 모집 방법	93
〈표 IV-2-6〉	총 회원 수	95
〈표 IV-2-7〉	임원 수	97

〈표 IV-2-8〉	총 회원 중 활동 회원 비중	99
〈표 IV-2-9〉	회비 납부 회원 유형	101
〈표 IV-2-10〉	2017년 연간 예산 규모	103
〈표 IV-2-11〉	강사/전문가 보유 여부	105
〈표 IV-2-12〉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인원	107
〈표 IV-2-13〉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소속	109
〈표 IV-2-14〉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초빙 방법	111
〈표 IV-2-15〉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1순위)	113
〈표 IV-2-16〉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1+2순위)	114
〈표 IV-2-17〉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시간 당 사례비	116
〈표 IV-2-18〉	(강사/전문가 미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118
〈표 IV-3-1〉	동아리 활동 장르	120
〈표 IV-3-2〉	주 활동 유형	122
〈표 IV-3-3〉	운영비 조달처	124
〈표 IV-3-4〉	운영비 재원 조달 순위	126
〈표 IV-3-5〉	2017년 활동 지출 경비	128
〈표 IV-3-6〉	2017년 지출경비 중 강사비 비중	130
〈표 IV-4-1〉	현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2
〈표 IV-4-2〉	(만족도 긍정 평가자) 만족 이유	134
〈표 IV-4-3〉	(만족도 부정 평가자) 불만족 이유	136
〈표 IV-4-4〉	운영 방향	138
〈표 IV-4-5〉	내부 활동 활성화 정도	140
〈표 IV-4-6〉	외부 활동 활성화 정도	142

〈표 IV-4-7〉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해당 분야 지역 예술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	144
〈표 IV-4-8〉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	145
〈표 IV-4-9〉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매개자 (동아리/동호회)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	147
〈표 IV-4-10〉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운영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148
〈표 IV-4-11〉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	150
〈표 IV-4-12〉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 : 1회차 당 교육 시간	152
〈표 IV-4-13〉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 : 연간 총 교육 회차	154
〈표 IV-4-14〉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	156
〈표 IV-4-15〉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강사의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	158
〈표 IV-4-16〉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	159
〈표 IV-4-17〉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	160
〈표 IV-4-18〉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효과	162
〈표 IV-4-19〉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 효과	164
〈표 IV-4-20〉	동아리(동호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참여 의향	166

〈표 IV-4-21〉	(참여의향 긍정 평가자) 참여 이유	168
〈표 IV-4-22〉	(참여의향 부정 평가자) 비 참여 이유	170
〈표 IV-5-1〉	동아리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74
〈표 IV-6-1〉	다 회차 기본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178
〈표 IV-6-2〉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179
〈표 IV-6-3〉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180
〈표 IV-6-4〉	운영장비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181
〈표 IV-6-5〉	홍보 및 행정 교육 및 연수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182
〈표 IV-6-6〉	교육지원별 수용도 평균 비교 분석	183
〈표 IV-6-7〉	중점 운영방향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인식 평균 비교	184
〈표 IV-6-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85
〈표 IV-6-9〉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변수의 정의	185
〈표 IV-6-10〉	일반적 특성과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86
〈표 IV-6-11〉	운영 실태와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87

그림 목차

〈그림 II-1-1〉	우리 국민 동호회 활동 유형	21
〈그림 II-1-2〉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21
〈그림 II-1-3〉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지속 이유	23
〈그림 II-1-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요구 사항	24
〈그림 II-1-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비율	26
〈그림 II-2-1〉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31
〈그림 III-1-1〉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	35
〈그림 IV-2-1〉	회원 모집 시기	84
〈그림 IV-2-2〉	(정기 기간 모집 시)모집 기간	86
〈그림 IV-2-3〉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88
〈그림 IV-2-4〉	(자격 요건 요구 시)구체적 자격요건	90
〈그림 IV-2-5〉	회원 모집 방법	92
〈그림 IV-2-6〉	총 회원 수	94
〈그림 IV-2-7〉	임원 수	96
〈그림 IV-2-8〉	총 회원 중 활동 회원 비중	98
〈그림 IV-2-9〉	회비 납부 회원 유형	100
〈그림 IV-2-10〉	2017년 연간 예산 규모	102
〈그림 IV-2-11〉	강사/전문가 보유 여부	104
〈그림 IV-2-12〉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인원	106
〈그림 IV-2-13〉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소속	108
〈그림 IV-2-14〉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초빙 방법	110
〈그림 IV-2-15〉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112
〈그림 IV-2-16〉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시간 당 사례비	115
〈그림 IV-2-17〉	(강사/전문가 미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117

〈그림 IV-3-1〉	동아리 활동 장르	119
〈그림 IV-3-2〉	주 활동 유형	121
〈그림 IV-3-3〉	운영비 조달처	123
〈그림 IV-3-4〉	운영비 재원 조달 순위	125
〈그림 IV-3-5〉	2017년 활동 지출 경비	127
〈그림 IV-3-6〉	2017년 지출경비 중 강사비 비중	129
〈그림 IV-4-1〉	현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1
〈그림 IV-4-2〉	(만족도 긍정 평가자) 만족 이유	133
〈그림 IV-4-3〉	(만족도 부정 평가자) 불만족 이유	135
〈그림 IV-4-4〉	운영 방향	137
〈그림 IV-4-5〉	내부 활동 활성화 정도	139
〈그림 IV-4-6〉	외부 활동 활성화 정도	141
〈그림 IV-4-7〉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143
〈그림 IV-4-8〉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 : 1회차 당 교육 시간	151
〈그림 IV-4-9〉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 : 연간 총 교육 회차	153
〈그림 IV-4-10〉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	155
〈그림 IV-4-11〉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157
〈그림 IV-4-12〉	동아리(동호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참여 의향	165
〈그림 IV-4-13〉	(참여의향 긍정 평가자) 참여 이유	167
〈그림 IV-4-14〉	(참여의향 부정 평가자) 비 참여 이유	169
〈그림 V-1-1〉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지원을 위한 4대 기본방향	191
〈그림 V-2-1〉	생활문화 문화매개자양성을 위한 매트릭스 교육모형	204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은 자발성과 자기주체성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인 소모임 형태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은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볼 때, ‘향유(감상·관람·강연)-학습(배움·발표·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 활용·참여(작품창작 활동·자원봉사)’의 전 과정과 연계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자들의 효과도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최근에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시민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춰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동아리 지원의 유형화 및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에서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국내외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관련 문헌분석 및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외 지원 사업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 비교분석과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여 사업목표 및 방향성, 사업특성, 추진방식, 내용 등을 도출함.

- 또한 국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동호회) 현황조사를 위해 공공영역(지역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과 민간영역(사립대학교,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인터넷동호회, 미디어센터, 50플러스재단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 조사시기는 2018년 1월 3일 ~ 2월 9일까지 실시함.

구분	조사대상 수	조사 응답수	비율(%)	응답율(%)
지역문화재단	90	122	13.8	135.6
주민자치센터	100	96	10.9	96.0
생활문화센터	150	224	25.4	149.3
평생학습관(센터)	100	88	10.0	88.0
도서관	60	68	7.7	113.3
지방문화원/문화의집	90	60	6.8	66.7
사립대학교	20	67	7.6	335.0
민간기업	180	24	2.7	13.3
인터넷동호회	150	94	10.7	62.7
기타(미디어센터, 50플러스재단)	-	39	4.4	-
합계	1,000	882	100	88.2

-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써 4대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정책과제로서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등을 제시함.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문체부와 지자체 매칭예산(총 30억 규모) 사업으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함에 따라 국내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음. 특히 중앙-지방, 광역-기초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아리, 동호회, 마을공동체, 시민문화 활동 등 유사한 문화 활동과의 연계·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반을 모색함.
- 또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자생적으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문체부와 지자체, 수요자로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정가 및 현장 컨설턴트와 코디네이터 등의 매개자 그룹들이 동아리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될 가이드로서 활용이 가능함.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환경 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현황

-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동호회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산하공공기관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특히 지자체(광역시 및 기초) 차원에서 지역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생활문화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사랑방 문화클럽네트워크라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또한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역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많은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

구분	사업명	주관/주최
중앙정부 추진	직장인 및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생활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독서 동아리 및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지원 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학 동아리 작가 멘토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자체 추진	(서울문화재단) 시민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서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생활문화디자이너, 매생이 등)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부천시) 생활문화연합회 및 시민아트밸리사업 (수원시) 시민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고양시) 지역생활예술인 동호회 발굴육성 지원 사업 (군포시) 생활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제 지원 사업 (의정부시) 문화예술 동호회 공연활동 지원 사업 * 기타 안산시/광주시(‘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사업) 등	경기
	(인천문화재단) 문화공동체 활성화, 시민문화 활동 지원 사업 등	인천
	(대전문화재단)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사업	대전
	(대구문화재단) ‘1인 1동호회 운동’ 캠페인,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생동지기 등)	대구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광주
	(전북문화관광재단)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전북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지원 사업	충북
	(충남문화재단) 도민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충남

※ 자료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조사를 진행함

2.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례분석을 통한 유형화

- 국내외 문화예술 동아리의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종합해 보면, 9개의 범주로 정리될 수 있음. 동아리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은 최근들어 해외와 국내가 큰 차이가 없음. 차이가 있다면,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정부정책으로서 동아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국내외 모두 공간, 발표기회, 네트워크, 교육 지원, 홍보 지원 등을 고루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내에서도 생활문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 특징임.
- 해외의 경우, 공간 지원과 발표 기회 등 간접 지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홍보 지원도 다수 있음. 교육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툴킷(toolkit) 제작 및 배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의 경우, 초반에는 직접적인 동아리 운영비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간접 지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대부분임. 특히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생활문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에 의한 나눔활동, 동호회에서 직접 만든 소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플리마켓(벼룩시장) 등 공동체성과 시민성이 확장된 동호회로 발전하기도 함. 단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보다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지원 종류	지원 프로그램(국내)	지원 프로그램(해외)	내용
단체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발표회, 전시회, 단체 운영 실비 지원
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 지원' · 문예회관 '우리동네 예능인 프로젝트' · 문화원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자발적 예술' Our Cultural Commons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일본 BankArt 1929 · 게이츠헤드 '발틱현대미술관' 	문화예술 동아리 연습 및 발표 공간을 무료 또는 저가에 대관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 방안 제시
물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메이킹 뮤직(Making Music)'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 악기, 교재, 설비 등을 저가로 대여 또는 구입
발표기회 및 동아리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회관 '우리동네 예능인 문화예술 교육축제'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행복페스티벌)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학동아리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전국생활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자발적 예술'의 '자발적 예술 주간' · 영국 '메이킹 뮤직' 아마추어 뮤직 페스티벌 · 일본 '국민문화제' 	동아리 발표 기회 제공, 동아리 홍보 기회 제공 신입회원 모집 타 동아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시민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참가지원	· 로테르담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	
네트워크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전국생활문화축제'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시민예술 동아리 네트워킹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단(생활문화 동호회로 구성) 순회파견	· 영국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	회원 간 친목도모 단체 운영 관련 정보 교류 단체 문제의 창의적 해결 지역사회와의 교류 촉진
교육지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 충북문화재단 플랫폼 강사 파견 사업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멘토링 지원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단계별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교육 지원	· 영국 게이츠헤드 '세이지음악당'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제공 교육 강사 인건비 지원 단체 운영, 기획 등의 교육 제공
매개자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 '문학동아리 작가 멘토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디자이너' 양성 · 충북문화재단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문화 기획자 인력 배치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일본 BankArt 1929	지역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자의 양성 매개자의 교육 지원 매개자의 활동비 지원
홍보지원	·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 영국 '자발적 예술'의 Everyday Creative, Get Creative 캠페인	동아리 대외 홍보 지원 대국민 아마추어 예술활동 인식 개선

□ 문화예술 동아리 현황 및 수요조사

1. 국내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현황

○ 문화예술 관련 882개 동아리(동호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동아리 회원 모집, 회원 구성, 회비 관련

- 회원 모집시기는 <비정기/수시 모집>이 59.4%, <정기 모집>이 37.5%로 나타났으며,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정기모집 비중이 높음.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 54.4%, <기존 회원/지인 추천 모집>이 38.4%로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개모집 비중이 높음.
- 동아리의 평균 회원 수는 32.1명(인터넷동호회 제외시 20명), 임원 수는 3.5명으로 전체 회

원 중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 성별로는 남자회원이 12.4명으로 38.6%, 여자회원은 19.7명으로 61.4% 비중을 차지함. 전체 동아리 회원 중 활동 회원은 평균 78.4%로 회원 규모별로는 차이(중/소규모는 높고 대규모는 낮음)가 있는 반면, 예산 규모별로는 큰 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49.9%로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회비납부 회원 비중이 높음. 동아리 한해 총 예산은 <100만원 미만>이 30.5%, <100~300만원 미만>이 27.2%임.

○ 동아리 강사 관련

- 강사/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동아리는 71.7%이며, 평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강사/전문가의 소속은 동아리 회원은 50.0%, 외부 강사/전문가는 71.7%를 차지함.
- 강사/전문가 사례비는 시간 당 <3~5만원 미만>이 55.4%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나,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강사/전문가의 비용 부담>(32.5%)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어, 향후 강사/전문가의 교육 지원에 대한 잠재 욕구는 매우 높음.

○ 동아리 활동 장르 관련

- 동아리의 주 활동 영역은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적인 활동>이 54.3%, <강좌/강습 등의 교육>이 27.6%, <참여/관람 등의 체험>이 9.3%로 전반적으로 프로슈머로서의 활동 의지와 역할 수행이 엇보임.
- 한편 활동장르별로 영화(35.7%)와 공예(31.3%)가 <참여/관람 등의 체험>에서, 문학(34.1%)은 <강좌/강습 등의 교육>에 상이한 응답을 보임.

○ 동아리 운영비 관련

- 동아리 운영비 조달은 회비 납부(정기적 57.3%, 비정기적 31.7%)와 공공지원금(32.5%), 기부금(19.7%), 민간기업 지원금(8.0%)¹⁾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 조달의 우선 순위는 공연수입금(1.9위) > 정기적 회비(2.1위) > 공공지원금(2.3위) > 비정기적회비(2.6%) 등으로 나타나 운영비의 다변화로 바람직한 양상을 띠고 있음.
- 활동 지출 경비는 강사비(50.0%), 공간임대료(29.7%), 공연/전시 사례비(27.3%) 등의 순이며, 강사비를 지급하는 동아리(동호회)는 연간 전체 지출 중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달함.

1) 민간기업 지원금 순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에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포함되어 조사결과로 나타난 비율이며, 민간기업의 사내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내복지 차원에서 소정의 동아리/동호회 활동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유형

-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84.6%로 나타났고, 소속유형별로는 <지역문화재단>(93.4%)이, 활동장르별로는 <사진>이 95.9%를 차지함. 만족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57.9%, <공동체 간 관계인식에 도움>이 32.8%, <지역사회에 도움>이 19.8%, <정기적인 발표 등 자존감에 도움>이 16.1% 순
-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문성 향상의 부족>이 19.2%, <장비 및 공간 임대 등 지출부담>이 13.5%, <경연/축제 등 참석에 대한 부담>이 3.8% 순
-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내/외부 병행 활동>이 48.4%, <내부 활동 중점>이 29.5%, <외부 활동 중점>이 19.5% 순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관련 수요

- 제시한 5가지 지원 유형 중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이 51.3%로 가장 지원 욕구가 컸고, <해당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이 49.5%,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이 44%, <운영장비(조명/음향)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이 39.9%, <홍보, 기획서 및 기부행정 관련 교육>이 38.9% 순
-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66.7%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85.7%로 가장 많음.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 클래스(상위) 교육>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67.0%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85.7%로 가장 많음. <매개자(동아리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58.3%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78.6%로 가장 많음. <운영 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영 방법 교육>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55.2%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71.4%로 가장 많음.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49.6%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 71.4%로 가장 많음. 모두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타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고, 결성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다 회차 교육은 10회차 2시간 정도에 강사의 수준은 <기초(초급) 과정>(8.8%)에 비해 <중급 초반>(30.6%), <중급>(29.4%), <고급(심화) 과정>(22.7%)이 다수를 차지함.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및 참여의향

- <삶의 활력>이 78.1%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예술적 기량 향상>이 76.3%,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가 73.7%, <공동체성 함양>이 70.2%. <경제적 부담 완화>가 66.9% 순. <삶의

활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았음.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76.5%로 나타났으며, 회원규모가 클수록 참여의향이 많음. 이유로는 <동아리의 예술적 기량 향상 기대>가 49.6%로 가장 많았음. 반면에 비 참여하는 이유로는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가 40%를 차지함.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5가지 유형 중 대부분은 지역권역별과 소속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의 현황별로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은 동아리 결성시기별과 중점운영방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특히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지원은 신생 동아리일수록 높은 지원의사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내부와 외부 활동을 병행하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높은 필요성을 보임.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중점 운영방향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평균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를 엿 볼 수 있음.

- 현재 동아리(동호회) 운영을 내부 활동 중심과 내·외부 활동 병행 중심 동아리(동호회)로 구분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예술적 기량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운영 역량 강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들 운영방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내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아리(동호회)라 할지라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적 기량 향상과 운영 역량 강화를 얻고자 함은 결코 낮지 않음을 의미함
- 반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공동체성 함양, 삶의 활력 등은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들 3가지 요인 모두 내·외부 활동 병행 중심 동아리(동호회)가 더 높은 기대감을 지니고 있음.

○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대상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적 참여 결정을 하는 집단/계층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변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계층 중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계층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계층
일반 특성	지역권역별	강원/제주권	-
	소속유형별	기타(미디어센터, 50플러스센터)	사립대학교, 인터넷동호회
운영 실태	현 강사/전문가 활용유무	강사/전문가 활용하고 있는 집단	-
운영 방향 인식	중점운영방향별	내부+외부 활동 병행	내부 활동 중심, 외부 활동 중심
	내부활동 활성화	타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미흡한 집단	-
	외부활동 활성화	타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미흡한 집단	-

동아리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조사 항목	주요 응답 내용
동아리 회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모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기/수시 모집〉(59.4%), 〈정기 모집〉(37.5%)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정기모집 비중 높음 모집 기간 : 〈연간별〉(33.2%), 〈분기별〉(25.4%), 〈반기별〉(18.7%), 〈월별〉(4.2%)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반기별 모집 비중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50.2%),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4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모집〉(54.5%), 〈기존 회원/지인 추천 모집〉(38.4%)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개모집 비중 높음
동아리 회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회원 수 (남자 회원수/여자 회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당 평균 32명, 〈인터넷동호회〉는 평균 85명으로 이를 제외 시 평균 20명 수준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많음, 장르별로는 영화 67명, 음악 48명, 공예 42명, 전통예술 35명, 사진 34명, 무용 31명, 연극 29명, 미술 19명, 문학 18명 순 성별로는 평균 남자회원 수 12.4명(38.6%), 여자회원 수 19.7명(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평균 3.5명 → 회원 수가 많을수록 임원 수도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중 주 활동 회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동아리 중 78.4%가 활동 중이며, 전체 동아리 회원 중 90%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45.4%로 가장 비중 높음
동아리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회비의 납부 회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또는 비정기 회비 납부 회원 49.9%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회비 납부 회원 비중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한해 총 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미만〉(30.5%), 〈100~300만원 미만〉(27.2%)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예산규모가 큼
동아리 강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하는 강사 및 전문가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동아리에서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1.1% 활용하는 강사나 전문가는 전체 동아리 평균 1.7명, 1명이라 응답한 비중은 68.2% → 결성시기가 짧은 동아리일수록 강사/전문가 보유 비중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및 전문가의 내외부 여부 (강사/전문가 섭외 고려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강사/전문가〉(48.9%), 〈내부 동아리 회원〉(27.2%),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22.8%)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 비중이 높음 활동장르별로 강사/전문가 구성의 경우, 내부 동아리 회원은 〈사진〉이 46.6%, 외부 강사/전문가는 〈연극〉이 70%,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는 〈영화〉가 62.5%로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 강사/전문가 시간당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만원〉(29%), 〈3만원 미만〉(26.4%), 〈5~10만원 미만〉(13.8%), 〈10~20만원〉(4.3%), 〈20~30만원〉(1.04%) 순 → 대체로 〈5만원 미만〉이 55.4%로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및 전문가 도움받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전문가 비용 부담〉(32.5%), 〈동아리 설립 및 활동목적과 맞지 않음〉(22.9%), 〈자책적으로 교육이 가능〉(9.9%), 〈강사의존도가 높아져 자발성 저하 우려〉(7.3%), 〈동아리 모임시간과 맞지 않음〉(3.2%), 〈회원 간 실력차가 커서 수업진행의 어려움〉(2.5%) 순
동아리 활동 장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35.3%), 〈무용〉(14.5%), 〈전통예술〉(12.9%), 〈미술〉(11.9%) 순
동아리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의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전시/창작/제작 등 생산적 활동〉(54.3%), 〈강좌/교습 등 교육〉(27.6%), 〈참여/관람 등 체험〉(9.3%), 〈토론〉(2.2%), 〈봉사〉(2.0%) 순 →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공연/전시/창작/제작 등 생산적 활동〉이나, 〈참여/관람 등 체험〉에서 〈영화〉(35.7%), 〈공예〉(31.3%)가 많은 응답을 보였고, 〈문학〉(34.1%)은 강좌/교습 등 교육에 많은 응답을 함
동아리 운영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운영비 마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회비 납부〉(57.3%), 〈공공지원금〉(32.5%), 〈비정기적 회비 납부〉(31.7%)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 지출 경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비〉(50.0%), 〈공간 임대료〉(29.7%), 〈공연/전시 사례비〉(27.3%) 순 → 활동장르별로 지출경비가 많은 분야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 경비 중 강사비용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지출 대비 52.9% 지출 →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강사비 지출 비중이 높음. 활동장르별로 〈영화〉(71.3%), 〈전통예술〉(61.6%), 〈공예〉(59.6%), 〈무용〉(57.8%), 〈미술〉(57.5%), 〈사진〉(53.2%), 〈음악〉(53.1%) 순
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한다〉(84.6%)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소속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93.4%), 〈인터넷동호회〉(89.4%), 〈도서관〉(88.2%) 순. 활동장르별로 〈사진〉(95.9%), 〈전통예술〉(89.5%), 〈공예〉(87.5%), 〈미술〉(86.9%), 〈무용〉(85.9%), 〈음악〉(84.6%), 〈문학〉(82.9%), 〈연극〉(73.1%), 〈영화〉(71.3%)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삶의 질 향상〉(57.9%), 〈공동체 간 관계인식에 도움〉(32.8%), 〈지역사회에 도움〉(19.8%), 〈정기적인 발표 등 자존감에 도움〉(16.1%), 〈전문성 습득에 도움〉(15.3%)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많은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만족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향상의 부족〉(19.2%), 〈장비 및 공간 임대 등 지출부담〉(13.5%), 〈경연/축제 등 참석에 대한 부담〉(3.8%), 〈대외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부족〉(3.8%), 〈실력향상에 대한 부담〉(1.9%) 순 →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전문성 향상의 부족〉에 많은 응답을 했으나, 〈장비 및 공간임대 등 지출부담〉에 〈공예〉(100%), 〈영화〉(50%), 〈전통예술〉(33.3%), 〈문학〉(20%)에 많은 응답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병행 활동〉(48.4%), 〈내부 활동 중점〉(29.5%), 〈외부 활동 중점〉(19.5%) 순

	(내부활동/외부활동/내외부 활동병행)	
	교육지원 분야별 수혜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51.3%), <지역예술인의 다 화차 기본교육>(49.6%), <매가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44.0%), <운영장비(조명/음향 등)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39.9%), <홍보, 기획서 및 기부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38.9%) 순 ▪ 긍정이 49.6%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66.7%), <생활문화센터>(65.2%)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85.7%), <전통예술>(74.6%), <미술>(63.6%), <사진>과 <공예>(53.1%) 순 ▪ 긍정이 49.6%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67.0%), <지역문화재단>(54.9%), <도서관>(52.9%)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85.7%), <전통예술>(64.9%), <미술>(64.6%), <음악>(53.4%) 순 ▪ 긍정이 44%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58.3%), <생활문화센터>(56.7%), <지역문화재단>(51.6%)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78.6%), <전통예술>(62.3%), <사진>과 <공예>(53.1%) 순 ▪ 긍정이 39.9%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55.2%), <생활문화센터>(50.0%) 순. 반면 <도서관>(44.1%), <민간기업>(33.3%)은 오히려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활동장르별로 <영화>(71.4%), <사진>(57.1%), <전통예술>(54.4%) 순 ▪ 긍정이 38.9%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49.6%), <인터넷동호회>(48.9%), <민간기업>(45.8%) 순. 반면 <도서관>(35.3%), <주민자치센터>(25.0%)는 오히려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활동장르별로 <공예>(56.3%), <전통예술>(56.1%), <사진>(53.1%), <영화>(50%) 순. 반면, <문학>은 긍정(28%)보다 부정응답(36.6%)이 더 많았음 ▪ <2시간>(63.3%), <1시간>(20.1%), <3시간>(8.5%), <3시간 초과>(1.1%) 순 →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2시간> 응답이 많음 ▪ <10회차>(37.8%), <30회차 초과>(17.3%), <20회차>(13.0%), <15회차>(12.1%), <30회차 초과>(8.4%)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회원규모가 클수록 <10회차> 응답이 많음.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10회차> 응답이 많았으나, <영화>는 <15회차>(42.9%), <전통예술>은 <30회차 초과>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수혜 의향		
	교육지원 분야별 수혜의향	
	지역예술인의 다 화차 기본교육	
	전문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	
	매가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내용	운영장비(조명/음향 등)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	
	홍보 및 기획서 등 행정(기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원하는 1회차 당 교육시간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내용	원하는 연간 총 교육 회차	

		과>(34.2%)가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강사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초급)과정>은 벗어난 중급 초반과정>(30.6%), <중급과정>(29.4%), <고급(심화)과정>으로 진입과정>(22.7%), <기초(초급)과정>(8.8%) 순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에 대한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분야별 기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활력>(78.1%), <동아리 예술적 역량 향상>(76.3%),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73.7%), <공동체성 함양>(70.2%), <경제적 부담감 완화>(66.9%)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66.9%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예술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6.3%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3.7%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성(소속감/신뢰감/친목/의사소통)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0.2%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활력(만족도/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8.1%로 동아리 결성시기, 회원규모, 예산규모, 활동장르에 상관없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참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고 싶다>가 76.5%로 회원규모가 클수록 참여의향이 많음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참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의 예술적 역량 향상 기대>(49.6%), <삶의 활력>(31.8%), <강사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29.4%), <동아리의 운영 역량 강화>(27.5%), <공동체성 함양>(22.3%) 순 → 동아리 결성시기, 회원규모,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예술적 역량 향상 기대>가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사업에 비 참여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40%), <강사주도에 따른 자발성 결여>(15.6%), <공동체성 함양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우려>(15.6%)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 응답이 많음

□ 결 론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1.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을 4가지로 설정함

- 첫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의 범위는 청소년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나 일반시민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는 활동의 주체임
- 둘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동기는 자발성이며,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 셋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과정은 공동체성이며, 개인에서 집단/공동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 넷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목적은 자생성이며, 자기 주체성을 갖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개인에서 집단/공동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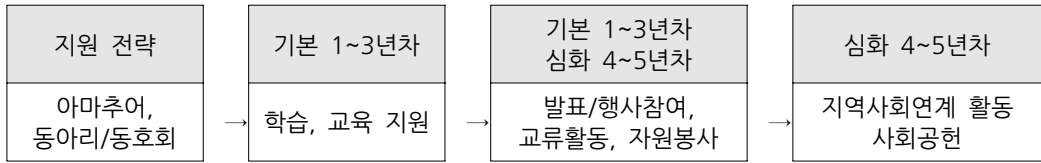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아리의 지속발전을 위한 유형별·수준별·연차별 지원 전략이 필요함

-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는 ①감상(관람·강연)→②배움(학습·교육)→③아마추어 활동(동아리·발표)→④적극적인 활용·참여(대외활동·봉사)→⑤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경제활동(동아리 강사·시민문화예술교육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음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전략이 필요함

참여 주체별	활동 유형별	예술적 수준별	운영 방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동아리 * 예술가/전문가 * 동아리 코디네이터 * 사업 행정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형 * 문화나눔형 * 사회공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6개월) 동아리 * 중급(1~2년) 동아리 * 고급(3년이상)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체형 * 예술가/강사형

- 동아리의 참여 주체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이 매우 중요함. 특히 동아리의 결성시기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으로 지원전략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아리의 결성시기가 짧아 단기 활동(1~3년차)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전략
 - 실연 및 창작 활동분야: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및 마스터교육
 - 전시 및 공연 활동분야: 관련 기술, 제작·스텝, 기획·홍보 등을 위한 기본교육 및 마스터교육
- 동아리의 결성시기가 길어 중장기 활동(4~5년차 이상)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전략
 - 실연(전시/공연) 및 창작 활동분야: 행사참여, 교류 및 합동발표, 자원봉사, 지역사회 연

계활동, 사회공헌 등



○ 주체별·유형별·수준별·운영방식별 맞춤형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추진 전략

- 참여 주체별 맞춤 지원

- (1) 문화예술 동아리: 예술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2) 예술가/전문가: 현장기반 전문 예술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전문가 연계지원
- (3) 동아리 코디네이터: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및 활동 모니터링,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발굴 및 지속 운영과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
- (4) 사업담당자: 사업운영 관리 및 행정지원

- 활동 유형별 맞춤 지원

- (1) 자기계발형(학습과 발표 중심 활동): 예술 활동 및 관련 활동 지원
- (2) 문화나눔형(일반시민, 지역주민과의 공유 활동): 행사참여 및 교류활동 지원
- (3) 사회공헌형(자원봉사, 사회공헌 중심 활동): 지역문화공동체로서 봉사활동 지원

- 예술적 수준별 맞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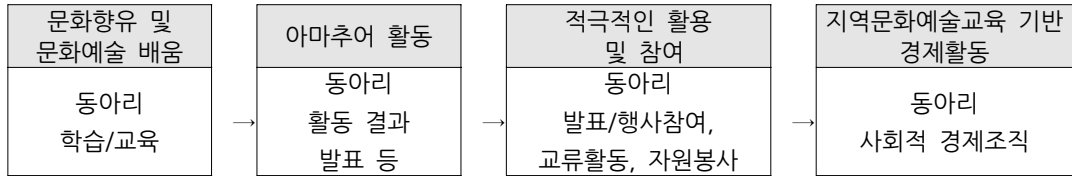
- (1) 신생(6개월 미만) 동아리(초급수준): 예술성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중심
- (2) 활동(1년~2년) 중인 동아리(중급수준): 예술성 향상 및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마스터)교육 중심
- (3) 활동(3년 이상) 중인 동아리(고급수준): 지역공동체성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연계-응용교육 중심

- 지자체 운영 방식별 맞춤 지원

- (1) 예술단체형: 동아리에 대한 예술단체의 교육지원에 따라 매개자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
- (2) 예술가/강사 파견형: 동아리에 대한 예술가/강사의 교육지원에 따라 예술적 전문성 및 교육방법 역량강화 교육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발전적 확장 모델 개발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의 범위가 확장·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간 연계추진이 필요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2~3년간 교육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해 지역문화진흥원은 기존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활성화 지원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동아리 강사)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참여자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기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 다른 형태로 역할이 가능함.
- 예컨대, 타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동호회, 문예회관의 우리 동네 예능인 프로젝트 등 지역에서 문화예술 동아리 강사로 활동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서 육성함으로써 기획·평가·컨설팅까지 가능한 지역 전문가로서 발전이 가능함.
- (시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가면서 성장 및 발전하게 될 때, 활동수준이나 범위가 넓어지면 동아리의 조직 형태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민문화예술단체’로 확장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전문성, 지역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행사참여, 교육활동, 사회공헌 등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체적인 역량으로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도 가능함.

2.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과제

1)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역점을 둔 후방 협력지원 체계 마련

-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후방지원 체계 구축
- 중앙의 경우, ‘부서관 및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 구성

2)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과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를 활용한 간접 지원 시스템의 구축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내에서 동아리 지원 매개자를 양성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활동 지원체계 구축

3)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 및 홍보

- 동아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역 공간정보 조사 및 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 시민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간으로
- 사회공헌 활동 기회 연계 및 정보 제공
-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홍보를 통한 활용도 높이기
-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4) 동아리 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동아리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 동아리를 위한 인력풀 공유 플랫폼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사례 발굴 및 소개

5)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 지속적인 사례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동기 부여를 위한 홍보 활동 진행

3.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과’와 ‘지역문화정책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통보
-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및 정산관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문체부-지자체-교육진흥원-지역운영기관) 및

정기적으로 모임 구성. 문화예술 동아리 의견 수렴

- 정성적 사업평가 방식 구축
- 동아리 활동 참여자 만족도조사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사례 발굴 및 소개

○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 지원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인력 지원
- 동아리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동아리를 위한 인력풀 공유 플랫폼 구축
-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 및 홍보
-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보조금 마련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중앙 지원금과의 매칭을 통한 생활문화 매개자 인건비 지원
-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협력

○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 구성
- 지역 상황에 맞는 간접 지원 세부계획 수립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동 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예술강사 및 개별 활동가 재교육하여 생활문화 매개자로 활용
- 사업비 집행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관리 주관
- 사업 운영·관리현황 및 결과 공유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역할

-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 생활문화 현장의 요구를 수렴
- 지역문화재단과 동아리 사이를 매개
- 동아리 수시 방문 및 의견 수렴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5.5%로 다른 동호회 활동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문체부, 2016b).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15~18세) 및 청년(19~39세)을 대상(2,534명)으로 한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 관심 있다(관심 있음+매우 관심 있음)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7.7%였고, 청년은 47.9%였으나,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 가입 여부’에서는 청소년이 94.4%가, 청년은 87%가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호회에 가입한 청소년은 5.6%, 청년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 미국국립예술기금(NEA)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8.5%가 예술 강좌 참여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NEA, 2016).
- 한편,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관련 동호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 내기가 어려워(24.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가 부족해서(17.0%)’, ‘관심이 가는 동호회가 없어서(15.5%)’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별(60세 이상 28.2%), 지역별(도심권 24.7%), 직업별(판매/서비스업 23.5%), 계층별(주부 24.2%), 소득수준별(월 400만원 미만 24.4%)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시사점이 큼(서울문화재단, 2017).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효과는 교육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교육 공간 및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서적 효과, 인지적 효과, 문화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정서적 효과>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극복함으로써 개인이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효과 지표로 ‘즐거움, 자아존중, 자기조절력, 타인 공감능력’이 포함됨. <인지적 효과>는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통해 발현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자기표현, 유창성, 순차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장 등을 포함하며, 이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현 활동(학습, 직업) 및 조직 내부의 조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

부 효과 지표로 ‘자기효능감,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인지적 발전’이 포함됨. <문화적 효과>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및 친숙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권유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확장에 기여한 효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효과지표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용성, 친숙성, 지속성, 확산성’이 포함됨. <사회적 효과>는 개인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공동체) 및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의미하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성립 및 확립을 통한 공동체 및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 효과지표로 ‘공동체 의식, 관계능력, 사회적 유대, 사회적 참여’가 포함됨.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는 ‘개인→친구/가족→학교→사회’로 확장되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며, 1차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효과에서 2차적으로는 개인의 효과가 공감과 소통, 참여를 통해 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의 효과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은 자발성과 자기주체성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인 소모임 형태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발전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은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볼 때, ‘향유(감상·관람·강연)-학습(배움·발표·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 활용-참여(작품창작 활동·자원봉사)’의 전 과정과 연계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자들의 효과도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이처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시민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맞춰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2. 연구목적

- 국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사례들을 통한 동아리 지원의 유형화 및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의 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 국내외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 동아리 사업 관련 연구물 등 문헌분석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며,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사업 관련 연구물·발간물 등 자료 조사를 통해 사업 목표 및 방향성, 사업 특성, 추진 방식, 내용 등을 이해하여 반영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관련 국내 유사사업 및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간 유사점 및 차이점 등 비교 분석을 통한 유형화 작업을 실시
- 국내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동호회) 현황조사
 - 공공영역(지역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과 민간영역(사립대학교, 일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인터넷커뮤니티기반 지역 문화동호회 등)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
- 사업 관계자 FGI 운영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문화예술 기반 동아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FGI 수행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활동유형 제시 및 분류체계 마련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관련 자생적 지속운영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 선행 분석을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현행 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해 국내외의 폭넓은 자료를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파악 및 분석

○ 국내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 현황 조사

- 국내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전화조사, 우편조사, E-mail 조사, 온라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행하여 수행
- 시설별로 문화예술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시설별 동아리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 전국의 문화예술 동아리 수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 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문화예술 동아리의 현황을 최소한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할당을 주어 설계하였으나,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최초안을 변경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은 동아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안에서는 조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영상미디어센터와 50플러스재단에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이 다수 있다는 전문가의견을 받아들여 조사기관에 포함.
- 조사 시기는 동아리 관련기관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월부터 맞춤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2018년 1월 3일 ~ 2월 9일까지 실시

〈표 1-2-1〉 문화예술 동아리 조사 기관 조사체계

(단위=개, %)

구 분	최초 안	최종 안	최종 응답수	변경안 대비 응답율
지역문화재단	30	90	122	135.6%
주민자치센터	105	100	96	96.0%
생활문화센터	68	150	224	149.3%
평생학습센터	151	100	88	88.0%
도서관	49	60	68	113.3%
지방문화원/문화의집	80	90	60	66.7%
사립대학교	80	20	67	335.0%
민간기업	180	180	24	13.3%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107	60	-	-
인터넷동호회	150	150	94	62.7%
기타(미디어센터, 50플러스등)	-	-	39	-
합계	1,000	1,000	882	88.2%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현황 조사 설문문항 구성

- 문화예술 동아리의 교육지원을 하기 위한 동아리의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동아리 회원모집 방법, 구성현황, 강사 활용여부, 운영비 마련 방법, 문화예술교육 지원 선호도 및 지원방법 등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문항으로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

〈표 1-2-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조사 항목
동아리 기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명칭 ▪ 동아리 결성시기 ▪ 동아리 주된 활동지역 등
동아리 회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모집 시기 ▪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 회원 모집 방법
동아리 회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회원수 (남자회원수/여자회원수/총 임원수/남자 임원수/여자 임원수) ▪ 회원 중 주 활동 회원 비중
동아리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회비의 납부 회원 여부 ▪ 동아리 한해 총 예산 등
동아리 강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에 강사 및 전문가 활용 여부 ▪ 활용하는 강사 및 전문가 인원 ▪ 강사 및 전문가의 내외부 여부(섭외 방법/강사 및 전문가 섭외 고려요인) ▪ 강사 및 전문가 시간당 비용 ▪ 강사 및 전문가 섭외하지 않는 이유
동아리 장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기타 등
동아리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의 활동 유형 등
동아리 운영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운영비 마련 방법 ▪ 동아리 활동 지출 경비 내용 ▪ 지출 경비 중 강사비용 비중
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의 전반적 만족도 ▪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하는 이유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방향(내부활동 위주, 외부활동 위주, 병행)
동아리 교육지원의 참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 ▪ 매가자 및 코디네이터 교육 ▪ 운영장비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 홍보 및 기획서 등 행정(기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당 교육시간 ▪ 연간 총 교육 회차 ▪ 강사의 수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부담감 완화 ▪ 동아리 예술적 기량 향상 ▪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 공동체성 함양 ▪ 삶의 활력

3. 문화예술 동아리 조사대상 관련 기관시설 현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 「민법」에 의해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20년 지난 지금,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2014)에 근거하여 현재 16개의 광역문화재단(17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69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함.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 예를 들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용이해짐. 아울러 「문화기본법」에 의해 경제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문화 민주주의, 문화자치 등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다룰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됨.
- 지역문화재단 중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이 문화 사업을 기획·수행할 때 공동체와 생활문화의 개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도로 중요함. 생활문화 활동은 일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욕구에서 비롯함.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서의 생활문화를 통해 소통, 교류와 협력, 연대, 환대 등의 가치생산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음. ‘친밀한 개인의 사적 사교성’이 아닌 ‘함께 여럿이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회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동호회 활동을 참여한 사람들보다 동호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음.

〈표 1-2-3〉 광역자치단체(시/도)의 광역문화재단 현황

광역 시								광역 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문화 재단	부산 문화 재단	대구 문화 재단	인천 문화 재단	광주 문화 재단	대전 문화 재단	울산 문화 재단	세종 시문 화재 단	경기 문화 재단	강원 문화 재단	충북 문화 재단	충남 문화 재단	전북 문화 관광 재단	전남 문화 관광 재단	-	경남 문화 예술 진흥 원	제주 문화 예술 재단

〈표 1-2-4〉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기초문화재단 현황

구분		지역문화재단명
시 (36)	경기(14)	고양시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부천시문화재단, 성남시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안산시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오산시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강원(3)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충북(2)	중원문화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3)	아산시문화재단, 천안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
	전북(2)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전남(2)	목포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
	경북(4)	구미오성문화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경주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경남(6)	사천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창원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군 (15)	대구(1)	달성문화재단
	강원(7)	영월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 홍천문화재단, 화천군정선사업문화진흥재단, 횡성문화재단
	충북(1)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전북(1)	완주문화재단
	전남(3)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담양군문화재단, 영암군문화재단
	경북(1)	청송문화관광재단
	경남(1)	거창문화재단
구 (25)	서울(16)	강남구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구로구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도봉구문화재단, 동대문문화재단, 동작구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서초구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송파구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부산(1)	금정문화재단
	대구(5)	달서구문화재단, 동구문화재단, 북구문화재단, 수성구문화재단, 도시재생문화재단
	인천(2)	서구문화재단, 부평문화재단
	울산(1)	남구고래문화재단
계		76개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자치법규)> 홈페이지에서 재구성(2018.01.06. 기준)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실생활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지방행정 개혁과 함께 추진된 읍·면·동의 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가 시작됨.
- 2016년 기준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에 2,86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549개, 서울이 422개로 가장 많고, 세종이 14개, 제주가 43개, 울산이 56개로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임.

〈표 1-2-5〉 주민자치센터 수와 명칭이용실태

(단위=개)

구분	읍면동 수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명칭사용실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주민회관	기타
전체	3,503	2,862	2,208	376	152	21	5	100
서울	424	422	43	375	2	-	-	2
부산	205	205	56	-	112	6	-	31
대구	139	132	132	-	-	-	-	-
인천	150	148	145	-	-	-	1	2
광주	95	95	88	-	7	-	-	-
대전	79	79	66	-	1	-	-	12
울산	56	56	56	-	-	-	-	-
세종	14	14	13	-	1	-	-	-
경기	561	549	523	-	5	-	-	21
강원	193	120	116	-	1	-	-	3
충북	153	153	149	-	1	-	2	1
충남	207	193	172	-	4	14	2	1
전북	241	216	194	1	1	1	-	19
전남	297	171	149	-	14	-	-	8
경북	332	76	75	-	1	-	-	-
경남	314	190	188	-	2	-	-	-
제주	43	43	43	-	-	-	-	-

*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2016.12.31기준)

-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편의상 문화여가·시민교육기능, 정보교류·협동경제기능, 지역복지·주민자치기능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문화여가·시민교육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 취미교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짐. 문화예술과 취미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각종 전시회, 발표회 등의 개최, 문화, 취미, 여가선용 등을 위한 각종 강습 및 모임을 운영할 수 있음.

2) 정보 교류·협동경제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각종 지역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교류센터로 운영될 수 있음.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물가정보, 취업,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민원행정과 관련된 정보와 중계기능을 할 수 있음. 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여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음.

3) 지역복지·주민자치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기능을 할 수 있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 가는 활동은 참된 복지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됨.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자치모임들을 주민과 연계하는 센터의 기능을 함. 기존의 모임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교육, 정보 등을 여러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더 많은 주민자치모임, 자원봉사모임이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음. 주민자치센터 내의 시설은 이러한 모임들의 회의실이나 교육장, 행사장 등으로 활용됨. 무엇보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함.

○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희공간이나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나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시설로서 2014년부터 조성하여 2017년 12월 기준, 총 128개가 조성되어 이중 91개가 개관하였고, 37개는 개관 준비 중에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유형은 역할別に 따라 거점형(시군구 단위)과 생활권형(읍면동 단위)으로 구분됨.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고, 동아리 네트워크와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활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함. 반면 생활권형은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을 위한 공간과 자율적인 문화 활동 및 생활문화동호회 형성을 지원함. 또한 운영환경별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는데, 도시형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내 유사문화시설이 많아 생활문화센터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형은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표 1-2-6〉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개관 현황(2017.12.15 기준)

지역	광역시								광역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성	3	14	7	8	7	3	3	2	14	9	3	8	14	10	8	9	6	128
개관	2	10	7	6	3	2	2	1	11	7	3	3	14	5	5	6	2	91

*출처: 지역문화진흥원(2017),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기존의 문화시설이 관람 또는 강습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한 반면, 생활문화센터는 국민(또는 주민)을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로 설정하고 주민에 의한 문화예술 참여를 주된 목표로 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존 문화시설과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조성 예산을 지원하고, 동시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유형별 컨설팅, 생활문화센터 대상 이용자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마을 단위 주민 동호회 발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별·장르별 대표 동호회 축제를 지원하며, 전국 생활문화제 개최를 통해 생활문화 활동의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동호회 활동의 유인을 제공하고, 동호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생활문화 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전문 기관(5개소)을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음. 경력자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많은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의 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임. 특히 앞으로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호회 발표·교류의 장, 문화 자원봉사와 동시에 문화취약계층,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문화 활동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임대

아파트, 농산어촌,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문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3년)하여 문화를 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목표로함.

○ 평생학습관(센터)

- 「평생교육법」(제13조 제3항)과 동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행복학습센터는 전국 92개의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서울이 10개로 가장 많고 세종은 설치되어있지 않고, 울산이 1개로 가장 적음.

〈표 1-2-7〉 행복학습센터 설치 현황

광역시								광역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	11	4	5	5	4	1	-	9	6	6	2	7	7	6	8	2	92

*출처: 교육부, 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보도자료

- 평생학습관은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도서관, 시·군·구민회관, 문화원 등 기존의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존의 역할과 아울러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평생학습관(센터)은 인생 100세 시대로 인해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와 욕구 증가에 대응하며 시민 요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적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학습을 통해 소통하는 건전한 지역공동체 발전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평생학습관(센터)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근거리 학습권 보장 : 주민 접근성 고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평생학습공간 조성
- 2)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제공 : 지역의 교육 문화 특성, 학습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 성장을 위한 전문화 : 전담 학습 매니저 배치를 통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기반 구축
- 4)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조성 : 학습 동아리, 주민 재능 기부, 마을 공동체와 연계 등을 통한 지역이 함께하는 학습 문화 조성

○ 공공도서관

-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 도서관 등으로 분류되며, 이중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 병원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과 같은 특수도서관은 제외한 국·공립 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표 1-2-8〉 공공도서관 설치 현황

광역시 시								광역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7	40	35	47	22	24	17	5	244	54	44	59	58	64	64	65	21	1,010

*출처: 문체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도서관법」(제2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체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 도서관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크고 작은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며,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함. 따라서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모든 특성과 요구를 파악, 분석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시민과 도서관의 관계에서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은 도서관의 자료와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인간생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기여해야 함.

○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공공단체)으로 1950년대 자생적으로 출범, 60년대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4년 7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함.

- 지방문화원은 시·도지사의 인기를 받아 시군구별로 1개를 설치하며, 「2017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지방문화원은 228개관으로 나타남.

〈표 1-2-9〉 지방문화원 설치 현황

광역시 시								광역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	14	8	8	5	5	5	1	32	18	11	16	14	22	23	20	2	228

*출처: 문체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함
 -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 2) 지역문화(향토 자료를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문화원은 문화정책 및 문화의 신속한 전달·교류가 있으며,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풀뿌리 문화센터 역할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초지역 문화센터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활동을 하고 있음.

○ 문화의집

- ‘문화의집’은 1996년부터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의 극복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문화창작의 실현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지역민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창작 및 문화체험, 예술교육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설립됨.

〈표 1-2-10〉 문화의 집 설치 현황

광역시 시								광역시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	-	1	4	3	-	-	9	6	7	6	12	4	6	15	18	100

*출처: 문체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의 집 조성 당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부스, 영상·음반 등 각종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AV감상실,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CD부스, 공연·전시·친목모임 등에 활용되는 문화감상실, 개인 취미활동이 가능한 공방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창작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 등으로 구성됨. 기존의 대형화된 문화센터나 문예회관과 다른 생활권 시설로서 부담없는 시설이용 및 저렴한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지역 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창작·체험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248개가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53개로 가장 많으며, 세종 1개, 대구 4개, 인천 광주가 각각 5개로 가장 적음 .

○ 인터넷 동호회(동아리)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전제로 하였던 전통적인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티의 개념이 등장으로 국내 인터넷 동호회(동아리)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1990년대 후반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인터넷 동호회(동아리)란, 온라인상에서 해당 소속 구성원들 간에 개별 또는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상호 동의하에 창출해 나가는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임. 유사한 관심사,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구성원들의 모임이라는 특성으로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중장년층(50~64세)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2016년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설립되었고, 서부캠퍼스(2016년), 중부캠퍼스(2017년), 남부캠퍼스(2018년)가 개관하였음. 향후 2020년까지 6개의 50플러스 캠퍼스가 설립될 것이며, 19개 자치구에 50플러스센터가 설립될 예정임.

4. 문화예술 동아리 조사의 한계점

-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예술 동아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모집단 수와 문화예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 동아리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아리 활동을 위해 공간대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조사함. 따라서 기

관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문화예술 동아리는 조사에 다수 포함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의 기대효과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문체부와 지자체 매칭예산(총 30억 규모) 사업으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함에 따라 국내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음.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을 위한 다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지방, 광역-기초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아리, 동호회, 마을공동체, 시민문화 활동 등 유사한 문화 활동과의 연계·협력 추진체계를 마련함 .

2. 연구의 활용방안

-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자생적으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문체부와 지자체, 수요자로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정가 및 현장 컨설턴트와 코디네이터 등의 매개자 그룹들이 동아리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될 가이드로서 활용이 가능함.

II.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환경 분석

1.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과 유형
2.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법·정책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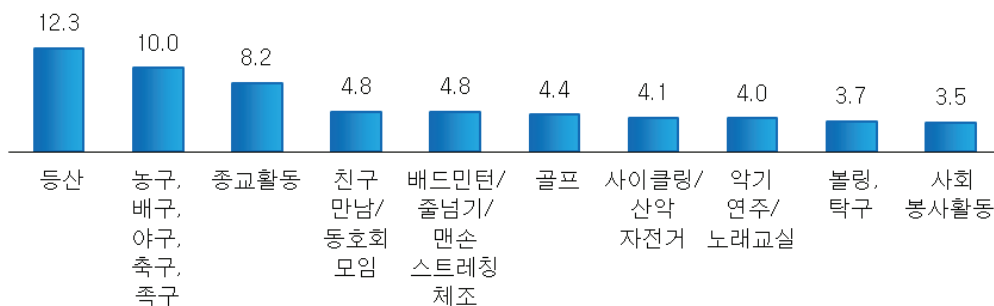
1.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현황과 유형

1. 문화예술 동아리의 운영 현황

○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정도

-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은 다른 동호회 활동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국민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동호회는 ‘등산(12.3%)’이나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10.0%)’ 등의 야외활동 관련 동호회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는 8위 ‘악기연주/노래교실’이 가장 높은 순위로 그 외의 문화예술 활동은 상위 순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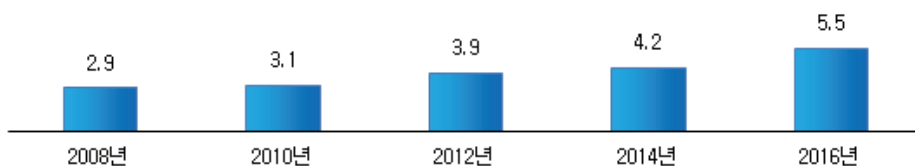
<그림 II-1-1> 우리 국민 동호회 활동 유형



문화체육관광부(2016b),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우리 국민의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은 2016년 현재 5.5%로 낮은 수치이지만,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1-2> 문화 관련 동호회 참여경험



문화체육관광부(2016a),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2015)의 조사에 따르면,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49.0%로, 의향 ‘없다’는 응답 15.5% 대비 높게 나타나 향후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전체 미국인의 8.5%가 예술 강좌 참여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4.0%)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6).

○ 성별 및 연령별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현황

-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성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5~19세와 60대 이상은 ‘문학’ 동아리가 가장 높고, 20대부터 50대는 ‘미술’ 동아리 활동을 선호함.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아리 참여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6a).
- 미국 국민 중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전체 국민의 9.9%이고 남성은 6.9%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령별로는 18~24세가 22%로 가장 높고, 25~34세가 8.1%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아마추어 예술활동이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학력 면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더욱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음(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6).

○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유형

- 서울문화재단(2015)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유형을 보면 ‘감상 위주의 동아리’가 50.4%로 가장 높으며, ‘직접 창작을 주로 하는 동아리’는 49.3%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임.

○ 장르별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현황

- 우리 국민의 장르별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경향을 보면, ‘미술’ 관련 동호회 참여 비율이 1.6%로 가장 높고, ‘문학(1.2%)’, ‘서양음악(0.8%)’, ‘역사, 철학(0.6%)’, ‘영화(0.6%)’, ‘전통예술(0.3%)’ 순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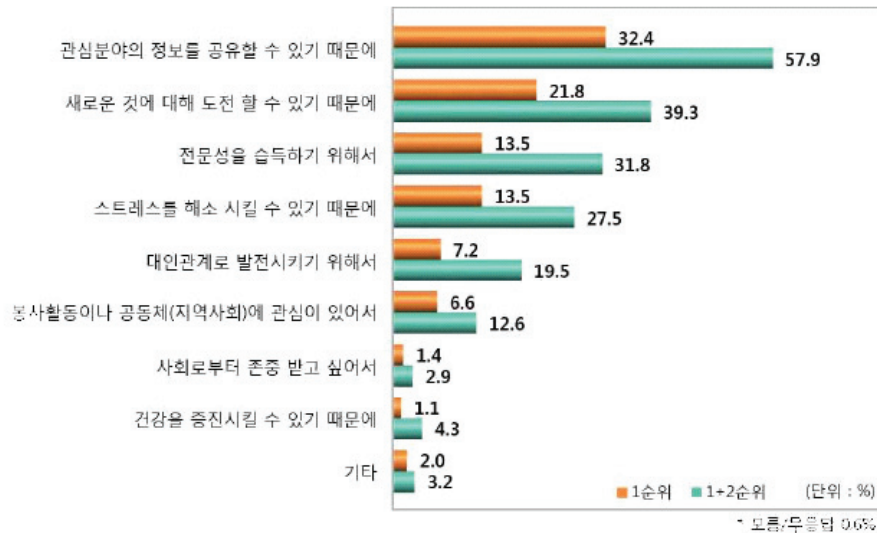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빈도

- 문화체육관광부(2016a)에 따르면,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은 주로 ‘매주 1회 정도(주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극’은 ‘2주에 1회(격주)’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문학행사’,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 ‘영화’ 관련 동호회는 더 낮은 빈도로 모여 ‘월 1회’ 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목적

- 문화예술 동아리 참가자의 활동 목적을 보면, ‘관심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가 1순위이며, 다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남(서울문화재단, 2015).

〈그림 II-1-3〉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지속 이유



백선헌 외(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간

- 문화예술 동아리 참가자의 활동공간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가장 높으며, ‘대중음악/연예’, ‘뮤지컬’, ‘영화’의 경우, 온라인 활동 비율이 높음(문화체육관광부, 2016a).
- 서울시민의 경우도 ‘직장, 학교 인근의 민간운영 공간’이 3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인근의 민간운영 공간(24.9%)’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서울문화재단, 2015).
- 독서 동아리의 경우, 주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체 1,850개 중 90.2%에 해당하는 1,669개의 동아리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원 등에 소속되어 활동함(문화체육관광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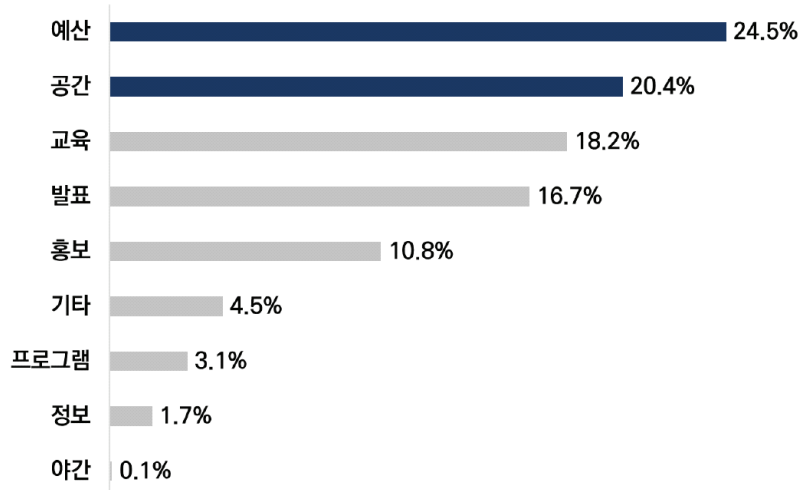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아리에 필요한 지원

- 백선헌(2017)의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원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 ‘예산지원’이 24.5%로 가장 많았고, 특히 강사 비용, 활동비, 악기수리비, 공연 시 이동차량,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남.
- 다음으로 ‘발표 및 연습 공간’(20.4%), ‘교육’(전문지도자, 상담자)(18.2%), ‘발표’(정기적인 발표기회 제공)(16.7%), ‘홍보’(동아리 관련 홍보지원)(10.8%)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임(백선헤, 2017).

〈그림 II-1-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요구 사항

(복수응답 N=897)



백선헤(201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특성과 정책제언〉

-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는 예술적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아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문예술가의 교육을 통한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동아리의 홍보, 기획, 행정, 교육 등 동아리 운영에 관련한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음(백선헤 외, 2016).
- 공공시설에 속해 이미 시설지원을 받고 있는 독서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를 이끌어 줄 강사 부재(29.0%)’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운영 재정부족(27.5%)’, ‘독서 프로그램 미흡(25.5%)’, ‘동아리 간 정보교류 및 연계성 부족(19.5%)’ 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지원유형도 ‘강사 연계 등 멘토링 서비스(51.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지원(37.9%)’, ‘운영비 지원(37.9%)’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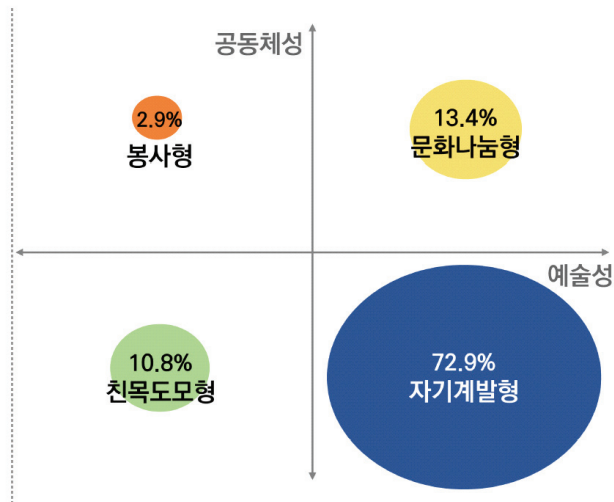
2. 문화예술 동아리의 유형

- 문화예술 동아리는 전통적인 문화예술 장르를 바탕으로 하지만,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장르별로 지원 정책을 구성하기 보다는 동아리의 활동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
-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문화예술 동아리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

의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함.

- 안성아(2006)는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에 소속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들의 활동 목적과 내용에 따라 친목 클럽, 배움 클럽, 숙련 클럽, 공헌 클럽 등 4개 그룹으로 유형화 함.
 - ‘친목 클럽’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목적을 회원 간의 친목활동에 두는 단체로 문화예술 활동도 친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술적인 전문성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임.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20대의 비중이 다소 높음.
 - ‘배움 클럽’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여성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음. 지역사회와의 교류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숙련 클럽’은 다소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추구하며 학습과 발표에 중심을 두고 있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직장인과 주부의 비중이 높음.
 - ‘공헌 클럽’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단체로 친목 교류나 예술 활동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단체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모두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많음. 또한 운영진의 권한과 리더십이 강한 편임.
- 백선희 외(2016)는 공동체성(교류, 사회공헌)과 예술성(학습, 발표)의 지향 정도에 따라 동아리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문화 나눔형, 자기계발형, 친목도모형, 봉사형의 네 가지 유형을 도출함.
 - ‘문화 나눔형’은 예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 행사 참여와 교류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인 공동체성과 예술성이 모두 높은 유형임.
 - ‘자기계발형’은 예술성은 높으나 공동체성은 낮은 형태로 예술 활동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를 통한 자기 성취 욕구가 높은 유형임.
 - ‘봉사형’은 예술적 관심은 낮으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으로 예술성은 낮으나 공동체성이 높은 유형임.
 - ‘친목도모형’은 공동체성과 예술성이 모두 낮은 경우로 예술적 관심보다 친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형임.
- 서울시민의 경우, 예술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둔 ‘자기계발형’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동아리들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높아 ‘문화나눔형(13.4%)’을 지향하는 경향을 확인함. 교류활동 중심의 친목도모형은 10.8%이며, 사회공헌을 지향하는 봉사형은 2.9%에 불과함(백선희, 2017).

〈그림 II-1-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비율



백선헌(201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특성과 정책제언〉

- 일상의 삶에서 문화 향유를 강조하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여가 및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인 생활문화의 활동유형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됨.
 - “창조형 문화활동, 봉사형 문화활동, 학습형 문화활동, 감상형 문화활동”으로 구분²⁾
 -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로 구분³⁾
 -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문화활동,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으로 구분⁴⁾
 - “예술영역(장르별 예술과 직업 연결된 활동(창작, 교육, 취미 등), 시민문화영역(등산, 독서, 체육, 여행 등과 게임,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에 걸친 생활여가의 여러 활동), 비예술영역(먹거리, 에너지, 주거, 보건, 과학, 기술 등 생활전반)”으로 구분⁵⁾

2)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3) 조광호(2015), 〈생활문화 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김종휘(2017),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 새정부의 문화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2.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법·정책의 흐름

○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 초기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법제 정비와 기본 인프라 확충과 전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향에 중심을 두었으나,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향유자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방향이 점차 전환되기 시작함. 특히 「문화기본법(법률 제15061호)」의 제정 이후, 문화향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유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획됨.
- 또한 문화의 접근성 향상과 향유에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개념에서 국민 스스로 지역문화를 창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개념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됨. ‘문화민주주의’는 국민 모두를 ‘문화창조자’로 보고 생활 속 문화창조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집중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흐름과 한계

-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지난 10여 년간 탄탄한 정책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예산과 사업 규모면에서 매우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 그러나 중앙공급형 구조와 사회취약계층으로의 대상 한정, 지나친 일자리 창출 사업에의 집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해왔음.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재정립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단기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본래 가치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일상의 미학 발견이라는 목적이 다소 퇴색되고 있는 현실임.
-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일상을 가꾸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원래 의미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부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의 중요성

-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중앙’ 중심의 문화정책 구조가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함.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민의 일상성, 감수성을 반영한 독창적 지역문화진흥을 강조하게 되었고, 정책 거버넌스 구조로 이에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됨.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중앙공급형이 아닌 지역 중심의 정책 공급구조로 변화를 요구받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지역’으로 지역의 맥락과 지역주민의 감수성, 미학이 반영될 때 사회문화예술의 본래 가치를 되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창조가 가능함.
- 문화향유는 장기간에 걸친 향유 경험과 취향 형성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지역은 먼저 위화감 없이 문화예술을 즐기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필요함. 그러나 중앙공급형 구조의 한계, 지역 거버넌스 부재, 지역 지지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임.

○ ‘생활문화’ 개념의 등장과 지원 정책의 시작

-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일상을 반영한 문화창조를 위해 국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직접 문화를 느끼고 향유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 「지역문화진흥법」(제2조) 따르면,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창조자로서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 2013년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가 8대 과제 중 4번째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를 발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진흥원’이 2016년에 설립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등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획됨. 현재는 명칭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됨.
-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주요 문화공약으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선언하면서, 보다 다양한 생활문화 환경 구축 및 지원정책 마련이 예고되고 있음. 특히 생활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참여가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문화예술 동아리의 중요성

- 문화예술 동아리는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화 활동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자기표현을 통해 자아실현 욕구를 해소하며, 공동체성을 기르는 활동임. 문화예술 동아리는 그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감수성과 미학, 그

리고 지역적 맥락이 그대로 반영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문화 활동은 지역주민의 일상성 반영이라는 ‘생활문화’의 핵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내적 욕구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문화’의 핵심인 지역성 또한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정책의제가 된 문화예술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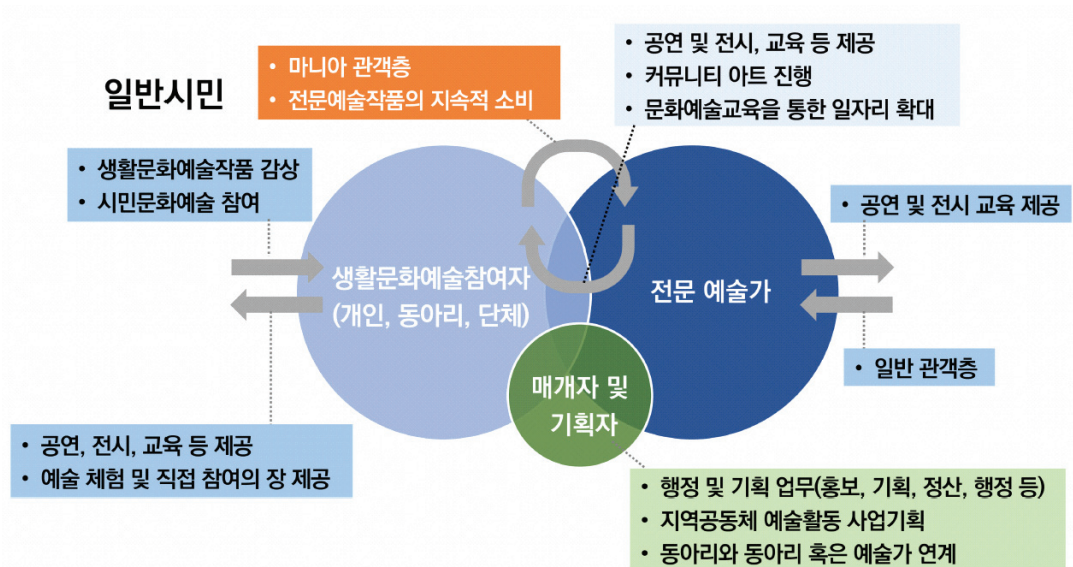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의 활동은 생활문화 진흥의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함.
-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제7조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했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제 중앙과 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다수의 지원 정책이 기획됨.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예술 동아리는 21세기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국가 지원의 형태를 고민하기 시작함. 영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술위원회를 통한 자발적 예술 활동 지원기관이 등장하였고, 일본의 경우 문화청의 ‘지역사회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기 시작함. 특히 창조도시 건립 붐과 함께 매년 우수사례 도시 선정으로 각 지방도시가 경쟁적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축제를 기획함.
- 호주 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는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s)’라는 정책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지역예술가, 지역주민, 문화시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상호 시너지를 통한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시행함. 이는 곧 지역 상황에 맞는 자생적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의 역할

- 문화예술 동아리는 개인의 문화적 욕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활동으로 국민 개개인을 문화창조의 주체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임.
- 문화예술 동아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도와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공간에서 창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생활문화가 목적으로 하는 일상 속 문화 창조를 달성시킬 수 있음(백선희 외, 2016).
-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자기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증가를 통해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도 높아짐.
- 아울러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는 전문 문화예술단체 성장의 토양을 가

꾸고 저변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어 예술생태계 선순환(창작, 매개, 수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됨.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문화예술모임이 서로 연계된 사업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백선헤 외, 2016).

〈그림 II-2-1〉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백선헤(201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특성과 정책제언〉

○ 문화예술 동아리 관련 지원 정책의 흐름

-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문화예술 동아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지역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성남시가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라는 사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음. 중앙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정책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광역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자체 조례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아직 일부 광역단체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III. 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2. 해외 사례 분석
3. 소결

1. 국내 사례 분석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직장인/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1.1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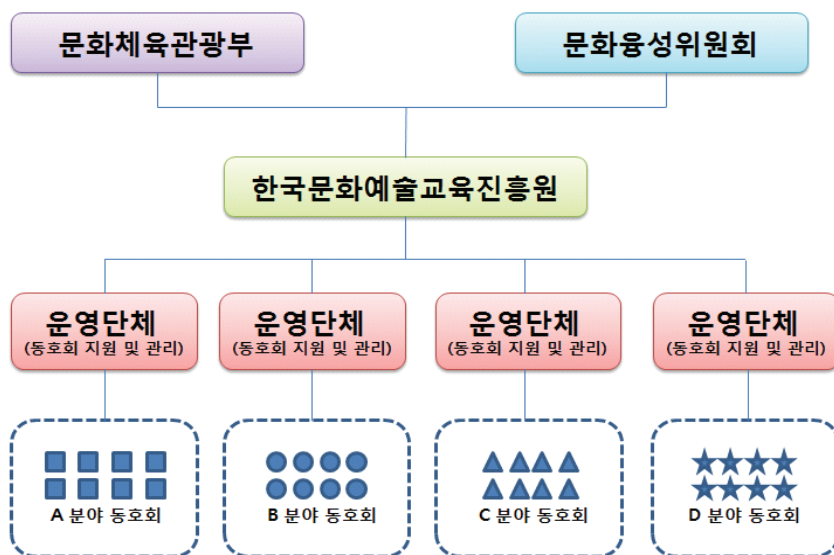
○ 사업 목표

-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근로 의욕을 증대시키고,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있음.
- 직장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문화를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촉진 및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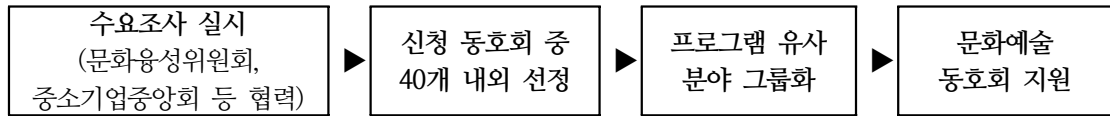
○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2016. 8월 ~ 2017. 1월(약 6개월 간)
- (소요예산) 3억원
- (지원방식) 문화예술 분야별 전문 단체 선정파견을 통한 동호회 활동 지원
- (지원규모) 문화예술 분야의 직장인 동호회 40개 내외 지원
※ 1개 동호회 당 약 7,400,000원 내외 간접 지원

〈그림 III-1-1〉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체계



- 대상 시설 수요조사 및 홍보
 - (참여기업 수요조사)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업 및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 사업 참여의 사 및 지원 희망 분야 등 수요조사를 시행함. 단일 사업체 내 복수의 문화예술동호회 신청·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음.



- 참여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 강화
 - 진흥원 홈페이지, 웹진, SNS, 블로그 게시를 통한 사업 홍보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 및 참여를 원하는 기업 대상 홍보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가친화기업’ 인증 대상 기업과 연계 홍보
- 전문 문화예술 기획 단체 선정
 - 대상 시설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 문화예술 분야 그룹화
(예 : 음악-악기, 합창, 아카펠라 등 / 미술-캘리그래피, 회화, 공예 등)
 - 그룹별 분야에 적절한 전문 문화예술 단체 선정
 - 1개 단체가 해당 그룹 내 5~8개 내외 동호회 운영·지원
 - 각 동호회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전문가 섭외 등 지원내용을 구성해야 하므로 기획 역량이 우수한 단체 선정 필요
- 선정 단체 및 관계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선정된 단체 대상으로 사업 목표, 운영 방식, 예산 지침 등 안내
 - 동호회 그룹별 오리엔테이션 개최 : 각 동호회 담당자와 해당 분야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 지원 내용 등을 안내 등
 -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운영단체가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 (동호회 희망 활동 지원) 동호회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단체를 파견, 동호회 희망 활동을 파악하여 적극 지원(※ 문화가 있는 날 활동 권고)
 - 각 동호회의 참여인원, 참여자의 수준차 유무, 성향 등을 고려하여 동호회가 원하고 만족하는 활동을 기획·지원
 - 동호회별 수요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작품 평가토론회, 전문가 마스터클래스, 공연 등을 기획·실행

- (현장체험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연계를 통한 동호회 분야 현장체험 지원
 - 동호회 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의 공연·전시회 관람 등 현장 체험 기회 제공(연 1회 내외 / 단,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 필수)
- (렉처콘서트 지원) ‘명예교사’ 프로그램 ‘특별한 하루’ 연계 지원
 - (※ 참여 동호회 해당 분야의 명예교사 유무 등 조건이 맞을 경우 지원)
- 기타 활동 지원
 - 유사 동호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마련, 재능기부 관련 노하우, 정보 제공 등(※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직장인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 나눔을 위한 대상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바, 이에 대한 고려 필요)



1.2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사업 목표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체적 문화예술 향유 경험 제공을 통해 근무 환경 및 생산성 제고와 노-사 화합 독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입주기업 간 교류를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 높임.
- 근로자와 문화예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 개발 및 발현을 통해 시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활성화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소요예산 720백만원, 22개 산업단지 대상 36개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세부 추진내용)

- 해당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 및 수요조사 추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공모·선정, 참여기관 간 매칭
- 각 운영단체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금 관리
-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 발표회 등 기획 사업 운영
- (추진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지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협력
- (특이사항) 한국산업단지공단 예산 별도 지원(140백만원 내외)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방법

- 전문 예술단체에 속한 예술가가 산업단지 내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연간 30회 내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주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 문화예술 운영단체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나, 모임의 활성화는 근로자들의 주도적 활동에 달려있음. 이에 따라 지속적 자생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 시설 및 대상 특성

- (운영목적)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시설특징) 70여개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5만여 개 입주기업과 100만 명 근로자의 산업 활동 지원. 기업(공장)설립지원, 구조고도화 사업, 생태산업단지 사업 등
- (교육대상) 국가 및 지자체 관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CEO 및 근로자 대상
- (기관현황) 21개 산업단지/36개 프로그램 진행(수요조사 <붙임> 엑셀파일 참조)
- (교육진행) 교육인원(10~50명) / 연간 정기과정 운영(30회 내외 교육지원)
- (권장사항) 기능 교육 중심이 아닌, 근로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획력 높은 단체 우선 지원 예정.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차원으로 봉사 공연 및 결과발표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으로 기획 운영할 것을 권고함.

2.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

2.1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배경

-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이 지역과 생활문화, 향유자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할 다양한 사업이 제시됨. 특히 국민 스스로 문화예술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는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문화 동호회의 활동에 주목하게 됨.
- 생활문화 동호회는 음악, 미술, 무용,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게 하는 핵심적인 공동체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표와 원칙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 동호회가 함께 하는 각종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히 ‘문화가 있는 날’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문화를 쉽게 체험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화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문화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유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 속에 숨 쉬는 문화,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의 창조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사업은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권역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전국생활문화축제’,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7년 기준 총 20.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문화 활성화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를 중시하여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은 9억의 예산을 배치함.

○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 참여

- 2015년부터 시작된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생활문화 동호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를 통해 지역 내의 동호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성취감을 선사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통합과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생활문화 동호회는 10,000천원 내외의 한정하여 동호회의 발표회, 공연, 전시, 생활문화 체험, 교류 프로그램 등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은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연합단체 등이 신청 가능함.
- 2016년 현재까지 77개의 프로그램이 지원받았으며, 201회의 생활문화 동호회 발표회, 공연, 전시, 생활문화 체험 등의 운영비를 지원함. 이를 통해 동호회 1,527팀, 관람객은 94,026명이 함께하여 일상 속의 문화를 체험함.
- 연도별 추진실적

〈표 III-1-1〉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연도별 추진 실적

구분	프로그램수	지원규모	운영횟수	참가규모	관객수
2015	36개	505,440천원	94회	동호회 706팀	59,791명
2016	41개	398,170천원	107회	동호회 821팀	34,235명
누적	77개	903,610천원	201회	동호회 1,527팀	94,026명

생활문화진흥원(2017),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추진 현황>

○ 권역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 교류

- 2014년부터 운영되는 ‘권역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발적 생활문화 동호회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문화기관 및 시설과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역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과 함께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상생하는 지역 생활문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 주체는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또는 생활문화 동호회 연합단체로, 이들이 지역 내 생활문화 동호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출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프로그램별 20,000천원 내외의 지원을 진행. 2014~2015년에는 지역과의 사업비 50% 매칭을 조건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에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6년 현재까지 30개의 권역에서 96회의 동호회 축제, 지역 간·장르 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지원하였으며, 동호회 2,086팀, 관람객은 510,040명이 참여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공유함.
- 연도별 추진실적

〈표 III-1-2〉 권역별 생활문화 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실적

구분	프로그램수	지원규모	운영횟수	참가규모	관객수
2014	7개	260,000천원	23회	동호회 663팀	134,105명
2015	9개	363,500천원	23회	동호회 880팀	355,995명
2016	14개	280,000천원	50회	동호회 543팀	19,940명
누적	30개	903,500천원	96회	동호회 2,086팀	510,040명

생활문화진흥원(2017),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추진 현황>

○ 전국생활문화축제 : 확산

- 2014년 시작된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전국의 생활문화 동호회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동호회와 국민 간의 교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생활문화 주체로서 일상 속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축제임. 이를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교류와 소통,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동호회의 홍보와 생활문화 동호회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생활문화 동호회의 원활한 단체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전국생활문화축제는 매년 10월 또는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생활문화 동호회,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 동호회 연합단체, 생활문화센터 등이 모두 참여 신청 가능. 프로그램은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 및 전시 등 발표회, 시민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가단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2016년 현재까지 312개의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대표 동호회와 3,344명이 참가
- 연도별 추진실적

〈표 III-1-3〉 전국생활문화축제 연도별 추진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슬로건	관객수
2014	2014.11.22	코엑스 오디토리움	우리 안에 숨쉬는 자유를 만나다	동호회 55팀, 540명
2015	2015.10.24	북서울꿈의숲	일상이 이상으로	동호회 132팀, 1,323명
2016	2016.10.29	북서울꿈의숲	나에게 우리를 더하다	동호회 125팀, 1,481명
누 계				동호회 312팀, 3,344명

생활문화진흥원(2017),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추진 현황>

○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사업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은 원래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보다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업으로, 지역문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발된 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는 사업임.

- 그러나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잘 아는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양성된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 교육은 매년 7월 시작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교육 후 각 지역문화시설에 배치하여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함. 인건비는 국비 50%, 지자체 50%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며 1인당 월 200만원x9개월,=총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생활문화코디네이터’라는 지역 생활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참여자, 지역기반의 문화기획자 중 지역 생활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활문화 현장조사와 지역기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을 지원함(지역문화진흥원, 2016).

2.2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기본방향

- 생활문화공동체를 “동일 생활권(읍면동)의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하는 동시에 사회적 발전의 동력이 되는 주민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격차 해소, 문화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체적 문화향유의 일상화 및 지속기반 마련, 마을을 넘어선 지역단위 공동체 형성을 통한 건강한 지역문화 형성 및 지역 간 소통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내용

-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선정 시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2016년까지 198개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받음. 지역별 단체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3.6%(27개)로 가장 많은 단체가 지원받음.

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지원 사업”

○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기본 운영방향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부제로 “행복한 우리 동네 문예인 프로젝트”임.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에 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한문연은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지역 및 문예회관별 특성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함.
-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에 예술강사 등을 통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역량 향상과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임. 즉, 문예회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이 사업은 세대, 계층, 지역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 통합적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음.

○ 지원 내용

- 70개 프로그램 내외로 신규 및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성 비율은 선정심사 결과에 따름.
- 신규 프로그램(문예회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융·복합성 프로그램, 단순 기능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공연 및 전시와 교육, 체험이 융합된 프로그램)
- 심화 프로그램(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2년차 이상 교육 프로그램의 심화과정, 문예회관의 고유 교육 레퍼토리로 확립이 가능한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은 최초 지원연도부터 매년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원)
- 교육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제한이 없음.
- 교육기간은 매년 3~11월이며, 프로그램은 연간 30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을 모집하고, 11월에 교육 종료(30회 교육x1기수, 15회 교육x2기수 등)
- 지원예산은 8억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1개 프로그램 당 11,430천 원). 주로 강사비 위주로 지원하고, 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 제외 항목 및 기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예회관과 수혜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문화예술교육이 취약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

○ 문화예술교육 축제(11월 중)

- 교육 종료 후,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로 참여 기회 제공(축제 및 봉사활동 참여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등을 별도 지원)
-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확산을 위한 기관별 정보공유의 장 마련
- 문예회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차별화 유도

4.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

-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50~59세의 중년은 20% 미만 참여 가능함).
-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사회공헌 확대
- 어르신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 및 안정감 기대
- 세대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세대격차 해소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지원’,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어르신&청년 협력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됨.
- 이 사업은 2017년 333개 프로그램을 포함해 2005년부터 사업을 진행한 지금까지 총 2,995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참여한 어르신도 102,630명에 달함.

〈표 III-1-4〉 2018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규모

사업명	지원 예정 수	예산(천원)	최대 지원액(천원)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지원	150	1,500,000	13,000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100	1,000,000	13,000
어르신&청년 협력프로젝트	12	120,000	12,000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12	100,000	9,000
합 계	274	2,720,000	

○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회의 소속감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있음.

- 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창단식, 교육, 발표회 등)을 구성하고, 멘토링 및 협동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간 결속력 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함. 또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함.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장르는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체험활동, 생활문화, 기타로 구성되며, 전국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에 계시는 어르신을 모집하여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함.
- 지원개수는 총 100개이며, 활동 회 차의 50% 이상은 대외활동이 필수임.

〈활동이란?〉

- (활동) 동아리의 자립 및 지속, 회원 간 교류 및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전회원이 참여하는 일체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또는 행사, 모임 등
 - 회원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활동(오리엔테이션, 현장학습 등)
 -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과의 멘토링 모임
 - 동아리 목적활동(악기 및 공연 연습, 미술활동, 독서토론회 등)
 - 동아리(조직) 운영에 관한 컨설팅, 전문가 초청 좌담회 등
 - 동아리 발표회, 전시회, 성과공유회 등
- (대외활동) 동아리의 목적활동(악기연주 등을 포함한 공연, 시 낭송 등)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

5. 독서 및 문학 동아리 관련 지원 사업

○ 독서 동아리 활동 현황

- 문체부의 <독서 동아리 실태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2천여 개의 독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학교 및 온라인 독서 동아리 제외). 가장 많은 곳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526개)임. 즉 독서 동아리는 주로 문화기반시설에 속해 있음.
- 독서 동아리의 평균 회원 수는 14.8명이며, 모임 주기는 월 1회 정도(38%)가 가장 많았으며, 격주 1회(24.1%)도 높은 응답을 보임. 특히 직장 독서동아리는 월 1회 정도(47.5%)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31.4%에 달함. 독서 동아리의 주된 연령층(중복응답)은 30~40대로 나타남. 독서 동아리에 강사 및 지도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39.1%임.
- 독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은 독서(읽기)가 66.6%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후(포론) 및 창작(쓰기)인 경우는 각각 21.7%와 2.2%로 나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독서 동아리가 주로 읽고 있는 도서의 종류는 문학 장르(소설 및 수필이 38.1%, 시와 희곡이 22.2%)가 60.3%로 대부분임. 다음으로는 사회과학(17.3%), 철학/사상(8.6%), 역사(8.4%) 순으로 나타났음.

- 독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중복응답)한 독서동아리는 주로 ‘독후 활동(70.5%)’와 ‘독서 행사(43.4%)’에 참여하였음. 특히 독서동아리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점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줄 강사 부재(29%)’이며, ‘운영 재정부족(27.5%)’, ‘독서 프로그램 미흡(35.5%)’, ‘동아리 간 정보교류 및 연계성 부족(19.5%)’ 등으로 나타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및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직장, 학교 등 생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 동아리를 발굴, 지원, 육성하여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 사업은 신규 및 기존 독서 동아리 모두 지원하며, 여러 독서 동아리가 함께 모여 활동하는 연합 독서 동아리도 지원함. 단 정치, 종교, 상업 등 특수목적의 동아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독서 동아리도 제외하고 있음.
- 지원내용은 10인 이상(단 군단위 이하는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국 200여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를 선정하고 독후 활동까지 지원함. 신규 및 기존 독서 동아리 당 80만원을 지원하며, 5개 이상 독서 동아리로 구성된 연합 독서 동아리의 경우, 연합 당 320만원을 지원함.
- 온라인 멘토링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독서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며, 전국 권역별 워크숍과 전국 독서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하여 우수 독서 동아리 사례발표 등 전국 독서 동아리 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함.
- 또한 지역 내 공공·민간 영역의 공간나눔 참여시설을 모집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독서 동아리의 수요조사 및 동아리별 공간 매칭을 통해 공간나눔 지원 사업도 병행함.
-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은 복지 수혜 대상이었던 50대 이상 예비 실버 및 실버세대가 독서 봉사활동을 통해 문화복지 재능기부자로 사회와 소통하고 소외계층 대상에게 책 읽어주기 문화 봉사활동을 전개함. 문화소외층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균등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 .

○ 한국문화화예술위원회의 “문학 동아리 작가 멘토 지원 사업”

-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문학 동아리 지원대상은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대상의 문학 창작 및 독서 동아리로서 1년 이상 운영 및 격주 1회 이상 꾸준히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동아리임.
- 문학 동아리에 대한 문학 작가의 멘토활동 사례비를 지원함.
 - 동아리 1곳당 최대 4회, 회당 50만원을 지원하며, 활동기간은 9월~12월임

-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확인 후 예술위원회가 멘토작가에게 직접 사례비 지급(동아리 별도 정산절차 없음)
- 희망하는 멘토작가를 동아리와 해당 도서관에서 직접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동일 작가에 대해 여러 동아리들이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한 작가 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을 한정하며, 협의를 통해 대체 작가를 배정함.
- 문학 동아리 선정기준은 동아리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을 심의 내용으로 함.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 1999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11년에 대전시와 경기도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2016년까지 17개 전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겨났으며,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673개('17년 3월 기준)의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초·중·고대학교, 평생학습관, 민간시설 등)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통계에 의하면,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제에 따라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문화예술이 31.8%(약 200만명)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음.
- 이 중에서 참여형태별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일정장소에서 강사가 강의하는 강좌(17.8%), 직장 내 직무연수 프로그램(16.7%), 기타 강좌 및 개인교습(9.1%), 원격/사이버 강좌수강(7.3%), 전문적인 세미나 및 워크숍(6.3%), 학습동아리(1.5%)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여내용별 평생교육 참여율을 보면,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75%), 스포츠강좌(24.3%), 자격증인증과정(8.1%), 외국어강좌(5.6%), 가정생활강좌(5.2%), 인문교양강좌(5.1%), 음악강좌(3.7%), 종교교육 강좌(3.7%), 미술강좌(3.4%) 순으로 나타났음. 즉, 문화예술 관련 강좌를 합치면 12.2%로 자격증인증과정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개요

-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모임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추구하는 지역학습공동체의 한 형태임.
- 학습동아리의 주된 목적이 학습이지만,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다

양한 활동을 하며, 이러하나 활동이 다시 학습에 영향을 주기도 함.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서울 시민대상으로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자치구 대상으로 “서울시 네트워크 연계형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I-1-5〉 서울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명	유형1 - 〈서울시민대상〉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유형2 - 〈자치구 대상〉 “서울시 네트워크 연계형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우수사례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지역사회 공헌형(자원봉사형) 학습동아리 모델 개발
사업 기간	5월~11월(12월 : 결과보고)	5월~11월(10월 : 결과보고)
사업 대상	서울시민	서울시 25개 자치구
신청 대상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10인 내외의 학습동아리 유형1. 서평원 사업 후속 학습동아리 유형2. 시민기획단: 지역의제 연구·실천 모임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원 규모	15개 학습동아리 12,000천원(모임 당 800천원 내외)	25,000천원 (자치구 당 5,000천원 내외)
지원 범위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홍보비, 회의비 등의 운영경비	학습동아리 지원(강사비), 교육·컨설팅 운영비
우대 및 협조 사항	〈지원 사업 모집 홍보〉 1) 자치구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 게시 2) 자치구 내 행복학습센터 포함 평생 교육기관에 모집 공고 전달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사업 운영 가능한 자치구에 가산점 부여

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서울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개요

- 2012년부터 성인 동아리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한 ‘서울동네문화클럽’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는 2014년 이후 ‘시민예술가 육성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함. 이후 2016년 생활문화 진흥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함(백선희 외, 2016).
- ‘시민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 내 생활문화 예술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 특히 성인 동아리와

청소년 동아리 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함.

- 서울시의 시민예술동아리 지원은 크게 ‘지역모델’과 ‘장르모델’로 나누어 진행. ‘지역모델’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지역특성화 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16년 5개 지자체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5개 자치구로 점차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백선희 외, 2016).
- ‘장르모델’은 자치구의 특성에 상관없이 예술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장르별 동아리를 선정하여 장르별 특성을 살린 축제를 개최하고 같은 장르의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의 개요

- 시민예술동아리 간 네트워크 지원, 활동역량 강화, 발표기회 제공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 선정된 예술동아리는 다른 동아리와 연합팀을 구성하여 축제에 참여하도록 함. 이를 통해 동아리 간 네트워크 및 상호 배움을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발표를 통한 성취감 고취를 꾀하고자 함.
- 2004년부터 진행해 온 기존의 시민예술단체에 대한 직접 재원지원 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 선정된 단체는 직접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서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각종 제반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임.
- 2015년의 경우, 총 48개의 동아리가 15개의 연합팀으로 구성되어 참여, 약 760명이 참여하는 114회의 행사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음.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의 사업내용

- ‘시민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시민예술동아리가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에 필요한 재료비, 의상·소품 대여비, 기기·악기 대여비 등 행사 참여와 관련한 직접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시민예술동아리 간 네트워킹 지원 : 시민문화 온라인 공유사이트 운영을 통해 동아리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무료 또는 저가에 사용가능한 연습실 등에 대한 공간 정보도 제공하여 동아리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진행. 연합팀 구성 교류를 위한 워크숍 진행함.
- 멘토링 프로그램 : 동아리 운영과 발표 등에 필요한 실무 정보 및 기술 제공을 위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 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팀별 멘토 매칭 지원함.

- 시민기획단의 운영 : 시민예술동아리의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북 기획, 축제 영상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함.

8.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배경

- 2004년 성남문화재단 출범 당시에는 신축된 성남아트센터의 관리와 운영이 주요 업무였으나, 2005년 재단 내 ‘문화기획부’를 신설한 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문화사업 기획을 추진하기 시작함.
- 2006년 발표된 「문화예술창조도시 성남 만들기 기본 계획 연구」에서 ‘생활예술’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등장하였으며, 향후 문화도시 성남의 구축에는 생활예술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 특히 도시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행정 권력이 아닌 ‘시민’임을 강조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의성이 일상에서 발현되고 공유될 때 도시의 문화적 역량이 높아진다고 봄(강윤주 외, 2017).
- 이를 바탕으로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2006년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3단계의 15개년(2006~2010)의 발전 계획을 수립함.

〈표 III-1-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의 단계별 발전 계획

단계	시기	과제	내용
1단계 3개년	2006-2008	기초다지기	시민 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 사업
2단계 5개년	2009-2013	구조 세우기	문화공동체의 시스템 만들기
3단계 7개년	2014-2020	몸체 만들기	세계 속의 ‘예술 시민의 도시’ 정립

강윤주 외(2017)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개요

- 우리 전통의 문예 공론장이자 소통의 장이었던 ‘사랑방’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고자, 성남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동호회 간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사랑방문화클럽은 문화클럽의 주체를 시민으로 규정하고 성남문화재단은 후방 지원의 역할로 한정하여 자생적 생활문화의 발생과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음. 주로 동아리 간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의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공헌활동의 지원을 사업의 내용으로 함.
- 사랑방문화클럽은 동아리의 수준과 기량보다는 활동 동기 및 목적에 따라 단계별 지원 정책을 수립함. 배움과 학습의 단계에 있는 동아리의 경우 기량 향상을 지원하고, 숙련 단계에 있는

동아리는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숙련의 과정을 거친 동아리는 사회공헌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을 지원함(강윤주 외, 2017).

○ 사랑방문화클럽 주요 사업

-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 사랑방문화클럽 지원 문화예술 동아회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페스티벌. 발표회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아리 간 네트워킹 기회 및 동아리 홍보 기회 등을 제공
- 세계시민문화클럽 포럼(World Culture Clubs Forum) : 국내외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활동 사례를 발표, 공유하며 향후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논의하는 포럼
- 시민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 사랑방오케스트라와 수도권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이 한데 모여 공연하는 페스티벌
- 전국시민문화클럽 한마당 : 전국 각지의 지역과 장르를 대표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50여개의 발표의 장을 제공
-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워크숍 : 사랑방문화클럽에 속한 동아리들의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

○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시작한 2007년에는 공간 임대, 강사 섭외, 악기 및 재료 구입 등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직접 지원을 진행함. 그러나 직접 지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 정산 서류 작성을 수행해야 하는 동아리 대표들에게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지우게 됨.
- 2009년부터는 동아리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기 보다는 재단 담당자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방법을 전환. 이에 동아리 대표들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동아리 업무와 네트워크 활동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됨(강윤주 외, 2017).

9.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개요

-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5년 4월 광역문화재단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생활문화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진행함. 경기문화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일상 속에서 시민이 행사하는 자발적 문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장르나 활동형태에 상관없이 경기도 내 자발적으로 발생된 모든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포괄함(백선훈 외, 2016).
- 경기문화재단은 도내의 기존 문화기관인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이들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함.

- 생활문화플랫폼의 주요사업은 지역 내 특성화 공간 발굴을 통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 주민을 생활문화강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성과 견인을 위한 생활문화플랫폼 매개자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됨(백선희 외, 2016).

○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운영방식의 변화

- 사업 초기 경기문화재단은 운영지원이 필요한 동아리를 공모하고 선정하여 지원금을 나눠주는 직접 재원지원 방식으로 운영
- 그러나 생활문화팀의 지역 수요 조사 이후 직접지원보다는 중간 역할자로서의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생활문화공간 등 생활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및 배치하며, 생활문화 동아리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백선희 외, 2016)

○ 생활문화디자이너의 양성

- ‘생활문화디자이너’란 주민 스스로가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어 생활문화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이를 지역 내에서 이끄는 창조력과 기획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키는 용어. 경기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지역민들이 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생활문화디자이너를 선정·교육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지역 생활문화 개발의 매개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생활문화디자이너로 선정된 자는 생활문화 자원 발굴을 위한 운영비(재료비 등 진행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운영비(회의비 등 진행비), 축제개최를 위한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진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 ‘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의 줄임말인 ‘매생이’는 경기도 내 활동하는 생활문화 예술단체를 소개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문화 관련 행사, 공간,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http://mmse.kr/>) (백선희 외, 20106)
- ‘매생이’를 통해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들 간의 상호 배움을 통한 역량 강화, 단체 운영의 활성화 하는 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동아리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음.
- 아직 ‘매생이’는 사이트 콘텐츠가 많지 않은 상태로 회원 가입이나 활용이 미비한 상태. 좀 더 다양한 콘텐츠의 업로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거듭난다면 생활문화

예술단체의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은 생활문화 동호회의 나눔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 나눔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문화나눔이 필요한 소외계층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연계해 주는 형태임.
- 2017년에는 23개 생활문화 동호회와 45건의 문화소외지역·계층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을 공모하여 매칭 지원하였음.
- 추진체계 및 단계는 “생활문화예술단 선정→문화 소외기관·시설 선정→생활문화예술단 기관·시설 설명회→생활문화예술단 파견→생활문화예술단 보상프로그램→정산 및 결과보고” 순으로 이루어짐.

10. 경기도 생활문화정책 관련 동호회(동아리) 사업

○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동호회) 지원 사업

- (가평군) 연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연극 추진을 통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연극 단체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극제까지 개최, 10년 프로젝트로 2017년 현재 3회째를 맞이함.
- (부천시) 2015년 10월에 개최한 제1회 부천 생활문화페스티벌에서 ‘부천시 생활문화헌장’을 제정 공포함. 부천에는 생활문화연합회가 있어 중간지원조직과 매개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민아트밸리’사업을 통해 초급입문단계 생활문화 동호회에게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제공으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킴.
- (수원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중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제시함.
- (용인시) 생활문화예술협회의 각 지회별 공연 및 전시 지원하는 사업과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플리마켓,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기획단 운영 등의 다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고양시) 지역 생활예술인 동호회 발굴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발굴 육성 지원과 활동 및 발표회 지원, 거리아티스트 참여 등
- (광주시)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동호회 등)의 자생적 거리예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동호회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구리시) 자치센터의 동아리 활동 경연대회 지원 활성화

- (군포시)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생활문화제 개최, 동호회 문화활동/대외교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동두천시)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안산시) ‘거리로 나온 예술’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 동아리, 동호회 등 자생적 예술인 및 단체 활동공간을 마련함.
- (의정부시) ‘문화예술 동호회 공연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함.
- (하남시) ‘하남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동호회 사진전을 개최함.

11.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개요

- 충청북도 내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에 전문예술가(플랫폼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해 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예술적 욕구를 해소시켜 향후 동아리 활동의 지속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또한 충청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 재능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아울러 문화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생활문화를 만들어갈 매개자를 양성,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17년 현재 충청북도 내 273개의 동아리, 3,45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20명의 플랫폼 강사를 6,000시간동안 파견하였으며, 문화코디네이터 25명을 양성함. 이를 통해 지역별 동아리 참여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봄.

○ 플랫폼 강사 파견

- 플랫폼 강사 파견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충청북도에 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함.
- 플랫폼 강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상, 다원, 전통예술 등의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전문 문화예술 경력이 있거나, 문화예술교육 3년 이상의 경력자임. 플랫폼 강사로 선정되면 주1회 2시간, 시간당 5만원 파견비를 지원받게 되며 파견 동호회 수는 1인당 2개 이내로 제한함.
- 플랫폼 강사의 파견 신청을 위해 동호회는 지역 문화코디네이터 간의 협의,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 강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음.

○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 문화코디네이터는 도내 문화예술 동호회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지원하며, 도내 문화예술기관 또는 예술가들과의 연결을 통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개자
- 문화예술 기획 또는 모니터 요원 등의 활동을 3년 이상 한 경력자이면 누구나 문화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 문화코디네이터로 양성
- 문화코디네이터는 1인당 15개 내외의 동아리를 관리하고 월 1회 1개 동아리 이상을 수시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당 4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됨.

12.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

○ ‘시민창작 뮤지컬 인천 왈츠’, ‘문화공동체 활성화’, ‘시민문화 활동지원’ 사업

-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에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체가 존재함. 인천시민 동호회단체가 자발적으로 회비와 출자금을 모아 설립된 ‘인천 문화바람’이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 있던 동호회 단체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고 시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임.
- ‘시민창작 뮤지컬 인천 왈츠’ 사업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기조 아래 최소 콘서트 형식으로 시민이 직접 문화 주체로 나섬으로써 향유자를 넘어 창조자로 거듭나는 시민 중심의 사업임.
-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와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아트
- ‘시민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들의 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공간지원 사업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획함.

13.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 개요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전라북도는 2015년 10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 특히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장에 생활문화진흥과 관련한 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함(백선희 외, 2016).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전라북도 내 문화예술 동호회의 발굴과 활동 지원, 네트워

크 구축, 축제, 전문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 도의 예산을 14개 시, 군에 사업비를 매칭하여 배분하는 형태로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법인 위탁을 통해 운영. 도내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단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동호회 당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백선희 외, 2016)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를 동아리에 직접 지원하는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간접지원방식’. 교육강사비, 임차료 등을 신청하면 시군 또는 법인에서 입금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주요 사업 내용

- 활동 공간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의 연습 및 발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함. 활동공간 임차료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교육 지원 : 동아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 강사비를 지원
- 교재 제작보급 : 동아리 예술활동이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
- 시군 단위 행사 참여지원 : 동아리가 전라북도 내 시군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참여 또는 개최비를 지원함으로써 동아리 예술 활동을 돕고 동아리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사업. 교육, 견학, 홍보, 교통 등의 경비를 지원
- 전체 지원금은 단체별 매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가능. 동아리의 자부담을 20% 이상으로 반드시 투자하도록 하여 동아리의 지나친 행정기관 의존을 지양하고 자생성을 강화함.

○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 전라북도 내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을 통해 도내 문화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생활문화 동호회에게는 활동 공간 제공과 동호회 간 교류,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음.
- 자부담 20%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음(백선희 외, 2016).

○ 문화기획자 인력 배치

- 전북은 2012년 문화예술 동아리를 성장시키는 중요 매개자인 ‘문화코디네이터’라는 기획인력을 시군별 1명씩 배치함.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문화기획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사업보조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백선희 외, 2016)
- 문화기획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실무 총괄지원업

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기초과정 워크숍, 현장연수, 평가과정 워크숍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 지역에서 활동(백선희 외, 2016)

- 원래는 문화예술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법인,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로 자격조건을 정하였으나,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조건을 뒀(백선희 외, 2016).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 전북 14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호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교류, 상호배움을 통한 발전, 나아가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문화예술 장르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가입한 회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동호회를 지원 및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백선희 외, 2016).

14. 기타 시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

○ 대구광역시

- 2017년 대구문화 10대 과제 중 ‘생활문화 활성화 노력’을 선정하고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수요에 맞춰 생활 동호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1인 1동호회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동호회 확산에 나섬.
- 특히 전문인력과 생활문화동호회 매칭을 통해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전문적 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생활문화동호회 역량강화 사업’. ‘생활문화동호회의 전시·공연활동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기반 및 저변 확대’로 공연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활동 지원 사업’,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특정 분야 편중 및 적은 참여율 보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구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지기(생동지기)를 운영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공연, 전시, 제작,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 (지원분야) 문화예술분야 11개 장르(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미디어 및 기타)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의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로서 청소년, 대학생(청년), 직장인, 일반시민
- (지원규모) 100여 개 단체, 70만원~200만원

○ 대전광역시

-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문화를 즐기는 시민을 양성함.
- ‘마을 합창단 운영사업’을 통해 시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예술의 자발적 참여 및 생활예술인들의 인프라를 확대함.
-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사업’을 통해 원도심 및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예술 전문단체와 아마추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 이벤트 및 축제를 지원함.
- ‘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과 작가들이 함께 하는 창작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문화공동체를 만들고자 지원함.

○ 충청남도

- ‘도민 참여형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00개의 동호회(1,500명)를 지원하고, 동호회 페스티벌을 개최함.

2. 해외 사례 분석

1. 영국 : 자발적 예술

○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VA)’의 설립 배경

-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은 영국 내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우리의 생활문화예술에 해당. 2016년 현재 기준 영국에는 2016년 약 63,000개의 아마추어 예술단체인 ‘자발적 예술 집단(voluntary arts organization)’이 있으며, 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창의적 문화 활동에 스스로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음(백선희, 2017).
- 자발적 예술 분야는 회원제를 바탕으로 한 매우 느슨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관심사와 취미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왔음. 정부의 예술정책은 전문예술가나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일부는 지역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공간 지원, 물적 지원 등 한정된 영역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한편 영국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 공공영역(public sector)과 함께 ‘제 3섹터(the third sector)’라고 불리는 ‘사회영역(voluntary sector)’이 발달, 자발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음. 또한 비영리단체가 일찍부터 잘 발달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구조도 탄탄한 상황. 법적으로 단체의 활동 예산이 10,000파운드 이상일 경우 정부 소속 ‘비영리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단체를 등록하고 매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음. 비영리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영국의 문화예술분야 단체는 약 60,000개. 이 중 상당수가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임.
- 이에 1991년 영국 정부는 자발적 예술을 위한 지원 및 자발적 예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VA)’을 설립, 비영리단체위원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예술 활동의 지원을 시작함.

○ 자발적 예술(VA)의 개요

- 1991년 영국 내 자발적으로 설립된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기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에 걸쳐 사무실을 운영하며 200여개의 동호회 연합체를 지원함.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이를 총괄하는 연결지부(link department) 등 총 5개의 지부(department)를 구성. 각 지부에는 각각 이사회(board)와 위원회

(committee)가 조직되어 있으며 17명의 스태프와 6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음(백선희 외, 2016).

- 자발적 예술은 매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예술위원회(UK Art Councils)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 2012~2013년도에는 10만 파운드, 그 이후에는 9만 5천에서 9만 7천 파운드 정도의 후원을 받음(백선희 외, 2016).
- 홈페이지 : www.voluntaryarts.org

○ 자발적 예술의 목표 및 활동 영역

- 비전 :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참여하는 시민 사회 건설(to achieve a healthy, creative and engaged civil society) (Voluntary Arts, 2013)
- 미션 :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통한 국민 참여 증진(promoting participation in creative cultural activity) (Voluntary Arts, 2013)
- 활동 영역(Areas of work)
 - 연결(Connecting) : 연합, 파트너십, 네트워킹, 중개(alliances, partnerships, networking, brokering)
 - 영향(Influencing) : 청원, 옹호, 대표, 상담, 연구(lobbying, advocacy, representation, consultation, research)
 - 발전(Developing) : 정보, 조언, 훈련(information, advice, training)

○ 자발적 예술 주간(Voluntary Arts Week)

- 자발적 예술 축제(Voluntary Arts Week, VAW)는 VA의 대표 프로젝트로 동아리에게 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내에 동아리를 홍보하고 신입회원을 모집하며 다른 동아리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
- 2011년부터 매년 5월에 영국 전역에서 1주일간 진행되고 있음. 2016년의 경우 10일간 400여 개의 행사와 100회 이상의 사전워크숍을 진행했고, 59,106명의 시민이 참여(백선희, 2017)
- 자발적 예술 주간 웹 사이트에 행사를 등록하면 참가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은 다양한 행사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행사의 질을 높이고 단체의 성장을 도움.
- 자발적 예술 주간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는 단체의 규모 성장, 인지도 상승, 성취감 상승, 소속감 고취, 자발적 예술 활동 고양 등 문화예술 동아리의 운영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백선희 외, 2016).

○ 에브리데이 크리에이티브(Everyday Creative)

- 영국 공영 방송 BBC와 자발적 예술, 12개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를 촉진하는 연합 캠페인
- 단순한 참여가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모든 영국 국민이 일상 속에서 창조성을 고취시키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 Get Creative Campaign

- 2015년 영국 공영 방송 BBC와 'What Next?'라는 예술문화단체가 주최하는 1년 단위의 예술 문화 캠페인
- 영국 국민들에게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창조성 증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 Up for Arts

- 2015년 BBC 지역 라디오와 협력하여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BBC 지역 라디오 무료 시간대를 이용하여 예술 관련 교양 정보 및 생활문화 예술 활동 관련 정보(단체, 장소)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림.

○ Our Cultural Commons

- 자발적 예술과 Arts Development UK가 함께 영국의 문화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사례를 발굴하고 자발적 예술 활동의 역할을 논의 하는 토론회.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문화정책과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예술 쟁점을 논의함.

○ Cultural Guides

-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들의 문화공헌 활동을 가이드하고 멘토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 이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브리핑(Briefing)

-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 자료. 행사기획, 홍보마케팅, 모금활동, 활동기록방법, 저작권,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의 실무 방법을 구체적인 매뉴얼로 작성하여 제시
- 뿐만 아니라 'Running You Group Weekl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예술단체 운영에

-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 그 외에도 다양한 가이드(toolkit) 및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 예술단체의 운영과 문화공헌 활동을 돕는 자료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2. 영국 : 메이킹 뮤직

○ 영국의 ‘메이킹 뮤직(Making Music)’ 개요

- 메이킹 뮤직은 1953년에 설립된 영국 내에서 가장 큰 동호회 연합체. 3,300개의 음악 관련 동호회와 180,000명의 회원들이 소속되어 있음. 음악 동호회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호 배움과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
- 메이킹 뮤직은 가시적인 조직을 가지기보다는 ‘우산형 조직(umbrella body)’라는 형태로 각 아마추어 단체들을 지역별로 나누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생적으로 이슈를 개발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발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부분의 회원들이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업 외의 시간에 모여 단체 활동에 대해 논의
-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 정부 보조금, 지역 예술위원회 지원, 티켓 판매 수입, 모금 활동 등을 통해 마련
- 홈페이지 : www.makingmusic.org.uk

○ 메이킹 뮤직의 지원 내용

- 음악단체 운영을 위한 예술경영 및 문화행정, 저작권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
- 악기 연주 등 음악 활동 자체에 대한 전문적 조언
- 3,300개의 모든 단체들을 대표해서 정부나 방문자들에 대한 대외적인 발언

○ ‘우산형 조직(umbrella body)’ 형태의 조직 구조와 정부 지원과의 거리 유지와 장단점

- 메이킹 뮤직은 ‘우산형 조직(umbrella body)’이라는 느슨하고 민주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며 참여 회원 스스로가 이슈를 결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특히 지역별로 자신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메이킹 뮤직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직접적인 조직 운영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형태를 고수하며 정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 정부 소유의 공간을 저가로 빌린다든가 공공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를 통해 메이킹 뮤직의 소속 단체들은 스스로 단체운영에 주체가 되고 독립성

을 확보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악기 구입 등 상당한 목돈이 필요한 음악 단체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 아마추어 음악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음악 단체의 경우 악기, 악보 확보와 지휘자, 작곡가 등 전문 인력 섭외 등에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영국 정부와 공공예술단체가 소유한 뮤직 라이브러리를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공개,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아마추어 뮤직 페스티벌 개최 지원

- 메이킹 뮤직 소속 단체들의 네트워킹과 성취감 고취,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매해 아마추어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 정부는 이 페스티벌을 주최하고 단체의 발표회를 기획, 운영함. 또한 축제 기간 내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해 단체 간의 상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지속적인 연구 조사

- 영국 내 자발적 예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발적 예술 활동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학술 연구를 지속.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에 자발적 예술 활동의 효과와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확보

3. 영국 :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

○ 영국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64million Artists Project)’ 개요

-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시도하자! 생각하자! 나누자!(Do! Think! Share!)’라는 구호 아래, 64백만 명의 영국 국민 모두가 일상 공간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
- 일상 속의 창의적 예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문화예술이 숨 쉬는 직장 문화 바꾸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 일상 속 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음.
-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에서 정의하는 ‘창의적 문화활동’은 전통적인 문화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요리, 원예, 인테리어 등 생활 전반의 양식을 포괄하는 것.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인간의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정부와 지역 예술위원회에서 약 10%의 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역의 기업, 개인, 재단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 2~3명의 상근 직원 외에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자가 운영. 온라인을 기반으로 회원들의 협조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64millionartists.com>

○ 64백만 아티스트의 직장 내 프로젝트

-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조직문화 및 환경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와 직원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한 치약공장은 직원 협의를 통해 1주일에 20분씩 문화활동을 추진하거나 사무실 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차츰 쾌적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직원 스스로 만들어나가게 됨.
- 이를 통해 현대인이 직면한 각종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증진시켜 국민의 행복감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함.

○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참여

-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의 유치와 효과 지속을 위한 지역 주민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의 창의적인 삶을 위한 방법을 찾는 프로젝트
- ‘Challenging Hull’을 모토로 도시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주민 대표가 만나 공동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시민 참여의 방법을 구상. 구상된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문화도시 건립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인식시킴.
- 문화도시 시정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가 상승하고 각종 범죄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영국 : 게이트헤드 세이지음악당과 발틱 현대미술관

○ 게이트헤드 세이지음악당과 발틱 현대미술관 설립 배경

- 잉글랜드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게이트헤드(Gateshead)는 산업사회가 절정을 이루었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석탄산업, 선박산업, 화학산업과 북동부 기관차 철로 제작 산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었던 도시임.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북동부 철로산업이 달링톤(Darlington)으로 이전되고 산업사회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도시는 빠르게 침체. 도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공장과 사무실로 활기를 띠었던 틴강(River Tyne) 주변은 폐건물과 산업쓰레기장이 됨.

- 이러한 우울한 도시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6년 게이즈헤드 지방정부는 ‘공공공간 예술 프로그램 (Art in Public Places Programme)’이라는 계획을 발표. 이 계획은 게이즈헤드 도시 전체에 남아 있던 산업유산과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여 유명예술가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계획임. 밀레니엄 브리지(2001년 오픈), 발틱 현대미술관(2002년 오픈), 세이지음악당(2004년 오픈) 등 3개의 랜드마크 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이 전략은 1990년대 중반 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밀레니엄 위원회’의 국가복권기금(National Lottery Fund) 지원을 받는 데에 성공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건설과 소프트웨어 준비를 시작
- 이 도시는 현재 매년 인구의 두 배를 뛰어넘는 관광객 수를 자랑하고 있고, 2007년에는 ‘영국의 예술수도(UK Capital of the Arts)’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가족이 함께 살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함.

○ 세이지음악당(The Sage Gateshead)의 개요

- 게이즈헤드를 가로지르는 틴강의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세이지음악당(The Sage Gateshead)은 세계적인 건축가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가 설계한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복권기금과 각종 후원금을 포함하여 총 7,000만 파운드(약 1,400억원)을 들여 건설. 이 음악당은 게이즈헤드 의회가 주도하여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 지원 중 최대 기부를 한 세이지 그룹(Sage Group plc.)의 이름을 따 ‘세이지음악당’이라고 명명
- “콘서트홀 그 이상 (More than just Concert hall)”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세이지음악당이 다른 공연장과 다른 점은 공연장 곳곳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임. 건립 약 20여 년 전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고 전략을 고안하였으며, 엘리트 예술인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음악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함. 2008년 영국의 문화부장관 마가렛 호지로부터 ‘공동체 문화의 아이콘(icon of common culture)’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

○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음악당으로 목표 설정과 실행

- 세이지음악당이 건립되기 전부터 게이즈헤드시를 비롯한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아마추어 음악활동이 이루어져 옴. 그러나 이러한 음악활동은 극히 일부에만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음악활동 경험이 전혀 없거나 음악활동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지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인 노던 실포니아(Northern Sinfonia)와 민속음악 예술단체 포크워크(Folkwork)의 경영진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게이즈헤드 시민들이 음악활동에 대한 숨겨진 욕구(Needs)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많은 이들이 음악활동에 대한 경험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에 1990년 노던 아츠 (Northern Arts, 현재의 영국북동부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 North East)는 ‘북동부 예술 전략 리뷰(Northern Arts Strategic Review)’라는 보고서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아마추어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음악센터’의 건립이 필요함을 강조 (Demos, 2005)

- 게이즈헤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음악센터 건립 추진단'은 새로 설립할 음악센터를 엘리트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음악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마추어 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을 계획. 음악당 하드웨어 설계단계부터 이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여 다수의 26개의 연습과 워크숍을 위한 공간구성을 계획하고 각 공간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도 예산에 반영. 또한 연습과 공연이 동시에 일어남을 고려할 때 공연장의 음향이 연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3개의 공연장이 음향적으로 고립될 수 있도록 설계함(Gateshead Council, 2004).

○ 아마추어 활동에 중점을 둔 음악당 운영

- 2004년 12월 17일 오픈한 세이지음악당은 프로그램을 크게 ‘공연(Performance)’과 ‘교육 및 참여(Learning and Participation)’로 나누고 양쪽이 똑같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조직 구성과 재원 구성에 있어서도 1명의 본부장(General Director) 아래 4명의 프로그래밍 매니저가 있는데, 이 중 2명은 공연 담당, 2명은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담당으로 두고 있으며 그 하위에 동일한 규모의 스태프를 구성하고 있음.
- 예산편성에서도 공연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여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Demos, 2005) 일반적으로 공연이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 일반적인 공연장의 프로그램 형태를 보았을 때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생활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공연장의 역할과 성과 확산

- 세이지음악당은 게이즈헤드 시민의 모든 음악활동이 세이지음악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국한된다면, 이는 세이지음악당의 지속적인 존속에 위협한 것이라고 보고, 세이지음악당은 게이즈헤드 시민의 음악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게이즈헤드 곳곳에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잠재적 관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러한 전략에 따라 세이지음악당은 음악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 커뮤니티, 기업 등에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조성

- 게이즈헤드 지방정부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내외의 관계 기관 및 기업, 지역주민 등과 ‘게이즈헤드 전략적 파트너십(Gateshead Strategic Partnership)’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멤버들 사이의 전략적 협력과 시너지를 유도하였음. 이 모임을 통해 세이지음악당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음.
- 또한 세이지음악당은 설립초기부터 지역 아티스트와의 돈독한 관계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노던 실포니아의 단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빙하였고, 고용이 불안정한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일정한 교육 수강 이후 예술강사로 활동하도록 하여 이들이 세이지음악당의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세이지음악당의 성과

- 세이지음악당의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중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4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관찰한 Demos의 보고서 <Hitting the Right Note: Learning and Participation at The Sage Gateshead>에 따르면, 참가생들은 세이지음악당의 프로그램의 수강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거나, 수학 능력이 상승하거나 타문화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거나,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거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영국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세이지음악당은 오픈한 첫 해에만 영국 북동부 경제에 4천 3백만 파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약 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게이즈헤드 지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매해 60만 명의 사람들이 세이지음악당을 방문하고 있는데, 게이즈헤드시의 전체 인구 약 20만 명을 훨씬 상회함(Gateshead Council, 2007).

○ 발틱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의 개요

- 틴강 유역의 세이지음악당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한 발틱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은 폐허된 밀가루 공장을 도미니크 윌리엄스(Dominic Williams)가 리모델링하여 현대 미술관으로 개조함.
- 세이지음악당과 함께 건립 초기부터 ‘게이즈헤드 전략적 파트너십(Gateshead 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해 건립과 향후 운영에 대한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세이지음악당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한 공간을 구성함.

○ 작품을 소장하지 않는 미술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관

- 발틱 현대미술관은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소유의 소장품이 전혀 없는 미술관을 표방함. 대신 엘리트 예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관의 전시 프로그램을 채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
- 특히 이 미술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예술 활동 성과물을 미술관 내에 전시함. 전시된 작품은 전통적 개념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장품, 취미활동을 통해 제작한 동물 박제, 아동들의 문화예술교육 성과물 등 다양한 차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편견과 위화감을 완화하고 ‘뛰어 놀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어 미술에 대한 친근감 형성과 아마추어 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5. 일본 : 국민문화제

○ 일본 ‘국민문화제’ 개요

- 1986년 일본 문화청 장관이자 작가인 미우라 슈몬이 ‘국민체육대회’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문화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행사. 국민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문화 진흥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강운주 외, 2017).
- 개최 지역은 지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약 4년간의 중앙과 지방의 예산 매칭을 통해 준비함.
- 전국의 전문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가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음악, 연극, 미술, 무용, 전통예술, 문학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나, 주로 공연예술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지역문화자원 개발의 계기

- 일본 국민문화제는 초반 기획 단계부터 ‘지역성’을 강조하고, 일본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발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주최 도시와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특징과 역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이 반영된 자원임.
- 특히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개념이 아닌 ‘생활문화자원’의 개발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짐. 그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 묻어나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예술가와 지역주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한 문화창조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축제

- 국민문화제에 참여한 고베대학 교향악단 단장인 나가오 히로타카는 “가능하면 국민문화제를 그 기간 동안에만 하는 축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의 씨앗을 키우는 장으로 알고 참가했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국민문화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창조’를 위한 ‘씨앗’으로 의미가 있다고 봄(강윤주 외, 2017).
- 따라서 국민문화제 자체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제에서 발표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에 지역에서 미칠 영향력까지가 모두 ‘문화창조’의 과정으로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문화창조를 위한 지역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창조를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참가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문화예술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야만 국민문화제의 효과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

6. 일본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개요

- 이시카와 현에 소재한 가나자와시는 17세기 후반부터 가나자와 성 주변을 도시가 형성되었고 현재에도 그 원형을 간직하고 있음. 미술, 공예, 자기, 염색, 요리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지역 전통문화 자원을 자랑하고 있음. 1996년 8월 가나자와시는 도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옛 야마토(大和) 방적 공장을 매입해 재정비하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오픈함.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구상 초기부터 시민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기획하였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창작활동의 자유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로 원칙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였음(백선헌 외, 2016).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공기 같은 존재로서 시민예술촌’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표방함. 시민들이 언제나 자신이 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또한 저렴한 편임(6시간 기준, 1,000엔).
- 시민예술촌 이용객은 한 해 평균 22만명 정도로, 가장 인기가 높은 연간 3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백선헌 외, 2016).

○ 시민이 운영하는 시민의 공간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운영은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에서 맡고 있으나, 문화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체계를 따르기보다는 시민이 스스로 만든 운영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백선희 외, 2016).
- 연극, 무용, 음악, 미술 각 분야에서 2명씩 총 8명의 시민디렉터를 선출, 이들이 이용 방법, 사용 규제, 공간 관리, 사업 계획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아트디렉터와 어드바이저가 이를 지원하는 조직 구조를 가짐. 재단은 경영과 회계 업무 지원을 통해 시민디렉터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지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백선희 외, 2016) 대부분의 시민디렉터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의 본업을 가지고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 시민디렉터는 시설 이용을 위한 원칙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신청 심사, 자체 기획 운영, 언론에 대한 정보 제공, 연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설비 정리 및 관리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월 1회 이상의 정례회의에는 모든 시민디렉터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민주적인 의결과정을 통해 향후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음.
-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시민의 요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또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보장으로 지역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다양한 예술 활동이 보장됨.

7. 일본 : 요코하마 BankART 1929

○ 요코하마 BankART 1929 설립 배경

- 2004년 요코하마시는 나카타 시장 취임 후 ‘창조정책’을 발표하고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을 살리는 계획을 발표. 폐허상태의 구 시가지지를 문화를 통해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예술도시 창조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
- 요코하마 시는 “すべての横浜市民はアーティストである(모든 요코하마 시민이 아티스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창조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시민을 그 주체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개발된 시민의 창조성이 향후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을 강조함.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은 시의 지원 대상이 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음.

○ BankART 1929 개요

- BankART 1929는 당시 버려진 건물이었던 (구)제일은행 요코하마 지점과 (구)후지은행 요코하마 지점을 재개발,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공간. 바샤미치의 BankART 1929를 중심으로 각종 전시와 공연기획, 아티스트 거주, 카페 운영 등 수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기간

내에 BankART 1929를 요코하마의 주요 문화시설로 등극함.

- BankART 1929의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존의 단순한 문화상품을 제공, 감상시키는 일방향적인 문화 프로그램 제공이었던 것과 달리 창조형,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훌륭히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공간을 개방하여,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에게 공간활용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예술에 관심이 없어도 카페나 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끊임없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하여 시민과 예술가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창조적 네트워크는 향후 시민을 위한 창조도시 요코하마를 건설하는 데에 주요한 동력이 되었음.
- 요코하마시는 도쿄 예술 대학교 대학원 영상연구과의 요코하마 진출을 추진, 창조거점의 중심에 위치한 BankART 1929 건물에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영상산업을 집적, 전문예술가와 시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민간 주도 방식의 운영

- 요코하마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창조도시'라는 구호 아래 시민이 스스로 코디네이터로서 활약하거나 서포터로 장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단체로의 도시재생의 주도권의 이양함.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대형 현대미술 축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Yokohama Triennale)의 경우, 요코하마 시와 국제교류기금이 주도하고 있으나 행사의 기획과 운영은 민간 전문가와 창조 클러스터의 예술가, 그리고 일반 시민이 주도하도록 함. 2005년 열린 제2회 행사에서는 '요코하마의 예술문화 활동에 관한 시민 협동 네트워크(Yokohama City Art Network, YCAN)'가 결성되어 많은 요코하마 시민들이 트리엔날레의 자원봉사와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 시민 미디어의 전개 등에 참가함.
- BankART 1929 또한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 이들에 의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함. 도시 내의 기존 전문적인 예술단체를 선정, 그들의 예술적인 지식과 능력, 현장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개발하고, 민간 단체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징을 반영하여 BankART 1929를 운영하는 구조를 구축함.

○ 팔길이 원칙을 위한 지방정부의 후방지원 시스템 구축

- 요코하마시는 팔길이 원칙에 의해 운영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한발 물러서 있으나 운영단체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운영하고 있음. 지원도 '권장'의 형태로 진행, 후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유지하며 그 힘의 관계를 잘 조절하고자 추구하고 있음.
- 요코하마 지방정부는 후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2007년 7월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 협의회'

와 '아트 커미션 요코하마'를 설립함. 이 조직은 요코하마 지방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법적인 지위나 성격 모두 매개 민간 조직의 형태를 가지는 데, 이는 힘의 관계의 배분이 매우 애매한 팔길이 원칙을 좀 더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행정조직이 직접 설립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운영에 있어 창조성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8. 네덜란드 : 로테르담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 International Community Arts Festival(ICAF)

○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의 개요

-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International Community Arts Festival)은 2년에 1번 주기로 열리는 예술축제로, 프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연속적인 공연이 열리는 일반적인 축제와는 달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다루는 축제임.
- 발표하는 예술 장르는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보이며, 지역 특징이 반영된 주제의 작품과 프로 예술가와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협업 작품이 다수 발표되고 있음.
- 본 축제는 200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선정되고 국민의 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연극단체들의 발표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 처음 시작은 연극 장르에 한정하여 시작했으나, 4회 축제 때부터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다루면서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음.
- 행사의 주관은 로테르담의 유명 연극단체인 로테르담 지역 극단(Rotterdams Wijktheater, Rotterdam Neighborhood Theatre)이 진행 중

○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의 주요 행사

- 본 행사 : 공연, 전시, 영화 등 지역 예술단체의 예술작품 발표
- 워크숍/세미나/프리젠테이션 : 지역 예술단체가 창작한 실험 작품 또는 완성 전 단계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지역기반 예술 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를 통해 지역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참가회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심층토론/전문가회의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기반 예술(communitary arts)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를 공유하고 상호 배움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

○ 실험적인 지역기반 예술(community arts) 활동을 지원

-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페스티벌은 스스로를 ‘실험실(laboratory)’라고 칭할 정도로 지역기반 예술이 단순히 아마추어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현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이 되고자 함.
- 규모가 있는 프로 예술단체의 완성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체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으로 표현된 실험적 작품이 발표되어 지역기반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고 있음.
- 특히 축제 기간 중의 워크숍 등은 이러한 실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로, 워크숍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작품을 수정 및 업그레이드 하여 이후 본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CAL-XL라는 지역사회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네덜란드 정부 기관의 지원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 멀티미디어, 무용, 연극 등의 유명예술가들이 실험적인 지역사회 기반 예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돕고 있음.

○ 지역기반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이슈 생산의 역할

-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은 ‘지역극단(community theatre)’이라는 개념을 처음 네덜란드에 소개하고 ‘지역기반 예술(community arts)’이 네덜란드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를 생성하고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축제 내에 관련 전문가와 여러 지역에서 지역기반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심층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001년 첫 회에는 ‘지역극단(community theatre)’과 ‘지역기반 예술(community arts)’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고, 2003년에는 지역극단의 조직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슈 생산과 실험 활동 지원을 시작, 전문가 토론 및 워크숍의 수를 늘리고 처음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을 시작함.
- 2017년에는 ‘Movement!’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모던댄스가 소외계층 청소년의 삶에 제공하는 변화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 신체 커뮤니케이션인 무용을 통해서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행동주의, 국제적 트렌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

9. 프랑스 :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

-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진정한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문화매개(médiation culturelle)’의 필요성을 강조

- 문화매개자의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동호(아마추어) 활동중심의 문화매개’ 역할을 포함시킴으로써,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도 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프랑스의 문화매개의 유형은 ‘복합 분야의 문화매개’,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문화매개’, ‘개념설계부터 실행까지 연계된 문화매개’, ‘방법론 중심의 문화매개’, ‘전문 향유층 중심의 문화매개’, ‘동호(아마추어) 활동중심의 문화매개’ 등 6가지로 구분됨. 이 중 ‘동호 활동에서의 문화매개’는 일반관객들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증진활동임.
- 그러나 이들 문화매개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동호 활동에서의 문화매개’에 특화되기 보다는 다른 매개인력 양성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매개교육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는 동호활동 문화매개 과정에도 필요한 내용임.

3. 소결

1.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유형화

○ 국내외 문화예술 동아리의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종합해 보면, 9개의 범주로 정리될 수 있음.

〈표 III-3-1〉 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사례 지원 종류 정리

지원 종류	지원 프로그램(국내)	지원 프로그램(해외)	내용
단체 운영비 지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발표회, 전시회, 단체 운영 실비 지원
공간 지원	· 행복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 지원' · 문예회관 '우리동네 예술인 프로젝트' · 문화원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 영국 '자발적 예술' Our Cultural Commons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일본 BankArt 1929 · 게이츠헤드 '발틱현대미술관'	문화예술 동아리 연습 및 발표 공간을 무료 또는 저가에 대관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방안 제시
물적 지원		· 영국 '메이킹 뮤직(Making Music)'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 악기, 교재, 설비 등을 저가로 대여 또는 구입
발표기회 및 동아리 홍보 지원	· 문예회관 '우리동네 예술인 문화예술 교육축제'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행복페스티벌)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학동아리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전국생활문화축제'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시민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참가지원	· 영국 '자발적 예술'의 '자발적 예술 주간' · 영국 '메이킹 뮤직' 아마추어 뮤직 페스티벌 · 일본 '국민문화제' · 로테르담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	동아리 발표 기회 제공, 동아리 홍보 기회 제공 신인회원 모집 타 동아리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네트워크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전국생활문화축제'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시민예술 동아리 네트워킹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단(생활문화 동호회로 구성) 순회파견	· 영국 '64백만 아티스트 프로젝트'	회원 간 친목도모 단체 운영 관련 정보 교류 단체 문제의 창의적 해결 지역사회와의 교류 촉진
교육지원	·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지원 · 충북문화재단 플렉스 강사 파견 사업 ·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멘토링 지원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단계별 지원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교육 지원	· 영국 게이츠헤드 '세이지음악당'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 제공 교육 강사 인건비 지원 단체 운영, 기획 등의 교육 제공
매개자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 '문학동아리 작가 멘토 지원' · 생활문화동호회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디자이너' 양성 · 충북문화재단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문화 기획자 인력 배치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일본 BankArt 1929	지역 상황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자의 양성 매개자의 교육 지원 매개자의 활동비 지원
홍보 지원	·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 영국 '자발적 예술'의 Everyday Creative, Get Creative 캠페인	동아리 대외 홍보 지원 대국민 아마추어 예술활동 인식 개선

○ 단체 운영비 지원

- 다수의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이 사업 초기에는 동아리의 운영비를 재정 지원하는 직접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음. 재정 지원의 경우, 일반적인 예술단체 지원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결과 보고, 정산 보고서 제출 등의 서류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생활문화동호회 ‘우리 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과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의 경우 발표회의 운영 실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예산안 작성, 정산안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
-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진들은 동아리를 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취미 차원에서 운영하므로 이러한 서류 작업은 상당한 피로함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많은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다수의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이 최근에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

○ 공간 지원

-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연습 및 발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 따라 다수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 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대관하는 사업을 실시
- 전라북도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동아리 연습 및 발표 공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설립 구상단계부터 내세워 건립함. 영국의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의 경우, Our Cultural Common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물적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위해서는 재료, 악기, 교재, 설비 등이 필요하며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임. 이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 지속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영국의 ‘메이킹 뮤직(Making Music)’의 경우, 악기, 악보 등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음악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공공예술단체가 소유한 자산을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활동에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가능하게 함.

○ 발표기회 및 동아리 홍보 지원

- 공공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축제 개최를 통한 발표 기회 제공을 제공하고 있음. 생활문화동호회의 ‘전국생활문화제’,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의

‘시민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참가 지원, 영국 ‘자발적 예술’의 ‘자발적 예술 주간(Voluntary Arts Week)’, 영국 ‘메이킹 뮤직’의 ‘아마추어 뮤직 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은 이러한 축제를 통한 동아리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 축제는 동아리의 발표 기회 제공은 물론, 축제를 통한 동아리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다른 동아리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킹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또한 네덜란드 ‘국제 커뮤니티 아트 페스티벌’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축제를 통해 현재의 지역사회 기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관련 이슈와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역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축제뿐만 아니라 상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교류를 통해 단체 역량의 향상과 지속을 유도하고 있음. 다수의 동아리들이 상호간 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네트워킹은 각 단체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동호회가 문화소외 계층 시설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활문화프로그램 등의 문화나눔 활동을 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장르별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 상호간 교류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목표로 하고 있음.

○ 교육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이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인건비는 문화예술 동아리에 부담이 되는 상황. 이에 다수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신청 받아 교육강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 ‘충북문화재단 플랫폼 강사 파견 사업’과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동아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개자를 통해 이러한 강사를 추천받거나 정보를 얻고 있음.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단계별 지원’ 사업의 경우 동아리의 활동 동기 및 목적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멘토링 지원 사업의 경우 예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 기획 등의 분야에도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음.

○ 매개자 지원

-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의 개발과 지속을 위해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에서도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임.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할 매개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도출이 가능
- 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매개자 양성 사업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인 9억을 배정하는 등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 경기문화재단과 충북문화재단, 전라북도 또한 주민 스스로가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홍보 지원

- 다수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동아리의 홍보 지원을 제공, 이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통해 동아리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더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 환경을 구축함.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아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자발적 예술’은 BBC와 함께 Everyday Creative, Get Creative 캠페인을 진행하며 대국민 인식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의 사례와 같이 특정 단체만 집중 홍보할 경우, 단체 간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음.

○ 사회공헌 활동 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의 활동이 단지 개인의 취미생활 차원에 멈추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많은 동아리 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람을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공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동아리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선순환적인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영국의 ‘자발적 예술’의 경우 Cultural Guid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기하고자 함.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사업 또한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문화시설을 활용한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함.

- 동아리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은 해외와 국내가 큰 차이가 없음. 차이가 있다면,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정부정책으로서 동아리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국내외 모두 공간, 발표기회, 네트워크, 교육 지원, 홍보 지원 등을 고루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도 생활문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이 특징임.
 - 해외의 경우, 공간 지원과 발표 기회 등 간접 지원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홍보 지원도 다수 있음. 교육 지원의 경우,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툴킷(toolkit) 제작 및 배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의 경우, 초반에는 직접적인 동아리 운영비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간접 지원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대부분임. 특히 매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생활문화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에 의한 나눔 활동, 동호회에서 직접 만든 소품 등을 판매하는 아트플리마켓(벼룩시장) 등 공동체성과 시민성이 확장된 동호회로 발전하기도 함. 단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기 보다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원으로서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IV.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현황 및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운영 현황
3.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 현황
4.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관련 욕구
5. 소결
6. 시사점

1. 조사개요

1.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
- 유효표본 : 882개
- 표본추출 : 목적적 할당 추출법 (Purposive Quota Sampling)
- 조사방법 : 복합조사 (이메일, FAX, 전화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월 3일 ~ 2018년 2월 9일

〈표 IV-1-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882)	100.0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7.5
	충청권	(210)	23.8
	전라권	(130)	14.7
	경상권	(122)	13.8
	강원/제주권	(66)	7.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3.8
	주민자치센터	(96)	10.9
	생활문화센터	(224)	25.4
	평생학습관(센터)	(88)	10.0
	도서관	(68)	7.7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6.8
	사립대학교	(67)	7.6
	민간기업	(24)	2.7
	인터넷동호회	(94)	10.7
	기타	(39)	4.4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8.9
	중규모	(360)	40.8
	대규모	(71)	8.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45.1
	중규모	(426)	48.3
	대규모	(30)	3.4

〈계층 내 무응답 제외〉

*회원규모별 : 소규모(15인 미만) 중규모(15인~50인 미만), 대규모(50명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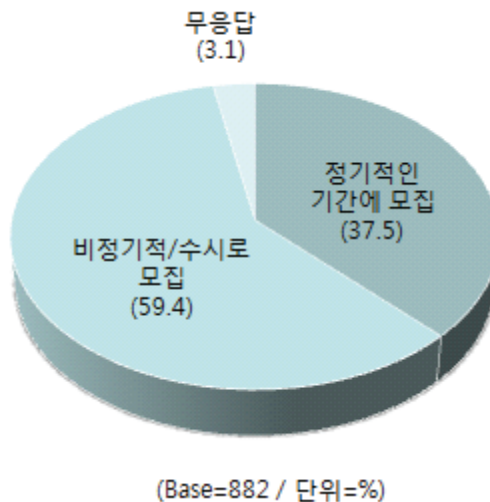
**예산규모별 : 소규모(1백만원 미만) 중규모(1백만~1천만원 미만), 대규모(1천만원 초과)

2.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운영 현황

1. 회원 모집 시기

- 동아리 회원 모집 시기는 ‘정기적인 기간에 모집’한다는 응답이 37.5%로 나타났으며, ‘비정기적/수시로 모집’한다는 응답은 59.4%로 나타남.
-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79.1%),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79.2%)에서 정기적인 기간에 모집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동아리 결성이 오래된 경우일수록,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기적인 기간에 회원을 모집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장르는 ‘사진’이 77.6%로 가장 높음.

〈그림 IV-2-1〉 회원 모집 시기



〈표 IV-2-1〉 회원 모집 시기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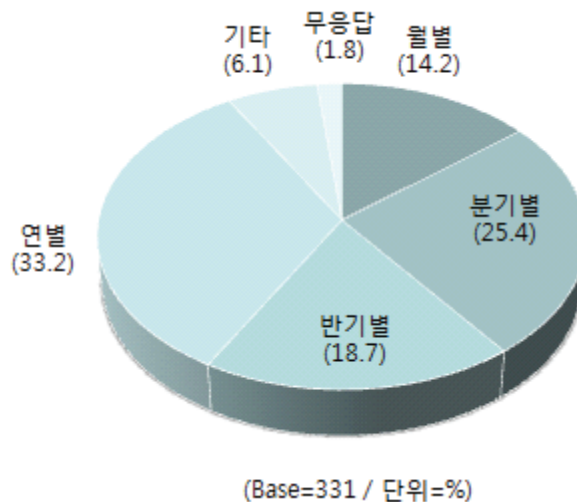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기적인 기간에 모집	비정기적/수시로 모집	무응답
전 체		(882)	37.5	59.4	3.1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9.8	48.6	1.5
	충청권	(210)	31.9	60.0	8.1
	전라권	(130)	28.5	70.8	0.8
	경상권	(122)	27.0	71.3	1.6
	강원/제주권	(66)	33.3	66.7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1.3	63.1	15.6
	주민자치센터	(96)	53.1	44.8	2.1
	생활문화센터	(224)	29.9	67.9	2.2
	평생학습관(센터)	(88)	39.8	60.2	0.0
	도서관	(68)	30.9	69.1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41.7	58.3	0.0
	사립대학교	(67)	79.1	20.9	0.0
	민간기업	(24)	79.2	16.7	4.2
	인터넷동호회	(94)	23.4	76.6	0.0
	기타	(39)	30.8	69.2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7.6	51.0	1.4
	2010년~2014년	(249)	35.7	62.2	2.0
	2015년~2016년	(273)	31.1	65.2	3.7
	2017년 이후	(184)	39.7	57.6	2.7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1.3	65.2	3.5
	중규모	(360)	41.1	56.4	2.5
	대규모	(71)	56.3	42.3	1.4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8.7	58.3	3.0
	중규모	(426)	36.2	61.5	2.3
	대규모	(30)	30.0	70.0	0.0
활동 장르	문학	(82)	40.2	57.3	2.4
	미술	(99)	34.3	59.6	6.1
	음악	(311)	33.4	62.7	3.9
	무용	(128)	49.2	48.4	2.3
	연극	(26)	53.8	42.3	3.8
	영화	(14)	35.7	64.3	0.0
	사진	(49)	77.6	22.4	0.0
	공예	(32)	46.9	50.0	3.1
	전통예술	(114)	31.6	65.8	2.6
	기타	(88)	31.8	65.9	2.3

2. (정기 기간 모집 시) 모집 기간

○ 회원 모집 시기를 정기적으로 모집(비정기적/수시모집 제외)하는 331개 동아리를 분석한 결과, 연간별 모집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기별이 25.4%, ‘반기별’ 18.7%, ‘월별’ 14.2% 순으로 나타남.

- 월별로 모집하는 소속 유형은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23.8%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분기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 49.0%, 반기별로는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 50.9%, 연별로는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결성 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반기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회원 규모별에서는 대규모일수록 반기별, 소규모일수록 연별 비중이 높게 집계됨.
- 활동 장르에서 (정기 기간 모집 시) 모집 기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극’(35.7%)이 월별로 모집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통예술’(38.9%)은 분기별, ‘영화’(60.0%)는 반기별, ‘무용’(47.6%)은 연간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정기 기간 모집 시)모집 기간



〈표 IV-2-2〉 (정기 기간 모집 시) 모집 기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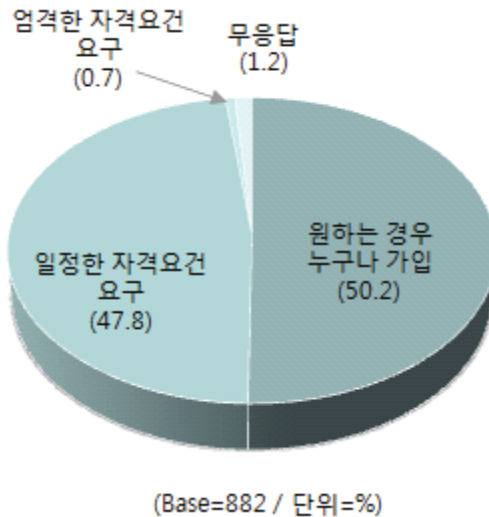
		사례수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기타	무응답
전 체		(331)	14.2	25.4	18.7	33.2	6.6	1.8
지역 권역별	수도권	(165)	12.1	27.3	21.8	31.5	6.7	0.6
	충청권	(67)	11.9	32.8	20.9	25.4	7.5	1.5
	전라권	(37)	24.3	24.3	10.8	27.0	2.7	10.8
	경상권	(33)	15.2	18.2	6.1	54.5	6.1	0.0
	강원/제주권	(22)	9.1	9.1	27.3	50.0	4.5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26)	7.7	26.9	26.9	26.9	11.5	0.0
	주민자치센터	(51)	15.7	49.0	5.9	19.6	9.8	0.0
	생활문화센터	(67)	22.4	26.9	9.0	25.4	10.4	6.0
	평생학습관(센터)	(35)	14.3	17.1	28.6	28.6	8.6	2.9
	도서관	(21)	23.8	14.3	4.8	47.6	9.5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25)	16.0	24.0	16.0	36.0	8.0	0.0
	사립대학교	(53)	5.7	15.1	50.9	28.3	0.0	0.0
	민간기업	(19)	0.0	0.0	5.3	94.7	0.0	0.0
	인터넷동호회	(22)	22.7	40.9	13.6	22.7	0.0	0.0
	기타	(12)	0.0	16.7	0.0	75.0	0.0	8.3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69)	10.1	23.2	26.1	39.1	1.4	0.0
	2010년~2014년	(89)	12.4	29.2	25.8	21.3	10.1	1.1
	2015년~2016년	(85)	20.0	21.2	15.3	31.8	7.1	4.7
	2017년 이후	(73)	11.0	27.4	8.2	45.2	6.8	1.4
회원 규모별	소규모	(135)	15.6	27.4	14.8	34.8	5.9	1.5
	중규모	(148)	12.8	23.6	18.9	35.1	6.8	2.7
	대규모	(40)	17.5	22.5	35.0	22.5	2.5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154)	10.4	27.9	16.2	37.0	6.5	1.9
	중규모	(154)	16.2	23.4	23.4	29.9	5.2	1.9
	대규모	(9)	55.6	11.1	0.0	22.2	11.1	0.0
활동 장르	문학	(33)	30.3	18.2	3.0	42.4	6.1	0.0
	미술	(34)	20.6	11.8	23.5	29.4	11.8	2.9
	음악	(104)	11.5	26.9	16.3	33.7	9.6	1.9
	무용	(63)	12.7	20.6	15.9	47.6	1.6	1.6
	연극	(14)	35.7	28.6	14.3	21.4	0.0	0.0
	영화	(5)	0.0	20.0	60.0	0.0	20.0	0.0
	사진	(38)	10.5	15.8	34.2	39.5	0.0	0.0
	공예	(15)	33.3	20.0	6.7	26.7	13.3	0.0
	전통예술	(36)	19.4	38.9	5.6	22.2	8.3	5.6
	기타	(28)	28.6	25.0	10.7	25.0	10.7	0.0

3.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 하는 경우가 47.8%이나,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도 50.2%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임.

- 소속 유형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61.5%),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66.7%)에서는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비중이 높았으며,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53.4%),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62.7%)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비중이 높음.
- 활동 장르별로 ‘영화’(78.6%), ‘사진’(63.3%)은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비중이 높으며, ‘연극’(61.5%)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응답함.

〈그림 IV-2-3〉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표 IV-2-3〉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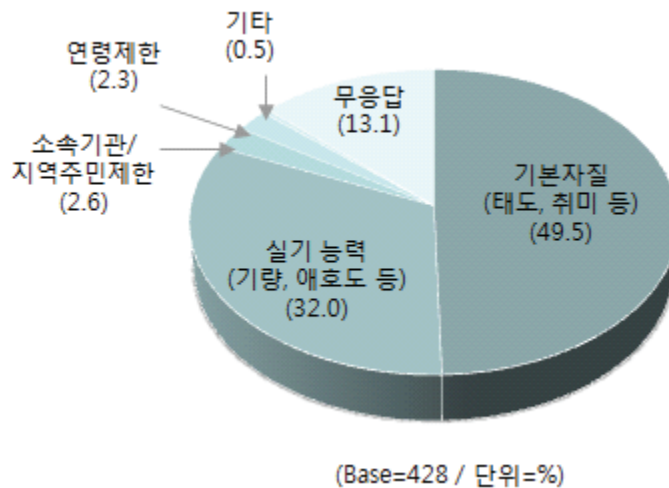
		사례수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일정한 자격요건 요구	엄격한 자격요건 요구	무응답
전 체		(882)	50.2	47.8	0.7	1.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8.6	50.5	0.3	0.6
	충청권	(210)	42.9	53.3	1.9	1.9
	전라권	(130)	66.2	31.5	0.0	2.3
	경상권	(122)	50.8	46.7	0.8	1.6
	강원/제주권	(66)	51.5	48.5	0.0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1.0	51.6	4.1	3.3
	주민자치센터	(96)	61.5	37.5	1.0	0.0
	생활문화센터	(224)	54.9	43.3	0.0	1.8
	평생학습관(센터)	(88)	46.6	53.4	0.0	0.0
	도서관	(68)	52.9	47.1	0.0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0	46.7	0.0	3.3
	사립대학교	(67)	37.3	62.7	0.0	0.0
	민간기업	(24)	66.7	33.3	0.0	0.0
	인터넷동호회	(94)	50.0	48.9	0.0	1.1
	기타	(39)	41.0	59.0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9.0	49.0	1.4	0.7
	2010년~2014년	(249)	43.4	54.6	0.8	1.2
	2015년~2016년	(273)	57.5	40.3	0.4	1.8
	2017년 이후	(184)	48.4	50.5	0.5	0.5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5.7	52.7	0.5	1.2
	중규모	(360)	52.8	45.0	0.8	1.4
	대규모	(71)	59.2	40.8	0.0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55.0	43.7	0.3	1.0
	중규모	(426)	45.5	52.8	0.7	0.9
	대규모	(30)	53.3	36.7	6.7	3.3
활동 장르	문학	(82)	56.1	41.5	1.2	1.2
	미술	(99)	55.6	42.4	0.0	2.0
	음악	(311)	47.9	50.5	0.6	1.0
	무용	(128)	50.8	46.1	1.6	1.6
	연극	(26)	38.5	61.5	0.0	0.0
	영화	(14)	78.6	14.3	0.0	7.1
	사진	(49)	63.3	34.7	0.0	2.0
	공예	(32)	53.1	43.8	0.0	3.1
	전통예술	(114)	61.4	34.2	0.9	3.5
	기타	(88)	36.4	62.5	0.0	1.1

4. (자격 요건 요구 시) 구체적 자격요건

○ 자격 요건 요구 시 구체적 자격요건을 요구한다고 응답한 428개 동아리를 분석한 결과, 기본자질(태도, 취미 등)이 49.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실기 능력(기량, 애호도 등)이 32.0%로 집계됨.

- ‘인터넷 동호회(60.9%)’,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59.4%)에서는 기본자질(태도, 취미 등),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75.0%)는 소속 기관/지역 주민 제한, ‘인터넷 동호회’(13.0%)는 연령제한으로 구체적 자격요건을 요함.
- 예산이 대규모인 경우 실기능력(기량, 애호도 등) 비중이 42.8%로 소·중규모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함.
- 활동 장르별에서는 ‘사진’ 76.5%, ‘문학’과 ‘미술’이 각 71.4% 씩 기본자질(태도, 취미 등)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음악’(42.8%)은 실기 능력(기량, 애호도 등), ‘공예’(21.4%)는 소속 기관/지역 주민 제한, ‘연극’(6.3%)은 연령 제한으로 자격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응답함.

〈그림 IV-2-4〉 (자격 요건 요구 시)구체적 자격요건



〈표 IV-2-4〉 (자격 요건 요구 시)구체적 자격요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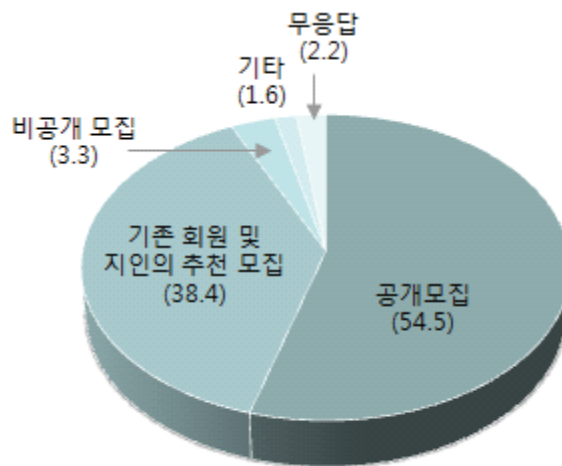
		사례수	기본 자질 (태도, 취미 등)	실기 능력 (기량, 애호도 등)	소속기관/ 지역 주민제한	연령제한	기타	무응답
전 체		(428)	49.5	32.0	2.6	2.3	0.5	13.1
지역 권역별	수도권	(168)	44.6	36.3	3.6	3.6	0.0	11.9
	충청권	(116)	52.6	36.2	0.0	0.9	1.7	8.6
	전라권	(41)	39.0	24.4	0.0	0.0	0.0	36.6
	경상권	(58)	67.2	15.5	6.9	1.7	0.0	8.6
	강원/제주권	(32)	40.6	40.6	3.1	6.3	0.0	9.4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68)	48.5	33.8	0.0	0.0	1.5	16.2
	주민자치센터	(37)	37.8	35.1	0.0	0.0	0.0	27.0
	생활문화센터	(97)	55.7	14.4	1.0	0.0	0.0	28.9
	평생학습관(센터)	(47)	44.7	53.2	0.0	0.0	0.0	2.1
	도서관	(32)	59.4	34.4	3.1	0.0	3.1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28)	39.3	35.7	0.0	10.7	0.0	14.3
	사립대학교	(42)	52.4	40.5	7.1	0.0	0.0	0.0
	민간기업	(8)	25.0	0.0	75.0	0.0	0.0	0.0
	인터넷동호회	(46)	60.9	26.1	0.0	13.0	0.0	0.0
	기타	(23)	34.8	52.2	0.0	4.3	0.0	8.7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73)	47.9	37.0	2.7	2.7	0.0	9.6
	2010년~2014년	(138)	47.1	36.2	1.4	0.7	0.7	13.8
	2015년~2016년	(111)	62.2	26.1	0.0	4.5	0.0	7.2
	2017년 이후	(94)	37.2	29.8	7.4	2.1	1.1	22.3
회원 규모별	소규모	(229)	54.6	34.5	0.4	0.9	0.0	9.6
	중규모	(165)	37.6	33.3	4.2	4.2	1.2	19.4
	대규모	(29)	72.4	10.3	10.3	3.4	0.0	3.4
예산 규모별	소규모	(175)	49.7	35.4	4.0	2.9	0.6	7.4
	중규모	(228)	48.7	29.4	1.8	2.2	0.4	17.5
	대규모	(13)	38.5	46.2	0.0	0.0	0.0	15.4
활동 장르	문학	(35)	71.4	22.9	0.0	0.0	2.9	2.9
	미술	(42)	71.4	21.4	0.0	0.0	2.4	4.8
	음악	(159)	40.3	42.8	3.1	1.9	0.0	11.9
	무용	(61)	36.1	26.2	1.6	1.6	0.0	34.4
	연극	(16)	68.8	12.5	0.0	6.3	0.0	12.5
	영화	(2)	100.0	0.0	0.0	0.0	0.0	0.0
	사진	(17)	76.5	0.0	17.6	5.9	0.0	0.0
	공예	(14)	57.1	14.3	21.4	7.1	0.0	0.0
	전통예술	(40)	25.0	25.0	0.0	0.0	0.0	50.0
	기타	(55)	58.2	32.7	0.0	1.8	0.0	7.3

5. 회원 모집 방법

○ 회원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 54.5%로 나타났으며,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도 38.4%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94.0%),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95.8%), ‘인터넷 동호회’(79.8%)는 공개모집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61.5%로 높은 비중을 보임.
- 결성시기가 오래될수록 공개모집하는 비중이 높음.
- 회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개모집의 비중이 높았으며, 작으면 작을수록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사진’(79.6%), ‘영화’(78.6%)는 공개모집 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전통예술’(55.3%)은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에 높게 응답함.

〈그림 IV-2-5〉 회원 모집 방법



(Base=882 / 단위=%)

〈표 IV-2-5〉 회원 모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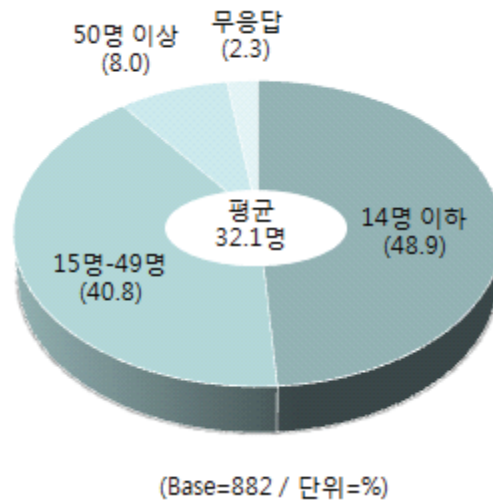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공개모집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	비공개모집	기타	무응답
전 체		(882)	54.5	38.4	3.3	1.6	2.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60.4	32.0	3.0	2.7	1.8
	충청권	(210)	44.8	47.6	4.3	1.4	1.9
	전라권	(130)	58.5	37.7	1.5	0.8	1.5
	경상권	(122)	59.0	34.4	3.3	0.0	3.3
	강원/제주권	(66)	45.5	45.5	3.0	1.5	4.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1.1	61.5	4.1	0.0	3.3
	주민자치센터	(96)	52.1	40.6	0.0	6.3	1.0
	생활문화센터	(224)	51.3	40.6	2.7	0.9	4.5
	평생학습관(센터)	(88)	47.7	40.9	8.0	3.4	0.0
	도서관	(68)	42.6	44.1	7.4	2.9	2.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0	43.3	5.0	0.0	1.7
	사립대학교	(67)	94.0	6.0	0.0	0.0	0.0
	민간기업	(24)	95.8	0.0	0.0	4.2	0.0
	인터넷동호회	(94)	79.8	17.0	2.1	0.0	1.1
	기타	(39)	41.0	56.4	2.6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0.0	33.1	4.1	2.1	0.7
	2010년~2014년	(249)	54.6	38.2	3.2	1.6	2.4
	2015년~2016년	(273)	53.5	40.3	2.6	1.1	2.6
	2017년 이후	(184)	52.2	39.7	3.8	2.2	2.2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2.5	48.5	5.1	1.4	2.6
	중규모	(360)	62.8	32.2	1.7	1.7	1.7
	대규모	(71)	85.9	11.3	1.4	1.4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53.3	39.7	3.3	1.5	2.3
	중규모	(426)	56.8	36.9	3.1	1.4	1.9
	대규모	(30)	60.0	33.3	6.7	0.0	0.0
활동 장르	문학	(82)	48.8	42.7	6.1	2.4	0.0
	미술	(99)	43.4	49.5	4.0	1.0	2.0
	음악	(311)	54.3	38.6	3.5	2.3	1.3
	무용	(128)	56.3	39.8	0.8	1.6	1.6
	연극	(26)	53.8	42.3	3.8	0.0	0.0
	영화	(14)	78.6	14.3	0.0	0.0	7.1
	사진	(49)	79.6	20.4	0.0	0.0	0.0
	공예	(32)	50.0	37.5	9.4	3.1	0.0
	전통예술	(114)	43.9	55.3	0.0	0.0	0.9
	기타	(88)	55.7	31.8	4.5	0.0	8.0

6. 총 회원 수

- 동아리 총 회원 수는 평균 32.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14명 이하의 비중이 48.9%로 가장 높음.
- 결성 시기가 오래될수록 회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2009년 이전 48.9명, 2017년 이후 21.2명).
 -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회원 수 많은 것으로 나타남(소규모 16.3명, 대규모 85.8명).
 - 활동 장르별로는 ‘영화’가 67.4명, ‘음악’ 48.0명, ‘공예’ 42.2명 순으로 응답함.

〈그림 IV-2-6〉 총 회원 수



〈표 IV-2-6〉 총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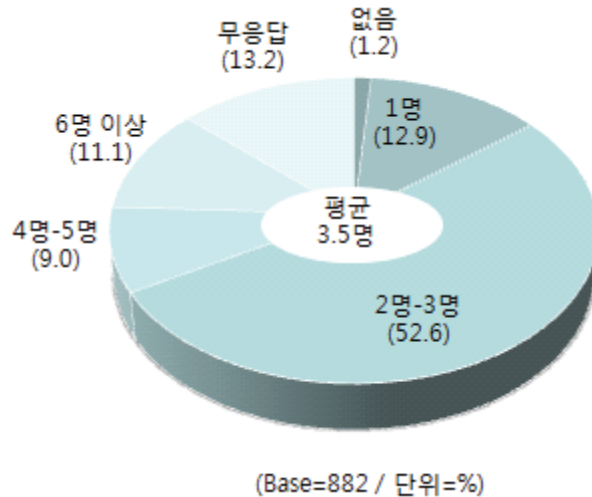
(단위=명, 평균)

		사례수	전체	남자	여자
전 체		(882)	32.1	12.4	19.7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4.5	13.4	21.1
	충청권	(210)	29.0	10.6	18.4
	전라권	(130)	27.9	9.4	18.5
	경상권	(122)	38.2	15.6	22.6
	강원/제주권	(66)	33.6	15.1	18.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1.8	9.7	12.1
	주민자치센터	(96)	14.5	3.6	10.8
	생활문화센터	(224)	20.0	5.7	14.3
	평생학습관(센터)	(88)	22.8	7.2	15.6
	도서관	(68)	12.7	2.1	10.6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4.7	10.7	24.0
	사립대학교	(67)	43.9	20.4	23.4
	민간기업	(24)	26.5	12.8	13.7
	인터넷동호회	(94)	84.7	38.9	45.8
	기타	(39)	81.8	32.7	49.1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8.9	20.9	28.0
	2010년~2014년	(249)	31.1	11.9	19.2
	2015년~2016년	(273)	31.5	11.9	19.6
	2017년 이후	(184)	21.2	7.7	13.5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9.4	2.1	7.3
	중규모	(360)	22.7	7.8	14.9
	대규모	(71)	217.9	97.6	120.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16.3	5.5	10.8
	중규모	(426)	43.7	16.7	26.9
	대규모	(30)	85.8	46.1	39.7
활동 장르	문학	(82)	18.8	4.9	13.9
	미술	(99)	19.0	4.6	14.4
	음악	(311)	48.0	20.2	27.7
	무용	(128)	31.7	10.1	21.6
	연극	(26)	29.6	13.8	15.8
	영화	(14)	67.4	31.5	35.9
	사진	(49)	34.3	13.8	20.5
	공예	(32)	42.2	8.5	33.7
	전통예술	(114)	35.2	11.4	23.9
	기타	(88)	19.9	6.0	13.9

7. 임원 수

- 임원 수 전체 평균은 3.5명으로 나타남. 구간별에서는 2~3명이며, 비중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명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2.9%로 전체적으로는 3명 내외 인 것으로 보임.
- ‘지방문화원/문화의집의 동아리/동호회’에서 임원 수가 6.0명으로 타소속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4.4명,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와 ‘인터넷 동호회’가 3.8명으로 나타남.
 - 회원 수가 많을수록 임원 수 또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소규모 2.2명, 대규모 5.8명).
 - 활동 장르에서는 ‘전통예술’이 5.7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용’이 4.5명으로 응답함.

〈그림 IV-2-7〉 임원 수



〈표 IV-2-7〉 임원 수

(단위=명,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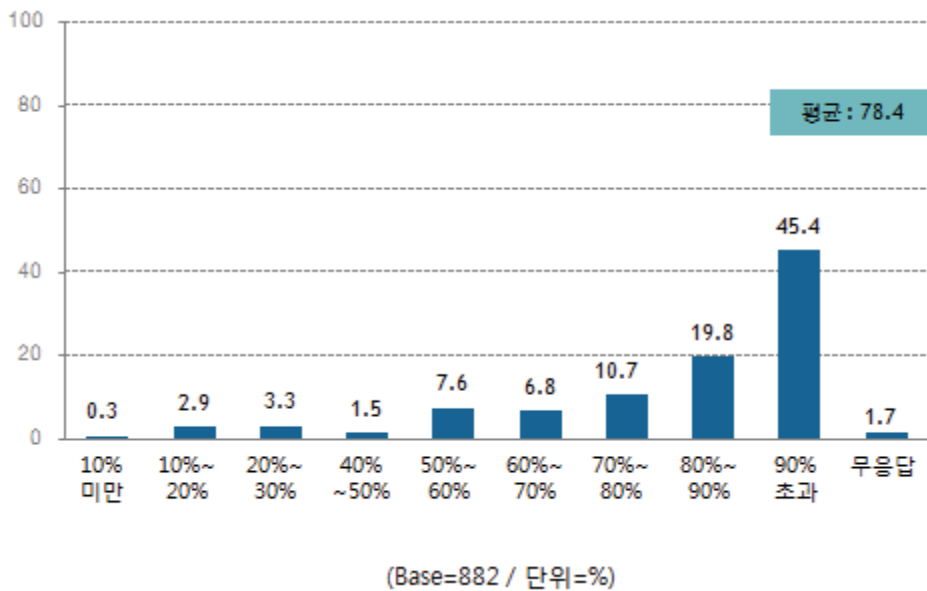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	남자	여자
전 체		(882)	3.5	1.1	2.4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4	1.1	2.3
	충청권	(210)	2.9	0.9	2.0
	전라권	(130)	4.1	1.2	2.9
	경상권	(122)	4.6	1.3	3.3
	강원/제주권	(66)	3.2	1.2	2.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1	1.0	2.0
	주민자치센터	(96)	2.7	0.7	2.1
	생활문화센터	(224)	3.5	0.8	2.6
	평생학습관(센터)	(88)	3.5	1.1	2.4
	도서관	(68)	2.4	0.4	2.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6.0	1.7	4.3
	사립대학교	(67)	4.4	1.8	2.7
	민간기업	(24)	2.8	1.3	1.6
	인터넷동호회	(94)	3.8	1.8	2.0
	기타	(39)	2.7	0.9	1.8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5.0	1.7	3.3
	2010년~2014년	(249)	3.6	1.1	2.5
	2015년~2016년	(273)	2.6	0.8	1.9
	2017년 이후	(184)	3.4	1.1	2.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2.2	0.5	1.7
	중규모	(360)	3.9	1.2	2.7
	대규모	(71)	8.9	3.9	5.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6	0.8	1.8
	중규모	(426)	4.2	1.3	2.9
	대규모	(30)	5.8	2.9	2.9
활동 장르	문학	(82)	2.3	0.5	1.7
	미술	(99)	2.4	0.5	1.9
	음악	(311)	3.6	1.4	2.2
	무용	(128)	4.5	1.0	3.5
	연극	(26)	3.0	1.2	1.8
	영화	(14)	2.8	1.4	1.4
	사진	(49)	3.5	1.2	2.3
	공예	(32)	2.3	0.4	1.9
	전통예술	(114)	5.7	1.8	3.9
	기타	(88)	3.1	0.6	2.5

8. 총 회원 중 활동 회원 비중

○ 총 회원 중 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비중은 약 90% 이상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에서 4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평균은 78.4%로 집계됨.

- 소속 유형별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86.0%로 총 회원 중 활동하고 있는 회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80%대로 나타남. 가장 활동 수가 적은 유형은 '인터넷 동호회'로 65.6%로 나타남.
- 동아리가 결성한지 오래되지 않을수록 활동하는 회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가 적을수록 활동하는 회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는 '음악', '무용'이 활동 회원 비중이 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화'는 51.4%로 절반 정도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그림 IV-2-8〉 총 회원 중 활동 회원 비중



〈표 IV-2-8〉 총 회원 중 활동 회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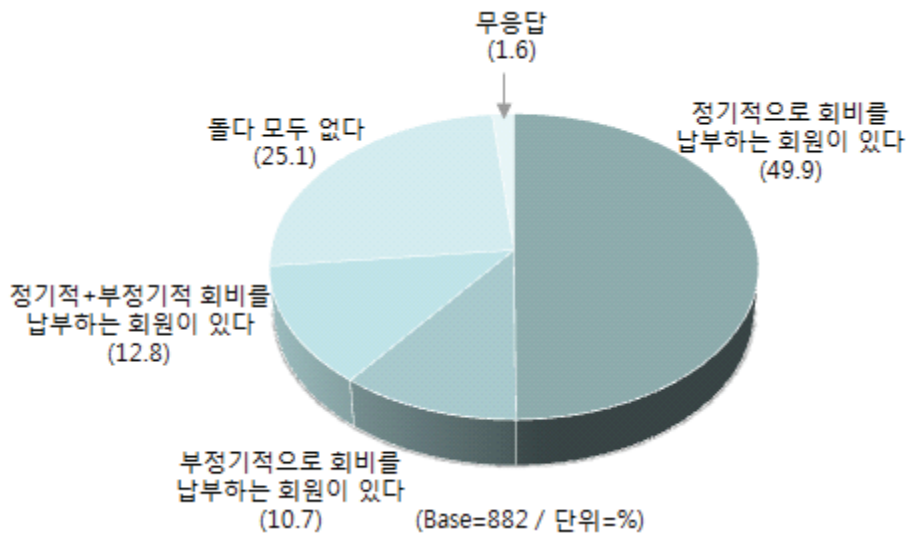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0% 미만	10% ~20 %	20% ~30 %	40% ~50 %	50% ~60 %	60% ~70 %	70% ~80 %	80% ~90 %	90% 초과	무응답	평균
전 체		(882)	0.3	2.9	3.3	1.5	7.6	6.8	10.7	19.8	45.4	1.7	78.4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0.3	5.4	5.1	2.1	7.9	6.9	10.9	17.2	42.3	1.8	75.3
	충청권	(210)	0.0	1.0	3.3	1.0	5.7	6.7	13.3	18.6	50.5	0.0	81.2
	전라권	(130)	0.0	0.8	0.0	0.0	13.1	9.2	6.9	29.2	38.5	2.3	78.5
	경상권	(122)	0.8	3.3	3.3	1.6	9.0	4.1	9.0	18.0	47.5	3.3	78.4
	강원/제주권	(66)	1.5	0.0	1.5	1.5	1.5	6.1	15.2	18.2	53.0	1.5	82.8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0.8	0.8	1.6	0.0	1.6	4.9	8.2	16.4	65.6	0.0	86.0
	주민자치센터	(96)	0.0	0.0	4.2	2.1	12.5	5.2	8.3	17.7	45.8	4.2	78.9
	생활문화센터	(224)	0.0	1.8	1.8	0.4	8.5	5.4	4.9	24.1	49.6	3.6	81.8
	평생학습관(센터)	(88)	0.0	1.1	2.3	1.1	4.5	6.8	14.8	20.5	47.7	1.1	81.1
	도서관	(68)	0.0	1.5	0.0	0.0	8.8	14.7	17.6	19.1	36.8	1.5	78.3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0.0	3.3	1.7	1.7	6.7	0.0	8.3	23.3	53.3	1.7	81.6
	사립대학교	(67)	0.0	6.0	10.4	7.5	13.4	7.5	11.9	16.4	26.9	0.0	66.4
	민간기업	(24)	0.0	0.0	8.3	4.2	8.3	12.5	20.8	37.5	8.3	0.0	68.3
	인터넷동호회	(94)	2.1	10.6	7.4	2.1	8.5	7.4	20.2	14.9	26.6	0.0	65.6
	기타	(39)	0.0	7.7	0.0	0.0	2.6	15.4	7.7	12.8	53.8	0.0	80.3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0.7	4.8	3.4	3.4	10.3	4.8	9.7	17.2	44.1	1.4	75.6
	2010년~2014년	(249)	0.4	2.8	5.6	0.4	4.4	7.6	12.0	16.9	49.4	0.4	78.9
	2015년~2016년	(273)	0.0	1.5	2.2	1.5	10.3	7.7	9.9	24.5	40.7	1.8	78.3
	2017년 이후	(184)	0.5	3.8	1.6	1.6	5.4	4.9	11.4	20.7	47.8	2.2	80.0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0.0	0.7	1.6	0.2	5.3	4.6	10.7	18.8	57.3	0.7	84.7
	중규모	(360)	0.0	2.5	3.1	1.4	9.4	8.6	10.8	23.1	39.2	1.9	76.8
	대규모	(71)	4.2	16.9	14.1	9.9	12.7	11.3	11.3	11.3	8.5	0.0	49.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0.3	1.3	3.3	1.3	11.3	6.3	11.8	19.6	44.2	0.8	78.4
	중규모	(426)	0.2	4.0	3.8	1.2	4.2	7.3	10.3	20.4	46.7	1.9	78.9
	대규모	(30)	3.3	10.0	0.0	6.7	3.3	3.3	10.0	6.7	56.7	0.0	74.1
활동 장르	문학	(82)	0.0	2.4	0.0	1.2	7.3	15.9	14.6	24.4	34.1	0.0	77.2
	미술	(99)	0.0	1.0	6.1	1.0	3.0	10.1	9.1	25.3	44.4	0.0	78.5
	음악	(311)	0.6	2.6	3.9	1.0	3.9	7.1	9.3	20.6	50.2	1.0	80.4
	무용	(128)	0.0	0.8	3.9	1.6	10.9	6.3	7.0	14.8	53.1	1.6	80.2
	연극	(26)	0.0	7.7	0.0	0.0	3.8	7.7	11.5	42.3	26.9	0.0	75.8
	영화	(14)	0.0	28.6	0.0	7.1	7.1	28.6	0.0	21.4	7.1	0.0	51.4
	사진	(49)	0.0	6.1	6.1	2.0	0.0	16.3	18.4	22.4	26.5	2.0	71.5
	공예	(32)	3.1	3.1	3.1	3.1	12.5	12.5	21.9	21.9	18.8	0.0	67.8
	전통예술	(114)	0.0	1.8	0.9	0.0	15.8	6.1	3.5	13.2	55.3	3.5	79.6
	기타	(88)	0.0	2.3	1.1	3.4	10.2	8.0	10.2	13.6	51.1	0.0	80.6

9. 회비 납부 회원 유형

- 회원 중에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응답이 4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속 유형은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적 회비 납부와 부정기적 회비 모두 납부하는 회원이 없는 경우는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66.7%로 타소속 유형에 비해 높게 응답함.
 - 결성이 오래될수록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비중이 높았으며, 결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을수록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음악’ 동아리는 62.7%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학’ 동아리는 정기적 회비 납부와 비정기적 회비 모두 납부하는 회원이 없는 경우가 46.3%로 타소속 유형에 비해 높게 응답함.

〈그림 IV-2-9〉 회비 납부 회원 유형



〈표 IV-2-9〉 회비 납부 회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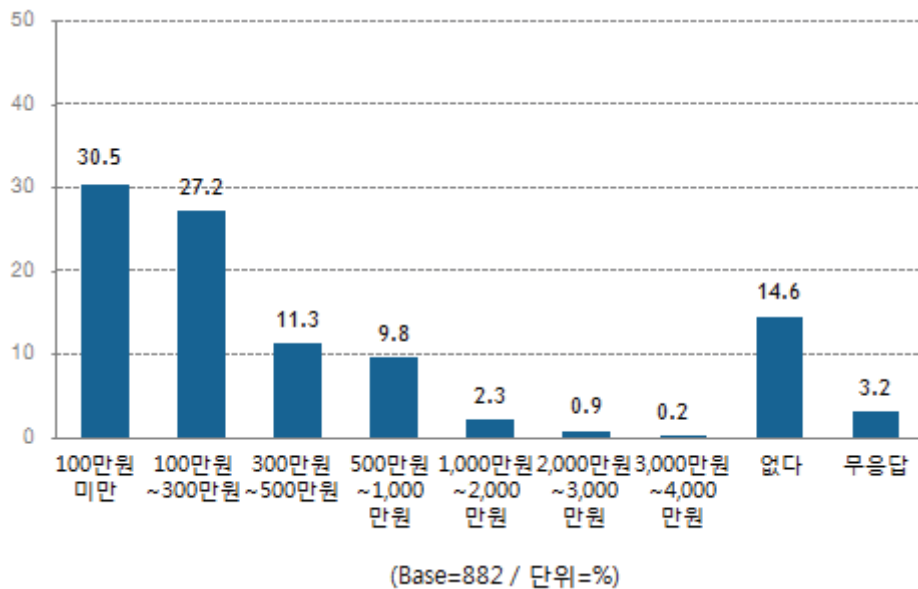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부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정기적+부정 기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둘다 모두 없다	무응답
전 체		(882)	49.9	10.7	12.8	25.1	1.6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53.2	7.9	13.0	24.2	1.8
	충청권	(210)	55.2	6.7	12.4	23.8	1.9
	전라권	(130)	30.8	21.5	13.8	33.1	0.8
	경상권	(122)	42.6	18.0	10.7	27.9	0.8
	강원/제주권	(66)	62.1	1.5	18.2	16.7	1.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59.0	4.9	13.1	20.5	2.5
	주민자치센터	(96)	62.5	6.3	10.4	17.7	3.1
	생활문화센터	(224)	45.1	18.3	10.7	23.7	2.2
	평생학습관(센터)	(88)	53.4	9.1	18.2	18.2	1.1
	도서관	(68)	33.8	11.8	8.8	42.6	2.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45.0	15.0	20.0	20.0	0.0
	사립대학교	(67)	68.7	1.5	11.9	17.9	0.0
	민간기업	(24)	12.5	8.3	12.5	66.7	0.0
	인터넷동호회	(94)	40.4	11.7	13.8	34.0	0.0
	기타	(39)	59.0	5.1	12.8	23.1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55.9	4.8	18.6	20.0	0.7
	2010년~2014년	(249)	57.8	10.0	13.7	16.9	1.6
	2015년~2016년	(273)	49.1	13.2	10.6	26.0	1.1
	2017년 이후	(184)	38.0	12.5	8.7	39.7	1.1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9.2	10.4	10.2	28.5	1.6
	중규모	(360)	50.6	10.3	15.0	23.1	1.1
	대규모	(71)	49.3	12.7	19.7	18.3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5.4	14.8	8.0	39.7	2.0
	중규모	(426)	64.1	7.7	16.4	11.5	0.2
	대규모	(30)	60.0	3.3	33.3	3.3	0.0
활동 장르	문학	(82)	26.8	13.4	12.2	46.3	1.2
	미술	(99)	42.4	14.1	18.2	23.2	2.0
	음악	(311)	62.7	6.4	12.9	16.1	1.9
	무용	(128)	39.1	11.7	15.6	33.6	0.0
	연극	(26)	42.3	7.7	19.2	30.8	0.0
	영화	(14)	50.0	14.3	7.1	28.6	0.0
	사진	(49)	46.9	14.3	24.5	14.3	0.0
	공예	(32)	28.1	18.8	21.9	31.3	0.0
	전통예술	(114)	41.2	21.1	7.0	29.8	0.9
	기타	(88)	55.7	11.4	13.6	18.2	1.1

10. 2017년 연간 예산 규모

- 동아리 연간 예산 규모는 100만원 미만이라는 경우가 전체에서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300만원 미만도 약 27.2%가 응답함.
- 소속 유형별로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100만 원 미만이 47.1%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의 100만 원~300만 원 구간은 37.5%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결성시기가 오래되지 않을수록 100만 원 미만 비중이 높아졌으며, 오래될수록 '100만 원~300만 원', '300만 원~500만 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100만 원 미만은 '영화'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극'(46.2%)이 100만 원~300만 원, '음악'(19.3%)이 300만 원~500만 원, '사진'(18.4%)이 500만 원~1,000만 원, '공예'(6.3%)가 1,000만 원~2,000만 원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10〉 2017년 연간 예산 규모



〈표 IV-2-10〉 2017년 연간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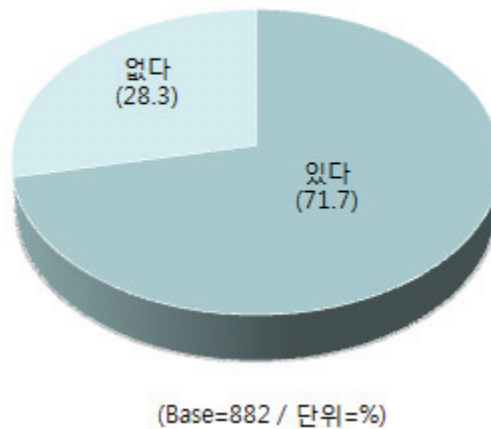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 만원	1,000 만원 ~ 2,000 만원	2,000 만원 ~ 3,000 만원	3,000 만원 ~ 4,000 만원	없다	무 응답
전 체		(882)	30.5	27.2	11.3	9.8	2.3	0.9	0.2	14.6	3.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2.0	27.8	11.2	9.4	1.8	0.9	0.6	13.0	3.3
	충청권	(210)	35.7	28.1	7.6	7.1	2.4	1.0	0.0	15.2	2.9
	전라권	(130)	30.0	18.5	16.2	13.8	2.3	0.0	0.0	17.7	1.5
	경상권	(122)	25.4	30.3	11.5	7.4	3.3	0.0	0.0	16.4	5.7
	강원/제주권	(66)	16.7	30.3	16.7	16.7	3.0	4.5	0.0	12.1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9.5	27.9	11.5	8.2	4.9	3.3	0.0	12.3	2.5
	주민자치센터	(96)	32.3	28.1	11.5	6.3	1.0	0.0	0.0	13.5	7.3
	생활문화센터	(224)	24.6	25.0	16.5	12.5	1.3	0.4	0.4	13.4	5.8
	평생학습관(센터)	(88)	31.8	37.5	5.7	11.4	3.4	1.1	0.0	8.0	1.1
	도서관	(68)	47.1	19.1	4.4	2.9	0.0	0.0	0.0	26.5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1.7	25.0	11.7	11.7	1.7	0.0	0.0	15.0	3.3
	사립대학교	(67)	35.8	38.8	14.9	3.0	1.5	1.5	0.0	4.5	0.0
	민간기업	(24)	0.0	8.3	0.0	0.0	0.0	0.0	0.0	83.3	8.3
	인터넷동호회	(94)	36.2	22.3	7.4	16.0	5.3	1.1	1.1	10.6	0.0
	기타	(39)	25.6	33.3	15.4	15.4	0.0	0.0	0.0	10.3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1.4	39.3	11.7	9.0	4.1	3.4	0.0	10.3	0.7
	2010년~2014년	(249)	31.3	29.7	11.6	11.2	2.4	0.8	0.4	10.0	2.4
	2015년~2016년	(273)	33.7	25.6	14.7	3.7	2.2	0.4	0.0	15.0	4.8
	2017년 이후	(184)	33.7	16.3	4.3	17.9	1.1	0.0	0.5	23.4	2.7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6.7	27.1	7.9	5.1	0.0	0.2	0.0	20.2	2.8
	중규모	(360)	25.3	26.4	13.9	15.0	3.6	1.7	0.0	10.8	3.3
	대규모	(71)	19.7	33.8	19.7	11.3	7.0	1.4	1.4	4.2	1.4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67.6	0.0	0.0	0.0	0.0	0.0	0.0	32.4	0.0
	중규모	(426)	0.0	56.3	23.5	20.2	0.0	0.0	0.0	0.0	0.0
	대규모	(30)	0.0	0.0	0.0	0.0	66.7	26.7	6.7	0.0	0.0
활동 장르	문학	(82)	40.2	13.4	3.7	4.9	2.4	0.0	0.0	32.9	2.4
	미술	(99)	35.4	22.2	12.1	5.1	3.0	1.0	0.0	13.1	8.1
	음악	(311)	24.8	24.8	19.3	10.0	4.2	1.9	0.0	12.9	2.3
	무용	(128)	25.8	28.1	14.8	17.2	2.3	0.0	0.0	8.6	3.1
	연극	(26)	26.9	46.2	11.5	11.5	0.0	0.0	0.0	3.8	0.0
	영화	(14)	50.0	21.4	14.3	7.1	0.0	0.0	0.0	0.0	7.1
	사진	(49)	24.5	28.6	10.2	18.4	6.1	0.0	0.0	12.2	0.0
	공예	(32)	40.6	15.6	6.3	6.3	6.3	0.0	0.0	21.9	3.1
	전통예술	(114)	36.8	15.8	8.8	17.5	1.8	0.9	0.9	14.0	3.5
	기타	(88)	30.7	40.9	5.7	5.7	3.4	0.0	0.0	11.4	2.3

11. 강사 및 전문가 보유 여부

-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에서 약 71.7%가 '있는 경우'에 응답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8.3%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100.0%)와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90.2%)가 강사/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사립 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88.1%), '인터넷 동호회'(57.9%)는 강사/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결성 시기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이 40.7%로 강사/전문가 보유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무용'이 75.8%로 강사/전문가 보유 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응답했으며, '연극'(61.5%)은 강사/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11> 강사/전문가 보유 여부



〈표 IV-2-11〉 강사/전문가 보유 여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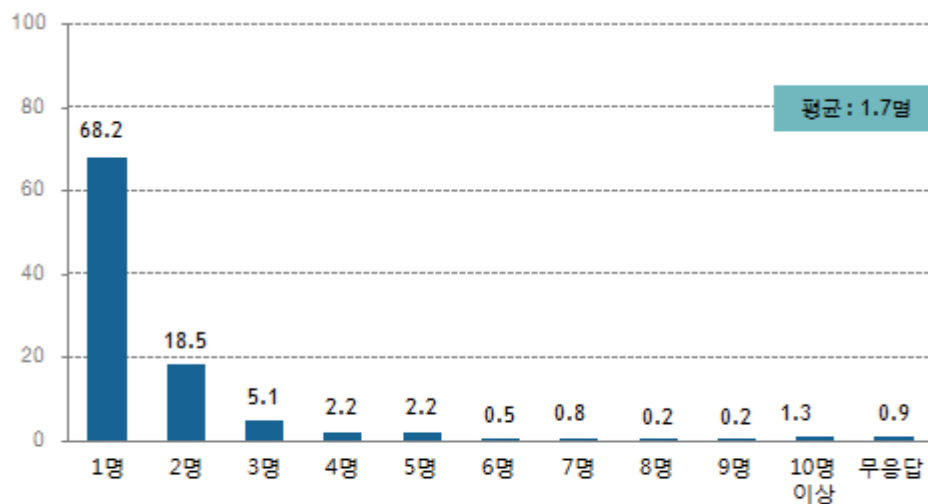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882)	71.7	28.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64.4	35.6
	충청권	(210)	73.3	26.7
	전라권	(130)	84.6	15.4
	경상권	(122)	68.9	31.1
	강원/제주권	(66)	77.3	22.7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90.2	9.8
	주민자치센터	(96)	87.5	12.5
	생활문화센터	(224)	77.7	22.3
	평생학습관(센터)	(88)	76.1	23.9
	도서관	(68)	50.0	5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81.7	18.3
	사립대학교	(67)	11.9	88.1
	민간기업	(24)	100.0	0.0
	인터넷동호회	(94)	52.1	47.9
	기타	(39)	84.6	15.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59.3	40.7
	2010년~2014년	(249)	74.3	25.7
	2015년~2016년	(273)	76.2	23.8
	2017년 이후	(184)	71.2	28.8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68.4	31.6
	중규모	(360)	78.9	21.1
	대규모	(71)	50.7	49.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62.8	37.2
	중규모	(426)	77.7	22.3
	대규모	(30)	96.7	3.3
활동 장르	문학	(82)	48.8	51.2
	미술	(99)	67.7	32.3
	음악	(311)	83.6	16.4
	무용	(128)	75.8	24.2
	연극	(26)	38.5	61.5
	영화	(14)	57.1	42.9
	사진	(49)	57.1	42.9
	공예	(32)	71.9	28.1
	전통예술	(114)	93.9	6.1
	기타	(88)	59.1	40.9

12.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인원

○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평균 1.7명이며, 전체적으로 1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에서 68.2%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강사/전문가를 평균 3.1명으로 타소속 유형에 비해 많은 강사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동호회'가 2.8명,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1.9명 순으로 나타남.
- 결성 시기별로는 결성 시기가 짧은 동아리일수록 2명 정도 강사/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2009년 이전 14.0%, 2017년 이후 29.0%).
- 활동 장르별로 3명 이상 강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는 대체로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공예'로 나타남.

〈그림 IV-2-12〉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인원



(Base=632 / 단위=%)

〈표 IV-2-12〉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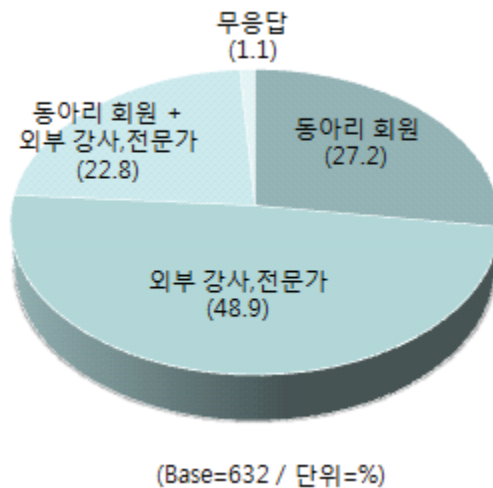
(단위=%, 명)

		사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무응 답	평균
전 체		(632)	68.2	18.5	5.1	2.2	2.2	0.5	0.8	0.2	0.2	1.3	0.9	1.7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58.7	22.1	8.5	3.3	2.8	0.0	0.9	0.5	0.0	2.3	0.9	1.9
	충청권	(154)	79.9	13.0	1.3	0.6	1.9	0.6	0.0	0.0	0.6	0.6	1.3	1.4
	전라권	(110)	72.7	20.9	3.6	0.9	0.9	0.0	0.0	0.0	0.0	0.9	0.0	1.4
	경상권	(84)	59.5	19.0	7.1	4.8	3.6	1.2	2.4	0.0	0.0	1.2	1.2	1.9
	강원/제주권	(51)	70.6	21.6	3.9	2.0	0.0	0.0	2.0	0.0	0.0	0.0	0.0	1.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83.6	9.1	2.7	1.8	0.0	0.0	0.0	0.0	0.0	2.7	0.0	1.4
	주민자치센터	(84)	76.2	17.9	3.6	1.2	0.0	0.0	0.0	0.0	0.0	1.2	0.0	1.4
	생활문화센터	(174)	65.5	23.6	5.7	0.6	1.1	0.0	1.1	0.0	0.0	0.0	2.3	1.5
	평생학습관(센터)	(67)	68.7	17.9	6.0	0.0	3.0	1.5	0.0	0.0	0.0	1.5	1.5	1.6
	도서관	(34)	67.6	14.7	2.9	2.9	5.9	2.9	2.9	0.0	0.0	0.0	0.0	1.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79.6	16.3	2.0	0.0	0.0	2.0	0.0	0.0	0.0	0.0	0.0	1.3
	사립대학교	(8)	87.5	0.0	12.5	0.0	0.0	0.0	0.0	0.0	0.0	0.0	0.0	1.3
	민간기업	(24)	20.8	25.0	16.7	12.5	16.7	0.0	0.0	0.0	0.0	4.2	4.2	3.1
	인터넷동호회	(49)	40.8	22.4	8.2	12.2	4.1	0.0	4.1	2.0	2.0	4.1	0.0	2.8
	기타	(33)	63.6	27.3	3.0	0.0	6.1	0.0	0.0	0.0	0.0	0.0	0.0	1.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70.9	14.0	4.7	1.2	0.0	2.3	1.2	1.2	0.0	4.7	0.0	2.0
	2010년~2014년	(185)	64.3	16.2	9.2	2.7	4.3	0.0	2.2	0.0	0.0	1.1	0.0	1.8
	2015년~2016년	(208)	74.0	17.3	4.3	1.0	1.0	0.5	0.0	0.0	0.5	1.0	0.5	1.5
	2017년 이후	(131)	63.4	26.0	0.8	3.8	3.1	0.0	0.0	0.0	0.0	0.0	3.1	1.5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73.6	19.7	2.7	0.7	1.0	0.3	0.0	0.0	0.0	0.7	1.4	1.4
	중규모	(284)	70.1	15.8	7.0	2.1	2.8	0.4	0.7	0.0	0.4	0.7	0.0	1.6
	대규모	(36)	16.7	27.8	8.3	16.7	8.3	0.0	8.3	0.0	0.0	11.1	2.8	3.9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74.4	17.2	3.2	1.6	1.6	0.4	0.0	0.0	0.0	0.8	0.8	1.4
	중규모	(331)	67.4	18.7	6.0	2.7	2.4	0.6	0.9	0.3	0.0	0.6	0.3	1.6
	대규모	(29)	34.5	27.6	13.8	3.4	3.4	0.0	3.4	0.0	3.4	10.3	0.0	3.2
활동 장르	문학	(40)	50.0	25.0	2.5	5.0	7.5	0.0	5.0	0.0	0.0	0.0	5.0	2.1
	미술	(67)	77.6	17.9	0.0	1.5	1.5	1.5	0.0	0.0	0.0	0.0	0.0	1.4
	음악	(260)	69.2	15.0	8.1	2.7	1.9	0.0	0.8	0.0	0.0	1.9	0.4	1.7
	무용	(97)	76.3	18.6	1.0	0.0	3.1	0.0	0.0	0.0	0.0	1.0	0.0	1.4
	연극	(10)	60.0	20.0	10.0	10.0	0.0	0.0	0.0	0.0	0.0	0.0	0.0	1.7
	영화	(8)	25.0	50.0	0.0	12.5	0.0	0.0	12.5	0.0	0.0	0.0	0.0	2.6
	사진	(28)	39.3	60.7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
	공예	(23)	39.1	39.1	4.3	0.0	0.0	4.3	8.7	0.0	0.0	0.0	4.3	2.3
	전통예술	(107)	75.7	21.5	0.9	0.0	0.9	0.0	0.9	0.0	0.0	0.0	0.0	1.3
	기타	(52)	67.3	13.5	9.6	1.9	1.9	1.9	0.0	0.0	0.0	1.9	1.9	1.7

13.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소속

- 강사나 전문가는 동아리(동호회) 회원 보다는 ‘외부 강사 또는 전문가’인 경우가 48.9%로 ‘동아리 회원’인 경우(2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 ‘동아리 회원 + 외부 강사 또는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22.8%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에서는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91.7%)와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71.8%)가 외부 강사/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우가 높았으며,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41.2%)는 동아리 회원으로 강사/전문가를 확보한 경우가 타소속 유형보다 높은 비중으로 응답함.
 - 결성 시기가 오래될수록 동아리 회원과 외부 강사/전문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는 동아리 회원이 강사/전문가로 구성된 경우, ‘사진’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부 강사/전문가는 ‘연극’이 70.0%,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 전문가에서는 ‘영화’가 62.5%로 가장 높게 응답함.

〈그림 IV-2-13〉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소속



〈표 IV-2-13〉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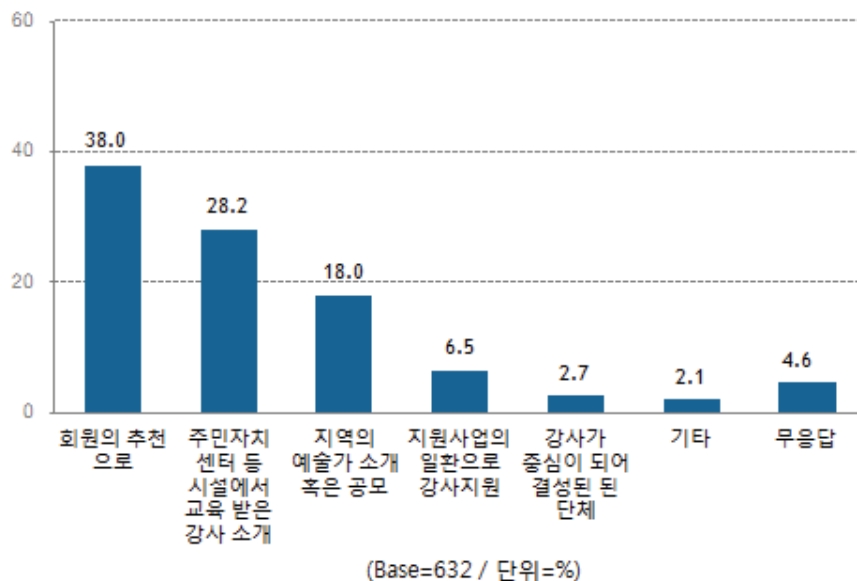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동아리 회원	외부 강사, 전문가	동아리 회원 + 외부 강사, 전문가	무응답
전 체		(632)	27.2	48.9	22.8	1.1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39.4	39.9	19.2	1.4
	충청권	(154)	8.4	73.4	16.9	1.3
	전라권	(110)	26.4	35.5	38.2	0.0
	경상권	(84)	33.3	36.9	27.4	2.4
	강원/제주권	(51)	25.5	52.9	21.6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10.0	71.8	17.3	0.9
	주민자치센터	(84)	26.2	53.6	17.9	2.4
	생활문화센터	(174)	37.9	29.3	31.6	1.1
	평생학습관(센터)	(67)	22.4	52.2	23.9	1.5
	도서관	(34)	41.2	44.1	14.7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30.6	51.0	18.4	0.0
	사립대학교	(8)	50.0	50.0	0.0	0.0
	민간기업	(24)	4.2	91.7	4.2	0.0
	인터넷동호회	(49)	36.7	24.5	36.7	2.0
	기타	(33)	18.2	63.6	18.2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25.6	60.5	12.8	1.2
	2010년~2014년	(185)	24.9	48.1	26.5	0.5
	2015년~2016년	(208)	35.1	46.2	18.8	0.0
	2017년 이후	(131)	19.1	45.8	32.8	2.3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28.1	49.2	21.4	1.4
	중규모	(284)	27.1	50.7	21.8	0.4
	대규모	(36)	27.8	27.8	44.4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29.6	48.4	21.2	0.8
	중규모	(331)	26.6	49.5	23.6	0.3
	대규모	(29)	27.6	48.3	20.7	3.4
활동 장르	문학	(40)	32.5	45.0	22.5	0.0
	미술	(67)	20.9	65.7	13.4	0.0
	음악	(260)	27.7	54.2	16.9	1.2
	무용	(97)	8.2	51.5	40.2	0.0
	연극	(10)	20.0	70.0	10.0	0.0
	영화	(8)	0.0	37.5	62.5	0.0
	사진	(28)	46.4	35.7	17.9	0.0
	공예	(23)	21.7	52.2	26.1	0.0
	전통예술	(107)	25.2	44.9	29.9	0.0
	기타	(52)	42.3	26.9	26.9	3.8

14.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초빙 방법

- 강사나 전문가는 주로 회원의 추천으로 초빙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38.0%이며, 시설에서 교육 받은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28.2%로 강좌와의 연계성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속 유형별로 회원 추천으로 초빙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동호회’가 69.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설에서 교육 받은 강사를 소개해 초빙하는 방법은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46.4%, 지역의 예술가 소개 혹은 공모를 통해서 초빙하는 방법은 ‘지역주민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30.9%,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방법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회원 규모가 클수록 회원의 추천을 받는 비중이 높아짐.
 -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회원의 추천과 지역의 예술가 소개 혹은 공모가 높아지는 비중을 보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높아짐.
 - 활동 장르별로 ‘영화’(62.5%)는 회원의 추천으로, ‘무용’(44.3%)은 시설에서 교육받는 강사 소개로, ‘사진’(46.4%)은 지역의 예술가 혹은 공모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IV-2-14〉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초빙 방법



〈표 IV-2-14〉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초빙 방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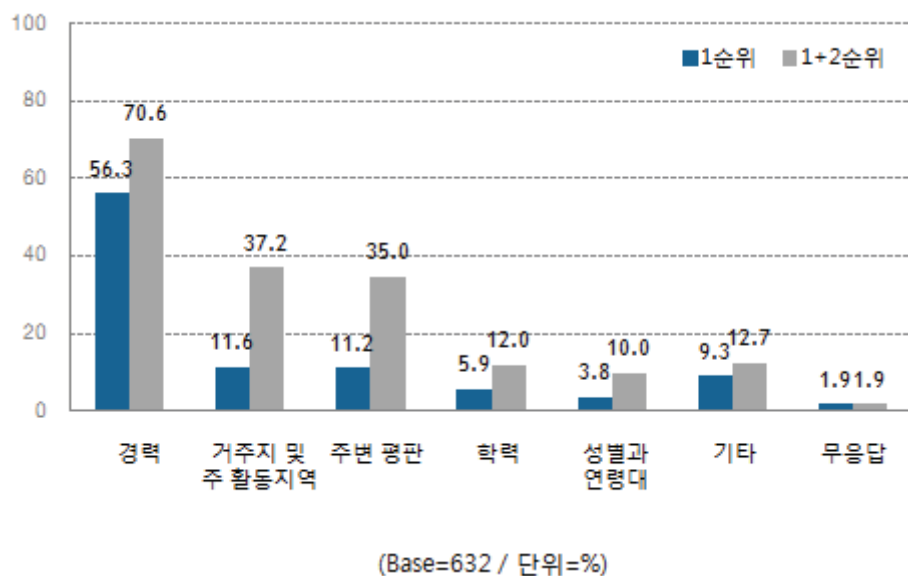
		사례수	회원의 추천으로	주민자치 센터 등 시설에서 교육받은 강사소개	지역의 예술가 소개 혹은 공모	지원 사업으로 일함으로 강사지원	강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단체	기타	무응답
전 체		(632)	38.0	28.2	18.0	6.5	2.7	2.1	4.6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42.7	27.7	17.4	3.8	2.8	1.9	3.8
	충청권	(154)	29.9	26.6	26.6	8.4	0.0	1.3	7.1
	전라권	(110)	30.9	47.3	7.3	7.3	0.0	3.6	3.6
	경상권	(84)	36.9	15.5	15.5	10.7	13.1	3.6	4.8
	강원/제주권	(51)	51.0	19.6	23.5	2.0	0.0	0.0	3.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30.0	27.3	30.9	4.5	0.0	0.0	7.3
	주민자치센터	(84)	31.0	46.4	16.7	1.2	0.0	1.2	3.6
	생활문화센터	(174)	36.8	33.3	12.6	4.6	6.3	2.3	4.0
	평생학습관(센터)	(67)	46.3	31.3	9.0	1.5	3.0	3.0	6.0
	도서관	(34)	58.8	14.7	11.8	5.9	2.9	2.9	2.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30.6	32.7	28.6	4.1	0.0	2.0	2.0
	사립대학교	(8)	50.0	12.5	12.5	0.0	12.5	12.5	0.0
	민간기업	(24)	4.2	0.0	0.0	83.3	0.0	4.2	8.3
	인터넷동호회	(49)	69.4	2.0	22.4	0.0	0.0	2.0	4.1
	기타	(33)	36.4	21.2	24.2	6.1	6.1	3.0	3.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40.7	22.1	24.4	5.8	1.2	2.3	3.5
	2010년~2014년	(185)	45.9	24.3	19.5	3.8	0.0	1.6	4.9
	2015년~2016년	(208)	39.4	29.8	12.0	5.8	7.2	1.9	3.8
	2017년 이후	(131)	26.7	30.5	20.6	13.0	0.8	3.1	5.3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37.3	27.1	18.6	4.7	5.8	2.7	3.7
	중규모	(284)	37.3	32.0	14.8	8.1	0.0	1.8	6.0
	대규모	(36)	52.8	8.3	33.3	5.6	0.0	0.0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38.4	27.2	13.2	12.4	0.8	2.8	5.2
	중규모	(331)	38.4	30.2	19.6	2.4	4.5	1.8	3.0
	대규모	(29)	48.3	13.8	37.9	0.0	0.0	0.0	0.0
활동 장르	문학	(40)	47.5	20.0	20.0	2.5	2.5	2.5	5.0
	미술	(67)	26.9	34.3	29.9	6.0	3.0	0.0	0.0
	음악	(260)	42.7	26.5	19.6	6.9	0.0	1.2	3.1
	무용	(97)	27.8	44.3	19.6	2.1	0.0	2.1	4.1
	연극	(10)	30.0	30.0	10.0	0.0	10.0	20.0	0.0
	영화	(8)	62.5	25.0	12.5	0.0	0.0	0.0	0.0
	사진	(28)	17.9	25.0	46.4	7.1	0.0	0.0	3.6
	공예	(23)	34.8	30.4	21.7	8.7	4.3	0.0	0.0
	전통예술	(107)	22.4	35.5	23.4	11.2	0.0	2.8	4.7
	기타	(52)	28.8	25.0	5.8	1.9	23.1	3.8	11.5

15.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 강사나 전문가를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경력(1순위 56.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주지 및 주 활동지역(1순위 11.6%)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속 유형은 ‘지방문화원/문화의집의 동아리/동호회’(73.5%)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거주지 및 주 활동 지역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17.6%), 주변 평판은 ‘인터넷 동호회’(22.4%), ‘학력’은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27.4%)가 높은 응답을 보임.
- 결성한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경력을 중요시 봄.
- 활동 장르별로는 ‘연극’(80.0%)이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전통예술’(20.6%)은 거주지 및 주 활동 지역을, ‘사진’(17.9%)은 주변 평판, ‘공예’(13.0%)는 학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 IV-2-15>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표 IV-2-15〉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1순위)
(단위=%)

		사례수	경력	거주지 및 주활동 지역	주변 평판	학력	성별과 연령대	기타	무응답
전 체		(632)	56.3	11.6	11.2	5.9	3.8	9.3	1.9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60.1	7.5	13.1	8.5	2.3	6.1	2.3
	충청권	(154)	62.3	9.7	13.0	5.2	1.9	5.8	1.9
	전라권	(110)	40.9	22.7	4.5	3.6	11.8	15.5	0.9
	경상권	(84)	58.3	8.3	10.7	2.4	2.4	15.5	2.4
	강원/제주권	(51)	54.9	13.7	15.7	5.9	2.0	5.9	2.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64.5	10.0	9.1	5.5	1.8	6.4	2.7
	주민자치센터	(84)	39.3	11.9	10.7	27.4	2.4	4.8	3.6
	생활문화센터	(174)	50.6	16.7	10.9	2.3	8.6	9.2	1.7
	평생학습관(센터)	(67)	73.1	6.0	9.0	3.0	0.0	7.5	1.5
	도서관	(34)	67.6	17.6	8.8	0.0	0.0	5.9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73.5	10.2	10.2	2.0	2.0	2.0	0.0
	사립대학교	(8)	62.5	0.0	37.5	0.0	0.0	0.0	0.0
	민간기업	(24)	4.2	0.0	0.0	0.0	0.0	87.5	8.3
	인터넷동호회	(49)	55.1	10.2	22.4	0.0	8.2	4.1	0.0
	기타	(33)	69.7	9.1	15.2	3.0	0.0	3.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66.3	7.0	14.0	8.1	1.2	3.5	0.0
	2010년~2014년	(185)	63.2	9.2	10.8	7.6	2.2	5.4	1.6
	2015년~2016년	(208)	56.3	17.3	8.2	3.8	7.7	5.8	1.0
	2017년 이후	(131)	39.7	9.9	14.5	5.3	0.8	26.0	3.8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62.4	9.8	10.8	7.5	1.7	5.4	2.4
	중규모	(284)	50.4	13.4	10.6	4.9	5.6	13.7	1.4
	대규모	(36)	52.8	8.3	19.4	2.8	8.3	8.3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52.0	15.2	9.2	7.2	2.4	12.4	1.6
	중규모	(331)	59.2	8.8	13.0	5.1	4.8	7.9	1.2
	대규모	(29)	65.5	17.2	10.3	0.0	3.4	3.4	0.0
활동 장르	문학	(40)	50.0	15.0	15.0	10.0	0.0	10.0	0.0
	미술	(67)	68.7	9.0	11.9	6.0	0.0	4.5	0.0
	음악	(260)	57.3	9.2	11.5	5.8	5.4	8.1	2.7
	무용	(97)	49.5	9.3	13.4	7.2	0.0	20.6	0.0
	연극	(10)	80.0	10.0	10.0	0.0	0.0	0.0	0.0
	영화	(8)	62.5	12.5	12.5	12.5	0.0	0.0	0.0
	사진	(28)	50.0	10.7	17.9	0.0	14.3	7.1	0.0
	공예	(23)	47.8	8.7	8.7	13.0	0.0	21.7	0.0
	전통예술	(107)	53.3	20.6	2.8	4.7	1.9	16.8	0.0
	기타	(52)	59.6	13.5	7.7	5.8	3.8	7.7	1.9

〈표 IV-2-16〉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 선정 시 중요 고려요인 (1+2순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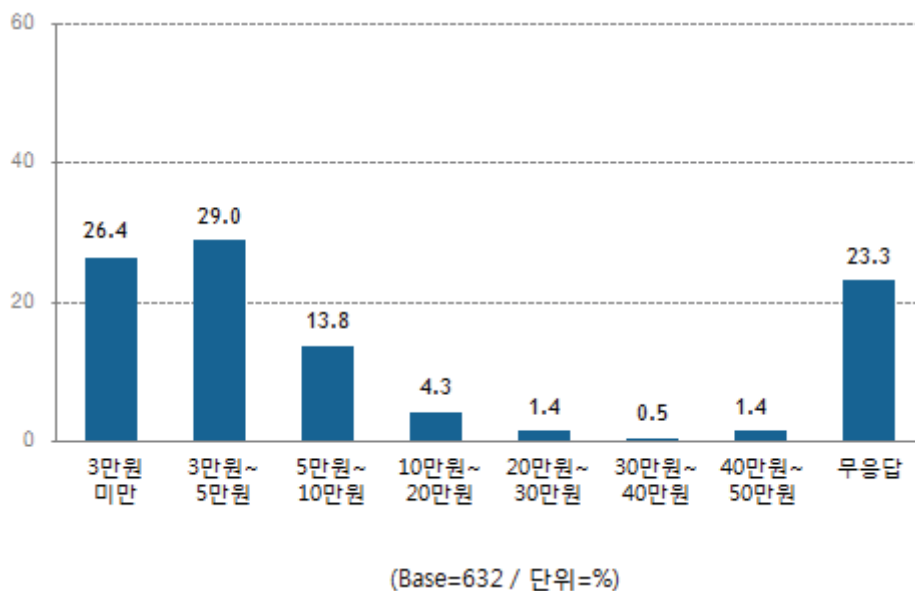
		사례수	경력	거주지 및 주활동 지역	주변 평판	학력	성별과 연령대	기타	무응답
전 체		(632)	70.6	37.2	35.0	12.0	10.0	12.7	1.9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71.8	31.0	38.0	11.3	10.3	12.2	2.3
	충청권	(154)	81.8	34.4	41.6	14.3	5.8	8.4	1.9
	전라권	(110)	50.9	39.1	31.8	17.3	17.3	17.3	0.9
	경상권	(84)	73.8	42.9	25.0	3.6	8.3	17.9	2.4
	강원/제주권	(51)	76.5	54.9	29.4	9.8	7.8	5.9	2.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81.8	40.9	33.6	17.3	5.5	8.2	2.7
	주민자치센터	(84)	48.8	41.7	38.1	34.5	7.1	6.0	3.6
	생활문화센터	(174)	64.4	37.4	34.5	10.9	13.8	16.1	1.7
	평생학습관(센터)	(67)	85.1	28.4	28.4	10.4	4.5	11.9	1.5
	도서관	(34)	91.2	44.1	38.2	0.0	11.8	5.9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81.6	46.9	44.9	2.0	6.1	2.0	0.0
	사립대학교	(8)	75.0	12.5	37.5	0.0	50.0	0.0	0.0
	민간기업	(24)	4.2	8.3	0.0	0.0	0.0	87.5	8.3
	인터넷동호회	(49)	77.6	32.7	38.8	0.0	20.4	8.2	0.0
	기타	(33)	90.9	42.4	48.5	3.0	9.1	6.1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79.1	31.4	46.5	11.6	9.3	5.8	0.0
	2010년~2014년	(185)	79.5	40.5	28.1	14.6	6.5	11.4	1.6
	2015년~2016년	(208)	69.2	40.9	35.6	13.0	16.3	7.7	1.0
	2017년 이후	(131)	52.7	29.8	35.9	8.4	5.3	28.2	3.8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78.0	42.0	34.2	12.5	7.5	6.8	2.4
	중규모	(284)	62.7	34.2	34.2	12.3	10.9	19.0	1.4
	대규모	(36)	72.2	25.0	41.7	5.6	19.4	13.9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63.2	38.8	34.8	13.6	8.4	14.8	1.6
	중규모	(331)	75.8	36.9	36.3	10.6	10.9	11.8	1.2
	대규모	(29)	82.8	37.9	34.5	13.8	10.3	10.3	0.0
활동 장르	문학	(40)	77.5	27.5	42.5	15.0	12.5	10.0	0.0
	미술	(67)	83.6	44.8	43.3	10.4	7.5	4.5	0.0
	음악	(260)	69.2	35.0	33.8	12.3	11.5	12.7	2.7
	무용	(97)	71.1	29.9	30.9	10.3	6.2	23.7	0.0
	연극	(10)	90.0	50.0	40.0	0.0	0.0	0.0	0.0
	영화	(8)	87.5	37.5	50.0	12.5	0.0	0.0	0.0
	사진	(28)	78.6	42.9	46.4	0.0	14.3	7.1	0.0
	공예	(23)	60.9	34.8	34.8	13.0	8.7	21.7	0.0
	전통예술	(107)	61.7	41.1	30.8	15.9	3.7	18.7	0.0
	기타	(52)	71.2	51.9	25.0	9.6	11.5	13.5	1.9

16.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시간 당 사례비

○ 강사의 사례비를 묻는 질문에는 3만원~5만원이 29.0%이며, 그 다음으로 3만원 미만이 26.4%로 대체적으로 3~5만원 미만이 전체의 55.4%를 차지함.

- 소속 유형별에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75.0%로 3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만원~5만원은 '지방문화원의 동아리/동호회'가 38.8%로 가장 높게 응답함.
- 결성 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회원 규모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사례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활동 장르에서는 '연극'이 3만원 미만으로 40.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화'가 3만원~5만원이 75.0%로 가장 높게 응답함.

〈그림 IV-2-16〉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시간 당 사례비



〈표 IV-2-17〉 (강사/전문가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시간 당 사례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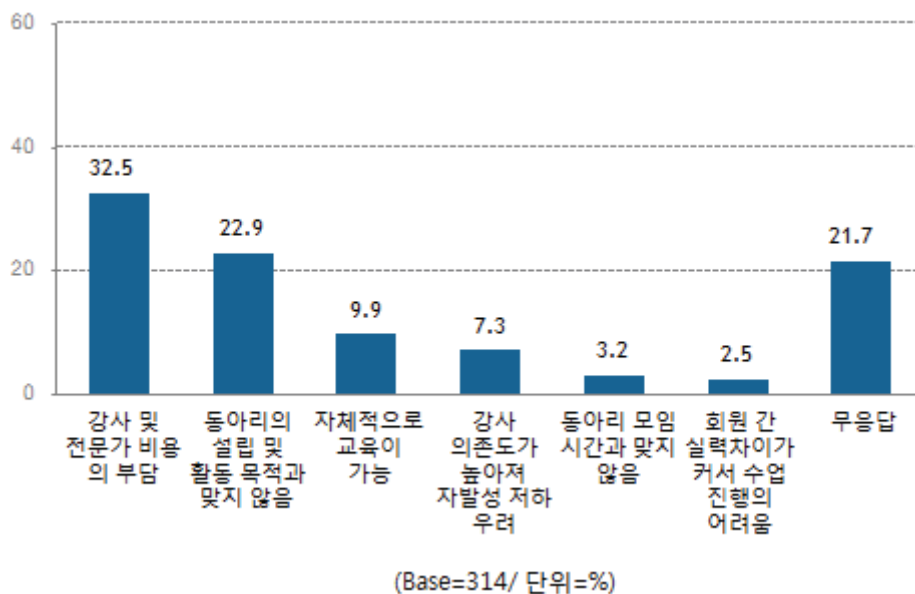
		사례수	3만원 미만	3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무응답
전 체		(632)	26.4	29.0	13.8	4.3	1.4	0.5	1.4	23.3
지역 권역별	수도권	(213)	33.8	23.0	17.8	6.1	0.9	0.9	3.3	14.1
	충청권	(154)	19.5	31.2	18.8	5.2	1.9	0.0	0.6	22.7
	전라권	(110)	24.5	35.5	4.5	1.8	0.0	0.0	0.9	32.7
	경상권	(84)	23.8	25.0	8.3	3.6	3.6	0.0	0.0	35.7
	강원/제주권	(51)	29.4	41.2	11.8	2.0	0.0	0.0	0.0	15.7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0)	15.5	29.1	21.8	6.4	0.0	0.0	0.0	27.3
	주민자치센터	(84)	35.7	29.8	10.7	8.3	1.2	0.0	0.0	14.3
	생활문화센터	(174)	23.6	29.9	8.0	1.1	0.6	0.6	4.6	31.6
	평생학습관(센터)	(67)	29.9	28.4	16.4	3.0	1.5	0.0	0.0	20.9
	도서관	(34)	38.2	23.5	26.5	2.9	0.0	0.0	0.0	8.8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9)	20.4	38.8	12.2	4.1	8.2	4.1	2.0	10.2
	사립대학교	(8)	75.0	0.0	12.5	0.0	12.5	0.0	0.0	0.0
	민간기업	(24)	0.0	8.3	0.0	0.0	0.0	0.0	0.0	91.7
	인터넷동호회	(49)	34.7	28.6	18.4	8.2	0.0	0.0	0.0	10.2
	기타	(33)	39.4	36.4	12.1	6.1	3.0	0.0	0.0	3.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6)	30.2	31.4	20.9	5.8	1.2	1.2	0.0	9.3
	2010년~2014년	(185)	28.6	34.1	13.5	5.9	0.5	1.1	0.0	16.2
	2015년~2016년	(208)	26.9	28.4	12.0	2.9	2.4	0.0	0.0	27.4
	2017년 이후	(131)	19.8	21.4	13.0	3.1	1.5	0.0	6.9	34.4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5)	27.1	24.4	12.2	4.4	1.4	0.3	2.0	28.1
	중규모	(284)	25.0	32.7	16.2	2.5	1.4	0.4	0.7	21.1
	대규모	(36)	30.6	41.7	8.3	11.1	0.0	0.0	0.0	8.3
예산 규모별	소규모	(250)	37.6	20.4	7.6	1.2	2.0	0.0	0.4	30.8
	중규모	(331)	19.6	35.3	17.5	6.0	1.2	0.9	2.1	17.2
	대규모	(29)	17.2	37.9	31.0	13.8	0.0	0.0	0.0	0.0
활동 장르	문학	(40)	22.5	35.0	25.0	2.5	0.0	0.0	0.0	15.0
	미술	(67)	23.9	35.8	19.4	6.0	0.0	1.5	0.0	13.4
	음악	(260)	27.3	35.0	12.3	4.6	1.5	0.8	0.4	18.1
	무용	(97)	20.6	38.1	7.2	2.1	2.1	0.0	0.0	29.9
	연극	(10)	40.0	10.0	40.0	0.0	0.0	0.0	0.0	10.0
	영화	(8)	0.0	75.0	25.0	0.0	0.0	0.0	0.0	0.0
	사진	(28)	21.4	39.3	0.0	3.6	0.0	0.0	25.0	10.7
	공예	(23)	30.4	43.5	4.3	0.0	0.0	0.0	0.0	21.7
	전통예술	(107)	24.3	29.0	4.7	3.7	1.9	0.0	0.0	36.4
	기타	(52)	17.3	23.1	19.2	5.8	1.9	0.0	1.9	30.8

17. (강사/전문가 미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 강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강사 및 전문가 비용의 부담’이 전체의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22.9%로 응답함.

- 소속 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44.2%)는 강사 및 전문가의 비용 부담으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며, ‘인터넷 동호회’(42.2%)에서는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22.0%)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여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회원 규모가 클수록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아서 강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비중이 높음.
- 활동 장르에서는 ‘공예’(66.7%)가 강사 및 전문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진’(47.8%)은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그림 IV-2-17〉 (강사/전문가 미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표 IV-2-18〉 (강사/전문가 미 보유 시)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사례수	강사 및 전문가 비용의 부담	동아리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음	자체적으 로 교육이 가능	강사 의존도가 높아져 자발성 저하 우려	동아리 모임 시간과 맞지 않음	회원 간 실력차이 가 커서 수업진행 의 어려움	무응답
전 체		(314)	32.5	22.9	9.9	7.3	3.2	2.5	21.7
지역 권역별	수도권	(148)	28.4	26.4	12.2	6.8	2.7	2.0	21.6
	충청권	(65)	38.5	21.5	9.2	4.6	3.1	4.6	18.5
	전라권	(31)	25.8	19.4	16.1	9.7	6.5	0.0	22.6
	경상권	(41)	43.9	19.5	2.4	17.1	2.4	2.4	12.2
	강원/제주권	(25)	36.0	12.0	4.0	0.0	4.0	0.0	44.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22)	40.9	4.5	9.1	0.0	0.0	0.0	45.5
	주민자치센터	(20)	20.0	15.0	5.0	15.0	5.0	0.0	40.0
	생활문화센터	(52)	44.2	23.1	3.8	15.4	1.9	0.0	11.5
	평생학습관(센터)	(40)	25.0	5.0	7.5	5.0	0.0	2.5	55.0
	도서관	(41)	31.7	24.4	9.8	4.9	9.8	0.0	19.5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29)	17.2	13.8	6.9	6.9	6.9	10.3	37.9
	사립대학교	(59)	35.6	32.2	22.0	5.1	1.7	1.7	1.7
	인터넷동호회	(45)	31.1	42.2	8.9	6.7	2.2	6.7	2.2
	기타	(6)	50.0	33.3	0.0	0.0	0.0	0.0	16.7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72)	36.1	20.8	15.3	5.6	1.4	2.8	18.1
	2010년~2014년	(85)	34.1	21.2	8.2	3.5	7.1	2.4	23.5
	2015년~2016년	(82)	29.3	23.2	7.3	11.0	2.4	4.9	22.0
	2017년 이후	(62)	33.9	25.8	11.3	9.7	0.0	0.0	19.4
회원 규모별	소규모	(160)	38.1	20.0	8.1	10.6	5.0	2.5	15.6
	중규모	(107)	28.0	24.3	10.3	4.7	0.0	1.9	30.8
	대규모	(36)	30.6	33.3	19.4	2.8	5.6	2.8	5.6
예산 규모별	소규모	(175)	34.3	25.1	8.6	8.0	4.0	2.3	17.7
	중규모	(128)	32.8	20.3	12.5	3.9	2.3	3.1	25.0
	대규모	(4)	0.0	25.0	0.0	0.0	0.0	0.0	75.0
활동 장르	문학	(47)	34.0	27.7	8.5	14.9	4.3	0.0	10.6
	미술	(41)	36.6	9.8	9.8	14.6	2.4	2.4	24.4
	음악	(82)	30.5	9.8	8.5	7.3	4.9	3.7	35.4
	무용	(41)	17.1	36.6	9.8	12.2	0.0	2.4	22.0
	연극	(17)	35.3	29.4	17.6	5.9	0.0	0.0	11.8
	영화	(6)	50.0	16.7	16.7	0.0	0.0	0.0	16.7
	사진	(23)	26.1	47.8	13.0	0.0	4.3	0.0	8.7
	공예	(9)	66.7	11.1	11.1	0.0	0.0	11.1	0.0
	전통예술	(11)	18.2	27.3	9.1	0.0	0.0	0.0	45.5
	기타	(39)	38.5	30.8	7.7	5.1	5.1	0.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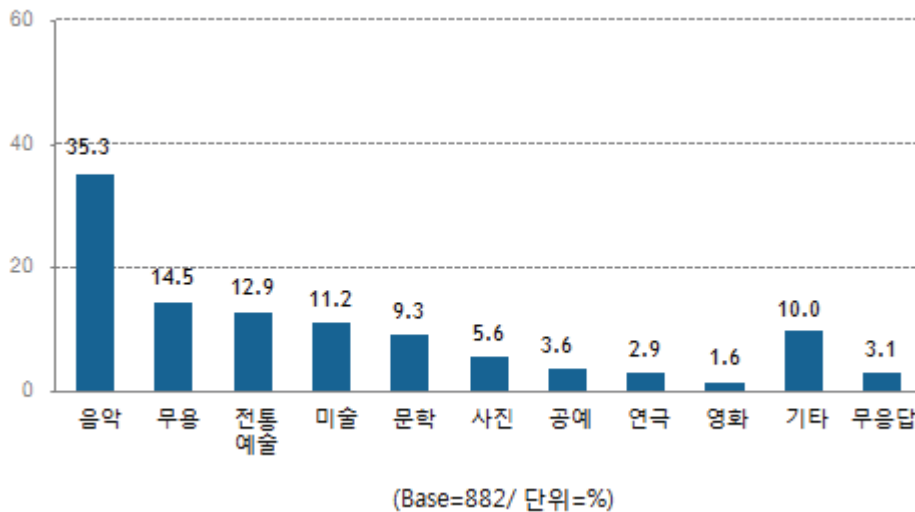
3.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 현황

1. 동아리 활동 장르

○ 동아리 활동 장르를 묻는 질문에는 ‘음악’이 전체의 35.3%이며, 다음으로 ‘무용’이 14.5%, ‘전통예술’이 12.9%, ‘미술’이 11.9%로 순으로 나타남. 타장르는 10% 미만으로 응답함.

- 소속 유형별로는 음악장르에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54.2%로 타소속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무용은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26.9% 전통예술은 ‘생활문화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27.2%, 미술은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19.7%, 문학은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69.1%, 사진은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22.4%, 공예는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5.7%, 연극과 영화는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7.5%, 6.0%씩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IV-3-1〉 동아리 활동 장르



〈표 IV-3-1〉 동아리 활동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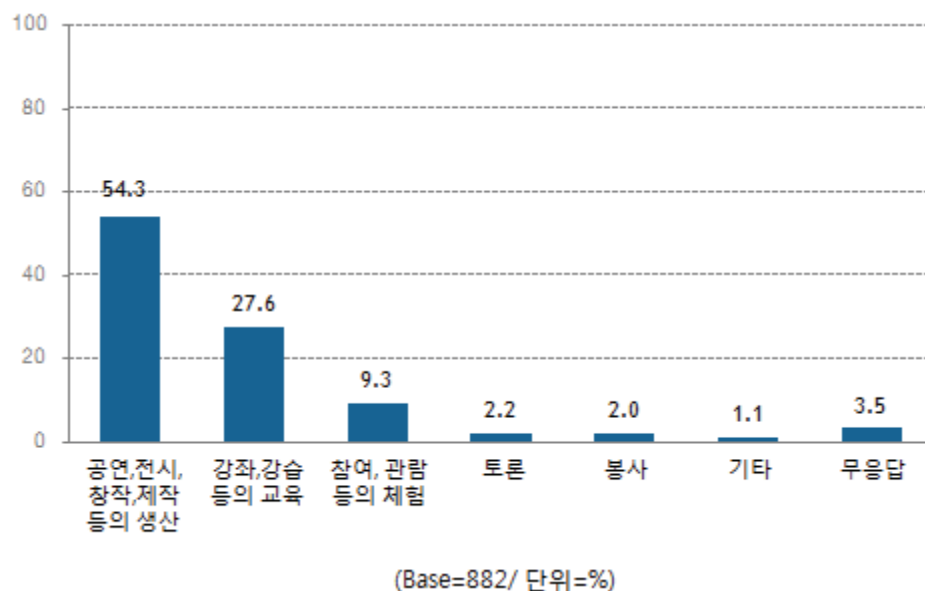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음악	무용	전통 예술	미술	문학	사진	공예	연극	영화	기타	무응 답
전 체		(882)	35.3	14.5	12.9	11.2	9.3	5.6	3.6	2.9	1.6	10.0	3.1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3.2	13.6	5.4	8.8	10.6	9.4	3.0	4.5	2.1	6.9	3.6
	충청권	(210)	33.8	10.0	13.3	16.7	7.6	1.4	4.3	1.9	1.9	9.0	2.9
	전라권	(130)	36.2	27.7	43.8	10.0	9.2	8.5	4.6	2.3	1.5	8.5	0.0
	경상권	(122)	32.8	15.6	7.4	11.5	11.5	0.8	2.5	1.6	0.8	17.2	4.9
	강원/제주권	(66)	53.0	7.6	1.5	6.1	4.5	3.0	4.5	3.0	0.0	15.2	4.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3.4	9.8	16.4	19.7	2.5	0.0	0.8	1.6	1.6	4.9	0.8
	주민자치센터	(96)	40.6	13.5	8.3	14.6	3.1	1.0	2.1	1.0	0.0	13.5	5.2
	생활문화센터	(224)	31.3	21.4	27.2	14.3	5.8	8.0	4.5	2.2	2.7	13.8	4.0
	평생학습관(센터)	(88)	39.8	10.2	4.5	6.8	9.1	5.7	5.7	2.3	0.0	13.6	2.3
	도서관	(68)	11.8	0.0	0.0	4.4	69.1	0.0	4.4	2.9	0.0	7.4	1.5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5.0	16.7	20.0	13.3	1.7	1.7	0.0	1.7	0.0	11.7	1.7
	사립대학교	(67)	26.9	26.9	1.5	4.5	0.0	22.4	0.0	7.5	6.0	4.5	0.0
	민간기업	(24)	54.2	16.7	8.3	4.2	0.0	8.3	8.3	0.0	0.0	4.2	0.0
	인터넷동호회	(94)	41.5	10.6	0.0	5.3	5.3	7.4	7.4	6.4	2.1	7.4	6.4
	기타	(39)	38.5	10.3	15.4	7.7	5.1	0.0	5.1	5.1	0.0	7.7	5.1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31.7	17.9	11.0	11.0	6.9	2.8	1.4	6.2	1.4	6.2	3.4
	2010년~2014년	(249)	41.8	14.5	9.2	7.2	10.8	5.6	2.4	0.4	1.6	7.2	2.4
	2015년~2016년	(273)	31.9	11.4	16.5	12.5	8.1	4.0	3.7	4.0	1.5	13.9	2.9
	2017년 이후	(184)	32.1	14.7	13.0	13.0	10.3	9.8	6.0	2.2	2.2	12.0	2.7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1.6	7.2	10.9	14.4	12.3	3.2	4.2	2.8	0.7	12.8	3.0
	중규모	(360)	38.6	22.8	15.3	6.9	6.7	5.3	1.4	3.1	2.2	7.5	1.9
	대규모	(71)	43.7	19.7	11.3	11.3	7.0	19.7	12.7	4.2	4.2	5.6	5.6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9.4	11.1	14.6	12.1	15.1	4.5	5.0	2.0	1.8	9.3	2.3
	중규모	(426)	39.4	18.1	11.3	9.2	4.2	6.6	2.1	4.2	1.4	10.8	3.1
	대규모	(30)	63.3	10.0	13.3	13.3	6.7	10.0	6.7	0.0	0.0	10.0	6.7
활동 장르	문학	(82)	8.5	7.3	7.3	8.5	100.0	6.1	4.9	1.2	1.2	0.0	0.0
	미술	(99)	12.1	10.1	10.1	100.0	7.1	10.1	6.1	1.0	2.0	1.0	0.0
	음악	(311)	100.0	3.2	4.2	3.9	2.3	3.2	2.3	0.3	1.0	0.6	0.0
	무용	(128)	7.8	100.0	23.4	7.8	4.7	7.0	3.9	0.8	1.6	0.8	0.0
	연극	(26)	3.8	3.8	0.0	3.8	3.8	0.0	0.0	100.0	0.0	0.0	0.0
	영화	(14)	21.4	14.3	21.4	14.3	7.1	14.3	7.1	0.0	100.0	7.1	0.0
	사진	(49)	20.4	18.4	20.4	20.4	10.2	100.0	10.2	0.0	4.1	2.0	0.0
	공예	(32)	21.9	15.6	18.8	18.8	12.5	15.6	100.0	0.0	3.1	0.0	0.0
	전통예술	(114)	11.4	26.3	100.0	8.8	5.3	8.8	5.3	0.0	2.6	0.9	0.0
	기타	(88)	2.3	1.1	1.1	1.1	0.0	1.1	0.0	0.0	1.1	100.0	0.0

2. 주 활동 유형

- 동아리(동호회)의 주 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좌/교습 등의 교육’도 27.6%를 차지함.
- 소속 유형별에서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의 활동 유형이 가장 높은 곳은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강좌/강습 등의 교육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79.2%, 참여/관람 등의 체험은 ‘인터넷 동호회’가 20.2%, 토론 활동은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17.6%로 가장 높게 응답함.
 - 결성 시기가 오래된 동아리는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으며, 그렇지 않은 동아리는 강좌/강습 등의 교육과 참여/관람 등의 체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비중이 높음.
 - 활동 장르별에서는 ‘연극’(92.3%)이 공연/전시/창작/제작 등 생산의 활동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미술’(34.3%)은 강좌/강습 등의 교육, ‘영화’(35.7%)는 참여, 관람 등의 체험활동이 타장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2〉 주 활동 유형



〈표 IV-3-2〉 주 활동 유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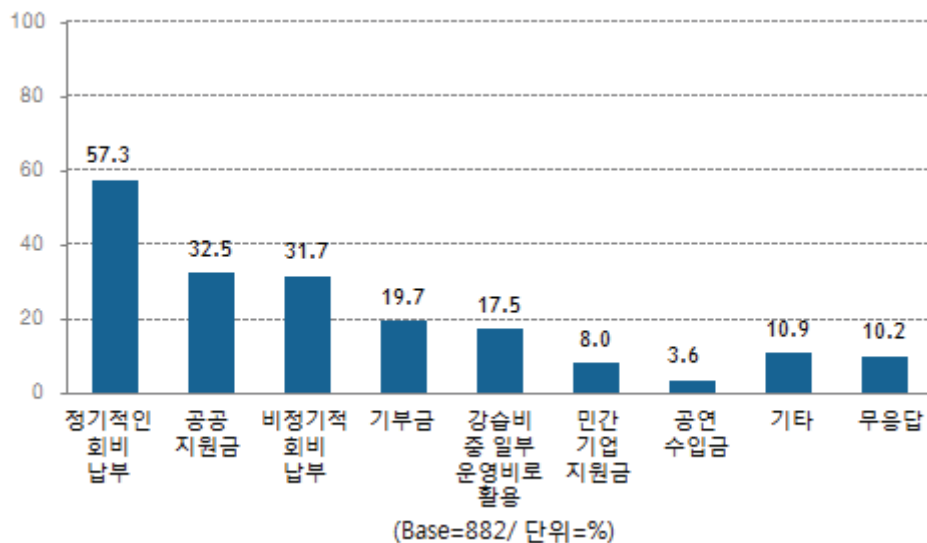
		사례수	공연,전 시,창작 제작등 의생산	강좌,강 습 등의 교육	참여, 관람 등의 체험	토론	봉사	기타	무응답
전 체		(882)	54.3	27.6	9.3	2.2	2.0	1.1	3.5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56.5	25.1	8.8	1.8	3.0	0.9	3.9
	충청권	(210)	49.5	32.9	11.4	2.4	1.4	1.0	1.4
	전라권	(130)	53.8	23.8	6.9	2.3	0.8	1.5	10.8
	경상권	(122)	51.6	32.0	10.7	1.6	1.6	1.6	0.8
	강원/제주권	(66)	62.1	24.2	6.1	3.0	3.0	1.5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52.5	40.2	2.5	0.0	0.0	1.6	3.3
	주민자치센터	(96)	50.0	28.1	8.3	0.0	3.1	2.1	8.3
	생활문화센터	(224)	51.8	21.4	12.5	1.8	2.2	2.2	8.0
	평생학습관(센터)	(88)	63.6	27.3	8.0	0.0	1.1	0.0	0.0
	도서관	(68)	35.3	29.4	13.2	17.6	4.4	0.0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3.3	38.3	1.7	1.7	1.7	1.7	1.7
	사립대학교	(67)	94.0	1.5	4.5	0.0	0.0	0.0	0.0
	민간기업	(24)	20.8	79.2	0.0	0.0	0.0	0.0	0.0
	인터넷동호회	(94)	54.3	20.2	20.2	2.1	3.2	0.0	0.0
	기타	(39)	51.3	33.3	10.3	0.0	5.1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6.2	24.1	4.1	2.1	2.8	0.0	0.7
	2010년~2014년	(249)	61.4	22.9	9.2	2.4	2.4	0.8	0.8
	2015년~2016년	(273)	51.6	27.8	9.2	1.5	1.8	1.8	6.2
	2017년 이후	(184)	39.7	35.9	14.1	2.7	1.1	1.6	4.9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54.1	27.4	8.8	2.8	3.0	1.6	2.3
	중규모	(360)	55.3	28.1	8.6	1.9	1.4	0.3	4.4
	대규모	(71)	57.7	22.5	16.9	0.0	0.0	0.0	2.8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42.5	34.7	11.8	3.5	3.0	1.5	3.0
	중규모	(426)	65.3	21.6	7.5	0.7	1.2	0.9	2.8
	대규모	(30)	70.0	20.0	0.0	0.0	3.3	0.0	6.7
활동 장르	문학	(82)	23.2	34.1	18.3	19.5	1.2	0.0	3.7
	미술	(99)	45.5	34.3	12.1	0.0	1.0	3.0	4.0
	음악	(311)	61.1	28.9	4.8	0.0	1.9	0.6	2.6
	무용	(128)	57.0	25.8	7.8	0.0	1.6	0.8	7.0
	연극	(26)	92.3	3.8	0.0	0.0	3.8	0.0	0.0
	영화	(14)	35.7	14.3	35.7	0.0	0.0	7.1	7.1
	사진	(49)	57.1	10.2	18.4	0.0	0.0	2.0	12.2
	공예	(32)	31.3	25.0	31.3	0.0	6.3	0.0	6.3
	전통예술	(114)	53.5	26.3	6.1	0.0	0.0	0.9	13.2
	기타	(88)	38.6	27.3	14.8	2.3	5.7	8.0	3.4

3. 운영비 조달처

○ 동아리(동호회)의 운영비 조달처에 대해서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정기적인 회비 납부’가 57.3%, ‘공공지원금’이 32.5%, ‘비정기적 회비 납부’가 31.7% 등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는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77.6%)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공공지원금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87.5%), 비정기적 회비 납부는 ‘인터넷 동호회’(55.3%), 기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24.0%), 강습비 중 일부 운영비로 활용하는 경우는 ‘인터넷 동호회’(24.5%), 민간기업 지원금은 ‘지방문화원/문화의집의 동아리/동호회’ (21.7%), 공연수익금은 ‘생활문화센터의 동아리/동호회’(8.9%)로 각 운영비 조달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동아리 결성시기가 오래될수록 정기적인 회비 납부와 민간기업 지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응답함.
- 활동 장르별로는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사진’(75.5%)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공공지원금은 ‘공예’(59.4%), 비정기적 회비 납부는 ‘영화’(42.9%), 기부금은 ‘연극’(46.2%), 강습비 중 일부 운영비로 활용하는 경우는 ‘사진’(34.7%), 민간기업 지원금은 ‘영화’(15.0%), 공연수익금은 ‘전통예술’(5.3%)로 각 운영비 조달처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IV-3-3〉 운영비 조달처



〈표 IV-3-3〉 운영비 조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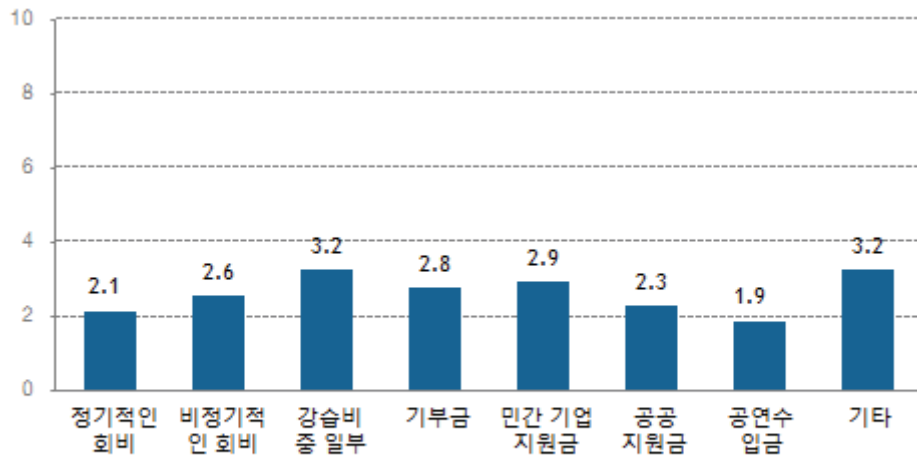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정기 적인 회비 납부	공공 지원 금	비정 기적 회비 납부	기부 금	강습비 중 일부 운영비 로 활용	민간 기업 지원 금	공연 수입 금	기타	무응 답
전 체		(882)	57.3	32.5	31.7	19.7	17.5	8.0	3.6	10.9	10.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61.6	32.0	35.0	21.5	14.2	9.1	3.9	11.2	9.1
	충청권	(210)	55.7	37.1	27.6	12.4	8.6	7.1	3.3	11.4	10.5
	전라권	(130)	46.2	22.3	41.5	25.4	43.1	8.5	0.8	6.9	13.1
	경상권	(122)	49.2	30.3	31.1	24.6	13.9	4.1	9.0	9.0	13.9
	강원/제주권	(66)	72.7	50.0	13.6	18.2	19.7	10.6	0.0	15.2	3.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65.6	40.2	19.7	12.3	10.7	13.9	4.1	22.1	9.0
	주민자치센터	(96)	65.6	30.2	28.1	24.0	9.4	7.3	3.1	9.4	13.5
	생활문화센터	(224)	51.8	18.8	34.8	22.8	31.7	4.9	8.9	2.7	18.8
	평생학습관(센터)	(88)	65.9	45.5	26.1	23.9	11.4	6.8	0.0	8.0	4.5
	도서관	(68)	41.2	27.9	38.2	16.2	13.2	1.5	0.0	8.8	16.2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61.7	35.0	28.3	20.0	16.7	21.7	0.0	11.7	5.0
	사립대학교	(67)	77.6	29.9	31.3	17.9	1.5	9.0	1.5	32.8	3.0
	민간기업	(24)	12.5	87.5	12.5	0.0	8.3	0.0	0.0	0.0	4.2
	인터넷동호회	(94)	43.6	28.7	55.3	21.3	24.5	7.4	0.0	10.6	2.1
	기타	(39)	69.2	48.7	23.1	23.1	15.4	7.7	7.7	5.1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71.7	39.3	26.9	21.4	10.3	11.0	1.4	22.1	5.5
	2010년~2014년	(249)	64.3	30.9	35.3	21.3	14.5	9.6	7.2	11.6	6.0
	2015년~2016년	(273)	54.2	30.8	34.8	17.9	23.8	5.5	4.4	8.8	14.7
	2017년 이후	(184)	40.8	32.1	28.8	20.7	18.5	7.1	0.0	4.9	10.9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55.0	28.5	29.2	16.7	12.8	7.4	4.4	10.4	14.6
	중규모	(360)	58.6	35.6	35.0	23.3	21.9	9.2	3.6	10.8	5.3
	대규모	(71)	66.2	43.7	36.6	22.5	23.9	4.2	0.0	12.7	4.2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41.2	30.7	31.7	15.3	14.3	6.5	1.3	10.8	14.6
	중규모	(426)	72.1	35.4	33.8	24.9	20.9	9.2	6.1	11.7	3.3
	대규모	(30)	83.3	40.0	23.3	20.0	20.0	16.7	3.3	10.0	3.3
활동 장르	문학	(82)	46.3	26.8	36.6	17.1	11.0	2.4	0.0	6.1	18.3
	미술	(99)	61.6	44.4	30.3	12.1	17.2	10.1	0.0	6.1	13.1
	음악	(311)	70.4	35.4	28.0	20.9	20.6	9.6	3.5	7.1	4.8
	무용	(128)	49.2	28.9	33.6	28.9	21.1	6.3	3.1	15.6	7.8
	연극	(26)	61.5	42.3	42.3	46.2	7.7	7.7	3.8	26.9	0.0
	영화	(14)	42.9	50.0	42.9	0.0	28.6	14.3	0.0	7.1	0.0
	사진	(49)	75.5	51.0	40.8	16.3	34.7	6.1	0.0	6.1	0.0
	공예	(32)	43.8	59.4	31.3	15.6	34.4	9.4	0.0	6.3	9.4
	전통예술	(114)	46.5	26.3	22.8	21.1	28.1	1.8	5.3	11.4	14.9
	기타	(88)	62.5	35.2	26.1	18.2	22.7	9.1	12.5	18.2	10.2

4. 운영비 재원 조달 순위

- 운영비 재원 조달 평균 순위는 정기적인 회비가 2.1순위, 비정기적 회비는 2.6순위, 강습비 중 일부는 3.2순위, 기부금 2.8순위, 민간 기업 지원금 2.9순위, 공공지원금 2.3순위, 공연수입금 1.9순위로 나타남.
- 평균 순위임으로 순위가 낮을수록 재원 조달의 비중이 더 큼을 의미함.
 - 민간 기업 지원금 순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나타난 비율이며, 사내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사내복지 차원에서 소정의 활동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IV-3-4〉 운영비 재원 조달 순위



(Base=882/ 단위=순위)

〈표 IV-3-4〉 운영비 재원 조달 순위

(단위=평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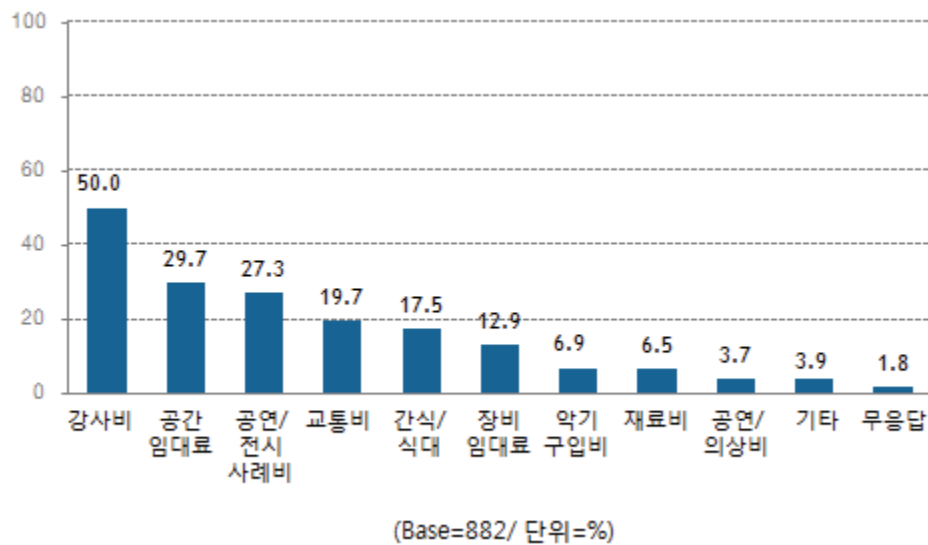
		사례수	정기 적인 회비	비정 기적 인 회비	강습 비 중 일부	가부 금	민간 기업 지원 금	공공 지원 금	공연 수입 금	기타
전 체		(882)	2.1	2.6	3.2	2.8	2.9	2.3	1.9	3.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0	2.4	2.0	2.9	2.7	2.1	1.8	3.3
	충청권	(210)	1.9	2.2	3.2	2.7	2.5	1.8	1.9	2.8
	전라권	(130)	2.9	3.7	4.6	2.4	3.3	4.5	1.0	3.6
	경상권	(122)	1.8	2.1	2.4	2.9	4.6	2.2	2.0	2.8
	강원/제주권	(66)	2.2	2.6	3.2	3.2	3.1	1.8	0.0	4.3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6	2.3	2.5	2.6	3.4	2.7	2.0	4.9
	주민자치센터	(96)	3.0	2.9	2.7	4.0	2.9	2.0	1.3	3.8
	생활문화센터	(224)	2.7	3.7	4.2	2.4	3.0	3.8	2.0	3.8
	평생학습관(센터)	(88)	2.6	2.2	3.4	3.6	2.0	2.0	0.0	2.1
	도서관	(68)	1.7	1.4	2.1	2.8	3.0	1.7	0.0	2.5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5	2.1	3.2	2.6	3.2	2.8	0.0	3.7
	사립대학교	(67)	1.2	2.0	1.0	2.3	2.7	1.8	1.0	1.7
	민간기업	(24)	2.3	2.3	1.5	0.0	0.0	1.0	0.0	0.0
	인터넷동호회	(94)	1.2	2.1	1.8	2.3	3.0	1.9	0.0	2.5
	기타	(39)	1.4	1.9	1.8	1.9	2.0	1.7	2.0	1.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0	2.5	3.1	2.7	3.4	2.2	1.5	2.8
	2010년~2014년	(249)	1.8	2.4	2.8	3.1	3.1	2.2	1.8	3.7
	2015년~2016년	(273)	1.9	3.0	3.9	3.0	3.0	2.4	2.0	3.7
	2017년 이후	(184)	2.7	2.2	2.5	2.1	1.7	2.1	0.0	1.9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2.0	2.3	2.1	2.8	2.6	2.1	1.8	2.8
	중규모	(360)	2.1	2.9	3.9	2.6	3.0	2.3	1.9	3.6
	대규모	(71)	2.3	2.2	3.6	3.3	4.3	2.8	0.0	3.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3	2.6	4.0	2.9	3.0	2.0	1.8	3.0
	중규모	(426)	2.0	2.5	2.6	2.6	2.8	2.3	1.9	3.4
	대규모	(30)	2.2	1.7	4.3	2.8	3.4	4.1	1.0	4.3
활동 장르	문학	(82)	3.1	2.0	5.9	2.7	6.0	3.9	0.0	4.2
	미술	(99)	3.3	2.4	5.8	3.5	2.9	3.6	0.0	4.2
	음악	(311)	2.3	2.4	3.5	3.4	3.0	2.5	2.1	3.4
	무용	(128)	2.7	2.2	4.1	1.8	2.8	3.3	1.3	3.4
	연극	(26)	1.6	3.1	2.0	3.2	3.0	2.4	2.0	2.6
	영화	(14)	5.2	4.3	7.0	0.0	2.0	3.3	0.0	1.0
	사진	(49)	3.5	3.5	5.0	3.3	1.3	4.7	0.0	4.7
	공예	(32)	5.3	2.6	4.9	1.8	1.7	3.5	0.0	1.0
	전통예술	(114)	3.6	5.0	6.6	2.0	5.5	4.3	1.5	2.8
	기타	(88)	2.1	1.7	2.9	3.1	2.9	2.7	2.0	3.1

5. 2017년 활동 지출 경비

○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위한 지출 경비에 대해서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강사비’가 5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간 임대료’가 29.7%, ‘공연/전시 사례비’가 27.3%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에서는 2017년 활동 지출 경비로 강사비가 타 소속 유형보다 67.7%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는 악기구입비(8.9%), 재료비(11.6%), 공연/의상비(5.8%),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간식/식대(32.4%), ‘지방문화원/문화의집의 동아리/동호회’는 공연/전시 사례비(46.7%), ‘민간기업’은 강사비(50.0%)로 타소속 유형보다 높게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 ‘음악’은 활동비로 ‘악기구입비’가 13.4%로 타장르보다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무용’은 교통비(33.6%)–재료비(9.4%), ‘연극’은 공연/전시 사례비(57.7%), 장비임대료(53.8%), ‘영화’는 공간임대료(57.1%)–간식/식대(35.7%), ‘공예’는 재료비(34.4%), ‘전통예술’은 강사비(68.4%)가 타장르보다 높은 지출 경비로 응답함.

〈그림 IV-3-5〉 2017년 활동 지출 경비



〈표 IV-3-5〉 2017년 활동 지출 경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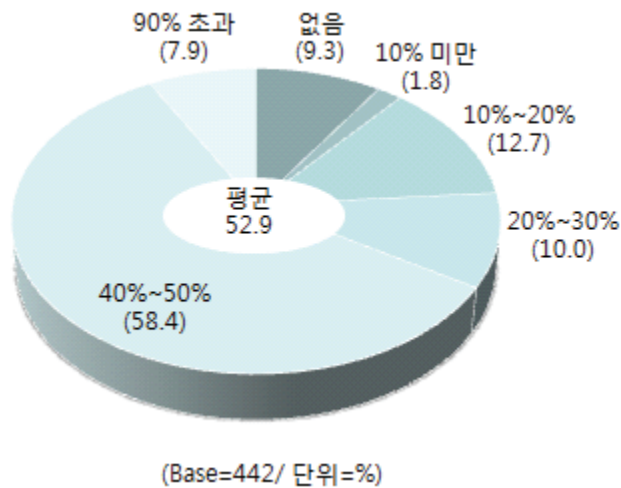
		사례수	강사 비	공간 임대 료	공연/ 전시 사례 비	교통 비	간식/ 식대	장비 임대 료	악기 구입 비	재료 비	공연/ 의상 비	기타	무응 답
전 체		(882)	50.0	29.7	27.3	19.7	17.5	12.9	6.9	6.5	3.7	3.9	1.8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8.3	34.4	34.4	18.4	15.4	19.6	5.7	5.7	4.5	3.9	1.8
	충청권	(210)	47.6	32.4	25.7	17.1	18.1	6.7	10.5	7.1	2.4	4.3	1.4
	전라권	(130)	61.5	12.3	14.6	28.5	26.9	13.1	3.8	12.3	0.8	0.8	2.3
	경상권	(122)	38.5	33.6	20.5	13.9	10.7	6.6	8.2	4.1	9.8	6.6	1.6
	강원/제주권	(66)	60.6	27.3	33.3	27.3	16.7	15.2	1.5	1.5	0.0	4.5	3.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61.5	21.3	21.3	16.4	19.7	10.7	14.8	1.6	2.5	0.0	0.0
	주민자치센터	(96)	67.7	16.7	34.4	17.7	13.5	8.3	7.3	1.0	5.2	8.3	3.1
	생활문화센터	(224)	54.0	22.3	18.8	21.0	20.1	3.6	8.9	11.6	5.8	1.3	0.4
	평생학습관(센터)	(88)	51.1	26.1	40.9	26.1	17.0	18.2	5.7	6.8	2.3	0.0	1.1
	도서관	(68)	35.3	10.3	13.2	17.6	32.4	7.4	8.8	5.9	1.5	16.2	8.8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5.0	16.7	46.7	15.0	13.3	10.0	1.7	5.0	3.3	5.0	6.7
	사립대학교	(67)	6.0	64.2	37.3	29.9	4.5	37.3	0.0	4.5	0.0	4.5	0.0
	민간기업	(24)	50.0	16.7	12.5	0.0	20.8	20.8	8.3	4.2	4.2	16.7	4.2
	인터넷동호회	(94)	38.3	73.4	31.9	26.6	10.6	25.5	0.0	4.3	3.2	1.1	0.0
	기타	(39)	66.7	35.9	23.1	2.6	23.1	10.3	5.1	17.9	7.7	2.6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6.2	31.0	40.0	16.6	16.6	17.9	6.9	3.4	0.7	8.3	1.4
	2010년~2014년	(249)	52.6	32.9	34.9	20.9	20.5	17.7	4.8	3.2	5.2	4.0	1.2
	2015년~2016년	(273)	54.6	28.6	20.1	17.6	18.7	11.0	6.6	7.0	5.5	2.2	2.2
	2017년 이후	(184)	44.6	27.7	20.7	23.9	15.2	7.1	7.6	13.0	1.6	3.3	2.2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4.5	26.9	23.2	19.3	18.3	9.5	10.0	7.7	5.8	3.7	2.6
	중규모	(360)	58.3	27.2	30.3	21.4	18.6	13.6	3.6	6.1	2.2	4.2	1.1
	대규모	(71)	38.0	63.4	36.6	18.3	7.0	32.4	1.4	2.8	0.0	4.2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8.2	23.1	18.3	17.8	24.1	5.5	9.3	5.8	2.5	6.0	3.3
	중규모	(426)	59.6	35.7	34.0	22.5	12.4	19.2	2.8	7.7	5.4	2.1	0.7
	대규모	(30)	86.7	50.0	50.0	16.7	10.0	26.7	0.0	3.3	0.0	0.0	0.0
활동 장르	문학	(82)	34.1	15.9	8.5	13.4	25.6	8.5	13.4	1.2	0.0	13.4	7.3
	미술	(99)	44.4	16.2	33.3	6.1	12.1	9.1	13.1	11.1	0.0	6.1	2.0
	음악	(311)	62.1	33.8	29.6	16.4	16.1	18.3	5.5	1.3	2.3	2.6	1.3
	무용	(128)	48.4	31.3	26.6	33.6	9.4	11.7	5.5	11.7	9.4	1.6	0.8
	연극	(26)	26.9	42.3	57.7	15.4	7.7	53.8	3.8	3.8	0.0	3.8	0.0
	영화	(14)	57.1	57.1	7.1	0.0	35.7	28.6	0.0	0.0	0.0	7.1	0.0
	사진	(49)	42.9	32.7	34.7	26.5	2.0	12.2	4.1	4.1	0.0	0.0	0.0
	공예	(32)	40.6	34.4	9.4	18.8	12.5	15.6	3.1	34.4	0.0	0.0	0.0
	전통예술	(114)	68.4	11.4	13.2	33.3	22.8	8.8	6.1	14.9	4.4	3.5	0.9
	기타	(88)	38.6	33.0	22.7	18.2	21.6	8.0	6.8	10.2	14.8	2.3	3.4

6. 2017년 지출경비 중 강사비 비중

○ 2017년 중 강사비를 지급하는 동아리(동호회)인 경우에는 전체 지출 대비 약 52.9%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지출경비 중 강사비 비중을 소속 유형별에서 살펴보면, ‘지방문화원/문화의집의 동아리/동호회’가 62.0%로 타소속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59.1%, ‘생활문화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53.9%,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53.7%,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37.5%, ‘인터넷 동호회’가 33.4%,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30.0% 순으로 강사비 지출 비중에 응답함.
- 결성시기에서는 ‘2015년~2016년’이 5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회원 규모에서는 중규모가 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는 ‘영화’가 71.3%로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61.6%, ‘공예’가 59.6%, ‘무용’이 57.8%, ‘미술’이 57.5%, ‘사진’이 53.2%, ‘음악’이 53.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활동 장르에서는 강사비 비중이 5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IV-3-6〉 2017년 지출경비 중 강사비 비중



〈표 IV-3-6〉 2017년 지출경비 중 감사비 비중

(단위=%,개)

		사례수	없음	10% 미만	10%~20%	20%~30%	40%~50%	90% 초과	평균
전 체		(442)	9.3	1.8	12.7	10.0	58.4	7.9	52.9
지역 권역별	수도권	(160)	8.1	3.1	15.6	12.5	50.0	10.6	46.5
	충청권	(101)	6.9	1.0	12.9	5.9	68.3	5.0	57.5
	전라권	(80)	15.0	0.0	3.8	6.3	71.3	3.8	62.9
	경상권	(47)	8.5	4.3	17.0	17.0	36.2	17.0	42.5
	강원/제주권	(40)	0.0	0.0	12.5	12.5	72.5	2.5	61.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75)	13.3	0.0	8.0	5.3	70.7	2.7	59.1
	주민자치센터	(65)	12.3	0.0	6.2	10.8	69.2	1.5	58.5
	생활문화센터	(121)	9.9	1.7	16.5	4.1	58.7	9.1	53.9
	평생학습관(센터)	(45)	6.7	6.7	8.9	8.9	53.3	15.6	53.7
	도서관	(24)	4.2	8.3	16.7	33.3	33.3	4.2	36.7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33)	3.0	0.0	6.1	9.1	78.8	3.0	62.0
	사립대학교	(4)	0.0	0.0	0.0	75.0	25.0	0.0	37.5
	민간기업	(12)	8.3	0.0	0.0	8.3	8.3	75.0	30.0
	인터넷동호회	(36)	8.3	2.8	33.3	16.7	33.3	5.6	33.4
	기타	(27)	7.4	0.0	14.8	11.1	63.0	3.7	50.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68)	2.9	4.4	10.3	20.6	57.4	4.4	51.8
	2010년~2014년	(131)	9.2	1.5	19.8	13.7	51.1	4.6	46.9
	2015년~2016년	(149)	14.1	0.7	10.1	6.0	62.4	6.7	57.3
	2017년 이후	(82)	7.3	1.2	8.5	3.7	63.4	15.9	54.9
회원 규모별	소규모	(193)	15.0	1.0	10.9	8.8	58.0	6.2	49.9
	중규모	(210)	5.7	2.9	13.3	8.6	61.0	8.6	56.1
	대규모	(27)	0.0	0.0	25.9	25.9	33.3	14.8	42.3
예산 규모별	소규모	(152)	17.8	1.3	11.8	5.9	52.0	11.2	50.3
	중규모	(255)	5.1	2.0	13.3	10.6	63.1	5.9	54.5
	대규모	(26)	0.0	3.8	11.5	26.9	53.8	3.8	53.6
활동 장르	문학	(28)	7.1	10.7	10.7	7.1	57.1	7.1	48.2
	미술	(44)	13.6	0.0	9.1	6.8	70.5	0.0	57.5
	음악	(194)	8.2	0.5	15.5	9.3	60.3	6.2	53.1
	무용	(62)	4.8	1.6	9.7	14.5	64.5	4.8	57.8
	연극	(7)	0.0	14.3	57.1	14.3	14.3	0.0	19.3
	영화	(8)	0.0	0.0	0.0	0.0	100.0	0.0	71.3
	사진	(21)	0.0	0.0	14.3	0.0	76.2	9.5	53.2
	공예	(13)	7.7	7.7	0.0	0.0	76.9	7.7	59.6
	전통예술	(78)	12.8	1.3	1.3	3.8	75.6	5.1	61.6
	기타	(34)	5.9	0.0	11.8	20.6	44.1	17.6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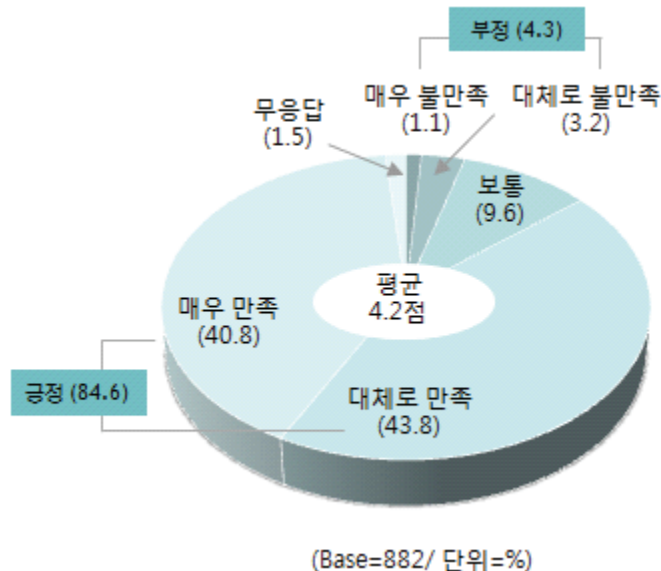
4.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관련 욕구

1. 현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현재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포함하게 되면 84.6%로 많은 동아리 회원들은 현재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평균 역시 전반적인 평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4.2점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기초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평균 4.5점으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결성 시기와 회원 규모와 상관없이 대체로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고 있음.
- 예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만족하는 비중이 높아짐(소규모 4.1점, 대규모 4.5점).
- 활동 장르별로는 '연극'과 '영화'가 3.8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비중이 낮았으며, '사진'과 '전통예술'은 4.3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1〉 현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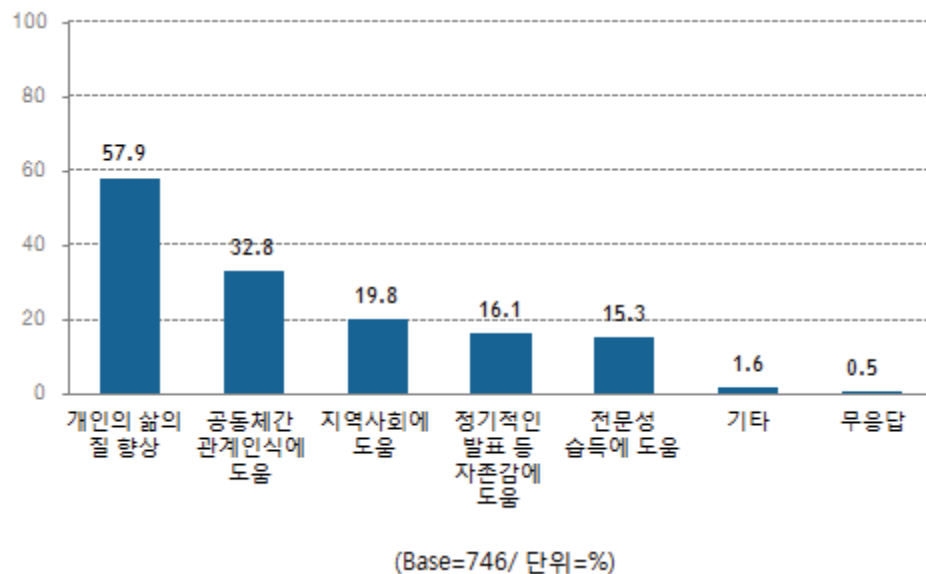
〈표 IV-4-1〉 현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4.3	9.6	84.6	1.5	4.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5.1	10.6	82.8	1.5	4.2
	충청권	(210)	3.3	8.1	86.7	1.9	4.3
	전라권	(130)	1.5	10.0	87.7	0.8	4.2
	경상권	(122)	8.2	9.8	79.5	2.5	4.2
	강원/제주권	(66)	1.5	10.6	87.9	0.0	4.2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6	3.3	93.4	1.6	4.5
	주민자치센터	(96)	8.3	8.3	80.2	3.1	4.1
	생활문화센터	(224)	4.5	12.1	80.8	2.7	4.1
	평생학습관(센터)	(88)	6.8	15.9	77.3	0.0	4.0
	도서관	(68)	1.5	10.3	88.2	0.0	4.4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	8.3	85.0	1.7	4.1
	사립대학교	(67)	9.0	4.5	86.6	0.0	4.0
	민간기업	(24)	0.0	20.8	75.0	4.2	4.2
	인터넷동호회	(94)	1.1	9.6	89.4	0.0	4.3
	기타	(39)	2.6	7.7	89.7	0.0	4.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8	6.9	87.6	0.7	4.2
	2010년~2014년	(249)	4.0	8.8	85.5	1.6	4.3
	2015년~2016년	(273)	4.0	9.5	85.0	1.5	4.2
	2017년 이후	(184)	3.8	13.0	81.5	1.6	4.2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5.1	10.2	82.6	2.1	4.2
	중규모	(360)	3.1	9.7	86.4	0.8	4.2
	대규모	(71)	7.0	4.2	88.7	0.0	4.2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5.5	11.1	81.9	1.5	4.1
	중규모	(426)	3.1	9.2	86.9	0.9	4.3
	대규모	(30)	0.0	6.7	93.3	0.0	4.5
활동 장르	문학	(82)	2.4	14.6	82.9	0.0	4.2
	미술	(99)	3.0	8.1	86.9	2.0	4.2
	음악	(311)	4.5	10.0	84.6	1.0	4.2
	무용	(128)	4.7	7.8	85.9	1.6	4.2
	연극	(26)	7.7	19.2	73.1	0.0	3.8
	영화	(14)	14.3	14.3	71.4	0.0	3.8
	사진	(49)	2.0	2.0	95.9	0.0	4.3
	공예	(32)	6.3	6.3	87.5	0.0	4.1
	전통예술	(114)	6.1	2.6	89.5	1.8	4.3
	기타	(88)	2.3	9.1	88.6	0.0	4.3

2. (만족도 긍정 평가자) 만족 이유

-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57.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체간 관계인식에 도움이 32.8%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는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는 공동체 간 관계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43.0%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게 응답함.
 - 결성 시기가 최근일수록, 예산 규모가 클수록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활동 장르별로는 '연극'이 공동체 간 관계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47.4%로 타 장르보다 높게 응답함. 다음으로 '전통예술'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40.2%로 응답했으며, '영화'는 전문성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40.0%로 타 장르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IV-4-2〉 (만족도 긍정 평가자) 만족 이유



〈표 IV-4-2〉 (만족도 긍정 평가자) 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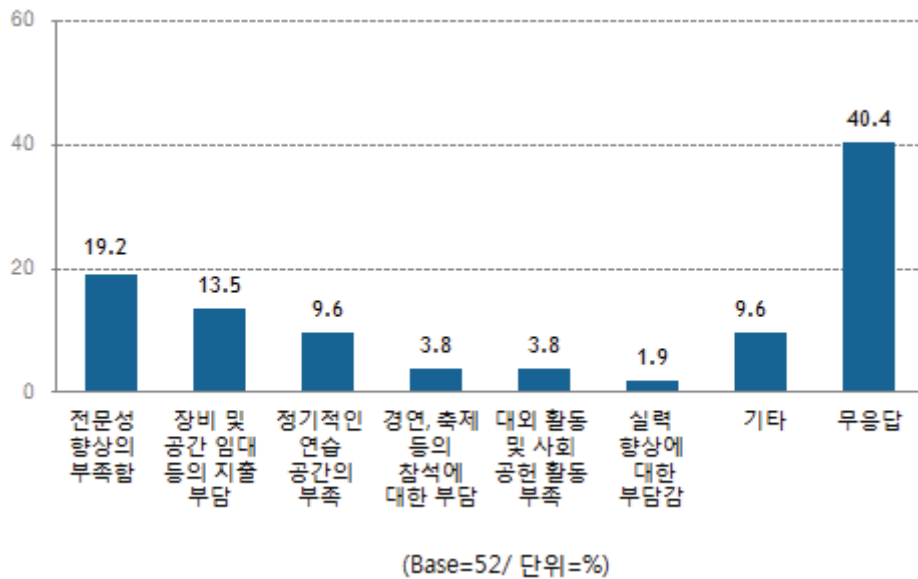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간 관계인식에 도움	지역사회에 도움	정기적인 발표자간에 도움	전문성 습득에 도움	기타	무응답
전 체		(746)	57.9	32.8	19.8	16.1	15.3	1.6	0.5
지역 권역별	수도권	(274)	49.6	38.3	18.6	17.2	12.8	1.8	0.7
	충청권	(182)	57.1	37.9	15.4	15.9	19.2	1.1	0.5
	전라권	(114)	75.4	19.3	30.7	12.3	7.9	1.8	0.0
	경상권	(97)	66.0	30.9	20.6	13.4	20.6	1.0	1.0
	강원/제주권	(58)	58.6	20.7	17.2	22.4	12.1	0.0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14)	52.6	43.0	19.3	19.3	22.8	1.8	0.9
	주민자치센터	(77)	49.4	31.2	28.6	16.9	20.8	3.9	1.3
	생활문화센터	(181)	78.5	36.5	31.5	11.6	12.7	2.8	0.6
	평생학습관(센터)	(68)	55.9	22.1	25.0	16.2	13.2	0.0	0.0
	도서관	(60)	60.0	38.3	11.7	13.3	11.7	0.0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51)	45.1	27.5	25.5	27.5	21.6	0.0	0.0
	사립대학교	(58)	41.4	36.2	1.7	15.5	8.6	1.7	0.0
	민간기업	(18)	83.3	27.8	11.1	0.0	22.2	0.0	0.0
	인터넷동호회	(84)	53.6	19.0	4.8	15.5	6.0	0.0	1.2
	기타	(35)	31.4	34.3	8.6	25.7	22.9	2.9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27)	47.2	33.9	14.2	26.0	15.7	1.6	0.0
	2010년~2014년	(213)	53.5	33.8	20.2	18.3	13.1	2.3	0.5
	2015년~2016년	(232)	62.5	31.5	19.8	14.7	15.1	0.4	0.4
	2017년 이후	(150)	64.7	31.3	22.7	8.0	16.7	2.0	0.7
회원 규모별	소규모	(356)	54.8	39.9	21.3	15.4	18.0	2.0	0.6
	중규모	(311)	62.4	26.4	20.6	18.0	14.5	0.6	0.6
	대규모	(63)	54.0	28.6	6.3	14.3	3.2	1.6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26)	59.2	33.7	20.2	14.4	14.1	2.1	0.3
	중규모	(370)	56.5	33.0	19.5	17.6	15.1	1.1	0.8
	대규모	(28)	60.7	21.4	14.3	14.3	10.7	0.0	0.0
활동 장르	문학	(68)	66.2	39.7	5.9	5.9	10.3	1.5	0.0
	미술	(86)	69.8	36.0	12.8	14.0	18.6	2.3	1.2
	음악	(263)	63.1	26.2	18.3	18.3	12.9	2.3	0.0
	무용	(110)	68.2	27.3	15.5	17.3	12.7	0.9	0.0
	연극	(19)	36.8	47.4	5.3	21.1	0.0	0.0	0.0
	영화	(10)	20.0	20.0	0.0	0.0	40.0	20.0	0.0
	사진	(47)	59.6	44.7	21.3	6.4	8.5	2.1	0.0
	공예	(28)	64.3	25.0	28.6	14.3	10.7	7.1	0.0
	전통예술	(102)	63.7	30.4	40.2	19.6	21.6	1.0	0.0
	기타	(78)	38.5	39.7	30.8	9.0	25.6	1.3	1.3

3. (만족도 부정 평가자) 불만족 이유

-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문성 향상의 부족함’이 19.2%, ‘장비 및 공간임대 등의 지출 부담’이 13.5%로 나타남. 다음으로 ‘정기적인 연습 공간의 부족’이 9.6%, ‘경연, 축제 등의 참석에 대한 부담’과 ‘대외 활동 및 사회 공헌 활동 부족’이 3.8% 씩, ‘실력 향상에 대한 부담감’이 1.9%로 나타남.

〈그림 IV-4-3〉 (만족도 부정 평가자) 불만족 이유



〈표 IV-4-3〉 (만족도 부정 평가자)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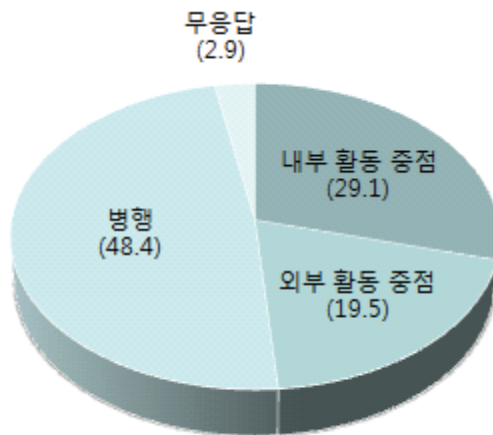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전문성의 향상에 부족함	장비 공간 및 임대료 지출 부담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공급 부족	경연, 제 등의 참석에 대한 부담	대외 활동 사회 화 활동 부족	실력 향상에 대한 부담감	기타	무응답
전 체		(52)	19.2	13.5	9.6	3.8	3.8	1.9	9.6	40.4
지역 권역별	수도권	(25)	24.0	16.0	8.0	8.0	4.0	0.0	12.0	28.0
	충청권	(8)	12.5	12.5	25.0	0.0	0.0	12.5	0.0	50.0
	전라권	(2)	0.0	0.0	0.0	0.0	0.0	0.0	0.0	100.0
	경상권	(12)	16.7	16.7	8.3	0.0	8.3	0.0	8.3	41.7
	강원/제주권	(4)	25.0	0.0	0.0	0.0	0.0	0.0	0.0	75.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3)	33.3	33.3	0.0	0.0	0.0	0.0	0.0	33.3
	주민자치센터	(11)	27.3	18.2	0.0	0.0	9.1	0.0	9.1	36.4
	생활문화센터	(10)	10.0	20.0	10.0	0.0	0.0	0.0	0.0	60.0
	평생학습관(센터)	(9)	22.2	0.0	11.1	11.1	0.0	0.0	11.1	44.4
	도서관	(4)	25.0	25.0	0.0	0.0	0.0	0.0	0.0	5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7)	0.0	14.3	14.3	0.0	0.0	14.3	14.3	57.1
	사립대학교	(6)	16.7	0.0	33.3	16.7	16.7	0.0	16.7	0.0
	인터넷동호회	(1)	0.0	0.0	0.0	0.0	0.0	0.0	100.0	0.0
	기타	(1)	100.0	0.0	0.0	0.0	0.0	0.0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0)	0.0	10.0	10.0	10.0	10.0	0.0	30.0	30.0
	2010년~2014년	(16)	25.0	18.8	0.0	6.3	0.0	6.3	6.3	43.8
	2015년~2016년	(16)	18.8	12.5	18.8	0.0	0.0	0.0	6.3	43.8
	2017년 이후	(7)	28.6	0.0	14.3	0.0	14.3	0.0	0.0	42.9
회원 규모별	소규모	(29)	20.7	6.9	17.2	0.0	0.0	0.0	10.3	44.8
	중규모	(16)	18.8	12.5	0.0	12.5	6.3	6.3	6.3	43.8
	대규모	(5)	20.0	40.0	0.0	0.0	20.0	0.0	20.0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9)	17.2	6.9	17.2	0.0	3.4	3.4	6.9	48.3
	중규모	(19)	26.3	10.5	0.0	5.3	5.3	0.0	15.8	36.8
	대규모	(1)	0.0	100.0	0.0	0.0	0.0	0.0	0.0	0.0
활동 장르	문학	(5)	20.0	20.0	0.0	0.0	20.0	0.0	0.0	40.0
	미술	(5)	40.0	20.0	20.0	0.0	0.0	0.0	0.0	20.0
	음악	(20)	25.0	10.0	5.0	5.0	0.0	0.0	5.0	50.0
	무용	(8)	12.5	0.0	12.5	12.5	12.5	0.0	12.5	37.5
	연극	(2)	0.0	0.0	50.0	0.0	0.0	0.0	50.0	0.0
	영화	(2)	50.0	50.0	0.0	0.0	0.0	0.0	0.0	0.0
	사진	(1)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예	(2)	0.0	100.0	0.0	0.0	0.0	0.0	0.0	0.0
	전통예술	(9)	0.0	33.3	0.0	0.0	0.0	11.1	11.1	55.6
	기타	(2)	50.0	0.0	0.0	0.0	0.0	0.0	0.0	50.0

4. 운영 방향

-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 방향은 내부 활동 중점(29.5%), 외부 활동 중점(19.5%), 내·외부 병행해서 활동하는 경우(48.4%)로 내·외부 병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내부 활동 중점은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57.4%,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45.8%로 나타났으며, 외부 활동 중점은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32.8%로 나타났음. 내·외부 병행은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59.8%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은 비중으로 집계됨.
 - 결성시기가 최근일수록 내부 활동 중점이며, 오래될수록 외부 활동 중점 비중이 높아짐.
 - 회원 규모가 클수록 외부 활동 중점이며, 작을수록 내부 활동 중점 비중이 높아짐.
 - 내부 활동으로는 ‘영화’(71.4%), ‘문학’(69.5%)이, 외부 활동으로는 ‘연극’(26.9%)이, 내·외부 병행으로는 ‘미술’(49.5%)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4-4〉 운영 방향



(Base=882 / 단위=%)

〈표 IV-4-4〉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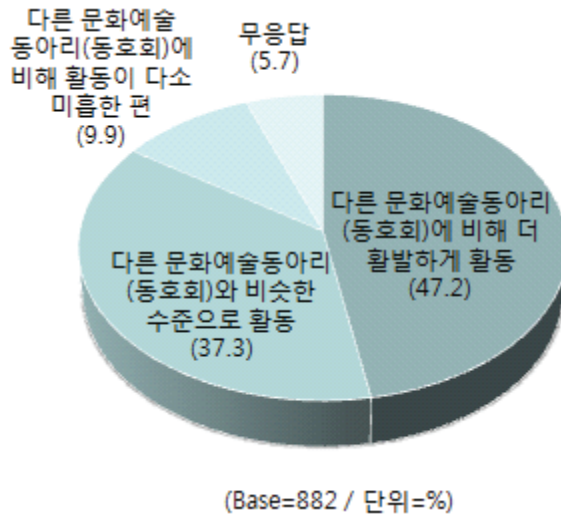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내부 활동 중점	외부 활동 중점	병행	무응답
전 체		(882)	29.1	19.5	48.4	2.9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8.7	19.9	48.9	2.4
	충청권	(210)	29.5	15.2	53.8	1.4
	전라권	(130)	36.2	20.0	36.2	7.7
	경상권	(122)	25.4	19.7	52.5	2.5
	강원/제주권	(66)	22.7	27.3	48.5	1.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5.4	13.9	59.8	0.8
	주민자치센터	(96)	24.0	19.8	50.0	6.3
	생활문화센터	(224)	30.4	18.8	44.6	6.3
	평생학습관(센터)	(88)	21.6	25.0	51.1	2.3
	도서관	(68)	57.4	11.8	30.9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3.3	21.7	50.0	5.0
	사립대학교	(67)	25.4	32.8	41.8	0.0
	민간기업	(24)	45.8	0.0	54.2	0.0
	인터넷동호회	(94)	27.7	25.5	46.8	0.0
	기타	(39)	23.1	12.8	64.1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3.4	31.7	42.1	2.8
	2010년~2014년	(249)	28.9	19.3	50.2	1.6
	2015년~2016년	(273)	31.1	19.8	45.1	4.0
	2017년 이후	(184)	31.5	8.7	56.5	3.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1.3	17.4	49.0	2.3
	중규모	(360)	29.4	20.8	45.8	3.9
	대규모	(71)	18.3	21.1	60.6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7.4	18.3	40.5	3.8
	중규모	(426)	20.7	20.7	57.0	1.6
	대규모	(30)	26.7	16.7	53.3	3.3
활동 장르	문학	(82)	69.5	7.3	22.0	1.2
	미술	(99)	37.4	9.1	49.5	4.0
	음악	(311)	24.4	19.0	55.3	1.3
	무용	(128)	26.6	24.2	47.7	1.6
	연극	(26)	15.4	26.9	57.7	0.0
	영화	(14)	71.4	0.0	28.6	0.0
	사진	(49)	34.7	16.3	49.0	0.0
	공예	(32)	50.0	12.5	37.5	0.0
	전통예술	(114)	21.9	21.9	48.2	7.9
	기타	(88)	22.7	22.7	52.3	2.3

5. 내부 활동의 활성화 정도

- 내부 활동의 활성화 정도는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7.3%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비중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48.5%로 타 소속 유형에 비해 높게 응답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함.
 - 활동 장르별로는 ‘사진’이 71.5%, ‘연극’이 65.4%가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응답했으며, ‘영화’가 57.1%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공예’는 21.9%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4-5〉 내부 활동 활성화 정도



〈표 IV-4-5〉 내부 활동 활성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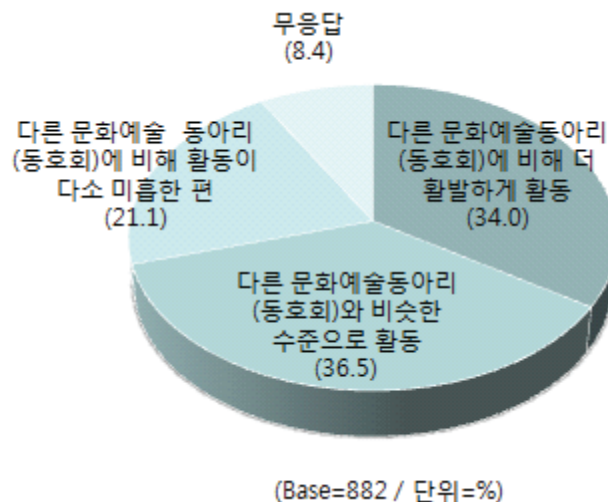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한 편	무응답
전 체		(882)	47.2	37.3	9.9	5.7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6.2	39.0	11.5	3.3
	충청권	(210)	50.5	39.0	7.1	3.3
	전라권	(130)	46.9	27.7	10.8	14.6
	경상권	(122)	41.8	40.2	9.8	8.2
	강원/제주권	(66)	48.5	42.4	7.6	1.5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66.4	25.4	5.7	2.5
	주민자치센터	(96)	43.8	38.5	11.5	6.3
	생활문화센터	(224)	46.4	29.9	10.7	12.9
	평생학습관(센터)	(88)	51.1	38.6	8.0	2.3
	도서관	(68)	32.4	48.5	14.7	4.4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43.3	40.0	11.7	5.0
	사립대학교	(67)	46.3	41.8	10.4	1.5
	민간기업	(24)	45.8	50.0	4.2	0.0
	인터넷동호회	(94)	40.4	44.7	11.7	3.2
	기타	(39)	41.0	53.8	5.1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7.6	40.0	9.0	3.4
	2010년~2014년	(249)	53.4	36.5	7.2	2.8
	2015년~2016년	(273)	45.1	34.8	11.0	9.2
	2017년 이후	(184)	39.7	42.9	12.5	4.9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3.2	38.5	12.5	5.8
	중규모	(360)	50.0	35.6	8.3	6.1
	대규모	(71)	54.9	40.8	2.8	1.4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8.4	38.4	16.3	6.8
	중규모	(426)	53.5	37.8	4.7	4.0
	대규모	(30)	76.7	20.0	0.0	3.3
활동 장르	문학	(82)	47.6	40.2	8.5	3.7
	미술	(99)	49.5	35.4	10.1	5.1
	음악	(311)	52.7	35.7	9.0	2.6
	무용	(128)	51.6	39.1	3.9	5.5
	연극	(26)	65.4	15.4	19.2	0.0
	영화	(14)	35.7	57.1	7.1	0.0
	사진	(49)	71.4	20.4	8.2	0.0
	공예	(32)	37.5	40.6	21.9	0.0
	전통예술	(114)	42.1	36.8	8.8	12.3
	기타	(88)	45.5	39.8	10.2	4.5

6. 외부 활동의 활성화 정도

- 외부 활동의 활성화 정도는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4.0%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비중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는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40.2%,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비해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타 소속 유형에 비해 높게 응답함.
 -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또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함.
 - 활동 장르별로는 ‘사진’이 55.1%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응답했으며, ‘연극’이 53.8%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공예’는 46.9%로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4-6〉 외부 활동 활성화 정도



〈표 IV-4-6〉 외부 활동 활성화 정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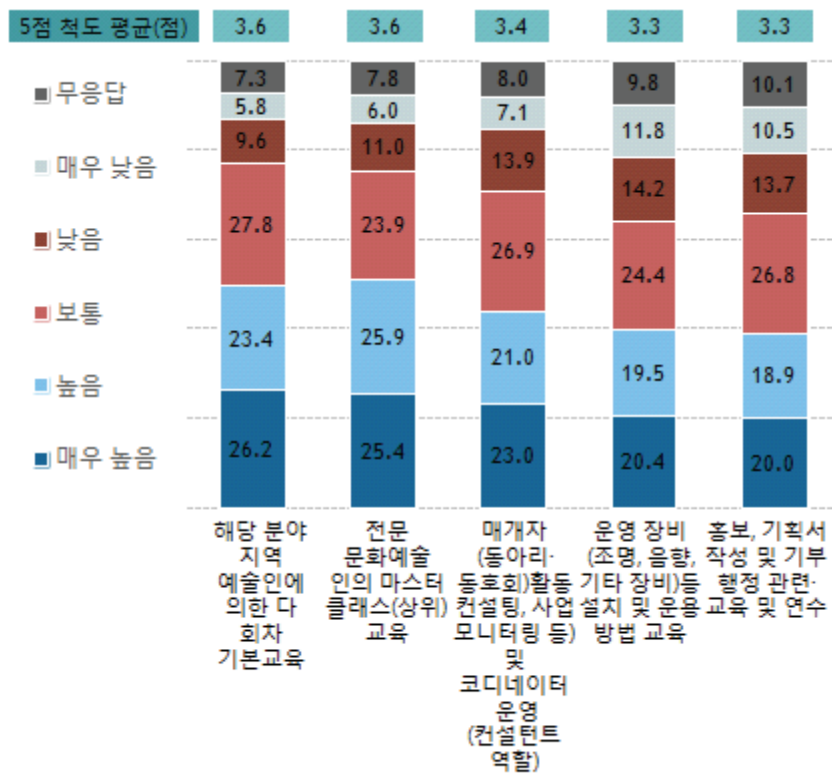
		사례수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한 편	무응답
전 체		(882)	34.0	36.5	21.1	8.4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2.3	40.2	23.3	4.2
	충청권	(210)	35.2	33.8	23.3	7.6
	전라권	(130)	34.6	27.7	16.2	21.5
	경상권	(122)	28.7	45.1	15.6	10.7
	강원/제주권	(66)	43.9	34.8	18.2	3.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7.5	25.4	21.3	5.7
	주민자치센터	(96)	34.4	35.4	25.0	5.2
	생활문화센터	(224)	28.6	40.2	13.4	17.9
	평생학습관(센터)	(88)	36.4	39.8	21.6	2.3
	도서관	(68)	10.3	39.7	41.2	8.8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41.7	31.7	15.0	11.7
	사립대학교	(67)	44.8	43.3	11.9	0.0
	민간기업	(24)	29.2	33.3	25.0	12.5
	인터넷동호회	(94)	35.1	31.9	29.8	3.2
	기타	(39)	28.2	48.7	20.5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4.8	35.2	15.9	4.1
	2010년~2014년	(249)	38.6	38.2	18.5	4.8
	2015년~2016년	(273)	28.6	35.2	22.3	13.9
	2017년 이후	(184)	24.5	38.0	28.3	9.2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29.5	38.3	25.8	6.5
	중규모	(360)	36.7	36.1	15.3	11.9
	대규모	(71)	45.1	32.4	21.1	1.4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5.4	33.2	31.7	9.8
	중규모	(426)	39.9	42.0	11.5	6.6
	대규모	(30)	63.3	23.3	13.3	0.0
활동 장르	문학	(82)	13.4	30.5	43.9	12.2
	미술	(99)	36.4	36.4	20.2	7.1
	음악	(311)	37.9	34.7	19.3	8.0
	무용	(128)	41.4	41.4	14.8	2.3
	연극	(26)	38.5	53.8	7.7	0.0
	영화	(14)	7.1	50.0	35.7	7.1
	사진	(49)	55.1	32.7	12.2	0.0
	공예	(32)	25.0	28.1	46.9	0.0
	전통예술	(114)	35.1	35.1	15.8	14.0
	기타	(88)	27.3	44.3	20.5	8.0

7.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영역별 수혜 의향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교육’과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 클래스(상위)교육’이 평균 3.6점으로 높은 지원 의향을 보임.

-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에 대해서 긍정(49.5%)하는 비중이 부정(37.4%)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 클래스(상위) 교육’에 대해서 긍정(51.3%)이 부정(34.9%)보다 높게 나타남. ‘매개자(동아리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에 대해서 긍정이 44.0%로 부정(40.8%)보다 소폭 높은 비중으로 집계됨. ‘운영 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영 방법 교육’에서 긍정(39.9%)과 부정(38.6%)이 별 차이가 없었으며,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는 긍정(38.9%)보다 부정(40.5%) 비중이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됨.

〈그림 IV-4-7〉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Base=882 / 단위=%)

○ 교육지원 사항 중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는 긍정이 49.5%, 중도가 27.8%, 부정이 15.4%로 나타나 긍정이 부정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긍정 응답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65.2%,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59.0% 순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반면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동아리 결성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영화’가 8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74.6%, ‘미술’이 63.6%, ‘사진’과 ‘공예’가 53.1%로 나타남.

〈표 IV-4-7〉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해당 분야 지역 예술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15.4	27.8	49.5	7.3	3.6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0.8	32.9	39.0	7.3	3.3
	충청권	(210)	12.9	22.9	56.2	8.1	3.8
	전라권	(130)	7.7	18.5	72.3	1.5	4.1
	경상권	(122)	8.2	27.9	51.6	12.3	3.7
	강원/제주권	(66)	21.2	31.8	42.4	4.5	3.3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1.5	19.7	59.0	9.8	3.9
	주민자치센터	(96)	20.8	31.3	32.3	15.6	3.2
	생활문화센터	(224)	8.9	16.5	65.2	9.4	4.0
	평생학습관(센터)	(88)	19.3	34.1	40.9	5.7	3.4
	도서관	(68)	17.6	32.4	44.1	5.9	3.5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15.0	28.3	46.7	10.0	3.4
	사립대학교	(67)	23.9	40.3	35.8	0.0	3.2
	민간기업	(24)	0.0	29.2	66.7	4.2	4.0
	인터넷동호회	(94)	21.3	39.4	39.4	0.0	3.2
	기타	(39)	20.5	35.9	43.6	0.0	3.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12.4	35.2	43.4	9.0	3.5
	2010년~2014년	(249)	19.3	29.3	46.2	5.2	3.4
	2015년~2016년	(273)	12.8	28.2	52.7	6.2	3.7
	2017년 이후	(184)	16.3	22.3	52.7	8.7	3.6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17.4	25.8	48.5	8.4	3.6
	중규모	(360)	14.7	28.1	50.6	6.7	3.6

예산 규모별	대규모	(71)	8.5	36.6	54.9	0.0	3.7
	소규모	(398)	15.3	26.6	52.0	6.0	3.6
	중규모	(426)	16.4	28.9	47.7	7.0	3.5
	대규모	(30)	6.7	26.7	66.7	0.0	3.8
활동 장르	문학	(82)	19.5	31.7	40.2	8.5	3.4
	미술	(99)	11.1	15.2	63.6	10.1	3.9
	음악	(311)	16.4	27.7	49.5	6.4	3.6
	무용	(128)	10.2	32.8	51.6	5.5	3.7
	연극	(26)	19.2	38.5	34.6	7.7	3.3
	영화	(14)	7.1	7.1	85.7	0.0	4.1
	사진	(49)	18.4	26.5	53.1	2.0	3.4
	공예	(32)	21.9	21.9	53.1	3.1	3.4
	전통예술	(114)	4.4	13.2	74.6	7.9	4.2
	기타	(88)	18.2	33.0	45.5	3.4	3.5

○ 교육지원 사항 중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 클래스(상위) 교육’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는 긍정이 51.2%, 중도가 23.9%, 부정이 17.0%로 나타나 긍정이 부정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긍정 응답은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6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54.9%,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52.9% 순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반면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활동 장르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영화’가 8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64.9%, ‘미술’이 64.6%, ‘음악’이 53.4%로 나타남.

〈표 IV-4-8〉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17.0	23.9	51.2	7.8	3.6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2.4	26.9	42.6	8.2	3.3
	충청권	(210)	15.7	18.6	57.1	8.6	3.7
	전라권	(130)	7.7	16.2	71.5	4.6	4.2
	경상권	(122)	8.2	24.6	57.4	9.8	3.8
	강원/제주권	(66)	25.8	36.4	33.3	4.5	3.2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2.3	22.1	54.9	10.7	3.7
	주민자치센터	(96)	19.8	28.1	34.4	17.7	3.3

	생활문화센터	(224)	8.0	14.7	67.0	10.3	4.1
	평생학습관(센터)	(88)	21.6	27.3	46.6	4.5	3.4
	도서관	(68)	17.6	25.0	52.9	4.4	3.6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0.0	30.0	36.7	13.3	3.2
	사립대학교	(67)	25.4	26.9	47.8	0.0	3.4
	민간기업	(24)	16.7	41.7	37.5	4.2	3.3
	인터넷동호회	(94)	24.5	25.5	50.0	0.0	3.4
	기타	(39)	28.2	33.3	38.5	0.0	3.2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13.8	30.3	48.3	7.6	3.6
	2010년~2014년	(249)	20.9	24.9	45.8	8.4	3.4
	2015년~2016년	(273)	14.3	22.0	58.6	5.1	3.7
	2017년 이후	(184)	19.0	22.3	50.0	8.7	3.5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17.4	24.4	49.7	8.6	3.6
	중규모	(360)	18.9	23.1	50.3	7.8	3.5
	대규모	(71)	8.5	22.5	69.0	0.0	3.9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15.8	25.1	51.5	7.5	3.6
	중규모	(426)	19.0	22.5	50.7	7.7	3.5
	대규모	(30)	13.3	23.3	63.3	0.0	3.7
활동 장르	문학	(82)	18.3	28.0	45.1	8.5	3.4
	미술	(99)	11.1	18.2	64.6	6.1	3.9
	음악	(311)	16.1	22.2	53.4	8.4	3.6
	무용	(128)	15.6	27.3	51.6	5.5	3.6
	연극	(26)	30.8	15.4	46.2	7.7	3.4
	영화	(14)	0.0	14.3	85.7	0.0	4.1
	사진	(49)	26.5	24.5	46.9	2.0	3.3
	공예	(32)	25.0	25.0	46.9	3.1	3.3
	전통예술	(114)	5.3	20.2	64.9	9.6	4.1
	기타	(88)	18.2	30.7	46.6	4.5	3.5

○ 교육지원 사항 중 ‘매개자(동아리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역할)’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는 긍정이 44.0%, 중도가 26.9%, 부정이 21.1%로 나타나 긍정이 부정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긍정 응답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5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56.7%,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51.6% 순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반면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동아리 결성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영화’가 7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62.3%, ‘사진’과 ‘공예’가 53.1%로 나타남.

〈표 IV-4-9〉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매개자 (동아리/동호회)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21.1	26.9	44.0	8.0	3.4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3.9	30.2	37.5	8.5	3.2
	충청권	(210)	21.4	21.0	48.6	9.0	3.5
	전라권	(130)	9.2	18.5	68.5	3.8	4.1
	경상권	(122)	17.2	32.8	38.5	11.5	3.4
	강원/제주권	(66)	31.8	33.3	30.3	4.5	3.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8.0	22.1	51.6	8.2	3.6
	주민자치센터	(96)	27.1	32.3	22.9	17.7	2.9
	생활문화센터	(224)	8.9	22.8	56.7	11.6	3.9
	평생학습관(센터)	(88)	22.7	30.7	40.9	5.7	3.4
	도서관	(68)	23.5	25.0	41.2	10.3	3.3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0.0	30.0	41.7	8.3	3.3
	사립대학교	(67)	29.9	38.8	31.3	0.0	3.0
	민간기업	(24)	4.2	33.3	58.3	4.2	3.7
	인터넷동호회	(94)	37.2	19.1	43.6	0.0	3.1
결성 시기별	기타	(39)	35.9	35.9	28.2	0.0	2.9
	2009년 이전	(145)	23.4	37.2	34.5	4.8	3.3
	2010년~2014년	(249)	26.9	27.7	39.0	6.4	3.2
	2015년~2016년	(273)	17.9	26.4	49.8	5.9	3.6
회원 규모별	2017년 이후	(184)	17.4	19.6	51.1	12.0	3.6
	소규모	(431)	22.0	24.6	43.2	10.2	3.4
	중규모	(360)	20.6	28.6	44.7	6.1	3.4
예산 규모별	대규모	(71)	21.1	31.0	47.9	0.0	3.5
	소규모	(398)	20.4	24.6	47.5	7.5	3.5
	중규모	(426)	23.0	28.2	42.3	6.6	3.4
활동 장르	대규모	(30)	10.0	43.3	43.3	3.3	3.7
	문학	(82)	26.8	28.0	34.1	11.0	3.1
	미술	(99)	22.2	20.2	44.4	13.1	3.4
	음악	(311)	21.2	26.7	45.3	6.8	3.4
	무용	(128)	19.5	29.7	45.3	5.5	3.5
	연극	(26)	26.9	26.9	42.3	3.8	3.3
활동 장르	영화	(14)	7.1	14.3	78.6	0.0	4.0

	사진	(49)	16.3	28.6	53.1	2.0	3.6
	공예	(32)	21.9	18.8	53.1	6.3	3.5
	전통예술	(114)	12.3	18.4	62.3	7.0	4.0
	기타	(88)	14.8	35.2	44.3	5.7	3.5

- 교육지원 사항 중 ‘운영 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영 방법 교육’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는 긍정이 39.9%, 중도가 24.4%, 부정이 26.0%로 나타나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응답도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긍정 응답은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50.0%, ‘인터넷 동호회’가 47.9% 순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반면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활동 장르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영화’가 7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진’이 57.1%, ‘전통예술’이 54.4%로 나타남.

〈표 IV-4-10〉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운영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26.0	24.4	39.9	9.8	3.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7.8	26.0	36.9	9.4	3.1
	충청권	(210)	30.5	23.8	34.8	11.0	3.1
	전라권	(130)	11.5	19.2	66.2	3.1	4.0
	경상권	(122)	21.3	27.9	35.2	15.6	3.2
	강원/제주권	(66)	37.9	24.2	31.8	6.1	2.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1.1	20.5	36.1	12.3	3.1
	주민자치센터	(96)	25.0	28.1	31.3	15.6	3.1
	생활문화센터	(224)	17.0	18.3	50.0	14.7	3.7
	평생학습관(센터)	(88)	30.7	27.3	35.2	6.8	3.1
	도서관	(68)	44.1	16.2	27.9	11.8	2.7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18.3	36.7	31.7	13.3	3.2
	사립대학교	(67)	19.4	25.4	55.2	0.0	3.4
	민간기업	(24)	33.3	37.5	25.0	4.2	3.0
	인터넷동호회	(94)	24.5	27.7	47.9	0.0	3.4
	기타	(39)	43.6	33.3	23.1	0.0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9.7	26.2	34.5	9.7	3.1
	2010년~2014년	(249)	30.1	24.9	36.9	8.0	3.1

	2015년~2016년	(273)	24.5	22.3	45.1	8.1	3.4
	2017년 이후	(184)	21.7	27.2	39.7	11.4	3.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0.6	22.3	34.8	12.3	3.1
	중규모	(360)	23.3	25.8	42.5	8.3	3.3
	대규모	(71)	14.1	25.4	60.6	0.0	3.7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7.1	23.4	41.0	8.5	3.3
	중규모	(426)	26.1	25.1	39.7	9.2	3.2
	대규모	(30)	20.0	30.0	46.7	3.3	3.5
활동 장르	문학	(82)	42.7	28.0	18.3	11.0	2.5
	미술	(99)	28.3	21.2	35.4	15.2	3.2
	음악	(311)	22.2	22.5	46.6	8.7	3.5
	무용	(128)	23.4	28.1	41.4	7.0	3.3
	연극	(26)	19.2	23.1	50.0	7.7	3.4
	영화	(14)	7.1	21.4	71.4	0.0	4.1
	사진	(49)	20.4	20.4	57.1	2.0	3.4
	공예	(32)	31.3	28.1	34.4	6.3	3.0
	전통예술	(114)	15.8	21.9	54.4	7.9	3.7
	기타	(88)	25.0	28.4	37.5	9.1	3.3

- 교육지원 사항 중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는 긍정이 38.9%, 중도가 26.8%, 부정이 24.3%로 나타나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응답도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긍정 응답은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동호회’가 48.9%,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45.8% 순으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른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반면 결성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동아리 결성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에서 ‘공예’가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56.1%, ‘사진’이 5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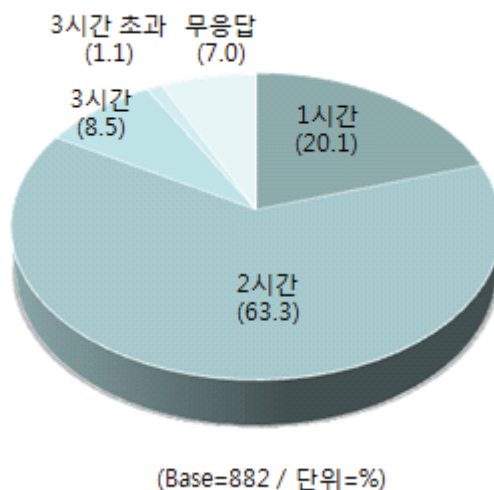
〈표 IV-4-11〉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사항 :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24.3	26.8	38.9	10.1	3.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6.0	28.1	34.4	11.5	3.1
	충청권	(210)	28.1	25.7	36.2	10.0	3.2
	전라권	(130)	10.8	19.2	66.2	3.8	4.0
	경상권	(122)	22.1	30.3	32.8	14.8	3.2
	강원/제주권	(66)	34.8	28.8	31.8	4.5	3.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0.3	24.6	33.6	11.5	3.1
	주민자치센터	(96)	25.0	33.3	20.8	20.8	2.9
	생활문화센터	(224)	15.6	20.1	49.6	14.7	3.7
	평생학습관(센터)	(88)	28.4	29.5	35.2	6.8	3.1
	도서관	(68)	35.3	19.1	33.8	11.8	3.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18.3	41.7	28.3	11.7	3.2
	사립대학교	(67)	22.4	32.8	44.8	0.0	3.3
	민간기업	(24)	29.2	20.8	45.8	4.2	3.2
	인터넷동호회	(94)	23.4	27.7	48.9	0.0	3.5
	기타	(39)	35.9	30.8	33.3	0.0	2.9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6.2	31.0	35.2	7.6	3.2
	2010년~2014년	(249)	28.1	30.9	32.1	8.8	3.1
	2015년~2016년	(273)	22.7	25.3	44.3	7.7	3.4
	2017년 이후	(184)	21.7	21.7	42.9	13.6	3.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27.4	27.4	32.3	13.0	3.1
	중규모	(360)	22.8	26.1	43.3	7.8	3.3
	대규모	(71)	14.1	26.8	59.2	0.0	3.8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7.4	23.9	39.7	9.0	3.2
	중규모	(426)	23.0	29.3	38.5	9.2	3.3
	대규모	(30)	6.7	33.3	56.7	3.3	3.9
활동 장르	문학	(82)	36.6	23.2	28.0	12.2	2.8
	미술	(99)	30.3	20.2	35.4	14.1	3.2
	음악	(311)	20.9	28.0	41.8	9.3	3.4
	무용	(128)	24.2	26.6	41.4	7.8	3.3
	연극	(26)	15.4	34.6	42.3	7.7	3.5
	영화	(14)	21.4	28.6	50.0	0.0	3.5
	사진	(49)	12.2	26.5	53.1	8.2	3.7
	공예	(32)	9.4	28.1	56.3	6.3	3.7
	전통예술	(114)	16.7	18.4	56.1	8.8	3.8
	기타	(88)	25.0	30.7	39.8	4.5	3.2

8.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 : 1회차 당 교육 시간

-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은 '2시간'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시간'이 20.1%, '3시간'이 8.5%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인터넷 동호회'(34.0%)는 1시간,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79.2%)는 2시간,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12.5%)에서는 3시간,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4.4%)는 3시간 초과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동아리가 최근 결성된 경우, 1회차 2시간 운영한다는 동아리 비중이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됨(2009년 이전 60.0%, 2017년 이후 68.5%).
 - 예산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1회차 교육시간이 1시간, 대규모일수록 3시간 비중이 높았음.
 - 활동 장르별로는 '연극'(26.9%)이 1시간 운영하는 비중이 높았음. 다음으로 '사진'(77.6%)은 2시간 운영, '미술'(20.2%)이 3시간 운영으로 나타남.

〈그림 IV-4-8〉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 : 1회차 당 교육 시간



〈표 IV-4-12〉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교육 시간 : 1회차 당 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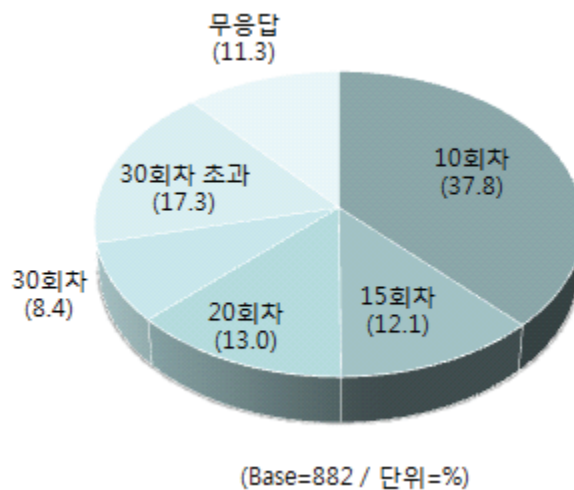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초과	무응답
전 체		(882)	20.1	63.3	8.5	1.1	7.0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25.4	60.7	5.1	1.2	7.6
	충청권	(210)	17.1	66.7	8.6	0.5	7.1
	전라권	(130)	12.3	68.5	11.5	0.0	7.7
	경상권	(122)	22.1	59.8	10.7	1.6	5.7
	강원/제주권	(66)	16.7	57.6	15.2	4.5	6.1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0.7	72.1	9.8	0.0	7.4
	주민자치센터	(96)	26.0	54.2	6.3	0.0	13.5
	생활문화센터	(224)	13.4	67.9	10.3	1.3	7.1
	평생학습관(센터)	(88)	17.0	65.9	12.5	1.1	3.4
	도서관	(68)	23.5	58.8	8.8	4.4	4.4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1.7	63.3	5.0	0.0	10.0
	사립대학교	(67)	26.9	61.2	1.5	3.0	7.5
	민간기업	(24)	12.5	79.2	4.2	0.0	4.2
	인터넷동호회	(94)	34.0	50.0	9.6	1.1	5.3
	기타	(39)	30.8	59.0	7.7	0.0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2.1	60.0	11.0	2.1	4.8
	2010년~2014년	(249)	22.5	61.8	6.8	1.6	7.2
	2015년~2016년	(273)	20.1	63.0	10.3	0.4	6.2
	2017년 이후	(184)	16.8	68.5	6.0	1.1	7.6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21.8	61.0	9.0	1.2	7.0
	중규모	(360)	17.5	66.4	8.3	1.1	6.7
	대규모	(71)	26.8	59.2	7.0	1.4	5.6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1.9	63.3	6.3	1.3	7.3
	중규모	(426)	20.0	63.8	9.2	0.9	6.1
	대규모	(30)	16.7	60.0	16.7	0.0	6.7
활동 장르	문학	(82)	22.0	62.2	6.1	2.4	7.3
	미술	(99)	9.1	60.6	20.2	2.0	8.1
	음악	(311)	21.2	65.0	7.1	0.6	6.1
	무용	(128)	19.5	67.2	7.0	0.8	5.5
	연극	(26)	26.9	50.0	15.4	0.0	7.7
	영화	(14)	7.1	64.3	7.1	0.0	21.4
	사진	(49)	18.4	77.6	2.0	0.0	2.0
	공예	(32)	15.6	62.5	3.1	3.1	15.6
	전통예술	(114)	11.4	76.3	4.4	0.0	7.9
	기타	(88)	23.9	61.4	9.1	2.3	3.4

9.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 : 연간 총 교육 회차

-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는 연가 총 ‘10회차’ 3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0회차’ 초과가 17.3%로 나타남. 다음으로 ‘20회차’ 13.0%, ‘15회차’ 12.1%, ‘30회차’는 8.4% 순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10회차가 61.8%로 나타났으며, ‘30회차 초과’는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30.3%로 높게 나타남.
 - 결성 시기가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10회차 동아리 비중이 높았음.
 - 활동 장르별로 ‘영화’(42.9%)가 15회차로 가장 높았고, ‘전통예술’(34.2%)이 30회차 초과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그림 IV-4-9>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 : 연간 총 교육 회차



〈표 IV-4-13〉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운영 횟수 : 연간 총 교육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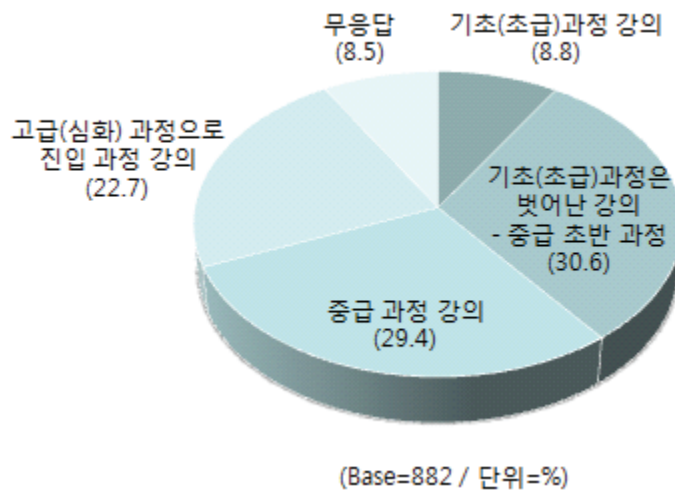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10회차	15회차	20회차	30회차	30회차 초과	무응답
전 체		(882)	37.8	12.1	13.0	8.4	17.3	11.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7.4	9.4	14.2	7.9	8.8	12.4
	충청권	(210)	30.0	12.4	11.9	9.5	26.2	10.0
	전라권	(130)	16.2	21.5	13.1	8.5	30.0	10.8
	경상권	(122)	50.8	9.8	11.5	4.9	10.7	12.3
	강원/제주권	(66)	34.8	9.1	15.2	9.1	22.7	9.1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0.5	9.8	14.8	13.9	30.3	10.7
	주민자치센터	(96)	36.5	8.3	11.5	8.3	12.5	22.9
	생활문화센터	(224)	24.6	16.1	14.3	7.1	22.3	15.6
	평생학습관(센터)	(88)	50.0	12.5	11.4	4.5	13.6	8.0
	도서관	(68)	61.8	10.3	16.2	2.9	4.4	4.4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26.7	10.0	5.0	21.7	25.0	11.7
	사립대학교	(67)	56.7	16.4	16.4	3.0	0.0	7.5
	민간기업	(24)	41.7	8.3	16.7	16.7	12.5	4.2
	인터넷동호회	(94)	55.3	13.8	10.6	5.3	8.5	6.4
	기타	(39)	41.0	2.6	12.8	7.7	33.3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5.5	13.8	11.0	6.2	15.2	8.3
	2010년~2014년	(249)	37.8	10.8	16.5	10.4	13.3	11.2
	2015년~2016년	(273)	37.0	11.7	11.0	7.3	24.5	8.4
	2017년 이후	(184)	34.8	14.1	14.7	9.8	13.0	13.6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6.4	10.9	13.2	10.4	18.1	10.9
	중규모	(360)	36.4	13.9	12.5	6.7	18.6	11.9
	대규모	(71)	54.9	9.9	16.9	4.2	8.5	5.6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7.2	13.6	11.1	9.5	17.3	11.3
	중규모	(426)	40.4	11.7	14.3	8.0	16.0	9.6
	대규모	(30)	26.7	6.7	23.3	0.0	33.3	10.0
활동 장르	문학	(82)	53.7	9.8	15.9	3.7	6.1	11.0
	미술	(99)	28.3	8.1	19.2	9.1	27.3	8.1
	음악	(311)	37.3	8.7	12.5	10.0	20.6	10.9
	무용	(128)	32.8	15.6	16.4	5.5	21.1	8.6
	연극	(26)	46.2	23.1	19.2	0.0	3.8	7.7
	영화	(14)	28.6	42.9	0.0	7.1	14.3	7.1
	사진	(49)	49.0	10.2	2.0	22.4	14.3	2.0
	공예	(32)	50.0	9.4	6.3	3.1	18.8	12.5
	전통예술	(114)	15.8	18.4	9.6	7.9	34.2	14.0
	기타	(88)	55.7	9.1	11.4	4.5	12.5	6.8

10.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

-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은 ‘기초(초급)과정을 벗어난 강의(중급 초반 과정)’가 전체의 30.6%이며, 다음으로 ‘중급 과정 강의’가 29.4%, ‘고급(심화) 과정으로 진입 과정 강의’가 22.7%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58.3%로 절반정도가 기초(초급) 과정은 벗어난 강의(중급 초반 과정)를 듣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는 중급과정 강의를 35.2%,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는 고급(심화)과정으로 진입 과정 강의가 32.4%로 타 소속 유형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결성시기가 대체로 오래된 경우인 동아리가 중급 과정 강의와 고급(심화)과정을 진입하는 과정의 강의를 듣는 비중이 높음.
 - 회원 규모에서는 대규모일수록 기초(초급) 과정 강의를 듣는 경우가 높았으며, 소규모일수록 고급(심화)과정으로 진입하는 과정 강의를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4-10〉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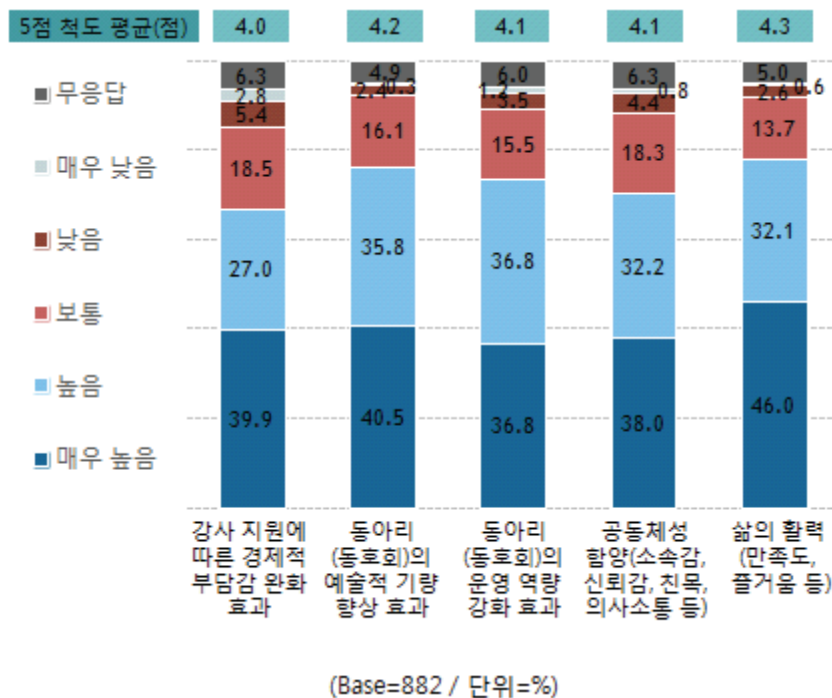
〈표 IV-4-14〉 (지역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 시) 원하는 강사의 수준
(단위=%)

		사례수	기초(초급) 과정 강의	기초(초급) 과정은 벗어난 강의 - 중급 초반 과정	중급 과정 강의	고급(심화) 과정으로 진입 과정 강의	무응답
전 체		(882)	8.8	30.6	29.4	22.7	8.5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9.1	25.1	30.8	26.0	9.1
	충청권	(210)	8.6	32.4	31.9	19.0	8.1
	전라권	(130)	8.5	34.6	26.9	18.5	11.5
	경상권	(122)	12.3	40.2	22.1	18.9	6.6
	강원/제주권	(66)	3.0	27.3	31.8	31.8	6.1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9	34.4	29.5	23.8	7.4
	주민자치센터	(96)	3.1	21.9	31.3	30.2	13.5
	생활문화센터	(224)	6.3	36.2	25.4	22.3	9.8
	평생학습관(센터)	(88)	10.2	20.5	35.2	27.3	6.8
	도서관	(68)	7.4	29.4	26.5	32.4	4.4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8.3	25.0	30.0	25.0	11.7
	사립대학교	(67)	19.4	37.3	23.9	9.0	10.4
	민간기업	(24)	8.3	58.3	16.7	16.7	0.0
	인터넷동호회	(94)	18.1	27.7	31.9	14.9	7.4
	기타	(39)	10.3	20.5	48.7	17.9	2.6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11.7	24.1	31.7	26.9	5.5
	2010년~2014년	(249)	7.6	27.7	32.9	22.5	9.2
	2015년~2016년	(273)	11.0	31.1	27.5	23.1	7.3
	2017년 이후	(184)	6.5	39.1	25.5	18.5	10.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6.5	27.4	31.8	27.4	7.0
	중규모	(360)	9.7	33.3	26.4	19.7	10.8
	대규모	(71)	21.1	36.6	28.2	11.3	2.8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9.3	31.2	28.1	22.6	8.8
	중규모	(426)	8.9	31.7	29.8	22.1	7.5
	대규모	(30)	6.7	16.7	40.0	23.3	13.3
활동 장르	문학	(82)	8.5	32.9	26.8	24.4	7.3
	미술	(99)	6.1	33.3	23.2	31.3	6.1
	음악	(311)	7.1	35.0	32.8	18.6	6.4
	무용	(128)	9.4	35.9	28.1	17.2	9.4
	연극	(26)	11.5	34.6	34.6	11.5	7.7
	영화	(14)	21.4	21.4	42.9	7.1	7.1
	사진	(49)	14.3	34.7	28.6	12.2	10.2
	공예	(32)	12.5	28.1	34.4	15.6	9.4
	전통예술	(114)	2.6	28.1	36.8	17.5	14.9
	기타	(88)	13.6	23.9	17.0	40.9	4.5

11.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 수준

-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하는 수준에 대한 응답은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이 평점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아리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가 평균 4.2점으로 높게 나타남. 이어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와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이 각 4.1점 씩,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는 평균 4.0점으로 나타남.
-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대부분 동아리에서는 만족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유형별로 ‘기초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11〉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교육 지원 사업 참여 시 기대수준으로서 ‘강사의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 중 긍정이 66.9%, 중도가 18.5%, 부정이 8.3%로 나타나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8배 이상 많음.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88.5%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73.2%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았음.
- 활동 장르별로 '전통예술'이 8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용'이 72.7%로 나타남.

〈표 IV-4-15〉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강사의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 체		(882)	8.3	18.5	66.9	6.3	4.0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11.8	21.5	61.0	5.7	3.8
	충청권	(210)	4.8	12.9	75.7	6.7	4.3
	전라권	(130)	3.8	13.1	81.5	1.5	4.4
	경상권	(122)	8.2	23.8	56.6	11.5	3.9
	강원/제주권	(66)	6.1	18.2	69.7	6.1	3.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2.5	3.3	88.5	5.7	4.4
	주민자치센터	(96)	10.4	17.7	60.4	11.5	3.9
	생활문화센터	(224)	5.4	13.4	73.2	8.0	4.3
	평생학습관(센터)	(88)	9.1	27.3	54.5	9.1	3.8
	도서관	(68)	11.8	17.6	63.2	7.4	3.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	25.0	60.0	10.0	3.9
	사립대학교	(67)	16.4	23.9	59.7	0.0	3.6
	민간기업	(24)	8.3	37.5	54.2	0.0	3.9
	인터넷동호회	(94)	13.8	31.9	54.3	0.0	3.6
	기타	(39)	7.7	15.4	74.4	2.6	4.1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9	20.7	66.9	5.5	4.0
	2010년~2014년	(249)	11.6	18.5	63.9	6.0	3.9
	2015년~2016년	(273)	5.1	16.5	72.5	5.9	4.2
	2017년 이후	(184)	8.2	22.3	63.6	6.0	4.0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7.9	17.6	67.1	7.4	4.1
	중규모	(360)	8.1	19.7	66.1	6.1	4.0
	대규모	(71)	11.3	19.7	69.0	0.0	3.9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9.0	20.1	64.3	6.5	4.0
	중규모	(426)	8.0	18.1	68.8	5.2	4.0
	대규모	(30)	3.3	6.7	90.0	0.0	4.3
활동 장르	문학	(82)	12.2	18.3	57.3	12.2	3.7
	미술	(99)	6.1	17.2	70.7	6.1	4.1
	음악	(311)	8.4	17.4	69.5	4.8	4.1
	무용	(128)	8.6	12.5	72.7	6.3	4.1
	연극	(26)	7.7	38.5	46.2	7.7	3.6
	영화	(14)	21.4	7.1	71.4	0.0	3.7

	사진	(49)	6.1	20.4	71.4	2.0	4.0
	공예	(32)	9.4	15.6	71.9	3.1	4.0
	전통예술	(114)	1.8	11.4	81.6	5.3	4.5
	기타	(88)	9.1	25.0	62.5	3.4	3.9

-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시 기대수준으로서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 중 긍정이 76.3%, 중도가 16.1%, 부정이 2.7%로 나타나 다수가 긍정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88.5%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82.1%,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80.4%로 나타남
 - 결성이 오래된 동아리/동호회일수록,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 ‘사진’이 8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통예술’이 81.6%, ‘공예’가 81.3%, ‘무용’이 80.5%로 나타남.

〈표 IV-4-16〉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 체		(882)	2.7	16.1	76.3	4.9	4.2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0	20.8	72.5	3.6	4.1
	충청권	(210)	1.9	12.9	80.0	5.2	4.4
	전라권	(130)	0.8	9.2	87.7	2.3	4.4
	경상권	(122)	4.9	16.4	71.3	7.4	4.0
	강원/제주권	(66)	3.0	16.7	75.8	4.5	4.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0.0	4.1	88.5	7.4	4.5
	주민자치센터	(96)	2.1	22.9	65.6	9.4	4.0
	생활문화센터	(224)	2.7	10.7	80.4	6.3	4.3
	평생학습관(센터)	(88)	8.0	19.3	69.3	3.4	4.0
	도서관	(68)	1.5	19.1	75.0	4.4	4.1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	21.7	65.0	8.3	4.0
	사립대학교	(67)	1.5	16.4	82.1	0.0	4.2
	민간기업	(24)	4.2	16.7	79.2	0.0	4.1
	인터넷동호회	(94)	3.2	22.3	74.5	0.0	4.1
	기타	(39)	0.0	30.8	69.2	0.0	4.1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2.1	18.6	74.5	4.8	4.2
	2010년~2014년	(249)	3.6	16.9	75.5	4.0	4.1

	2015년~2016년	(273)	1.5	13.2	81.3	4.0	4.3
	2017년 이후	(184)	2.7	17.4	74.5	5.4	4.1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1.9	17.6	75.4	5.1	4.2
	중규모	(360)	3.6	16.1	75.3	5.0	4.1
	대규모	(71)	2.8	9.9	87.3	0.0	4.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3	17.1	76.4	4.3	4.2
	중규모	(426)	3.5	16.0	76.5	4.0	4.2
	대규모	(30)	0.0	3.3	96.7	0.0	4.5
활동 장르	문학	(82)	2.4	20.7	68.3	8.5	4.1
	미술	(99)	1.0	16.2	77.8	5.1	4.3
	음악	(311)	2.6	16.7	77.5	3.2	4.2
	무용	(128)	1.6	14.1	80.5	3.9	4.2
	연극	(26)	7.7	15.4	73.1	3.8	4.0
	영화	(14)	0.0	28.6	71.4	0.0	4.2
	사진	(49)	0.0	12.2	87.8	0.0	4.4
	공예	(32)	0.0	18.8	81.3	0.0	4.2
	전통예술	(114)	0.9	13.2	81.6	4.4	4.5
	기타	(88)	5.7	17.0	73.9	3.4	4.0

-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시 기대수준으로서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 중 긍정이 73.7%, 중도가 15.5%, 부정이 4.8%로 나타나 다수가 긍정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86.9%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80.9%,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79.1%, ‘생활 문화센터의 동호회’가 79.0%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 ‘전통예술’이 7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이 78.8%, ‘영화’가 78.6%, ‘공예’가 78.1%로 나타남.

〈표 IV-4-17〉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 체		(882)	4.8	15.5	73.7	6.0	4.1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6.6	18.7	68.9	5.7	4.0
	충청권	(210)	4.3	10.5	79.0	6.2	4.3
	전라권	(130)	0.8	9.2	86.9	3.1	4.4
	경상권	(122)	4.9	18.0	69.7	7.4	4.0

	강원/제주권	(66)	4.5	18.2	72.7	4.5	3.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0.8	4.9	86.9	7.4	4.4
	주민자치센터	(96)	6.3	19.8	61.5	12.5	3.9
	생활문화센터	(224)	2.2	12.5	79.0	6.3	4.3
	평생학습관(센터)	(88)	9.1	21.6	60.2	9.1	3.8
	도서관	(68)	8.8	5.9	80.9	4.4	4.1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6.7	23.3	60.0	10.0	3.8
	사립대학교	(67)	6.0	14.9	79.1	0.0	4.1
	민간기업	(24)	8.3	25.0	66.7	0.0	4.0
	인터넷동호회	(94)	4.3	19.1	76.6	0.0	4.1
	기타	(39)	5.1	33.3	59.0	2.6	3.8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9	14.5	72.4	6.2	4.1
	2010년~2014년	(249)	6.0	17.7	70.7	5.6	4.0
	2015년~2016년	(273)	1.1	14.3	79.5	5.1	4.2
	2017년 이후	(184)	5.4	16.3	72.8	5.4	4.1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6	15.3	74.2	5.8	4.1
	중규모	(360)	4.4	16.7	71.9	6.9	4.1
	대규모	(71)	8.5	9.9	81.7	0.0	4.1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8	16.1	74.1	6.0	4.1
	중규모	(426)	6.3	14.8	74.2	4.7	4.1
	대규모	(30)	0.0	20.0	80.0	0.0	4.3
활동 장르	문학	(82)	8.5	15.9	65.9	9.8	3.9
	미술	(99)	2.0	13.1	78.8	6.1	4.2
	음악	(311)	4.5	16.4	74.6	4.5	4.1
	무용	(128)	4.7	11.7	76.6	7.0	4.1
	연극	(26)	11.5	26.9	53.8	7.7	3.6
	영화	(14)	0.0	21.4	78.6	0.0	4.1
	사진	(49)	4.1	18.4	77.6	0.0	4.1
	공예	(32)	3.1	15.6	78.1	3.1	4.2
	전통예술	(114)	1.8	12.3	79.8	6.1	4.4
	기타	(88)	5.7	17.0	73.9	3.4	4.1

○ 교육 지원 사업 참여 시 기대수준으로서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효과’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 중 긍정이 70.2%, 중도가 18.3%, 부정이 5.2%로 나타나 다수가 긍정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86.9%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75.0%, ‘평생학습관(센터)의 동아리/동호회’가 73.9%, ‘도서관의 동아리/동호회’가 73.5%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적을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반대로 회원 규모가 많을수록, 예산 규모가 클수록 ‘공동체성 함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동아리/동호회 결성이 짧을수록 ‘공동체성 함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 ‘전통예술’이 8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예’가 78.1%, ‘미술’이 76.8%로 나타남.

〈표 IV-4-18〉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효과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 체		(882)	5.2	18.3	70.2	6.3	4.1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6.9	23.6	64.4	5.1	3.9
	충청권	(210)	5.2	12.9	76.7	5.2	4.3
	전라권	(130)	0.8	12.3	82.3	4.6	4.5
	경상권	(122)	3.3	19.7	65.6	11.5	4.0
	강원/제주권	(66)	6.1	16.7	72.7	4.5	3.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1.6	4.1	86.9	7.4	4.5
	주민자치센터	(96)	6.3	16.7	64.6	12.5	4.0
	생활문화센터	(224)	1.3	15.6	75.0	8.0	4.3
	평생학습관(센터)	(88)	8.0	13.6	73.9	4.5	4.0
	도서관	(68)	7.4	11.8	73.5	7.4	4.1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6.7	23.3	58.3	11.7	3.8
	사립대학교	(67)	11.9	34.3	53.7	0.0	3.6
	민간기업	(24)	0.0	37.5	62.5	0.0	4.0
	인터넷동호회	(94)	11.7	30.9	57.4	0.0	3.8
	기타	(39)	0.0	25.6	71.8	2.6	4.2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9	19.3	64.1	9.7	4.0
	2010년~2014년	(249)	5.2	21.3	69.1	4.4	4.0
	2015년~2016년	(273)	3.7	13.2	78.0	5.1	4.2
	2017년 이후	(184)	6.0	21.2	67.9	4.9	4.0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5.3	14.8	73.3	6.5	4.2
	중규모	(360)	5.0	20.6	67.5	6.9	4.1
	대규모	(71)	5.6	26.8	67.6	0.0	3.9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5.3	18.3	70.9	5.5	4.1
	중규모	(426)	5.9	18.1	70.0	6.1	4.1
	대규모	(30)	0.0	20.0	80.0	0.0	4.2
활동	문학	(82)	7.3	19.5	62.2	11.0	3.9

장르	미술	(99)	5.1	13.1	76.8	5.1	4.2
	음악	(311)	4.5	18.0	72.3	5.1	4.1
	무용	(128)	3.9	20.3	69.5	6.3	4.1
	연극	(26)	11.5	23.1	65.4	0.0	3.7
	영화	(14)	0.0	28.6	71.4	0.0	4.1
	사진	(49)	12.2	18.4	67.3	2.0	3.9
	공예	(32)	0.0	18.8	78.1	3.1	4.3
	전통예술	(114)	1.8	10.5	82.5	5.3	4.5
	기타	(88)	4.5	21.6	70.5	3.4	4.0

- 교육지원 사업 참여 시 기대수준으로서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 효과’에 대한 응답 특성
- 전체 응답자(882명) 중 긍정이 78.1%, 중도가 13.7%, 부정이 3.2%로 나타나 다수가 긍정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소속 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가 91.8%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83.3%,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82.6%로 나타남.
 -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적을수록 긍정 응답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반대로 회원 규모가 많을수록, 예산 규모가 클수록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동아리/동호회 결성이 짧을수록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 활동 장르별로 ‘전통예술’이 8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화’가 85.7%, ‘공예’가 84.4%, ‘사진’이 81.6%로 나타남.

〈표 IV-4-19〉 (교육 지원 사업 참여시) 기대수준 :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 효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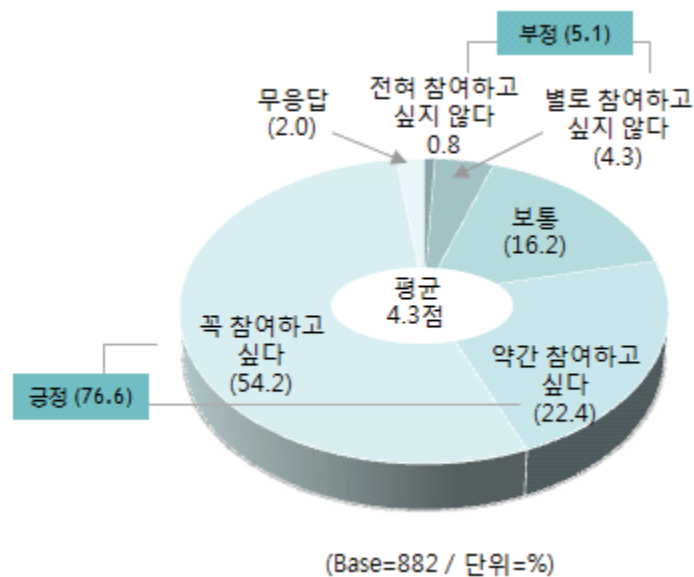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 체		(882)	3.2	13.7	78.1	5.0	4.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4.2	17.8	74.0	3.9	4.1
	충청권	(210)	3.3	10.5	81.0	5.2	4.4
	전라권	(130)	1.5	7.7	87.7	3.1	4.5
	경상권	(122)	1.6	13.1	77.0	8.2	4.2
	강원/제주권	(66)	1.5	15.2	78.8	4.5	4.3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0.0	2.5	91.8	5.7	4.8
	주민자치센터	(96)	5.2	12.5	70.8	11.5	4.1
	생활문화센터	(224)	1.3	10.3	82.6	5.8	4.5
	평생학습관(센터)	(88)	3.4	14.8	78.4	3.4	4.1
	도서관	(68)	2.9	11.8	80.9	4.4	4.3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5.0	20.0	65.0	10.0	4.0
	사립대학교	(67)	7.5	22.4	70.1	0.0	3.9
	민간기업	(24)	0.0	16.7	83.3	0.0	4.3
	인터넷동호회	(94)	6.4	25.5	68.1	0.0	4.0
	기타	(39)	2.6	17.9	76.9	2.6	4.3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6.2	17.2	69.0	7.6	4.1
	2010년~2014년	(249)	3.2	14.9	77.9	4.0	4.2
	2015년~2016년	(273)	1.5	10.3	84.6	3.7	4.4
	2017년 이후	(184)	2.7	14.7	77.7	4.9	4.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5	13.2	79.1	4.2	4.3
	중규모	(360)	3.1	14.7	75.8	6.4	4.2
	대규모	(71)	2.8	12.7	84.5	0.0	4.2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2.3	13.8	78.9	5.0	4.3
	중규모	(426)	4.5	14.1	77.5	4.0	4.2
	대규모	(30)	0.0	6.7	93.3	0.0	4.5
활동 장르	문학	(82)	7.3	14.6	69.5	8.5	4.0
	미술	(99)	1.0	14.1	80.8	4.0	4.3
	음악	(311)	1.9	13.8	81.0	3.2	4.3
	무용	(128)	3.9	11.7	79.7	4.7	4.3
	연극	(26)	11.5	23.1	61.5	3.8	3.8
	영화	(14)	0.0	14.3	85.7	0.0	4.4
	사진	(49)	4.1	12.2	81.6	2.0	4.2
	공예	(32)	0.0	15.6	84.4	0.0	4.3
	전통예술	(114)	1.8	7.0	86.0	5.3	4.6
	기타	(88)	1.1	18.2	77.3	3.4	4.3

12. 동아리(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 의향

○ 동아리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꼭 참여하고 싶다’가 전체의 53.7%, ‘약간 참여하고 싶다’가 22.8%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전체의 76.5%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평균 4.3점으로 대부분 참여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속 유형별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와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참여할 의향이 4.6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성 시기에 상관없이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음.
- 예산 규모에서는 ‘대규모’가 4.6점으로 소규모/중규모보다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음.
- 활동 장르별로는 ‘전통예술’이 4.7점, ‘공예’가 4.6점으로 타 활동 장르보다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12〉 동아리(동호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참여 의향



〈표 IV-4-20〉 동아리(동호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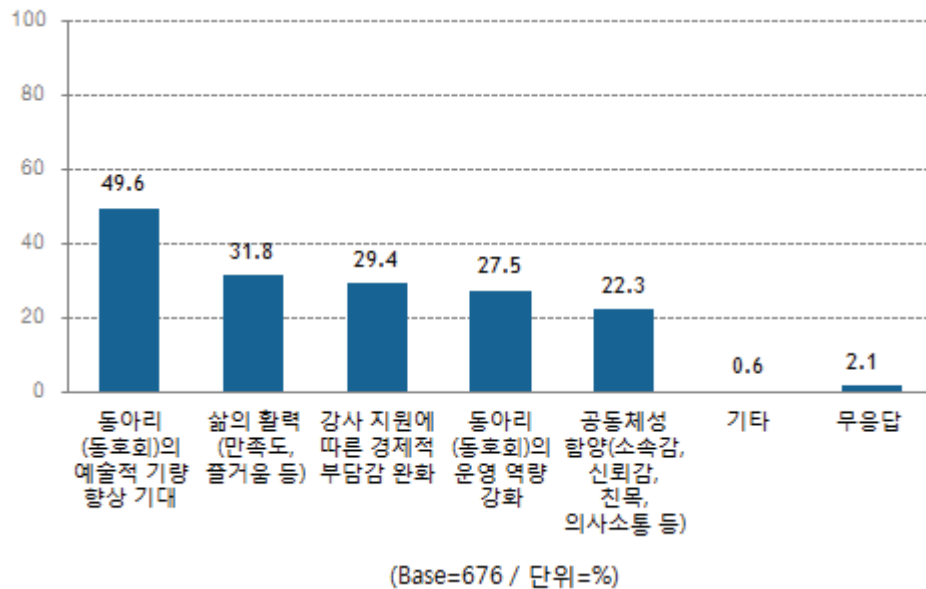
(단위=%, 점)

		사례수	부정	중도	긍정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 체		(882)	5.1	16.2	76.6	2.0	4.3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7.6	20.5	70.7	1.2	4.1
	충청권	(210)	4.8	10.0	82.4	2.9	4.4
	전라권	(130)	2.3	14.6	80.8	2.3	4.5
	경상권	(122)	2.5	14.8	80.3	2.5	4.3
	강원/제주권	(66)	4.5	15.2	80.3	0.0	4.3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3	9.0	83.6	4.1	4.6
	주민자치센터	(96)	10.4	22.9	63.5	3.1	4.0
	생활문화센터	(224)	4.0	13.8	79.9	2.2	4.4
	평생학습관(센터)	(88)	2.3	17.0	79.5	1.1	4.3
	도서관	(68)	4.4	19.1	76.5	0.0	4.3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0.0	20.0	73.3	6.7	4.4
	사립대학교	(67)	9.0	20.9	70.1	0.0	3.8
	민간기업	(24)	0.0	12.5	87.5	0.0	4.6
	인터넷동호회	(94)	9.6	16.0	74.5	0.0	4.0
	기타	(39)	5.1	17.9	76.9	0.0	4.3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5.5	16.6	75.9	2.1	4.2
	2010년~2014년	(249)	5.6	16.1	76.7	1.6	4.3
	2015년~2016년	(273)	4.0	15.8	78.0	2.2	4.4
	2017년 이후	(184)	4.3	15.8	77.7	2.2	4.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5.6	17.2	75.6	1.6	4.3
	중규모	(360)	5.0	15.0	77.2	2.8	4.3
	대규모	(71)	2.8	14.1	83.1	0.0	4.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5.0	16.1	77.1	1.8	4.3
	중규모	(426)	5.2	17.4	75.6	1.9	4.3
	대규모	(30)	0.0	6.7	93.3	0.0	4.6
활동 장르	문학	(82)	11.0	22.0	64.6	2.4	4.0
	미술	(99)	4.0	10.1	83.8	2.0	4.4
	음악	(311)	5.5	18.0	75.6	1.0	4.2
	무용	(128)	5.5	18.0	73.4	3.1	4.3
	연극	(26)	7.7	11.5	80.8	0.0	4.2
	영화	(14)	7.1	0.0	85.7	7.1	4.4
	사진	(49)	4.1	10.2	83.7	2.0	4.4
	공예	(32)	0.0	12.5	87.5	0.0	4.6
	전통예술	(114)	0.0	9.6	84.2	6.1	4.7
	기타	(88)	5.7	13.6	78.4	2.3	4.4

13. (참여 의향 긍정 평가자) 참여 이유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동아리의 예술적 기량 향상 기대’가 전체에서 49.6%로 나타남. 다음으로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이 31.8%,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가 29.4%,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가 27.5%, ‘공동체성 함양’이 2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13〉 (참여의향 긍정 평가자) 참여 이유



〈표 IV-4-21〉 (참여의향 긍정 평가자)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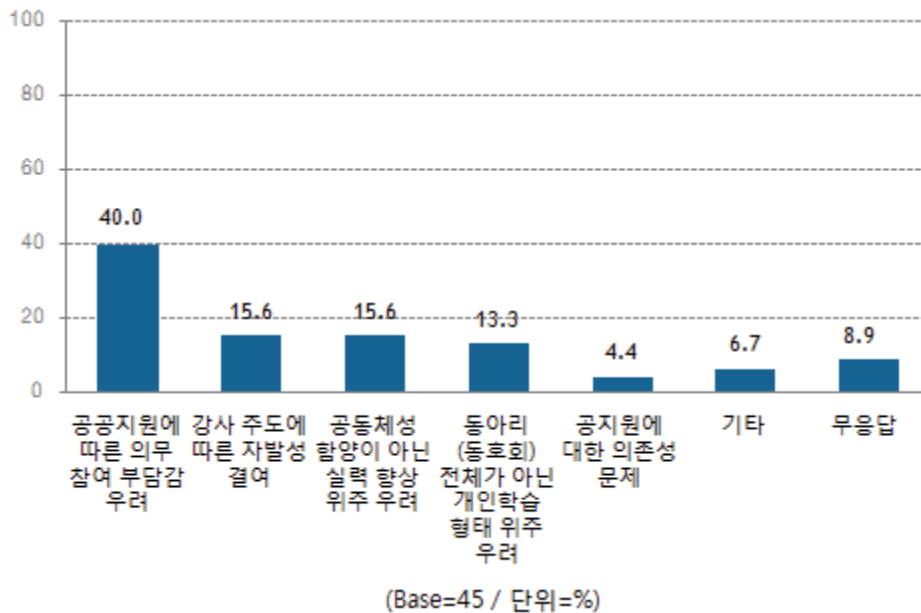
(단위=%)

		사례수	동아리 (동호회) 의 예술적 기량 향상 기대	삶의 활력 (만족도, 즐거움 등)	강사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동아리 (동호회) 의 운영 역량 강화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친목/ 의사소통 등)	기타	무응답
전 체		(676)	49.6	31.8	29.4	27.5	22.3	0.6	2.1
지역 권역별	수도권	(234)	47.0	26.9	23.9	25.6	17.5	0.9	0.4
	충청권	(173)	57.8	27.2	39.9	35.3	27.7	0.6	1.7
	전라권	(105)	52.4	36.2	21.9	15.2	21.9	1.0	7.6
	경상권	(98)	43.9	46.9	33.7	31.6	29.6	0.0	1.0
	강원/제주권	(53)	41.5	24.5	26.4	24.5	11.3	0.0	1.9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02)	58.8	35.3	51.0	34.3	36.3	0.0	2.0
	주민자치센터	(61)	36.1	29.5	34.4	23.0	18.0	0.0	1.6
	생활문화센터	(179)	57.0	50.3	30.2	31.8	34.1	1.1	5.0
	평생학습관(센터)	(70)	47.1	17.1	20.0	24.3	15.7	1.4	0.0
	도서관	(52)	30.8	28.8	25.0	36.5	17.3	0.0	0.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44)	50.0	31.8	27.3	13.6	15.9	0.0	0.0
	사립대학교	(47)	70.2	4.3	8.5	12.8	2.1	2.1	0.0
	민간기업	(21)	52.4	61.9	28.6	23.8	19.0	0.0	0.0
	인터넷동호회	(70)	37.1	14.3	14.3	27.1	7.1	0.0	2.9
	기타	(30)	33.3	16.7	43.3	26.7	16.7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10)	52.7	25.5	24.5	22.7	17.3	0.9	0.0
	2010년~2014년	(191)	48.2	24.1	30.9	27.7	20.4	0.5	0.0
	2015년~2016년	(213)	44.1	36.6	34.3	31.5	25.4	0.9	3.8
	2017년 이후	(143)	53.8	39.2	24.5	25.9	21.7	0.0	3.5
회원 규모별	소규모	(326)	54.0	37.4	35.3	31.6	27.9	0.6	0.6
	중규모	(278)	44.6	29.5	25.9	25.2	18.0	0.0	4.0
	대규모	(59)	52.5	10.2	13.6	18.6	11.9	3.4	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307)	45.3	37.5	31.3	29.0	23.8	0.3	2.9
	중규모	(322)	53.1	25.2	27.0	25.5	20.5	0.9	1.2
	대규모	(28)	46.4	21.4	28.6	21.4	10.7	0.0	3.6
활동 장르	문학	(53)	24.5	30.2	32.1	28.3	17.0	0.0	0.0
	미술	(83)	57.8	33.7	37.3	27.7	28.9	0.0	2.4
	음악	(235)	52.3	27.7	30.6	25.5	20.4	1.3	0.4
	무용	(94)	51.1	34.0	21.3	23.4	25.5	0.0	2.1
	연극	(21)	52.4	0.0	4.8	33.3	23.8	0.0	0.0
	영화	(12)	66.7	0.0	8.3	25.0	16.7	0.0	0.0
	사진	(41)	61.0	29.3	2.4	12.2	36.6	0.0	0.0
	공예	(28)	25.0	32.1	17.9	32.1	25.0	0.0	0.0
	전통예술	(96)	49.0	52.1	34.4	25.0	28.1	1.0	9.4
	기타	(69)	50.7	31.9	26.1	50.7	30.4	0.0	1.4

14. (참여 의향 부정 평가자) 비 참여 이유

- 반면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 참여 부담감 우려’가 전체의 40.0%를 차지함. 다음으로 ‘강사 주도에 따른 자발성 결여’와 ‘공동체성 함양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우려’가 각각 15.6%, ‘동아리(동호회) 전체가 아닌 개인 학습 형태 위주 우려’가 13.3%, ‘공지원에 대한 의존성 문제’가 4.4%로 나타남.

〈그림 IV-4-14〉 (참여의향 부정 평가자) 비 참여 이유



〈표 IV-4-22〉 (참여의향 부정 평가자) 비 참여 이유

(단위=%)

		사례수	공공지 원에 따른 의무참 여 부담감 우려	강사 주도에 따른 자발성 결여	공동체 성 함양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우려	동아리(동호회) 전체가 아닌 개인학 습형태 위주 우려	공지원 에 대한 의존성 문제	기타	무응답
전 체		(45)	40.0	15.6	15.6	13.3	4.4	6.7	8.9
지역 권역별	수도권	(25)	56.0	4.0	4.0	16.0	8.0	8.0	4.0
	충청권	(10)	20.0	40.0	30.0	10.0	0.0	10.0	10.0
	전라권	(3)	33.3	33.3	0.0	0.0	0.0	0.0	33.3
	경상권	(3)	0.0	0.0	66.7	0.0	0.0	0.0	33.3
	강원/제주권	(3)	0.0	33.3	33.3	33.3	0.0	0.0	0.0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4)	0.0	25.0	0.0	50.0	0.0	25.0	0.0
	주민자치센터	(10)	50.0	0.0	30.0	20.0	0.0	20.0	0.0
	생활문화센터	(9)	33.3	11.1	22.2	0.0	0.0	0.0	33.3
	평생학습관(센터)	(2)	50.0	0.0	50.0	0.0	0.0	0.0	0.0
	도서관	(3)	100.0	0.0	0.0	0.0	0.0	0.0	0.0
	사립대학교	(6)	50.0	0.0	16.7	16.7	0.0	0.0	16.7
	인터넷동호회	(9)	33.3	44.4	0.0	11.1	11.1	0.0	0.0
	기타	(2)	0.0	50.0	0.0	0.0	50.0	0.0	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8)	37.5	25.0	0.0	12.5	12.5	0.0	12.5
	2010년~2014년	(14)	57.1	7.1	7.1	14.3	0.0	14.3	0.0
	2015년~2016년	(11)	36.4	9.1	9.1	9.1	9.1	9.1	18.2
	2017년 이후	(8)	25.0	37.5	37.5	0.0	0.0	0.0	0.0
회원 규모별	소규모	(24)	45.8	4.2	16.7	16.7	8.3	4.2	4.2
	중규모	(18)	33.3	33.3	16.7	5.6	0.0	11.1	11.1
	대규모	(2)	0.0	0.0	0.0	50.0	0.0	0.0	50.0
예산 규모별	소규모	(20)	40.0	20.0	20.0	10.0	5.0	0.0	5.0
	중규모	(22)	40.9	9.1	13.6	18.2	4.5	9.1	13.6
활동 장르	문학	(9)	55.6	11.1	22.2	0.0	0.0	0.0	11.1
	미술	(4)	50.0	0.0	50.0	25.0	25.0	0.0	0.0
	음악	(17)	47.1	11.8	0.0	17.6	5.9	11.8	5.9
	무용	(7)	14.3	42.9	0.0	14.3	0.0	14.3	14.3
	연극	(2)	100.0	0.0	0.0	0.0	0.0	0.0	0.0
	영화	(1)	100.0	0.0	0.0	0.0	0.0	0.0	0.0
	사진	(2)	0.0	0.0	50.0	50.0	0.0	0.0	0.0
	기타	(5)	60.0	0.0	40.0	0.0	0.0	0.0	0.0

5. 소결

○ 882개 동아리(동호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동아리 회원 모집, 회원 구성, 회비

- 모집시기는 <비정기/수시 모집>이 59.4%, <정기 모집>이 37.5%로 나타났으며,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정기모집 비중이 높음.
- 회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 54.4%, <기존 회원/지인 추천 모집>이 38.4%로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개모집 비중이 높음.
- 동아리의 평균 회원 수는 32.1명(인터넷동호회 제외시 20명), 임원 수는 3.5명으로 전체 회원 중 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 성별로는 남자회원이 12.4명으로 38.6%, 여자회원은 19.7명으로 61.4% 비중을 차지함.
- 전체 동아리 회원 중 활동 회원은 평균 78.4%로 회원 규모별로는 차이(중/소규모는 높고 대규모는 낮음)가 있는 반면, 예산 규모별로는 큰 차이 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49.9%로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회비납부 회원 비중이 높음.
- 동아리 한해 총 예산은 <100만원 미만>이 30.5%, <100~300만원 미만>이 27.2%임.

○ 동아리 강사 관련

- 강사/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동아리는 71.7%이며, 평균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강사/전문가의 소속은 동아리 회원은 50.0%, 외부 강사/전문가는 71.7%를 차지함.
- 강사/전문가 사례비는 시간 당 <3~5만원 미만>이 55.4%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나, 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가 <강사/전문가의 비용 부담>(32.5%)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어, 향후 강사/전문가의 교육 지원에 대한 잠재 욕구는 매우 높음.

○ 동아리 활동 장르

- 동아리의 주 활동 영역은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적인 활동>이 54.3%, <강좌/강습 등의 교육>이 27.6%, <참여/관람 등의 체험>이 9.3%로 전반적으로 프로슈머로서의 활동 의지와 역할 수행이 엇보임.
- 한편 활동장르별로 영화(35.7%)와 공예(31.3%)가 <참여/관람 등의 체험>에서, 문학(34.1%)은 <강좌/강습 등의 교육>에 상이한 응답을 보임.

○ 동아리 운영비 관련

- 동아리 운영비 조달은 회비 납부(정기적 57.3%, 비정기적 31.7%)와 공공지원금(32.5%), 기부금(19.7%), 민간기업 지원금(8.0%)⁶⁾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 조달의 우선 순위는 공연수입금(1.9위) > 정기적 회비(2.1위) > 공공지원금(2.3위) > 비정기적회비(2.6%) 등으로 나타나 운영비의 다변화로 바람직한 양상을 띠고 있음.
- 활동 지출 경비는 강사비(50.0%), 공간임대료(29.7%), 공연/전시 사례비(27.3%) 등의 순이며, 강사비를 지급하는 동아리(동호회)는 연간 전체 지출 중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달함.

○ 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유형

-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84.6%로 나타났고, 소속유형별로는 <지역문화재단>(93.4%)이, 활동장르별로는 <사진>이 95.9%를 차지함.
- 만족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57.9%, <공동체 간 관계인식에 도움>이 32.8%, <지역사회에 도움>이 19.8%, <정기적인 발표 등 자존감에 도움>이 16.1% 순임.
-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전문성 향상의 부족>이 19.2%, <장비 및 공간 임대 등 지출부담>이 13.5%, <경연/축제 등 참석에 대한 부담>이 3.8% 순임.
-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내/외부 병행 활동>이 48.4%, <내부 활동 중점>이 29.5%, <외부 활동 중점>이 19.5% 순임.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관련 수요

- 제시한 5가지 지원 유형 중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이 51.3%로 가장 지원 욕구가 컸고, <해당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이 49.5%,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이 44%, <운영장비(조명/음향)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이 39.9%, <홍보, 기획서 및 기부행정 관련 교육>이 38.9% 순임.
-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66.7%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85.7%로 가장 많음.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 클래스(상위) 교육>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67.0%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85.7%로 가장 많음. <매개자(동아리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58.3%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78.6%로 가장 많음. <운영 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영 방법 교육>에 대해서는

6) 민간기업 지원금 순위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조사대상에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가 포함되어 조사결과로 나타난 비율이며, 민간기업의 사내 동아리(동호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내복지 차원에서 소정의 동아리/동호회 활동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가 55.2%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가 71.4%로 가장 많음.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교육 및 연수>에 대해서는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가 49.6%로 가장 많았고, 활동장르별로는 <영화> 71.4%로 가장 많음. 모두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타 문화예술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고, 결성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다 회차 교육은 10회차 2시간 정도에 강사의 수준은 <기초(초급) 과정>(8.8%)에 비해 <중급 초반>(30.6%), <중급>(29.4%), <고급(심화) 과정>(22.7%)이 다수를 차지함.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및 참여의향

- <삶의 활력>이 78.1%로 가장 많았고, <동아리 예술적 기량 향상>이 76.3%,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가 73.7%, <공동체성 함양>이 70.2%, <경제적 부담 완화>가 66.9% 순. <삶의 활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회원 규모와 예산 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았음.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76.5%로 나타났으며, 회원규모가 클수록 참여의향이 많음. 참여하는 이유로는 <동아리의 예술적 기량 향상 기대>가 49.6%로 가장 많았음. 반면에 비 참여하는 이유로는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가 40%를 차지함.

〈표 IV-5-1〉 동아리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조사 항목	주요 응답 내용
동아리 회원 모집	▪ 회원 모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기/수시 모집>(59.4%), <정기 모집>(37.5%)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정기모집 비중 높음 ▪ 모집 기간 : <연간별>(33.2%), <분기별>(25.4%), <반기별>(18.7%), <월별>(4.2%)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반기별 모집 비중 높음
	▪ 회원 가입 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가능>(50.2%),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47.8%)
	▪ 회원 모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모집>(54.5%), <기존 회원/지인 추천 모집>(38.4%)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개모집 비중 높음
동아리 회원 구성	▪ 총 회원 수 (남자 회원수/여자 회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당 평균 32명, <인터넷동호회>는 평균 85명으로 이를 제외 시 평균 20명 수준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많음, 장르별로는 영화 67명, 음악 48명, 공예 42명, 전통예술 35명, 사진 34명, 무용 31명, 연극 29명, 미술 19명, 문학 18명 순 ▪ 성별로는 평균 남자회원 수 12.4명(38.6%), 여자회원 수 19.7명(61.4%)
	▪ 임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평균 3.5명 → 회원 수가 많을수록 임원 수도 많음
	▪ 회원 중 주 활동 회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동아리 중 78.4%가 활동 중이며, 전체 동아리 회원 중 90% 이상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45.4%로 가장 비중 높음
동아리 회비	▪ 동아리 회비의 납부 회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또는 비정기 회비 납부 회원 49.9%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회비 납부 회원 비중 높음
	▪ 동아리 한해 총 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미만>(30.5%), <100~300만원 미만>(27.2%)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예산규모가 큼
동아리 강사 관련	▪ 활용하는 강사 및 전문가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동아리에서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1.1% ▪ 활용하는 강사나 전문가는 전체 동아리 평균 1.7명, 1명이라 응답한 비중은 68.2% → 결성시기가 짧은 동아리일수록 강사/전문가 보유 비중이 높음
	▪ 강사 및 전문가의 내외부 여부 (강사/전문가 섭외 고려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강사/전문가>(48.9%), <내부 동아리 회원>(27.2%),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22.8%)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 비중이 높음 ▪ 활동장르별로 강사/전문가 구성의 경우, 내부 동아리 회원은 <사진>이 46.6%, 외부 강사/전문가는 <연극>이 70%, 내부 동아리 회원+외부 강사/전문가는 <영화>가 62.5%로 가장 높음
	▪ 동아리 활동 강사/전문가 시간당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만원>(29%), <3만원 미만>(26.4%), <5~10만원 미만>(13.8%), <10~20만원>(4.3%), <20~30만원>(1.04%) 순 → 대체로 <5만원 미만>이 55.4%로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 및 전문가 도움받지 않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전문가 비용 부담〉(32.5%), 〈동아리 설립 및 활동목적과 맞지 않음〉(22.9%), 〈자책적으로 교육이 가능〉(9.9%), 〈강사의존도가 높아져 자발성 저하 우려〉(7.3%), 〈동아리 모임시간과 맞지 않음〉(3.2%), 〈회원 간 실력차가 커서 수업진행의 어려움〉(2.5%) 순
동아리 활동 장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35.3%), 〈무용〉(14.5%), 〈전통예술〉(12.9%), 〈미술〉(11.9%) 순
동아리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의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전시/창작/제작 등 생산적 활동〉(54.3%), 〈강좌/교습 등 교육〉(27.6%), 〈참여/관람 등 체험〉(9.3%), 〈토론〉(2.2%), 〈봉사〉(2.0%) 순 →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공연/전시/창작/제작 등 생산적 활동〉이나, 〈참여/관람 등 체험〉에서 〈영화〉(35.7%), 〈공예〉(31.3%)가 많은 응답을 보였고, 〈문학〉(34.1%)은 강좌/교습 등 교육에 많은 응답을 함
동아리 운영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운영비 마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인 회비 납부〉(57.3%), 〈공공지원금〉(32.5%), 〈비정기적 회비 납부〉(31.7%)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 지출 경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사비〉(50.0%), 〈공간 임대료〉(29.7%), 〈공연/전시 사례비〉(27.3%) 순 → 활동장르별로 지출경비가 많은 분야가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 경비 중 강사비용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지출 대비 52.9% 지출 →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강사비 지출 비중이 높음. 활동장르별로 〈영화〉(71.3%), 〈전통예술〉(61.6%), 〈공예〉(59.6%), 〈무용〉(57.8%), 〈미술〉(57.5%), 〈사진〉(53.2%), 〈음악〉(53.1%) 순
동아리 활동 만족도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한다〉(84.6%)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소속유형별로 〈지역문화재단〉(93.4%), 〈인터넷동호회〉(89.4%), 〈도서관〉(88.2%) 순. 활동장르별로 〈사진〉(95.9%), 〈전통예술〉(89.5%), 〈공예〉(87.5%), 〈미술〉(86.9%), 〈무용〉(85.9%), 〈음악〉(84.6%), 〈문학〉(82.9%), 〈연극〉(73.1%), 〈영화〉(71.3%)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삶의 질 향상〉(57.9%), 〈공동체 간 관계인식에 도움〉(32.8%), 〈지역사회에 도움〉(19.8%), 〈정기적인 발표 등 자존감에 도움〉(16.1%), 〈전문성 습득에 도움〉(15.3%)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많은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만족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향상의 부족〉(19.2%), 〈장비 및 공간 임대 등 지출부담〉(13.5%), 〈경연/축제 등 참석에 대한 부담〉(3.8%), 〈대외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부족〉(3.8%), 〈실력향상에 대한 부담〉(1.9%) 순 →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전문성 향상의 부족〉에 많은 응답을 했으나, 〈장비 및 공간임대 등 지출부담〉에 〈공예〉(100%), 〈영화〉(50%), 〈전통예술〉(33.3%), 〈문학〉(20%)에 많은 응답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활동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부 병행 활동〉(48.4%), 〈내부 활동 중점〉(29.5%), 〈외부 활동 중점〉(19.5%) 순

	(내부활동/외부활동/내외부 활동병행)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교육지원 수혜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분야별 수혜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51.3%), 〈지역예술인의 다 화차 기본교육〉(49.6%), 〈매가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44.0%), 〈운영장비(조명/음향 등)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39.9%), 〈홍보, 기획서 및 기부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38.9%)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예술인의 다 화차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이 49.6%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66.7%), 〈생활문화센터〉(65.2%)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85.7%), 〈전통예술〉(74.6%), 〈미술〉(63.6%), 〈사진〉과 〈공예〉(53.1%)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이 49.6%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67.0%), 〈지역문화재단〉(54.9%), 〈도서관〉(52.9%)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85.7%), 〈전통예술〉(64.9%), 〈미술〉(64.6%), 〈음악〉(53.4%)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가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이 44%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민간기업〉(58.3%), 〈생활문화센터〉(56.7%), 〈지역문화재단〉(51.6%) 순. 활동장르별로 〈영화〉(78.6%), 〈전통예술〉(62.3%), 〈사진〉과 〈공예〉(53.1%)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장비(조명/음향 등) 설치 및 운영방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이 39.9%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55.2%), 〈생활문화센터〉(50.0%) 순. 반면 〈도서관〉(44.1%), 〈민간기업〉(33.3%)은 오히려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활동장르별로 〈영화〉(71.4%), 〈사진〉(57.1%), 〈전통예술〉(54.4%)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및 기획서 등 행정(기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이 38.9%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회원규모와 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 소속유형별로 〈생활문화센터〉(49.6%), 〈인터넷동호회〉(48.9%), 〈민간기업〉(45.8%) 순. 반면 〈도서관〉(35.3%), 〈주민자치센터〉(25.0%)는 오히려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활동장르별로 〈공예〉(56.3%), 〈전통예술〉(56.1%), 〈사진〉(53.1%), 〈영화〉(50%) 순. 반면, 〈문학〉은 금정(28%)보다 부정응답(36.6%)이 더 많았음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1회차 당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시간〉(63.3%), 〈1시간〉(20.1%), 〈3시간〉(8.5%), 〈3시간 초과〉(1.1%) 순 →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2시간〉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연간 총 교육 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회차〉(37.8%), 〈30회차 초과〉(17.3%), 〈20회차〉(13.0%), 〈15회차〉(12.1%), 〈30회차 초과〉(8.4%)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회원규모가 클수록 〈10회차〉 응답이 많음. 활동장르별로 대부분 〈10회차〉 응답이 많았으나, 〈영화〉는 〈15회차〉(42.9%), 〈전통예술〉은 〈30회차 초과〉(30.3%) 순

		과>(34.2%)가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는 강사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초급)과정>은 벗어난 중급 초반과정>(30.6%), <중급과정>(29.4%), <고급(심화)과정으로 진입과정>(22.7%), <기초(초급)과정>(8.8%) 순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에 대한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지원 분야별 기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활력>(78.1%), <동아리 예술적 역량 향상>(76.3%),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73.7%), <공동체성 함양>(70.2%), <경제적 부담감 완화>(66.9%)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부담감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66.9%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예술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6.3%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 운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3.7%로 회원규모/예산규모가 클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성(소속감/신뢰감/친목/의사소통)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0.2%로 동아리 결성시기가 짧을수록 긍정 응답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활력(만족도/즐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이 78.1%로 동아리 결성시기, 회원규모, 예산규모, 활동장르에 상관없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참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하고 싶다>가 76.5%로 회원규모가 클수록 참여의향이 많음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참여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 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의 예술적 역량 향상 기대>(49.6%), <삶의 활력>(31.8%), <강사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29.4%), <동아리의 운영 역량 강화>(27.5%), <공동체성 함양>(22.3%) 순 → 동아리 결성시기, 회원규모,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예술적 역량 향상 기대>가 가장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에 비 참여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40%), <강사주도에 따른 자발성 결여>(15.6%), <공동체성 함양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우려>(15.6%) 순 → 오래된 동아리일수록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 응답이 많음

6. 시사점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별 수용도의 평균 비교를 통해 세부 계층 간 수용성이 높은 집단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교육지원 내용 중 대부분은 지역권역별과 소속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의 현황별로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에 대한 지원은 동아리 결성시기별과 중점운영방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운영지원은 신생 동아리일수록 높은 지원의사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내부와 외부 활동을 병행하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높은 필요성을 보임.

1)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 교육

- 기본교육에 대한 지원의사는 지역권역별, 소속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동호회) 결성시기, 회원 규모별, 예산 규모별, 중점운영 방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이 높고, 소속 유형별로는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 민간기업의 동아리/동호회 등이 강한 지원의사를 보임.

〈표 IV-6-1〉 다 회차 기본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통계치			t or F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70	1.879	6.103	0.000**
	충청권	210	4.22	1.823		
	전라권	130	4.17	1.176		
	경상권	122	84.39	1.956		
	강원/제주권	66	3.53	1.648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43	1.889	6.981	0.000**
	주민자치센터	96	4.09	2.402		
	생활문화센터	224	4.46	1.809		
	평생학습관(센터)	88	3.69	1.698		
	도서관	68	3.79	1.715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4.00	1.983		
	사립대학교	67	3.19	1.033		
	민간기업	24	4.25	1.294		
	인터넷동호회	94	3.24	1.123		

	기타	39	3.44	1.31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03	1.883	1.986	0.115
	2010년~2014년	249	3.73	1.713		
	2015년~2016년	273	4.05	1.689		
	2017년 이후	184	4.08	1.918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03	1.904	0.930	0.395
	중규모	360	3.95	1.762		
	대규모	71	3.72	0.988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97	1.714	0.175	0.840
	중규모	426	3.91	1.807		
	대규모	30	3.83	1.085		
중점 운영 방향	내부 활동	257	3.95	1.670	1.445	0.236
	외부 활동	172	3.72	1.897		
	내부+외부 병행	427	3.97	1.675		

* P < 0.05 ** P < 0.001

2)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

-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에 대한 지원의사는 지역권역별, 소속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동호회) 결성시기, 회원 규모별, 예산 규모별, 중점운영 방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이 높고, 소속 유형별로는 지역문화재단의 동아리/동호회,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동호회,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원의사를 보임.

〈표 IV-6-2〉 마스터클래스(상위)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통계치			t or F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78	1.947	5.456	0.000**
	충청권	210	4.16	1.862		
	전라권	130	4.38	1.432		
	경상권	122	4.30	1.827		
	강원/제주권	66	3.44	1.702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30	1.986	6.602	0.000**
	주민자치센터	96	4.28	2.448		
	생활문화센터	224	4.57	1.825		
	평생학습관(센터)	88	3.67	1.638		
	도서관	68	3.82	1.620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95	2.258		

	사립대학교	67	3.36	1.138		
	민간기업	24	3.58	1.472		
	인터넷동호회	94	3.39	1.184		
	기타	39	3.21	1.321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4.03	1.779	0.432	0.730
	2010년~2014년	249	3.86	1.968		
	2015년~2016년	273	4.01	1.620		
	2017년 이후	184	4.02	1.929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4.04	1.916	0.352	0.703
	중규모	360	3.95	1.873		
	대규모	71	3.89	0.964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4.03	1.821	0.492	0.611
	중규모	426	3.95	1.872		
	대규모	30	3.73	1.172		
중점 운영 방향	내부 활동	257	3.89	1.684	0.750	0.473
	외부 활동	172	3.80	1.946		
	내부+외부 병행	427	3.99	1.729		

* $P < 0.05$ ** $P < 0.001$

3) 매개자(동아리·동호회)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코디네이터 운영(컨설턴트 역할)

- 매개자에 대한 지원의사는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동아리(동호회) 결성시기, 중점운영방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동호회)회원규모별, 예산규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높고, 소속유형별로는 생활문화센터, 결성시기별로는 2017년 이후, 중점운영방향별로는 내부+외부 병행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원의사를 보임.

〈표 IV-6-3〉 매개자 및 코디네이터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통계치			t or F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69	1.976	4.625	0.001*
	충청권	210	4.02	1.982		
	전라권	130	4.31	1.419		
	경상권	122	4.04	2.087		
	강원/제주권	66	3.27	1.732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4.06	1.882	7.264	0.000**
	주민자치센터	96	4.02	2.542		
	생활문화센터	224	4.50	1.955		
	평생학습관(센터)	88	3.70	1.723		
	도서관	68	3.88	2.189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77	1.986		
	사립대학교	67	3.04	0.944		
	민간기업	24	3.88	1.296		
	인터넷동호회	94	3.15	1.352		
	기타	39	2.95	1.23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3.54	1.646	5.989	0.000**
	2010년~2014년	249	3.55	1.864		
	2015년~2016년	273	3.94	1.761		
	2017년 이후	184	4.21	2.092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97	2.086	2.485	0.084
	중규모	360	3.76	1.769		
	대규모	71	3.49	1.182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90	1.906	0.866	0.421
	중규모	426	3.73	1.821		
	대규모	30	3.83	1.416		
중점 운영 방향	내부 활동	257	3.73	1.878	4.330	0.013*
	외부 활동	172	3.47	1.652		
	내부+외부 병행	427	3.94	1.855		

* P < 0.05 ** P < 0.001

4) 운영장비(조명, 음향, 기타장비 등)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 운영장비 설치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의사는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동호회)결성시기, 회원규모별, 예산규모별, 중점운영방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전라권, 경상권이 높고, 소속유형별로는 생활문화센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원 의사를 보임.

〈표 IV-6-4〉 운영장비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통계치			t or F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68	2.122	2.797	0.025*
	충청권	210	3.74	2.227		
	전라권	130	4.12	1.431		
	경상권	122	4.13	2.388		
	강원/제주권	66	3.30	1.961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86	2.294	5.194	0.000**
	주민자치센터	96	4.02	2.441		
	생활문화센터	224	4.44	2.248		
	평생학습관(센터)	88	3.50	1.983		

	도서관	68	3.41	2.481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97	2.314		
	사립대학교	67	3.42	1.103		
	민간기업	24	3.21	1.587		
	인터넷동호회	94	3.43	1.231		
	기타	39	2.64	1.347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3.64	2.137	1.645	0.177
	2010년~2014년	249	3.57	2.067		
	2015년~2016년	273	3.88	1.984		
	2017년 이후	184	3.94	2.163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84	2.322	0.151	0.860
	중규모	360	3.77	1.994		
	대규모	71	3.73	1.133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75	2.065	0.031	0.969
	중규모	426	3.76	2.063		
	대규모	30	3.67	1.709		
중점 운영 방향	내부 활동	257	3.57	2.022	2.295	0.101
	외부 활동	172	3.57	1.907		
	내부+외부 병행	427	3.87	2.088		

* P < 0.05 ** P < 0.001

5) 홍보·기획서 작성 및 기부·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

- 홍보·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지원의사는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동아리(동호회)결성시기, 회원규모별, 예산규모별, 중점운영방향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지역별로는 전라권이 높고, 소속유형별로는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의사를 나타냄.

〈표 IV-6-5〉 홍보 및 행정 교육 및 연수 지원 수용도 평균 비교

		통계치			t or F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지역 권역별	수도권	331	3.79	2.222	2.753	0.027*
	충청권	210	3.75	2.163		
	전라권	130	4.21	1.472		
	경상권	122	4.06	2.340		
	강원/제주권	66	3.26	1.774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122	3.79	2.242	4.556	0.000**
	주민자치센터	96	4.17	2.702		

	생활문화센터	224	4.45	2.233		
	평생학습관(센터)	88	3.52	1.936		
	도서관	68	3.68	2.378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60	3.83	2.156		
	사립대학교	67	3.30	1.128		
	민간기업	24	3.46	1.587		
	인터넷동호회	94	3.48	1.251		
	기타	39	2.87	1.454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145	3.60	1.980	2.513	0.057
	2010년~2014년	249	3.60	2.056		
	2015년~2016년	273	3.88	1.951		
	2017년 이후	184	4.08	2.276		
회원 규모별	소규모	431	3.87	2.321	0.176	0.839
	중규모	360	3.79	1.948		
	대규모	71	3.76	1.165		
예산 규모별	소규모	398	3.74	2.084	0.329	0.720
	중규모	426	3.81	2.039		
	대규모	30	4.03	1.426		
중점 운영 방향	내부 활동	257	3.59	2.021	1.464	0.232
	외부 활동	172	3.73	1.974		
	내부+외부 병행	427	3.86	2.062		

* P < 0.05 ** P < 0.001

○ 상기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V-6-6〉 교육지원별 수용도 평균 비교 분석

교육 지원 내용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 집단	지원의사 높은 지역/유형
1) 다 회차 기본 교육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경상권 > 충청권 > 전라권 생활문화센터 > 민간기업
2)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전라권 > 경상권 > 충청권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재단 > 주민자치센터
3) 매개자/코디네이터 운영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결성시기별 중점운영방향별	전라권 생활문화센터 2017년 이후 결성 내부+외부활동 병행
4) 운영장비 설치 및 교육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경상권, 전라권 생활문화센터
5) 홍보·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전라권 생활문화센터 > 주민자치센터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중점 운영방향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평균 비교 분석을 통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를 엿 볼 수 있음.
- 현재 동아리(동호회) 운영을 내부 활동 중심과 내·외부 활동 병행 중심 동아리(동호회)로 구분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예술적 기량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운영 역량 강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들 운영방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내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아리(동호회)라 할지라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적 기량 향상과 운영 역량 강화를 얻고자 함은 결코 낮지 않음을 의미함.
 - 반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공동체성 함양, 삶의 활력 등은 차이가 두드러지며, 이들 3가지 요인 모두 내·외부 활동 병행 중심 동아리(동호회)가 더 높은 기대감을 지니고 있음.

<표 IV-6-7> 중점 운영방향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인식 평균 비교

기대 효과		통계치			t	유의확률
		N	평균	표준편차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	내부	239	3.95	1.136	-2.292	0.022*
	병행	411	4.15	0.971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	내부	246	4.17	0.809	-1.871	0.062
	병행	413	4.29	0.802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	내부	241	4.07	0.919	-1.480	0.140
	병행	409	4.18	0.879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내부	241	4.00	0.942	-2.838	0.005*
	병행	408	4.21	0.886		
삶의 활력 (만족도, 즐거움 등)	내부	245	4.22	0.814	-2.586	0.010*
	병행	413	4.38	0.800		

* $P < 0.05$ ** $P < 0.001$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 정도를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선택요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inear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설정함.
→ 이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집단/계층을 파악할 수 있음.

〈표 IV-6-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 적극적 참여 의사
독립 변수	동아리(동호회) 일반특성	지역권역별, 소속유형별, 결성시기별, 회원규모별, 예산규모별
	운영 실태	회비납부유형별, 현 강사/전문가 활용여부, 주 활동 유형별
	활성화 인식	중점운영방향별, 내부 활동 활성화, 외부 활동 활성화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표 IV-6-9〉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변수의 정의

변수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사업 적극적 참여 의사
종속 변수	교육 지원 사업 참여		1. 반드시 참여 0. else (“반드시 참여”를 제외한 모든 응답 포함)
독립 변수	일반 특성	지역권역별	1. 수도권 2. 충청권 3. 전라권 4. 경상권 5. 강원/제주권
		소속유형별	1. 지역문화재단 2. 주민자치센터 3. 생활문화센터 4. 평생학습관(센터) 5. 도서관 6.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7. 사립대학교 8. 민간기업 9. 인터넷동호회 10. 기타
		결성시기별	1. 2009년 이전 2. 2010년~2014년 3. 2015년~2016년 4. 2017년 이후
		회원규모별	1. 소규모 2. 중규모 3. 대규모
		예산규모별	1. 소규모 2. 중규모 3. 대규모
	운영 실태	회비납부회원유무	1. 있음 2. 없음
		현 강사/전문가 활용유무	1. 있다 2. 없음
		주 활동 유형별	1. 공연·전시·창작·제작 등의 생산 2. 강좌·학습 등의 교육 3. 참여·관람 등의 체험 4. 기타
	운영 방향 인식	중점운영방향별	1. 내부 활동 2. 외부 활동 3. 내부+외부 병행
		내부활동 활성화	1. 활발 2. 양호 3. 미흡
		외부활동 활성화	1. 활발 2. 양호 3. 미흡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지역권역별로 강원/제주권 ($p<0.05$), 소속유형별로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p<0.01$), 기타($p<0.01$), 인터넷 동호회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유의한 변수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립대학교의 동아리/동호회’와 ‘인터넷 동호회’는 오히려 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의사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6-10〉 일반적 특성과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성		B	S.E	Wals	Exp(B)	95% CI	유의확률
지역 권역별	수도권	-0.119	0.299	0.159	0.888	0.495 ~ 1.594	0.690
	충청권	0.411	0.315	1.698	1.508	0.813 ~ 2.799	0.193
	전라권	0.472	0.352	1.794	1.603	0.804 ~ 3.198	0.180
	경상권	-0.125	0.346	0.131	0.882	0.448 ~ 1.737	0.718
	강원/제주권	-	-	10.394	-	-	0.034*
소속 유형별	지역문화재단	0.048	0.409	0.014	1.049	0.471 ~ 2.337	0.907
	주민자치센터	-0.592	0.415	2.033	0.553	0.245 ~ 1.248	0.154
	생활문화센터	-0.218	0.385	0.319	0.805	0.378 ~ 1.793	0.572
	평생학습관(센터)	-0.702	0.417	2.834	0.495	0.219 ~ 1.122	0.092
	도서관	-0.264	0.433	0.373	0.768	0.329 ~ 1.793	0.541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0.196	0.454	0.187	0.822	0.338 ~ 2.000	0.665
	사립대학교	-1.867	0.479	15.175	0.155	0.060 ~ 0.396	0.000**
	민간기업	0.553	0.622	0.789	1.738	0.513 ~ 5.881	0.374
	인터넷동호회	-1.252	0.419	8.929	0.286	0.126 ~ 0.650	0.003*
	기타	-	-	40.732	-	-	0.000**
결성 시기별	2009년 이전	0.076	0.279	0.075	1.079	0.625 ~ 1.865	0.784
	2010년~2014년	0.109	0.225	0.234	1.115	0.718 ~ 1.731	0.628
	2015년~2016년	0.262	0.215	1.479	1.299	0.852 ~ 1.980	0.224
	2017년 이후	-	-	1.653	-	-	0.648
회원 규모별	소규모	-0.585	0.335	3.060	0.557	0.289 ~ 1.073	0.080
	중규모	-0.529	0.323	2.689	0.589	0.313 ~ 1.109	0.101
	대규모	-	-	3.125	-	-	0.210
예산 규모별	소규모	-0.829	0.479	2.989	0.436	0.171 ~ 1.117	0.084
	중규모	-0.801	0.467	2.950	0.449	0.180 ~ 1.120	0.086
	대규모	-	-	3.064	-	-	0.216

* P < 0.05 ** P < 0.01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실태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현재 강사/전문가 활용하는 집단($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현재 강사/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동아리(동호회)는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강사/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강사/전문가의 지원으로 인한 지출 경비 절감 측면과 더불어 강사/전문가 활용에 따른 긍정적 학습 경험이라는 측면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표 IV-6-11〉 운영 실태와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성		B	S.E	Wals	Exp(B)	95% CI	유의확률
회비납부 회원유무	있음	-0.196	0.166	1.401	0.822	0.594 ~ 1.137	0.237
	없음	-	-	-	1.000	-	-
강사/ 전문가 활용유무	있음	0.705	0.161	19.301	2.024	1.478 ~ 2.773	0.000**
	없음	-	-	-	1.000	-	-
주 활동 유형별	공연	0.088	0.325	0.073	1.092	0.577 ~ 2.065	0.788
	강좌	0.172	0.340	0.255	1.188	0.609 ~ 2.315	0.613
	참여	-0.156	0.382	0.166	0.856	0.405 ~ 1.809	0.684
	기타	-	-	1.600	1.000	-	0.659

* $P < 0.05$ ** $P < 0.01$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의 운영방향 인식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중점운영방향별 모든 집단($p < 0.01$), 내부 활동 활성화 및 외부 활동 활성화별로 각각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집단($p <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함.
-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세부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내부 활동만 중시하는 경우와 외부 활동만 중시하는 동아리(동호회)는 오히려 교육 지원 사업의 참여의사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현재 내부활동(교육, 훈련, 체험 등)과 외부활동(공연, 전시, 발표 등) 모두 타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동아리(동호회)가 높은 참여의향을 드러내고 있어 교육을 통한 질적 성장에 대한 내재된 욕구가 큰 것으로 드러남.

〈표 IV-6-12〉 운영방향 인식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참여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성		B	S.E	Wals	Exp(B)	95% CI	유의확률
중점운영 방향별	내부 활동	-0.730	0.183	15.845	0.482	0.337 ~ 0.690	0.000**
	외부 활동	-0.551	0.201	7.535	0.576	0.389 ~ 0.854	0.006**
	내부+외부 활동	-	-	18.741	1.000	-	0.000**
내부활동 활성화	활발	0.288	0.281	1.045	1.333	0.768 ~ 2.314	0.307
	양호	-0.196	0.269	0.529	0.822	0.485 ~ 1.393	0.467
	미흡	-	-	7.551	1.000	-	0.023*
외부활동 활성화	활발	0.319	0.236	1.829	1.376	0.866 ~ 2.184	0.176
	양호	-0.152	0.209	0.525	0.859	0.570 ~ 1.295	0.469
	미흡	-	-	6.208	1.000	-	0.045*

* P < 0.05 ** P < 0.01

-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대상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적 참여 결정을 하는 집단/계층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IV-6-13〉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대상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적 참여 결정을 하는 집단/계층

변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계층 中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계층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계층
일반 특성	지역권역별	강원/제주권	-
	소속유형별	기타(미디어센터, 50플러스센터)	사립대학교, 인터넷동호회
운영 실태	현 강사/전문가 활용유무	강사/전문가 활용하고 있는 집단	-
운영 방향 인식	중점운영방향별	내부+외부 활동 병행	내부 활동 중심, 외부 활동 중심
	내부활동 활성화	타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미흡한 집단	-
	외부활동 활성화	타 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미흡한 집단	-

V.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1.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과제
3.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체계

1.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 4대 기본 방향 : 시민성, 자발성, 공동체성, 자생성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을 4가지로 설정함

- 첫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주체는 시민이며, 시민의 범위는 청소년에서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나 일반시민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는 활동의 주체임.
- 둘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동기는 자발성이며,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 셋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과정은 공동체성이며, 개인에서 집단/공동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감.
- 넷째, 문화예술 동아리의 참여 목적은 자생성이며, 자기 주체성을 갖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개인에서 집단/공동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

〈그림 V-1-1〉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교육지원을 위한 4대 기본방향



○ 기본 방향 ① 참여 주체자로서 시민성(Citizenship) 추구

- 문화예술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됨. 즉 활동 주체가 시민이며 시민이 주도하여 참여하는 활동임.
-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갈등,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연계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풀뿌리 시민조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자원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동아리는 리더와 임원을 비롯해 모든 참여자들이 학습자이자 교수자로서 참여자들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수평적·평등적 관계임.
- 시민에는 청소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청소년은 학교에서 교육과정(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및 비교육과정(방과후학교, 동아리 등)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됨.

○ 기본 방향 ② 참여 동기로서 자발성(Spontaneity) 추구

- 문화예술 동아리는 모든 참여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
- 이에 따라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은 동아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동아리의 자생성을 훼손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간접지원은 인적 지원(예술가, 코디네이터 등), 공간 지원(연습공간, 전시회, 발표회 등), 물적 지원(장비 대여 등), 기술 지원(제작 및 전시발표 관련 기술 스텝 등)을 기반으로 예술 전문성과 문화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기본 방향 ③ 참여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성(Community) 추구

- 문화예술 동아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경험, 역량, 관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철학이 필요하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인 대화를 통해 배움과 학습과정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은 개인 간에 협동학습과정을 통해 상호작용과 발전이 가능함.
-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는 활동 결과로서 창작 및 실연, 전시 발표 등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부터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처럼 문화예술 동아리는 개인, 공동체, 지식, 지역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생산적 특성을 통해 배움의 모임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모임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
-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공동체가 약 6천여 개가 존재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동네에서 만들어진 소모임이나 스터디 모임 등 동아리의 조직이나 성격이 모호했던

것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서로의 재능을 나누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음.

○ 기본 방향 ④ 참여 목적으로서 자생성(Independent) 추구

- 문화예술 동아리는 생활문화예술의 기초단위이자 지역 문화공동체의 기본 동력으로서 지역의 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문화예술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체험’과 ‘학습’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행사참여, 사회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다시 동아리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전문적인 역량 향상을 통해 발전을 이끌어 내기도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추구함.
- 반면에 모든 동아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한 동안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침체되거나 비활성화되기도 함. 이는 동아리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없거나 정기적인 모임이 아닌 비정기적인 모임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참여자들 간에 관계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침체되거나 해산되기도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비슷한 영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과 공동 활동을 하거나 동아리 연합회를 조직하는 등 문화예술 동아리들 간에 교류활동도 자생성을 증가시킴.
- 따라서 문화예술 동아리가 ‘친목 모임’ 내지 ‘기능향상 배움’에만 머물지 않고, 자생적으로 운영 유지되고,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지원이 필요함.

□ 추진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년 제정)

-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

- (제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제7조) “(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

- (제4조) “(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를 가진다.”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와 같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문화기본권리(문화권)로 정의하였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67번)(2017년)

- <국정과제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과제목표)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실천과제)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에 포함됨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2018년 1월)

- (추진전략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 (추진과제) 자발적·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세부 추진과제)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시민예술가로 양성
 - 각 지역의 문화자원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기획, 운영
 - 동아리(동호회) 교류·활동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문화 확산

□ 추진 목표

○ 지역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지역에서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예술, 생활예술, 지역문화예술교육 등 다수의 추진 정책과 사업의 중첩화로 개념 간 정체성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은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 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 과정별 정책 영역 간 연계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자들의 효과도 개인에서부터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로까지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22>의 정책방향에서도 “지역 분권화”를 통해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융합과 확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외에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영역과의 융합·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예술 교육(창의성, 공감력, 표현력), 미디어 교육(시민성, 공동체성), 문화재 교육(정체성), 문화 교육(문화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인문 교육(자존감, 성찰력) 등

- 따라서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문체부와 지자체의 매칭예산으로 추진되는 전달체계 관점을 고려할 경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동아리/동호회 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원(구 생활문화진흥원) 등에서 진행하는 생활문화동호회사업과의 차별성 및 정체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관점에서 사업지원 체계의 정립화가 필요함.

○ 수요자 중심, 간접 지원, 질적 가치 제고, 생활문화로 확산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패러다임이 “공급관점에서 수요기반으로,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가치 제고로, 예술장르중심에서 생활문화의 확산”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도 이에 맞게 고려되어야 함.
-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자생성을 목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아리/동호회의 특성상 운영비, 강사비 등의 직접지원보다는 활동공간 및 발표무대 지원, 마스터클래스 또는 고급수준의 전문가 특강, 온라인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오프라인 교류 활성화, 창작실연을 위한 제반 역량과정(기획, 홍보, 기술, 장비) 지원, 활동사례 중심의 성과공유회 등과 같이 간접지원을 통해 문화활동의 참여 과정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필요함.

○ 성장단계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는 친목과 상호교류를 위한 모임이 아닌 문화로서 예술 활동을 통한 참여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급부터 고급까지 동아리 수준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함.
- 특히 문화향유 경험이 없는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동아리/동호회는 ‘문화향유 및 문화교육’의 단계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은 지속적으로 자생적인 동아리/동호회를 발굴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동아리가 전문적인 예술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 지역사회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등 신진 문화예술교육단체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연계지원정책도 필요함.
- 이는 청년 및 중장년들에게 예술적 취미활동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가(업/業)로서 직업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임.

2.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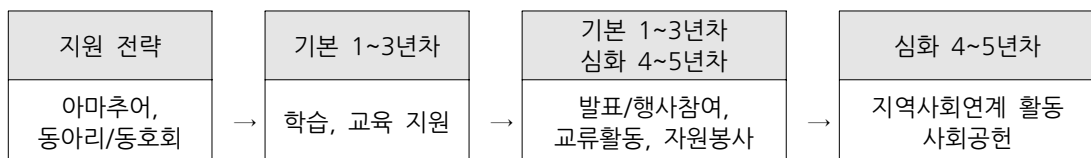
□ 추진 전략

○ 문화예술 동아리의 지속발전을 위한 유형별·수준별·연차별 지원 전략이 필요함

-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문화예술 동아리는 ①감상(관람·강연)→②배움(학습·교육)→③아마추어 활동(동아리·발표)→④적극적인 활용·참여(대외활동·봉사)→⑤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경제활동(동아리 강사·시민문화예술교육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으로까지 확대 발전할 수 있음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전략이 필요함.

참여 주체별	활동 유형별	예술적 수준별	운영 방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동아리 * 예술가/전문가 * 동아리 코디네이터 * 사업 행정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계발형 * 문화나눔형 * 사회공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6개월) 동아리 * 중급(1~2년) 동아리 * 고급(3년이상)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체형 * 예술가/강사형

- 동아리의 참여 주체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이 매우 중요함. 특히 동아리의 결성시기에 따라 지원범위가 상이함으로 지원전략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아리의 결성시기가 짧아 단기 활동(1~3년차)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전략
 - 실연 및 창작 활동분야: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및 마스터교육
 - 전시 및 공연 활동분야: 관련 기술, 제작·스텝, 기획·홍보 등을 위한 기본교육 및 마스터교육
- 동아리의 결성시기가 길어 중장기 활동(4~5년차 이상)에 따른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전략
 - 실연(전시/공연) 및 창작 활동분야: 행사참여, 교류 및 합동발표, 자원봉사, 지역사회 연계활동, 사회공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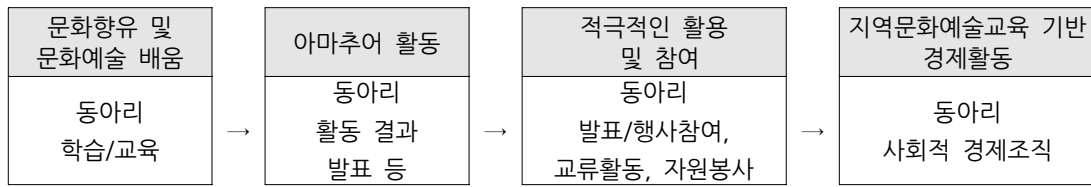
○ 주체별·유형별·수준별·운영방식별 맞춤형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추진 전략

- 참여 주체별 맞춤 지원

- (1) 문화예술 동아리: 예술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2) 예술가/전문가: 현장기반 전문 예술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전문가 연계지원
 - (3) 동아리 코디네이터: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및 활동 모니터링, 우수 문화예술 동아리 발굴 및 지속 운영과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
 - (4) 사업담당자: 사업운영 관리 및 행정지원
- 활동 유형별 맞춤 지원
- (1) 자기계발형(학습과 발표 중심 활동): 예술 활동 및 관련 활동 지원
 - (2) 문화나눔형(일반시민, 지역주민과의 공유 활동): 행사참여 및 교류활동 지원
 - (3) 사회공헌형(자원봉사, 사회공헌 중심 활동): 지역문화공동체로서 봉사활동 지원
- 예술적 수준별 맞춤 지원
- (1) 신생(6개월 미만) 동아리(초급수준): 예술성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중심
 - (2) 활동(1년~2년) 중인 동아리(중급수준): 예술성 향상 및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마스터)교육 중심
 - (3) 활동(3년 이상) 중인 동아리(고급수준): 지역공동체성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연계·응용교육 중심
- 지자체 운영 방식별 맞춤 지원
- (1) 예술단체형: 동아리에 대한 예술단체의 교육지원에 따라 매개자 교육 및 교류활동 지원
 - (2) 예술가/강사 파견형: 동아리에 대한 예술가/강사의 교육지원에 따라 예술적 전문성 및 교육방법 역량강화 교육지원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발전적 확장 모델 개발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의 범위가 확장·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간 연계추진이 필요함. 예컨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2~3년간 교육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해 지역문화진흥원은 기존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 활성화 지원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함.



- (동아리 강사)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참여자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될 경우, 기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과 다른 형태로 역할이 가능함
· 예컨대, 타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동호회, 문예회관의 우리 동네 예능인 프로젝트 등 지역에서 문화예술 동아리 강사로 활동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또한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교육지원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로서 육성함으로써 기획·평가·건설링까지 가능한 지역 전문가로서 발전이 가능함
- (시민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동아리가 지속적인 학습과 배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가면서 성장 및 발전하게 될 때, 활동수준이나 범위가 넓어지면 동아리의 조직 형태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민문화예술단체’로 확장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전문성, 지역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행사참여, 교육활동, 사회공헌 등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체적인 역량으로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전환도 가능함

2.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과제

1.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역점을 둔 후방 협력지원 체계 마련

○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후방지원 체계 구축

-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의 직접 지원은 문화예술 동아리에게 많은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며,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동아리 활동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고의 ‘직접 지원’보다는 다양한 ‘간접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의 문화예술 매개기관 또는 매개자를 통해 교육 지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콘텐츠나 인력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동아리가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중앙의 경우, ‘부서간 및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과’와 ‘지역문화정책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의 경우, 그 실행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이므로,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있어야만 지역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 내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교육과’와 ‘지역문화정책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실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필요.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업무 분장을 통해 사업의 중복을 지양하고, 공동 사업기획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포함한 지역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협력관계 구축) 단기적으로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사업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콘텐츠 및 인력 지원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에 지역문화진흥원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사업 실행 단계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 이 과정에서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장 및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 구성

- (각 지역에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의 발족) 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동아리 지원 사업과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협의체는 독립적인 민간 조직으로) 협의체는 일본 요코하마의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 협의회’와 ‘아트 커미션 요코하마’와 같이 지역 문화재단에서 설립하나 독립적인 민간 조직의 형태로 하여, 지역 문화재단과 동아리 간의 힘의 관계 배분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함.
- (지역 상황에 맞는 간접 지원 수행)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기획하되,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콘텐츠, 인력, 교육, 물품, 공간, 교류 지원 등 간접 지원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함.
- (우산형의 느슨한 중앙 지원 구조 구축) 중앙은 영국 ‘메이킹뮤직(Making Music)’의 ‘우산형 조직(umbrella body)’와 같은 느슨한 관리 구조를 구축하여 지원에 있어서의 팔길이 원칙을 지킴. 중앙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을 포함,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가 필요로 할 지원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함.
- (정성적 사업평가 방식 구축을 통한 동아리 자율성 보호) 기존의 직접 경비 지원 방식은 정량적 성과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아리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간접 지원의 경우 정량적 성과평가보다는 각 지역 동아리의 요구를 얼마나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정성적 성과평가 방법을 개발함.

2.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과 활동 지원 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를 활용한 간접 지원 시스템의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맥락과 특징을 잘 이해하는 지역문화 전문 매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들을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 생활문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지역문화재단과 동아리 사이를 매개) 또한 앞서 살펴본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아리 대표가 직접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동아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를 지역 문화재단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도 담당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과 동아리 사이를 매개할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역할)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는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의 애로점이나 요구를 수시로 수집하고, 중앙 또는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동아리에게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 또한 관련 행정처리 업무를 대행하여 동아리와 지역문화재단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 아울러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와 생활문화 정책 사업 개발에 참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기획하도록 함.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충북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을 비롯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성된 지역문화 매개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문화시설에 배치되고 있으며 생활문화 관련 분야에서는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음. 지역문화진흥원의 경우,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의 배치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그 수도 매우 적어 지속적인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임.
- (광역 자치단체 문화재단 주도로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활문화 지원 정책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각 광역 자치단체 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이들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함.
- (중앙의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 지원) 중앙은 광역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의 비용 및 콘텐츠, 인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교육, 콘텐츠, 인력 지원)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도하고, 양성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인력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역문화 맥락의 이해, 연계 방안,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등 활동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동아리의 기량 향상 방법, 교수법 등 교육과 예술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 (기존의 예술강사 및 개별 활동가 재교육하여 생활문화 매개자로 활용) 현재의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매개자들은 짧은 경력으로 단기적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 지역의 맥락과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강사’나 ‘개별 활동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주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 예술 활동에 특화된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로 활동하도록 함. 또한 이후 양성된 매개자들을 이끄는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함.

○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내에서 동아리 지원 매개자를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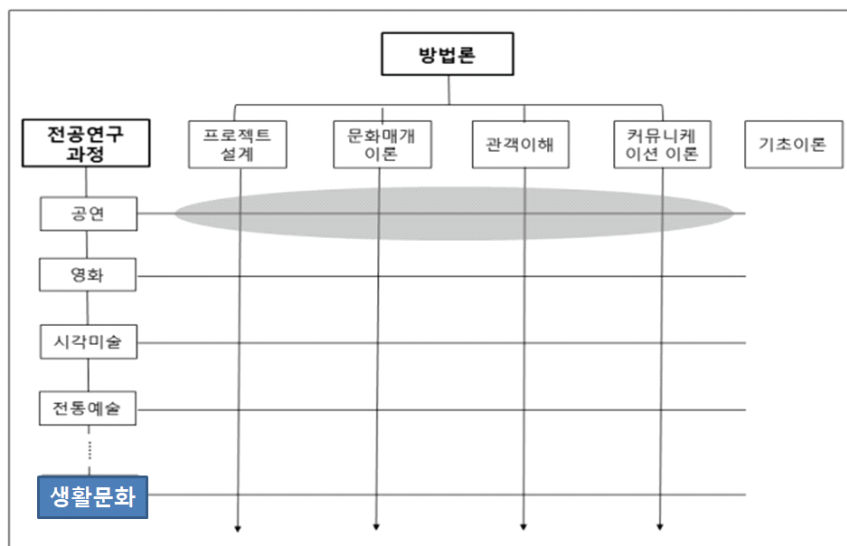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아리의 자율성과 개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내에서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매개자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문화활동을 하는 시민들 중 시민디렉터를 선출하고, 이들이 시민예술촌을 운영하고 직접 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함.
-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동아리 내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 협의체를 주도하고 문화예술 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역 생활문화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강윤주·심보선(2013)이 생활예술공동체의 매개역할을 하는 인천의 〈문화바람〉 상근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예술활동 지원자’인 동시에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동호회 회원’이었음. 이러한 이들의 정체성은 내부의 신뢰감을 얻어 〈문화바람〉의 지속가능성과 회원들 간의 결속감 증가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회원 간의 사회자본 결속에 기여하고 보이지 않은 리더십의 작용으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부와의 네트워킹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함.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매개자는 동아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과 확대,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활동 지원체계 구축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고용 보장)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은 상당 수가 단기 계약직으로 중앙의 인건비 지원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있음. 지속적인 매개자 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의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중앙과 지역의 예산 매칭)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매개자 배치사업과 같이 중앙과 지역의 예산 매칭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인건비를 지원함. 지역의 예산 매칭을 연차가 쌓일수록 늘어가도록 하여 지역의 매개자 활용도를 높이도록 유도함.
- (동아리 수시 방문 의무화 및 활동비 지원) 충북문화재단 사례와 같이, 매개자는 수시로 지역 동아리를 방문하고 동아리의 상황파악 및 요구를 수렴함. 방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고, 동아리에 필요한 지원은 매개자를 통하여 제공되도록 함.

- 한편, 민지은·지영호(2016)는 문화매개자 양성과정을 매트릭스 구조로 표현하여 개발하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세로축에는 공연, 영화, 시각미술, 전통예술 등 예술 장르가 나열되어 있고, 가로축은 프로젝트 설계, 관객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문화매개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과 연계된 교육들을 나열하고 상호 융합을 추구함.
- 생활문화 매개자는 세로축의 예술 장르 하위에 항목을 추가하여 생활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프로젝트 설계, 관객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문화매개활동에 대한 지식을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V-2-1〉 생활문화 문화매개자양성을 위한 매트릭스 교육모형



3.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 및 홍보

- 동아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역 공간정보 조사 및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의 지원에 대한 요구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는 연습 및 발표 공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 언급된 ‘문화자원지도’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중앙은 각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을 통해 지역의 공간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통합, 정리한 웹사이트를 구축함. 정보 조사 및 웹사이트 구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하며,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하여 문화의집, 문화원, 지역의 유희공간을 포함.

- 공간이 필요한 동아리는 구축된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공간 대여 및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실시. 행정적인 처리는 매개자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이 추진함.

○ 장기적으로 시민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간으로

- 장기적으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과 같이 지역주민이 직접 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참여, 문화공간이 문화예술 동아리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경기문화재단이나 용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플리마켓’과 같이,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이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직접 만든 결과물과 소품들을 전시/체험 및 판매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이 직접 셀러가 되거나 갤러리 도슨트도 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잡음.

○ 사회공헌 활동 기회 연계 및 정보 제공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확장하여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를 위해 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정보를 정보 공유 웹사이트 내에 마련함.
-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또한 지역의 생활문화 매개자와 사회복지사와 연계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함.

○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홍보를 통한 활용도 높이기

- 성남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문화예술 동아리 사이에서 이 웹사이트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활용도도 매우 낮은 상황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홍보에 대한 예산도 같이 편성하여 웹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웹사이트 홍보에 대한 업무 진행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협조로 진행하도록 함.
- 특히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대상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매개자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의 웹사이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종합정보시스템 DB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의 매칭예산 사업으로 전국으로 범위

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중앙-지방 정부차원에서 정책 콘트롤 타워로서 총괄 기획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국에서 수행되는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집 및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문화예술 동아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아리에서 자체적인 결과 발표회나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영상 등 아카이빙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보뱅크를 구축·운영하게 되면, 지자체 및 지역운영기관의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거나 매개자(예술가/강사, 사업운영담당자, 코디네이터 등)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함.

4. 동아리 교육 지원을 위한 인력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동아리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문화예술 동아리 협의체와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적,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기량 강화 커리큘럼을 개발함.
- 앞서 제안한 온라인 웹사이트에 교육 프로그램 메뉴를 추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함. 또한 웹사이트 내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교육 신청도 ONE-STOP으로 가능하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강사비 및 재료비, 공간임대료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부담하고, 관련한 행정 처리는 지역의 생활문화 매개자를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 동아리 담당자가 행적적 부담없이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생활문화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 전국의 문화예술 동아리는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육 가능한 내용들이 있음. 대부분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의 특성상 지리적, 시간적 한계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이 큰 편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동아리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영국의 ‘자발적 예술’의 경우 Cultural Guides, Briefing 등을 통해 동아리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툴킷 등으로 제공하고 있음.

- 많은 동아리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동아리 운영, 마케팅 등의 내용을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 업로드. 보도자료 쓰는 법, 저작권 문제, 마케팅 방법, 기획서 쓰는 법, 회계감사 받는 법, 기부금 처리 및 정산 등의 프로그램도 수요가 높음.
- 필요하면 대학의 오픈 코스웨어(open course ware) 등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동아리를 위한 인력풀 공유 플랫폼 구축

- 동아리가 기량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지원을 원할 경우, 지역 내에서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를 제공하도록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각 지역의 예술강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웹사이트 사용자가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게 함.
- 또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사례들을 꾸준히 웹진 형식으로 올림으로써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예산 편성 및 행정 처리는 지역 생활문 과매개자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동아리의 행정 부담을 경감

○ 문화예술 동아리 사례 발굴 및 소개

- 문화예술 동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기술이 요구되나 이 분야의 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발표회 개최, 후원을 받는 방법, 동아리 홍보 등 단체의 운영 부분의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매생이’를 비롯하여 해외의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이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예술 정보, 공간 정보,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등의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정보의 양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동아리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동아리의 운영 사례로,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소개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 동아리 간의 상호배움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동아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확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의 발표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의 발표 기회 제공
- 전국 문화제와 지역권별 문화제로 나누어서 진행, 지역민의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인지 확대와 접근성을 높임.
- 장기적으로 전국생활문화축제의 기획과정에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를 참여시켜 지역의 맥락과 지역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국생활문화축제 내 문화예술 동아리 홍보 부스 제공, 동아리 홍보와 신입회원 모집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 동아리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지속적인 사례 개발을 통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 지역문화진흥원 주도로 전국 문화예술 동아리 중 우수 활동 사례의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언론을 통해 꾸준히 홍보 활동을 진행.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시도함.
- 영국의 ‘자발적 예술’의 경우 Everyday Creative, Get Creative를 통해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함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꾸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제공.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국민적지지 기반을 확보함.

○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동기 부여를 위한 홍보 활동 진행

- 활동 기간이 짧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나, 많은 동아리들은 타 동아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임.
- 문화예술 동아리 간 네트워크 성공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 및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동아리의 인식을 개선. 또한 동아리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적 기반을 공고히 함.
- 예컨대, 경기문화재단은 지역 내 문화소외 시설 및 기관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생활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예술단을 구성하여 순회파견사업을 실시함.

3. 문화예술 동아리 교육지원 활성화 추진 체계

- 문화예술 동아리의 자생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업을 이루어야만 지속가능한 활성화가 가능
-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추진체계를 제안하며 각 이해관계자 간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하는 바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 ‘문화예술교육과’와 ‘지역문화정책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통보
 -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및 정산관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의 운영 지원(문체부-지자체-교육진흥원-지역운영기관)
 - 정성적 사업평가 방식 구축
 - 동아리 활동 참여자 만족도조사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사례 발굴 및 소개
-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진흥원’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 지원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인력 지원
 - 동아리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 동아리를 위한 인력풀 공유 플랫폼 구축
 -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 및 홍보

-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참여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보조금 마련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중앙 지원금과의 매칭을 통한 생활문화 매개자 인건비 지원
-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협력

○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 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 구성
- 지역 상황에 맞는 간접 지원 세부계획 수립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활동 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예술강사 및 개별 활동가 재교육하여 생활문화 매개자로 활용
- 사업비 집행 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관리 주관
- 사업 운영·관리현황 및 결과 공유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협의체의 역할

- 정기적으로 모임 구성. 문화예술 동아리 의견 수렴

○ 지역 생활문화 매개자의 역할

-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 생활문화 현장의 요구를 수렴
- 지역문화재단과 동아리 사이를 매개
- 동아리 수시 방문 및 의견 수렴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운주(2014) 생활문화예술의 의미 :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강운주 외(2017). 『생활예술 : 삶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바꾸는 삶』. 서울 : 살림.
- 강운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경제와사회, 100, 335-373.
- 경기문화재단(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 틀 연구.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2017).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동호회 공모 공고.
- 경기연구원(2017). 경기도 생활문화지원 및 육성 정책방향.
- 대구문화재단(2017). 생활문화활성화지원 사업 세부내용.
- 문화체육관광부(2012). 전국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생활문화동호회축제 디렉토리북. 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2016a).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6b).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민지은·지영호 (2016).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의 개념과 양성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37, 185-210.
- 부산문화재단(2017).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전략컨설팅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박영정(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백선희·라도삼·조운정(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34.
서울 : 서울연구원.
- 백선희(201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특성과 정책제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34. 서울 : 서울연구원.
- 서울문화재단(2014a).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2014b).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서울문화

재단.

서울문화재단(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2017). 생활예술매개자(FA) 모집공고문.

심보선·강윤주(2010).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7, pp. 134-171.

안성아(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윤소영(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천문화재단(2017). 시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 자료집.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2012).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2016). 2016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 : 사람이 문화를 만든다.

지역문화진흥원(2018). 2017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충북문화재단(2017).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공고문.

채은석(2016). 한국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현황.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세종문화회관.

포항문화재단(2017). 동아리, 전문예술가 지원 사업 모집공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지역 기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문화예술교육 효과지표 구축 기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원 실태조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2015).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평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6). Results from the Annual Arts Basic Survey : 2013-2015.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부록

2017년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연구 조사 설문지

2017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연구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ID

2017 문화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연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7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 교육지원 사업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사업 진행에 앞서 동아리(동호회) 운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수렴하여 동아리(동호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 조사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사수행 : ㈜메이븐스퀘어 김명희, 강민구 연구원

TEL : 02) 3288 - 6777, FAX : 02-3288-6778

귀하의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가 속해 있는 유형에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 | | | |
|-----------|-------------|-------------|--------------|
| 1. 지역문화재단 | 2. 주민자치센터 | 3. 생활문화센터 | 4. 평생학습관(센터) |
| 5. 도서관 | 6. 지방문화원 | 7. 문화의 집 | 8. 사립대학교 |
| 9. 민간기업 | 10. 사립 박물관 | 11. 사립 미술관 | 12. 인터넷동호회 |
| 13. 미디어센터 | 14. 50플러스센터 | 15. 기타_____ | |

A. 동아리(동호회) 운영현황

A1. 동아리(동호회) 관련 기본 사항 (아래 내용에 기재해 주십시오.)

동아리(동호회) 명칭	
동아리(동호회) 결성시기	년 월
동아리 주된 활동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A2. 동아리(동호회) 회원 모집은?

A2-1. 회원 모집 시기	1. 정기적인 기간에 모집 (→ 기간은? ①월별 ②분기별 ③반기별 ④연별 ⑤기타(____))	
	2. 비정기적/수시로 모집	
A2-2. 회원 가입 시 자격 요건	1.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 2. 일정한 자격요건 요구 (추가질문→) 3. 엄격한 자격요건 요구 (추가질문→)	(→구체적 자격요건은? ①실기 능력(기량, 애호도 등) ②기본 자질(태도, 취미 등) ③기타(____))
A2-3. 회원 모집 방법	1. 공개 모집 2. 기존 회원 및 지인의 추천 모집 3. 비공개 모집 4. 기타()	

A3. 현재 동아리(동호회) 회원 구성과 인원은? (2017년 하반기 또는 11월 말 기준)

총 회원 수	전체	명	임원 수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전체	명
	남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여자	명

A4. 위의 총 회원 수 중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비중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전체 회원 중에서 주 활동 회원은 대략 _____ % 정도

A5. 회원 중에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습니까?

1.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2. 부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3. 정기적+부정기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있다.
4. 둘다 모두 없다.

A6. 2017년 한 해 동안의 총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300만원
3. 300만원~500만원
4. 500만원~1,000만원
5. 1,000만원~2,000만원
6. 2,000만원~3,000만원
7. 3,000만원~4,000만원
8. 4,000만원~5,000만원
9. 5,000만원 이상
10. 없다.

A7. 귀하의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가 있습니까?

1. 있다. → A7-1로 이동
2. 없다. → A7-5로 이동

A7-1. (강사가 있는 경우) 도움을 주는 강사나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6명
7. 7명
8. 8명
9. 9명
10. 10명 이상

A7-2. (강사가 있는 경우) 강사나 전문가는 동아리(동호회) 회원분이신가요 아니면 동아리(동호회) 외부분이신가요?

1. 동아리(동호회) 회원
2. 외부 강사/전문가
3. 동아리(동호회) 회원 + 외부 강사/전문가

A7-3. (강사가 있는 경우) 강사나 전문가는 어떤 방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1. 회원의 추천으로
2.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에서 교육 받은 강사 소개
3. 지역의 예술가 소개 혹은 공모
4. 기타 (내용 기재. _____)

**A7-4. (강사가 있는 경우) 강사나 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 성별과 연령대
2. 학력
3. 경력
4. 거주지 및 주 활동지역
5. 주변 평판
6. 기타 (해당 난에 기록)

A7-5. (강사가 있는 경우) 강사의 사례비는 시간당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1. 3만 원 미만 2. 3만 원~5만 원 3. 5만 원~10만 원 4. 10만 원~20만 원
5. 20만 원~30만 원 6. 30만 원~40만 원 7. 40만 원~50만 원 8. 50만 원 이상

A7-6. (강사가 없는 경우)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강사 의존도가 높아져 자발성 저하 우려 2. 동아리(동호회)의 설립 및 활동 목적과 맞지 않음
3. 강사 및 전문가 비용의 부담 4. 동아리(동호회) 모임 시간과 맞지 않음
5. 회원 간 실력차이가 커서 수업진행의 어려움
6. 기타(내용 기재. _____)

B. 동아리(동호회) 활동현황

B1. 귀하의 동아리(동호회) 활동 분야나 장르는 무엇입니까? 아래 해당 사항에 체크한 후 구체적인 분야를 기재해 주십시오.

분야/장르	내용 예시	구체적 분야 (기재)
1. 문학	소설, 시, 희곡, 평론 등의 창작 활동	
2. 미술	서예, 서양화, 동양화, 사군자, 스텐실, 디자인, 회화, 캘리그래피 등	
3. 음악	합창, 오케스트라, 노래교실, 악기연주 등	
4.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리댄스, 방송댄스, 라틴댄스, 브레이크댄스 등	
5. 연극	연극, 인형극, 뮤지컬 등	
6. 영화	영화제작, 영화이론 및 비평,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7. 사진	사진촬영 등	
8. 공예	도예, 한지공예, 리본공예, 목공예, 종이접기 등	
9. 전통예술	국악, 마당극, 풍물, 민속악, 민속무용 등	
10. 기타		

B1-1. 위의 활동 분야나 장르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십니까?

1. 공연 전시·창작 제작 등의 생산 2. 강좌 강습 등의 교육
3. 참여 관람 등의 체험 4. 기타(내용 기재. _____)

B2.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

B2-1. (B2의 1.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마련된 운영비의 주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된 재원 순으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B2. 운영비 유형	B2-1. 재원 순위
1. 정기적인 회비 납부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2. 비정기적 회비 납부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등)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3. 강습비 중 일부 운영비로 활용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4. 기부금 (회원, 지인 개인이나 단체 등)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5. 민간 기업 지원금 (기업 자체 지원 등)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6. 공공 지원금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7. 기타 (내용 기재. _____)	1. 해당 2. 해당없음	순위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려해서 작성해 주십시오.(12월 한 달간은 추정치를 적용)

B3.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위한 지출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 표해 주십시오.

1. 공간 임대료 2. 장비 임대료 3. 강사비 4. 공연/전시 사례비
5. 교통비 6. 기타(내용 기재. _____)

B3-1. (B3의 3. 강사비에 체크한 경우에만) 2017년 한 해 동안의 총 지출경비를 100%라고 할 때, 강사비의 비중은 몇 %나 되는지요.

전체 지출에서 강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_____% 정도

C. 동아리(동호회) 교육 지원 관련 욕구

C1. 귀하가 현재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C1-1. 현재의 만족도를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한 경우 선택 보기]

11. 공동체간 관계인식에 도움 12. 개인의 삶의 질 향상
13. 전문성 습득에 도움 14. 정기적인 발표 등 자존감에 도움
15. 지역사회에 도움 16. 기타 (내용 기재. _____)

[불만족한 경우 선택 보기]

21. 전문성 향상의 부족함 22. 경연, 축제 등의 참석에 대한 부담
23. 장비 및 공간 임대 등의 지출 부담 24. 정기적인 연습공간의 부족
25. 대외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부족 26. 실력향상에 대한 부담감
27. 기타 (내용 기재. _____)

C2. 귀하의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는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A : 우리 동아리(동호회) 회원들은 기량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활동(교육, 훈련, 체험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B : 우리 동아리(동호회) 회원들은 기량이나 역량을

주변 이웃과 나누고자 외부 활동(공연, 전시, 발표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1. A

2. B

3. A+B 병행

C2-1. 귀하의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는 현재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내부 활동(교육, 훈련, 체험 등) 측면과 외부 활동(공연, 전시, 발표 등) 측면으로 나누어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C2-1-1. 내부 활동(교육, 훈련, 체험 등) 측면에서의 활성화 정도는?

1.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
2.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
3.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한 편

C2-1-2. 외부 활동(공연, 전시, 발표 등) 측면에서의 활성화 정도는?

1.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더 활발하게 활동
2.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
3. 다른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에 비해 활동이 다소 미흡한 편

C3. 문화예술동아리(동호회)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교육 지원 내용입니다.

귀하의 동아리(동호회) 입장에서 볼 때, 아래 교육 지원 내용별로 지원받고 싶은 정도에 ○표해 주십시오.

교육 지원 내용	C3. 지원 받고 싶은 정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해당 분야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기본교육	1	2	3	4	5
전문 문화예술인의 마스터클래스(상위) 교육	1	2	3	4	5
매개자 (동아리 동호회) 활동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등) 및 코디네이터 운영 (컨설턴트 역할)	1	2	3	4	5
운영 장비(조명, 음향, 기타 장비 등) 설치 및 운용방법 교육	1	2	3	4	5
홍보 기획서 작성 및 기부 행정 관련 교육 및 연수	1	2	3	4	5

C4. [해당 분야의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 회차 교육 지원]을 받을 경우 원하는 운영횟수는?

1회 차 당 교육 시간	1. 1시간	2. 2시간	3. 3시간	4. 3시간 초과	
연간 총 교육 회 차	1. 10회차	2. 15회차	3. 20회차	4. 30회차	5. 30회차 초과

C4-1. [해당 분야의 지역 예술인에 의한 다문화 교육 지원]을 받을 경우 원하는 강사의 수준은?

귀하의 동아리(동호회) 회원들에게 적합한 수준에 맞추어 강사 수준을 체크해 주십시오.

1. 기초(초급)과정 강의 2. 기초(초급)과정은 벗어난 강의 - 중급 초반 과정
3. 중급 과정 강의 4. 고급(심화) 과정으로 진입 과정 강의

C5. 귀하의 동아리(동호회)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 후에는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십니까?

교육지원의 기대 효과	C5. 기대 정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효과	1	2	3	4	5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효과	1	2	3	4	5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효과	1	2	3	4	5
공동체성 함양 (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1	2	3	4	5
삶의 활력 (만족도, 즐거움 등)	1	2	3	4	5

C6. 귀하의 동아리(동호회)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되십니까?

1.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2.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3. 보통
4. 약간 참여하고 싶다. 5. 꼭 참여하고 싶다.

C6-1. 참여의향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의향 있는 경우 선택 보기]

11. 강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완화 12. 동아리(동호회)의 예술적 기량 향상 기대
13. 동아리(동호회)의 운영 역량 강화 14. 공동체성 함양(소속감, 신뢰감, 친목, 의사소통 등)
15. 삶의 활력(만족도, 즐거움 등)
16. 기타(내용 기재. _____)

[참여의향 없는 경우 선택 보기]

21. 강사 주도에 따른 자발성 결여 22. 동아리(동호회) 전체가 아닌 개인학습형태 위주 우려
23.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 문제 24. 공동체성 함양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우려
25. 공공지원에 따른 의무참여 부담감 우려
26. 기타(내용 기재. _____)

설문 응답자 관련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성별	1. 남성 2. 여성
응답자 동아리(동호회) 직책		응답자 연령	만 세
*응답자 연락처	() - () - ()		

* 응답자 연락처는 본 설문 응답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수집되며 이후 즉시 폐기됩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